

욥기 연구

A Study On The Book Of Job

욥기 연구

A Study On The Book Of Job

Dr. Ken Blue 지음

김영균 옮김



도서출판 **킹제임스**
King James Publications

웁기 연구

A Study On The Book Of Job

©2015 by KingJames Publications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Seoul, Korea

발 행 처 | 도서출판 킹제임스

등록번호 | 1999.6.18. 제17-292호

초판발행 | 2015. 12. 1

지 은 이 | Dr. Ken Blue

옮 긴 이 | 김영균

디자인·편집 | 김화영

표지사진 | 안성식

주 소 | 서울시 구로구 구로5동 544-1 엘림빌딩 7층

전 화 | 0505-856-1997

홈페이지 | www.ilovekjb.com

■ ISBN 978-89-89741-82-4

■ 정가 13,000원

■ 파본은 바꾸어 드립니다.

서 문	10
〈옴기를 소개합니다〉	12
제1장 옴기1장	15
제2장 옴기2장	47
제3장 옴기3장	59
제4장 옴기4-5장	73
제5장 옴기6장	95
제6장 옴기7장	109
제7장 옴기8장	125
제8장 옴기9장	135
제9장 옴기10장	149
제10장 옴기11장	159
제11장 옴기12-14장	169
제12장 옴기15, 18, 20장	191
제13장 옴기16-17, 19, 21장	199
제14장 옴기22, 25장	217
제15장 옴기23, 24장	227

제16장 욕기26장	237
제17장 욕기27장	243
제18장 욕기28장	247
제19장 욕기29장	253
제20장 욕기30장	257
제21장 욕기31장	263
제22장 욕기32장	271
제23장 욕기33장	277
제24장 욕기34장	283
제25장 욕기35장	289
제26장 욕기36장	293
제27장 욕기37장	299
제28장 욕기38장	305
제29장 욕기39장	315
제30장 욕기40장	327
제31장 욕기41장	339
제32장 욕기42장	347

For we can do nothing against the truth,
but for the truth.
(2Corinthians 13:8)

우리는 진리를 대적하는 어떤 일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할 수 있노라.
(고린도후서 13:8)

이 책에 사용된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안에”에서
출간한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전서”입니다.

The Scripture quotations found herein are from
the text of the Korean King James Bible
published by InChristJesus Publications.

서 문

켄 블루(Ken Blue) 목사님께서 읊기라고 하는 신비스럽고 때론 이해하기 어려운 책에 대해 더 잘 알기를 원하는 진지한 성경학도를 위해 좋은 책을 내 주셨습니다.

물론 우리는 목사님께서 이 책에 제시한 깊이 있는 내용들은 완전히 다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장 힘든 고통을 겪어야만 했던 옛 성도 한 분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에 깊은 감명을 받게 되실 겁니다.

오랫동안 친구로서 목사님을 안 저로서는 그분의 정직함, 헌신, 그리고 도덕 수준 그리고 무엇보다도 구원받지 못한 세상에 대한 긍휼의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미드웨스턴 침례신학교를 졸업하고 알칸사스주에서 초기 사역을 하신 후 워싱턴주에 있는 린우드(Lynnwood)에 정착하셨습니다. 그때 이래로 주 예수 그리스도 복된 복음을 여러 지역에 확장 선포해 오고 계십니다. 그 결과로 제가 이 책을 추천할 기회를 얻게 된 셈입니다. 옛 대언자 읊기의 깊은 의미를 더 깊게 연구하도록 성도 모두에게 추천하는 바입니다.

다.

깊이 공부하시고 나면 여러분 인생은 풍요로워질 것이고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도록 지혜롭게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성경에 대해 여러분은 더욱더 사랑을 쏟게 되실 겁니다.

박사님 당신과 당신의 가족들을 하나님의 은혜에 의탁하며 계속해서 더욱더 주님을 섬기시기를 바라면서 주 안에서 형제요 친구 된 존 롤링스 드림(Dr. John Rowlings)

〈욥기를 소개합니다〉

욥기는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책입니다. 문학에서도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예언으로 보자면 이 책은 세상의 창건으로부터 새하늘과 새땅에 이르는 역사를 아우릅니다. 특별히 이 책은 이스라엘 민족의 고난이라는 마지막 날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욥기는 하늘들에서 매일 벌어지는 “싸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그 싸움들이 이 지상의 人間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책은 또한 하나님의 주권과, 사탄의 교활함 그리고 인간의 사고 체계를 보여줍니다.

욥은 “人間이 하나님을 섬겨야 할, 유일하고 받아들일 만한 동기는 그분은 선하시고 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땅에서 보자면 하나님께서는 멀리 계시고, 무관심하시고 인간사와 관련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보자면 그분은 이 땅의 모든 일을 지켜보고 계시며, 완전히 파악하고 계시고, 사랑과 동정심을 갖고 계시며 완전히 통제하고 계십니다.

욥기를 통해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그런 방식으로 다루고 계시는지는 알 수가 없음을 인정하게 됩니다. 개개인도 가족들도 친구들도 그분의 방식을 알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시는지는 우리의 감각으로는 알 수 없기에 오직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인간의 의로움은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떤 인간이 의롭지 못한 경우 사탄도 하나님도 그를 무시합니다. 그러나 사탄도

하나님도 욥과 같은 의로운 자는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의로울수록 사탄의 화살의 목표물이 되는 셈입니다.

하나님께서 마귀를 내버려두시면 의로움은 인간을 보호할 수 없습니다. 의롭고 신실하다고 해서 가족과 친구, 부, 건강, 혹은 하나님의 임재를 잃지 않지는 않습니다. 고난의 시기에 인간을 지탱해 주는 건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와 사랑에 대한 신뢰입니다.

욥기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입증하실 겁니다. 그분은 긍휼이 많으시고 선하시며 지혜로우십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분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그분을 신뢰해야 합니다. 모든 경우에서 인간은 정녕 그분을 필요로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최고의 인간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면 반드시 부서져야 한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는 자아가 끝장나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본질이 더러운 존재임을 알아야 합니다. 죄들을 고백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본질에 대한 인식이 중요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욥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또한 주께서 그리하시도록 우리를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분께서 그일을 시작하실 때 “나는 비천한 자입니다.”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도 바울이 자신의 본질을 가장 잘 묘사한 것 같습니다.

“나 역시 육체를 신뢰할 수도 있지만 그리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어떤 다른 사람이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자기에게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나는 여드레째 되는 날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의 줄기에 속한 자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요,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이요, 율법에 관하여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에 관한 한 교회를 핍박하였고 율법에 있는 의에 대해

여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이득이던 것들을 곧 그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손실로 여겼으며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뛰어나기 때문이라.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의 손실을 입고 그것들을 단지 배설물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율법에서 난 내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난 의를 소유한 채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이것은 내가 그분의 죽으심과 일치하게 되어 그분과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자 함이요, 어찌하든지 내가 죽은 자들의 부활에 도달하려 함이라. 나는 내가 이미 도달한 것처럼 말하지 아니하며 이미 완전한 것처럼 말하지도 아니하고 다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아 이루시고자 하신 그것을 붙잡으려고 뒤따라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내가 이미 붙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다만 이 한 가지 일을 행하나니 곧 뒤에 있는 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그것들에 도달하려고 나아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꾀대를 향해 밀고 나아가노라.” (빌 3:4-14)

제1장

욥기1장

사탄이 성도들을 만나다

욥은 실재했던 인물입니다. 욥기는 처음에 “어떤 한 사람이 있었다... (There was a man …)”라는 표현으로 시작됩니다. 이 책의 독특한 문체와 성격으로 볼 때 욥은 실제로 존재했던 인물이 아니라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신화 혹은 풍유로 만든 존 변연의 천로역경처럼 만든 책이 아니냐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욥이 실재하는 인물이었음을 의심할 여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즉 욥기의 기록이 실제로 일어났던 정확한 기록이라는 사실을 의심할 필요는 없다는 말이죠. 이스라엘의 열두지파 중 하나인 잇사갈 지파의 아들들 중에는 욥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있었는데 별칭거라는 학자는 그가 바로 욥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욥이라는 이름을 두 번 언급하는데 욥은 다니엘과 노아와 연

관되어서 언급됩니다. 따라서 욥이 실제 존재했다는 사실에 의문을 제기한다면 다니엘과 노아가 존재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던지는 것이고 나아가서 성경 자체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됩니다. 이와 같은 의문을 가지게 하는 것은 사탄의 계략입니다. 에스겔서와 조화를 이루면서 야고보서에서도 마찬가지로 욥은 실제로 존재했던 인물임을 야고보서 5:11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욥이 실재했던 인물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소위 하나님의 말씀의 신뢰도를 어떻게든 떨어뜨리려고 하는 성경 비평가들이 모여서 하는 일이 과연 정직한지에 대해 의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증언을 가지고 있고 이를 신뢰합니다.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욥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하도록 만드는 이유는 이 책에서 그 사탄의 계략과 사악함, 그리고 인간 욥을 파괴시키려다 실패한 사실을 폭로하기 때문입니다. 욥기에 보니 사탄은 주권자이신 하나님보다 열등하다는 사실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기서에서 다른 여러 가지 측면들을 상고해 볼 때 마귀가 욥을 공격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리고 욥에 관한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는 책에 대해서 결코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욥은 실제로 존재했던 인물입니다. 그는 BC 1800~1600년대에 살았던 사람으로, 성경에 보면 창세기 11장 정도의 지점에 위치합니다. 믿을 만한 한 자료에 따르면 BC 1967년 인류 역사의 초기에 욥이 존재했고 욥기는 그 때쯤 기록된 것으로 보입니다. 은사주의적 성향을 가진 데이크라는 사람은 그의 주석서에서 창세기 46:13에 등장하는 욥이 잇사갈의 아들이고 그가 바로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그 욥이라고 생각합니다. 데이크는 욥기의 사건이 BC 1845년경에 일어났고 이에 대한 기록은 BC 1843~1703년에 뒀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욥은 모세와 동시대 사람이라고 믿고 있죠.

우리는 성경에 언급되어 있지 ‘않은’ 내용을 통해서 욥이 어느 시대쯤에 살았을까를 배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욥기를 보면 율법에 대한 내용도 없고, 출애굽에 대한 언급도 없고, 유대인들의 종교의식이나 관습, 제사장 직분이나 명절, 금식, 안식일 그 밖에 모세의 율법에 명령된 내용들이 전혀 없는 것으로 봐서는 아마 율법 이전 시대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후라는 사람이 저자임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기다렸을 때 (이는 그들이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들은 침묵을 지키고 있었는데 더 이상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기 때문)” 이라고 합니다 (욥 32:16). 그러니까 엘리후가 자기 자신을 일인칭 (나)으로 언급하여 그 자신이 저자임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엘리후가 이 책의 저자라는 사실을 거부하는데 이는 욥기가 인류 역사의 초기에 기록되었음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시기에 책이 기록됐다는 사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질문인 고통의 신비에 대한 해답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욥기의 기록 연대가 인류 역사의 초기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면 욥이 실제 인물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회의론자들에게 치명상을 입히게 됩니다. 욥과 같은 인물이 고통을 당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다면,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자신을 계시하셨음이 틀림없기 때문이죠. 엘리후는 그 사건의 목격자요, 기록자입니다. 이 욥기서는 분명히 모세에게 전달되었고 그 후 모세는 이를 성경에 추가하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모세가 그 서문과 맺음말을 추가한 것이 아니냐고 주장합니다.

욥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입니다. “미움을 받는” 또는 “고통을 당하

는 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단어는 조금 억제된 표현이고 더 깊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즉 의로웠기 때문에 미움을 받았던 아벨처럼 욥 역시 그러하다는 뜻이죠. 욥의 의로움은 사탄으로서는 아주 짜증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의 의로움은 사탄의 반역을 폭로하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을 정당화해주었습니다. 욥의 고난은 이 책의 핵심을 차지합니다. 이 욥의 고난은 대환난 기간에 사탄의 손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겪게 될 고난과 미움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욥의 출생지는 우스라는 땅입니다. 이곳은 에돔 땅의 남쪽이며 아라비아의 서쪽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형제인 나홀에게는 여덟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은 후스와 부스였습니다. 그런데 이 우스라는 이름은 두 아들 중 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지어진 것이며 욥기 32:2에 보니 엘리후가 부스족의 바라겔의 아들로 나옵니다. 우스 땅은 에돔 땅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욥의 성품은 하나님에 의해 증언되고 있습니다. 욥기 1:8 “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깊이 살펴보았느냐? 그와 같이 완전하고 곧 바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멀리하는 자가 땅에 없느니라, 하시니라.” 욥은 죄가 하나도 없지는 않았지만, 그의 성품과 행실, 순전함을 생각해볼 때 그는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주 진지하고 간사함이 없었습니다.

그는 완전했을 뿐만 아니라 곧바르며 굽은 데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는데 있어서 올바르고 의로우며 온유했습니다. 욥과 같은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이와 같은 욥의 성품이 마귀와 악한 사람들을 기분 나쁘게 하죠.

예수님께서 나다니엘을 보셨을 때 그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을 보라. 그 속에서 간사함이 없도다!”(요 1:47) 우리 주님께서 나다나엘에게 타락한 성품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신 것은 아니며 그의 성품을 칭찬하고 계실 뿐입니다. 욥은 이와 똑같이 성품이 출중했고, 나다나엘처럼 하나님에 의해서 입증되었습니다.

욥은 완전하고 곧바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욥의 삶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잠언 9:10은 말씀합니다.

그가 지혜롭다는 것은 악을 멀리했다는 데서 살펴 볼 수 있습니다. 욥은 악을 발견하면, 그것을 내던지거나 그 악으로부터 돌이켰습니다. 그는 악으로부터 떠나거나 아니면 악을 치워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마귀가 욥을 눈여겨 볼 당시 욥의 성품은 우리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전혀 잘못이 없었습니다.

물론 욥의 의로움은 거둬난 결과는 아닙니다. 그는 성령에 의해서 중생하거나 거둬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그는 의로웠고 그 의로움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천거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중생이라는 것, 새로운 출생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 전까지는 불가능했습니다. 따라서 욥의 의는 자기 자신의 의입니다.

신약에서 그리스도인의 의는 선물로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의이고, 구약의 의는 자기 자신의 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약성경에는 ‘믿음(faith)’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옵니다. 한 번은 이스라엘 민족이 믿음이 없는 민족이라며 꾸중하실 때이고, 또 한 번은 하박국에서 “의인은 자기(his) 믿음으로 살리라.”고 말씀하실 때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를 인용하실 때에는 세 번을 인용하셨는데, 로마서 1:17에서, 갈라디아서 3:11에서, 히브리

서 10:38에서 인용하십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his’ 라는 단어가 빠져있습니다. 그 이유는 구약과 신약이 경륜이 바뀌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자기의 의였지만, 신약에서는 자신의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약에서는 ‘His’ 라는 단어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욥은 선행을 함으로써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여기서는 설명이 조금 필요합니다. 우리는 백부장이었던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에서 예를 찾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독실한 사람이라고 불렸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기도도 열심히 했고, 자신의 재산도 어려운 사람들에게 넉넉히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의 의로운 행실은 하나님 앞에 기억되었지만 그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었으며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의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는 그에 맞게 베드로를 그에게 보내심으로 반응을 하셨습니다.

왜 보내셨을까요? 그것은 사도행전 10:5과 11:14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을 욥바로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부르라. 그가 네게 말씀들을 전하리니 그 말씀들로 너와 네 온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음을 알리니라.” 고넬료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은혜라는 경륜의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들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욥의 의로움도 바로 고넬료와 같은 그런 종류의 의였습니다. 자기 자신의 믿음과 행위로부터 나온 그런 의였습니다.

욥은 물질적으로 아주 풍요를 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아들 일곱과 딸 셋이 태어나니라. 또한 그의 재산은 양이 칠천 마리오, 낙타가 삼천 마리오, 소가 오백 겨리요, 암나귀가 오백 마리며 집안사람들도 심히 많았

으므로 이 사람은 동쪽의 모든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더라.”(욥 1:2-3) 그는 가족을 가진 사람이었고, 그의 일곱 아들과 딸들은 그에게는 참으로 큰 축복이며 사랑의 대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은 다 자신의 자손을 기뻐합니다. 욥의 화살통은 가득히 차 있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자식을 화살에 비유하므로 화살통이 가득 찼다고 표현을 합니다. 일곱 아들과 세 딸 즉 10명의 자녀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이 10명의 자녀에 욥과 그의 아내를 더하면 그 수가 12입니다. 10과 12라는 이 두 숫자는 성경에 따르면 이방인과 유대 민족과 연관이 있습니다. 10은 이방인의 숫자입니다. 이 숫자는 일곱 아들과 세 딸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가족에게서도 찾아 볼 수 있습니다. 그에게는 7,000마리의 양과 3,000마리의 낙타가 있었습니다. 또 황소가 500마리, 암나귀가 500마리 있었는데 여기에서도 10을 찾을 수가 있죠. 이처럼 욥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이삭 안에서 네 씨가 부름을 받으리라**” 이에따르면 그는 대환란 때의 이스라엘 민족의 예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욥기에서 배울 수 있는 위대한 교훈 중의 하나는 성경과 율법, 그리고 성막이 있기 전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욥기에 따르면 성경과 율법, 성막 이런 것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과 의로움에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욥은 이러한 것들이 하나도 없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두려워 할 만큼 그 분에 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1:19, 2:16의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욥은 재산이 많았습니다. 구약시대에서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호의와 인정하심을 상징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재산이 많다는 것은 그가 아주 큰 인물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욥은 동쪽 지방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큰 자였습니다. “또한 그의 재산은 양이 칠천 마리오, 낙타가 삼천 마리오, 소가 오백 겨리오, 암나귀가 오백 마리이며 집안사람들도 심히 많았으므로 이 사람은 동쪽의 모든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더라.”(욥 1:3) 욥의 세 친구들 사이에서는 긴 논쟁이 생겼는데 그것은 욥이 엄청난 재산과 그의 모든 소유를 순식간에 다 잃어버리는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이들 친구들의 논리는 간단했습니다. ‘선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많은 소유물로 축복을 주시고 사악한 자는 재산을 다 잃어버림으로써 심판을 받는다. 따라서 욥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으니 욥은 사악한 자임이 분명하다.’

이와 같은 견해는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 된 자에 대해 제자들이 예수님께 했던 질문에서도 예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여쭙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누가 죄를 지었기에 그가 눈먼 자로 태어났나이까? 이 사람이니이까, 그의 부모이니이까? 하니”(요 9:2) 유대인들은 번영과 물질적인 풍요로움, 그리고 건강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의 표식이라고 믿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비극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다는 표식이라고 믿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욥의 고난에 대한 최종적인 설명이 될 만한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답변하십니다. 요 9:3 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나 죄를 짓지 아니하였으며 다만 이것은 그에게서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욥은 사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완전하고 곧바르다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아들과 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희생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욥의 자녀들은 날짜를 정해서 그들의 생일을 축하했습니다. 1년에 한 번 그들의 생일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욥은 이와 같은 생일파티 같은 것이 경박스러움과 사악함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와 같은 파티나 축제를 즐기는 가운

데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나 저주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고, 이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께 희생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희생물들은 하나의 예표였습니다. 희생을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정하고 죄의 형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바치는 희생물 위에 손을 얹음으로써 자기 스스로를 그 희생물과 일치시키고 속죄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희생물은 그 죄의 책임에 합당한 형벌을 짊어지고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욥이 드린 희생물이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 희생물이 원래는 무고한 존재였고, 그 위에 떨어지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필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살해를 당하여 사라졌습니다. 그 희생물 위에 손을 얹을 때에 상징적으로, 죄를 지은 자의 죄들이 그 희생물에게로 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희생물이 죽으면 그 피가 쏟아지고 생명도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희생의 의미입니다.

그 희생을 먹는다는 것은 사람을 대신하는 대속물에 의해서만 그가 살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욥 자신이 이제 그 희생물이 될 것입니다. 그는 바쳐질 것이고 소진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마귀가 하나님의 허락을 받은 대로 행동할 것을 마음을 줄이며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으로부터 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아들과 딸들을 위해 끊임없이 희생을 바쳤습니다.

욥은 자신의 집에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아들과 딸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늘 꾸준히 나왔습니다. 레위 제사장 제도에 따르면, 이스라엘 제사장들은 끊임없이 자녀들을 대신해서 희생을 늘 드리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욥과 그의 소유물은 다 희생물이 되었고 하나님에 의해서 다 소진되었습니다. “이르되, 내가 내 어머니 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또한 벌거벗

은 채 그리로 돌아가리라. 주신 분도 주시요 가져가신 분도 주시니 주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고”(욥 1:21) 욥에게 유일하게 남은 것은 그의 생명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조차도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이는 후에 욥이 고백하는 바 그대로입니다.

욥의 부와 의로움에 대한 명성은 동방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사실을 주목하게 했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저 외계에 있는 어둠의 영역에 속하는 자들에게도 주목의 대상이었고 결국 그 어둠의 영역에 속한 자들 또한 그의 의와 부에 대해서 절대적인 적대감을 갖게 했습니다. 굶주려서 군침을 흘리는 짐승처럼 사탄은 욥을 눈여겨보았습니다. 밤낮 뒤쫓아 다니며 언젠가는 적당한 타이밍을 보아 공격하고자 했습니다.

욥기 1:6 어느 날 사탄과 같은 이러한 영적 존재들은 하나님 앞에 오도록 명을 받습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 앞에 모습을 드러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제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를 주 앞에 보이려고 왔는데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오니라.”(욥 1:6) 사탄이 자유롭게 하나님 전에 드나들었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에스더라고 하는 왕비조차도 왕의 허락 없이는 왕 앞에 함부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왕이 초청하지 않으면 그의 앞에 나설 수 없습니다. 즉 여기에서 이와 같은 말씀이 기록된 이유는 마귀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복종해야 하고 제한받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마귀와 그의 천사들은 주권자이신 주님 앞에 나타나도록 소환되었습니다. 사탄은 무소부재하지도 않고 전지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해 볼 때 정말 보잘것없는 제한적인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며 영원하신 분입니다. (골 1:16)

마귀는 단순히 악한 원칙이나 죽을 수밖에 없는 어떤 사상의 오류라든가 질병을 일으키는 병균이라든가 추상적인 힘이라든가 발굽을 가진 도깨

비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그는 실제로 존재하는 인물이며(역상 21:1, 욥 1:6-12; 2:1-7, 시 109:6, 렘 3:1-2, 벧전 5:8-9, 계 12:7-21) 예수님 역시 그를 실제 살아있는 인물(마 4:1-11)로 다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에게 전쟁을 선포하셨고(눅 13:16), 그가 실제로 살아있는 존재임을 가르치셨습니다(눅 10:18). 사도들 역시 사탄을 실제 존재하는 인물로서 그를 대적했습니다(엡 6:10-18). 사탄에 대해서는 1인칭 단수가 대명사로 사용되었습니다(마 4:7-11). 그리고 개인적인 대화가 욥기 1:6-12에 나옵니다. 또한 사탄에 대해 묘사하는 내용이 이사야서 14:12-14에 나옵니다. 사탄의 이름과 칭호들 역시 거론됩니다. 루시퍼(사 14:12-14), 마귀와 사탄(계 12:9), 브엘세뵘(마 10:25), 벨리알(고후 6:15), 대적자(벧전 5:8-9), 용(계 12:3-12), 뱀(고후 11:3), 이 세상의 신(고후 4:4), 이 세상의 통치자(요일 12:31), 공중의 권세 잡는 자(엡 2:1-3), 형제들을 고소하는 자(계 12:10), 원수(마 13:39), 시험하는 자(마 4:3), 사악한 자(마 13:19, 38), 그 사악한 자(요일 5:18) 등으로 불렸습니다.

사탄은 다른 정사들과 권능들이 창조될 때 그리스도에 의해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는 아담 창조 훨씬 이전의 일입니다. 그들의 창조는 창세기 1:1, 욥기 38:7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사탄은 반역의 결과로 하늘로부터 쫓겨났습니다. 그 결과 창세기 1:2에 묘사된 것처럼 온 우주가 어둠으로 뒤덮였습니다.

사탄은 기름부음을 받은 그룹입니다. 메시아로 기름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타락 이전에는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있던 자입니다(겔 28:11-16). 이것은 그가 하늘에서 가지고 있던 지위와 그와 연관된 보석으로 결정된 것입니다. 아론의 흉배에 있는 보석들과 이 마귀와 연관된 보석들의 유사성에 주목해 봅시다.

아담 이전과 아담이 타락하기 전 시간 동안 마귀는 이 지구에 접근할 수 있었고 직접 이 땅을 다스렸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왕좌로부터 끌어내리고 그분의 권위를 찬탈한 목적으로 하늘을 향해 반역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그의 침략은 실패했습니다. 땅과 땅의 모든 거주민들은 멸망했고 어둠이 깊음 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빛은 꺼져버렸고, 온 우주는 거친 어둠으로 가득 차고 단단한 얼음으로 빙하가 만들어졌습니다.

아담 이전 시대의 그 멸망은 지질학적 시대와 선사시대의 여러 화석들에 대한 설명을 가능하게 합니다. 바로 이 ‘간극’ 때문에 지질학자들과 진화론자들은 메울 수 없는 ‘사라져버린 연결고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빙하시대를 설명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사라져버린 그 연결고리는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존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빈 공간을 채우셨고 그곳에서서 이를 보완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바로 문이시고, 사다리가 되시고, 유월절 어린양이시며 변호자시며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잃어버린 연결고리가 되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사탄의 첫 번째 반역이 교만에 의해서 시작되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사탄은 자기 의로 가득한 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것이 정당하지 못하고, 의롭지 못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고소했습니다. 이와 같은 그의 고소는 이브와 하나님과 그가 나눈 대화에 암시되어 있습니다. 이브와의 대화에서나 하나님과의 대화에서나 마귀는 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공격을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마귀가 반역을 한 동기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목적은 그분의 의로움을 펼쳐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권능과 그분의 선하심을 모든 피조물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모든 창조물이 그분의 인격을 영원토록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되려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창조물 안에 그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하셔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죄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 까지도 포함해서 말입니다.

사탄과 그의 천사들은 그와 같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을 창조하셨고, 물론 반역이 뒤따를 것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알고 계셨다는 사실과 하나님이 주신 자유가 반역의 행위를 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천사라고 하는 창조물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선택할 의지를 부여받았습니다. 사탄은 반역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의 반역 이전이든 후이든 하나님의 의로우신 통치에 대해서 그는 늘 비난을 일삼았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첫 번째 공격은 창세기 1장과 욥기 1장에 있어서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험 당하시는 그 상황에서 의롭지 않으신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시고 자신의 권능과 사랑을 입증하시려면 그의 창조물들은 선택할 자유를 가지고 있어야만 하며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은 폭군에 불과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그의 창조물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인간이 되어 인류를 대신하여 죽고자 하시는 그 분의 의지로 입증되었습니다.

그 기름부음을 받은 그룹은 아담처럼 완전했습니다. 그러나 의롭지는 않았습니다. 욥은 완전했고 의로웠습니다. 그 기름부음을 받은 그룹은 자기 주위에 울타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보호 하에 자신의 사랑하시는 창조주를 마귀가 얼마 동안 섬겼는지에 대해서 기간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보호막을 거두시자 이 아침의

아들은 땅에 살고 있던 욥보다도 완전함에 있어서나 의로움에 있어서 부족함이 드러났습니다. 이와 같이 기름부음 받은 그룹은 루시퍼와 마귀와 사탄이 되어버렸습니다.

사탄은 항상 자기 자신의 의에 대한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온전히 통치하시는 것이 의롭지 않다고, 마귀는 실제로 그렇게 믿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의롭다면, 어떻게 죄인들에게 그렇게 긍휼을 보이실 수 있는지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3장에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본국으로 귀환하는 남은 자들, 즉 이스라엘 민족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 여호수아를 대적하기 위해서 그의 오른편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은 거룩하지 못한 옷을 입고 있었고 이스라엘은 당시 죄악된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긍휼이 제공됩니다. 사탄은 이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토록 거룩하지 못한 제사장과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신다는 사실을 그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측면을 마귀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마귀는 자신의 아름다움과 권능과 자기 의라고 하는 교만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회복된 땅을 다스리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운 다스리심을 확립하기 위해서 완전한 사람을 새롭게 세우십니다. 그러자 사탄은 그 사람을 처음부터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대화가 오고 갔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의 의와 나의 영원한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택한 나의 종 아담을 눈여겨보았느냐?” 사탄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동산에 두고 울타리를 쳐서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가 당신을 섬기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은택을 베푸시고 비도 보내시고 하

니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시 68:19, 103:2, 116:12).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함께 흔들고 넘치게 하여 사람들이 너희 품에 안겨 주리라. 너희가 썰 때 쓰는 바로 그 척도로 너희가 다시 평가를 받으리라, 하시니라.”(눅 6:38)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선물도 주시고 그들의 섬김에 대해서 보상도 해주시니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손을 뻗어 사람들을 치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저주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밀처럼 아담을 까부를 수 있도록 내가 내손을 놓아두마. 내가 허락하는 한 네가 그에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그는 여전히 나를 섬기고 찬양할 것이다.”

마귀는 대답합니다. “만일 당신이 허락하신다면, 그를 이집트의 노예가 되도록 해보십시오. 그들을 사자굴에 던져보십시오. 풀무불에 던져서 태워보십시오. 칼로 죽이십시오. 고문대에 올려놓고 고문해보십시오. 잔인한 조롱과 채찍질로 시험해 보십시오. 쇠사슬로 묶어서 감옥에 가둬보십시오. 돌로 쳐 보십시오. 톱으로 썰어 보십시오. 양가죽과 염소 가죽을 쓰고 여기 저기 떠돌아다니도록 해보십시오. 모든 것을 잃고 고난을 당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면전에 대고 저주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라. 하고 싶다면 더 해 보거라. 그러나 나의 종은 나를 찬양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구원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너는 그를 죽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워서 생명의 새로움으로 인도하리라. 인간이 결코 죽지 않는 그러한 상태로 내가 이끌리라.”

사탄은 이리저리 방황하며 다녔습니다. 사탄은 가인처럼 쫓겨난 자입니다. 그는 도망자요 방랑자입니다. 그는 멸망의 표식을 달고 다니며 불못에

던져질 운명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사탄을 포함해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어떤 일들을 했는지 보고 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바로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그들의 창조는 욥기 38:7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아담 이전의 반역자는 기름부음을 받은 그룹이며 이자를 천사들이 추종했습니다. 이들의 타락한 모습은 창세기 6:2-4에 나와 있습니다. 뱀전 3:20에 나왔던 그들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언급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육체를 입은 남성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땅의 여인들과 동침을 했고 노아의 홍수 때에 멸망한 그 세대를 낳았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있었던 그 후손이었습니다.

조금 더 기술적으로 이야기하면, 욥기라는 책은 욥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탄에 대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욥의 시련과 욥의 세 친구에 대한 것도 아닙니다. 욥기는 하나님에 관한 책입니다. 여러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고 많은 질문들에 대한 답변도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옹호하며 변증하는 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가두어서 보호하시며 자신만을 섬기도록 하시는 분이 아니시며, 자신만을 섬기도록 유도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다 알려주시며 욥기서 또한 성경의 다른 책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을 펼쳐 보여주는 책입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모든 창조물은 하나님께 회계보고를 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사탄과 하나님의 아들들도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창조물들과 창조에 대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언제

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잘 명심하고 욥기를 읽으신다면 당혹스러운 상황을 잘 넘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는 것은 그 주제를 잘 몰라서가 아니라, 어떤 주제를 꼬집어내거나 하나님을 비판하는 자의 입을 다물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여러 종교지도자들을 예수님이 다루실 때에도 비슷한 예가 나와 있습니다.

욥기 1:7-8에서 하나님은 사탄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첫째로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두 번째로 ‘내 종 욥을 눈여겨보았느냐?’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사탄에게, 풍자하기 위해 또는 꼬집기 위해 질문을 하십니다. 사탄은 아마도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게 되겠지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던 그 순간이 확 떠올랐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좌로부터 끌어내리고 하나님의 왕좌를 차지하려고 했던 이 사아서 14:12-17의 반역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사탄은 오히려 하나님이 세운 지구의 왕좌에서 쫓겨나는 처지가 되었지요. 기름부음을 받은 그룹으로 썬의 지위도 빼앗겼습니다. 그의 빛의 왕국은 어둠으로 내던져졌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산에서 쫓겨났고 신성모독자라는 비참한 신분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지실 때 살짝 미소를 지으셨을지 모릅니다. “어디 갔다 왔니? 나는 늘 있던 대로 내 왕좌에 앉아 있지.” 사탄은 자존심 때문에 자기가 패배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큼 지혜롭지 못했습니다. 패배를 절대로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너무 서둘러서 이렇게 됐을 거야. 어쩌면 더 많은 천사들을 동원하면 될지도 몰라. 아! 조금만 더 여건이 좋았더라면 좋은 결과

를 얻었을 텐데!’ 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마귀는 또 다른 계락을 짜기 위해서 욕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다음 질문을 접합니다. ‘네가 내 종 욕을 눈여겨 보았느냐?’ 물론이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도전을 받을 준비가 되어 계셨죠.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마귀에게 상대가 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는 하나님을 상대할 수조차 없습니다. 이렇게 사탄은 하나님께서 던진 미끼에 다시 걸려들었습니다. 사탄은 또 다시 패배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 벌레(벌레와 뱀은 사탄을 가리키는 표현임)는 하나님께서 던지신 미끼를 이제 막 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미끼가 바로 욕입니다. 욕기의 뒷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 리워야단에게 낚싯줄을 던져서 잡는 장면이 나옵니다. 미끼인 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의미있는 장난’을 좀 치신 겁니다. 이 내용으로 40페이지 정도의 설교를 한 사무엘 김의 욕기라는 설교집이 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욕기를 요약한 설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낚싯줄을 던져서 마귀를 가지고 장난을 하실 수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과 마귀의 차이가 아주 크다는 것을 말합니다. 마귀를 상대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뿐이십니다. 마귀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욕도 하나님으로부터 이 시험에서 떨어져나갈 것이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하나님의 참된 종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며 그분은 이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으신 분이심을 욕을 통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욕기서는 하나님에 관한 책입니다. 하나님은 사탄의 사악한 의도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욕의 순전함을 알고 계셨고 그 욕에 대해서 보증인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시시기를 알게 될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욕에 대한 평가를 성경을 통해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

께서 이 땅에 욥과 같은 자는 없다고 선언하신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는 곧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대해 다 알고 계시다는 의미가 됩니다.

욥과 그의 세 친구들 사이에서 하나님에 대해 상당히 고상한 내용들이 오갔지만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에 대한 가장 위대한 계시는 욥기 38장~42장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직접 하신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긍휼하심은 이 책의 끝 부분에서 드러납니다. ‘책의 끝 부분’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충만하게 드러납니다. 지금 이 순간에 아직 그것을 다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는 우리의 죄악된 성품 때문입니다. 그러나 욥기서에서 ‘주의 결말’은 야고보서 5장에서 표현되고 계시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로마서 11:33-36의 바울의 고백입니다.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며! 그분의 판단들은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길들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았느냐? 누가 그분의 조연자가 되었느냐? 누가 그분께 먼저 드려서 다시 보답을 받겠느냐?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말미암으며 그분께로 돌아가나니 영광이 그분께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창세기를 보면 인간의 창조를 볼 수 있죠. 창세기 3장은 타락과 에덴 동산에서의 쫓겨남에 관한 기록입니다. 창세기 4장에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유일한 방법은 은혜의 방법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벨은 그 은혜의 길을 택했고 가인은 자신이 발견한 인간의 길을 택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책이며 인간의 타락 후 가장 먼저 쓰인 책 욥기서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답변합니다. 욥의 세 친구가 이 답을 열심히 찾아보았지만 모두 헛된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답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지만 그들은 그 주제에 대해 전적으로

무지함을 발견하게 되며 심지어는 위대했던 욥마저도 이 문제에 관한 한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책이 타락 직후에 기록되었다는 사실이야말로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이 책은 하나님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을 해줍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욥기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창조물이 창조주를 비난하며 고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욥을 둘러싸고 있던 보호막을 제거하심으로써 그분의 의로움을 옹호하십니다. 하나님의 창조물들은 사탄처럼 하나님께 반역을 저지르거나 욥처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책은 그 주님의 결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욥의 질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인간이 의로울 수 있는가?’ 이에 대한 답변이 이 책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 안에 모든 것이 되신다는 것(고전 15:28)을 인정할 준비가 되기 전에 욥은 자아를 종결합니다. 우리도 자아를 다 정리하는 그 상황에 까지 도달해야만 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욥은 자기 의로 가득한 사람이었지만, 위선자는 아니었습니다. 그의 의로움은 고넬료의 의로움과 같은 것으로 이 두 사람을 두고 비교를 해봅시다. 고넬료는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욥도 그러했지요. 고넬료는 독실한 사람이며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욥도 그러했습니다. 고넬료는 가난한 자를 구제했고, 욥도 그러했습니다. 고넬료는 늘 기도했고 욥도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은 고넬료의 의를 받아주셨습니다. 욥의 의로움도 하나님의 주목의 대상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니 세 사람이 고넬료를 찾아왔는데 욥 역시 세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고넬료에게는 네 번째 사람이 찾아왔는데 그는 베드로로, 빛을 제공해줄 하나님의 대언자였습니다.

욥을 찾아온 네 번째 사람인 엘리후 역시 빛을 제공한 하나님의 대언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넬료를 대신해서 하늘에서 개입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넬료와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을 대신하여 하늘로부터 개입하셨고, 그와 그의 가족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욥과 고넬료 간의 이 비교를 염두에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욥이 소유했던 그 의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욥은 양심이라고 하는 경륜의 시대에 살았는데, 고넬료는 예수님이 오셨던 왕국의 경륜으로부터 은혜의 복음으로 경륜이 바뀌는 그런 과도기에 살았으므로 그 안에 포함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은혜의 시대가 아닌 양심이라는 경륜의 시대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욥기 1:12에서 사탄은 허락을 받아 주의 임재로부터 빨리 떠나기를 갈망했습니다. “...이에 사탄이 주 앞에서 물러가더라.” 사탄은 자신이 언제 공격할 것인지를 다 계산하면서 욥의 자녀들이 다 함께 모여 생일 축하하는 그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5절에서 우리는 이때 욥이 어떤 일을 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는 번제물을 드렸지요. 그 때 하늘에서 폭풍이 몰려옵니다. 그리고 광풍이 불어왔는데 이것이 첫 번째 전달자의 형태로 등장합니다(14-15절). 욥은 하늘에서 마귀와 하나님 사이에서 나눈 대화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동쪽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이 사람은 지옥이 지금 막 분출할 것이라는 사실도 모릅니다. 그 혼돈과 고통은 견디기 힘든 것이었을 겁니다. 그는 도대체 자기가 왜 고통을 당하는지 이유조차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내리침은 네 가지였습니다. 황소가 밭을 갈고 있습니다. 이는 욥이 가지고 있던 힘과 노동의 상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욥의 삶은 항상 선행으로 일관된 삶이었습니다. 그는 늘 자기 주변을 선한 행위로 둘러쌌습

니다. 이에 대한 자궁심이 있었으며 안전하게 거했고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이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주 훌륭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보상에 스스로 만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루 사이에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의 영적상태는 부와 교만이 섞여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스바인들은 사탄이 조종하는 도구입니다. 스스로 사탄의 도구가 되어버린 셈인데 그들에게는 욕을 죽이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아라비아인들의 곁에 살던 혼혈인들이며 유목민들이었는데 갑자기 욕을 급습해서 한 명만 제외하고 욕의 종들을 모두 살해했습니다. 매번 사탄은 누군가 한 사람은 전달자로서 남겨 두었음을 주목하십시오. 어쩌면 마귀에게도 긍휼이라는 것이 존재하는가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착각입니다. “...사악한 자의 친절한 긍휼은 잔인하니라.”(잠 12:10) 사탄이 보인 그 긍휼의 행위는 사실 더 큰 잔인함일 뿐입니다. 그가 사람이나 짐승을 남겨둔 이유는 파멸의 소식을 욕에게 알려주어 고통을 주기 위함입니다.

사탄은 늘 자신의 악한 계락을 성취할 의지를 가진 부하들을 찾고 있습니다. 스바 사람들은 살인하고 강도짓을 일삼는 것을 열망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쓰임받기 좋은 사악함을 가진 자들입니다. 사탄은 어떻게 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했을까요? 그는 사람의 생각 속에 무언가 살짝 던져 넣는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범위 내에서 주변 상황을 조작할 수 있는 능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전달자가 ‘지옥’ 으로부터의 소식을 전합니다. 바로 이어 또 다른 전달자가 나쁜 소식을 전달합니다. 사탄은 이와 같이 한 번에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위기가 닥치게 하여 욕을 압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속담 중에 ‘설상가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문제가 끊이지 않고 터진다는 의미입니다. “주의 폭우 소리에 깊음이 깊음을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내 위로 넘어갔나이다.”(시편 42:7)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불이 옵니다.

종들과 양들이 다 파멸되었습니다. 아마 욥은 스바인들의 공격과 영적인 영역 간에 어떤 관계가 있음을 알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원래 사악한 유목민들이며 살인과 강도짓을 일삼는다는 것을 욥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위기는 악한 자의 욕심에 기인한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전달자는 하나님의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부의 원천인 양들을 다 태워버렸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자연의 영역과 사탄의 활동 사이에 뭔가 의문을 제기합니다. 재앙이 닥쳤을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신 결과인지 아니면 사탄이 자연을 이용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결과인지에 대해 말이죠. 둘 다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움들이 과연 누구의 책임인가, 하나님인가? 마귀인가? 이런 것을 알려면 상당한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천사의 지혜라고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사탄의 활동이 증가할수록 자연 재해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바람은 이제 엄청난 폭풍으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파도에 그 다음 파도가 내리칩니다. 세 번째 전달자가 도착합니다. 이번에는 욥의 낙타와 그의 종들을 급습했는데, 이는 의도된 습격이었습니다. 낙타는 우유 공급원, 그리고 교통수단으로 쓰입니다. 따라서 이 낙타는 어떤 사람이 얼마나 위대하며 큰 사람인가를 보여줍니다. 한 순간에 욥은 그의 노동과 자존심의 원천을 잃어버렸습니다. 욥은 수입도 없어졌고, 부도 사라졌습니다. 심지어는 이동수단도 파괴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욥은 이런 물질들은 다 대체될 수 있으며 절대적인 것이 아닌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업하는 많은 사람들이 완전히 망해서 이제는 일어나서 다시 시작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이기도 하나 다시 기회를 주면 일어나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욥은 여러 가지 정보나 노하우가 많고 건강도 있었으며, 가족들도 있었기 때문에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들, 딸의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괜찮았습니다. 그러나 욥은 이와 같은 소망에 대한 생각을 누릴 시간이 없었음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너무나 충격을 받고 의심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내리침에 더하여 네 번째 사자가 도착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사자가 다름 아닌 계시록 6:8의 사망의 말, 창백한 말임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 사람이 죽는 네 번째 소식을 전달할 겁니다.

우리는 세 명의 종이 주인 앞에 서 있는 것을 봅니다. 이들 각자는 멍한 눈으로, 당황한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이제 너희는, 남자가 아이를 배어 산고를 겪느냐? 하고 묻고 또 알아보라. 남자마다 산고를 겪는 여인같이 자기 손을 허리에 대며 모든 얼굴이 창백하게 변함을 내가 봄은 무슨 까닭이냐?”(렘 30:6) 이런 일이 욥에게도 발생했습니다. 이들 세 명의 종은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묻고 싶는데 물을 수가 없는 당혹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네 번째 전달자가 멀리서부터 달려옵니다. 어떤 소식일까?

“그때에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았더라. 파수꾼이 문 위 지붕으로 가서 성벽에 이르러 눈을 들어 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 것이 보이므로 파수꾼이 외쳐 왕에게 고하매 왕이 이르되, 그가 만일 혼자면 그의 입에 소식이 있느니라, 할 때에 그가 빨리 와서 가까이 다가오니라. 파수꾼이 보니 다른 사람이 달려오므로 파수꾼이 문지기를 부르며 이르되, 보라, 다른 사람

이 또 혼자 달려오느니라, 하매 왕이 이르되, 그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하거늘 파수꾼이 이르되, 내 생각에는 앞선 사람의 달음질하는 것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의 달음질하는 것과 같으니이다, 하매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에게 아뢰되, 다 잘 되고 있나이다,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주 왕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소이다. 자기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한 자들을 그분께서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청년 압살롬이 무사하냐? 하매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곧 당신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큰 소동이 있음을 내가 보았사오니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옆으로 물러나 여기 서 있으라, 하매 그가 옆으로 물러나 가만히 서 있더라. 보라, 구시가 와서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소식이 있나이다. 주께서 이 날 왕을 대적하여 일어난 모든 자들에게 왕의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매 왕이 구시에게 물되, 청년 압살롬은 무사하냐? 하니 구시가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들과 또 왕을 치려고 일어나 왕을 해하려 하는 모든 자들은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 왕이 크게 격동하여 문 너머에 있던 방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갈 때에 이같이 말하기를, 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으랴! 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삼하 18:24-33).

“내 황소들과 나귀들은 다 사라졌도다. 양과 종들도 다 죽었노라. 낙타도 다 도둑맞았도다.” 이 때 읊은 의아해합니다. “도대체 이것 말고 또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 순간 그의 눈앞에서, 그의 생명이 순간적으로 그의 삶이 쪽 펼쳐지는데, 그는 자신이 비참하게 시작했던 순간을 기억하고 자기의 모든 사업에 있어서 정직하겠노라고 결심하며, 그는 인간이

하나님을 존경할 수 있음을 입증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성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좋은 아내를 주셨으며 자녀들도 태어났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필름 돌리듯 곱씹으며 아이들이라는 단어를 반복하는 순간, 네 번째 전달자가 다가와 충격과 공포가 가득한 얼굴로 불쑥 열 명의 자녀들의 죽었음을 알립니다. “큰 형님 집에서 먹고 마시고 있었는데 광야로부터 큰 바람이 불어와 그 집의 네 귀퉁이를 쳐 집이 무너졌고, 결국 다 죽었습니다.”

세 번의 비극까지는 다 괄호 안에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욥의 자녀들이 파티를 벌이는 이야기와 함께 욥기 1:13,18을 보십시오. 욥의 자녀들이 생일파티를 즐기고 있던 동안에 일어난 비극입니다. 욥은 그들이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저주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두려움이 여전히 생생한 그 순간 바로 그날 그는 하나님께 희생을 드렸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들이 생일 파티를 즐기며 종들이 일을 하고 있는 가운데 비극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사탄의 입장에서 계산된 아주 악한 행동이었지요. 자녀들이 파티를 즐기고 있으며 욥이 두려움을 안고 있는 그 순간 사고를 일으켜서 욥의 고뇌를 더 증가시키고 의심을 증가시켜 자녀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난 것이라고 은근히 암시하는 겁니다. 욥은 더욱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이 노리는 타이밍입니다. 데안 사람 엘리바스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내가 보았으되 즉시 그의 처소를 저주하였노라. 그의 자녀들은 안전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그들이 성문에서 짓눌리되 그들을 건져 내는 자가 없으며 그들이 수확한 것은 주린 자가 먹고 가시나무에서 난 그것도 가져가며 강도가 그들의 재산을 삼키는도다.”(욥기 5:3-5). 자식들이 잘못을 해서 하나님께서 벌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판단의 공의를 굽게 하시느냐? 전능자께서 정의를 굽게 하시느냐? 네 자녀들이 그분께 죄를 지었으므로 그분께서 그들의 범법으로 인해 그들을 내버리셨을지라도 네가 만일 늦기 전에 하나님께 구하고 전능자에게 간구하며”(욥기 8:3-5) 이 말씀에 따르면 바람이 집의 네 기둥을 쳐서 무너졌다고 하는데 네 기둥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황소와 나귀들을 도둑맞았고 2)하나님의 불이 양과 종들을 죽였고 3)갈대아인들은 낙타를 다 가져가버렸고 4)자녀들은 다 멸망해버렸습니다. 욥을 지탱해주었던 모든 것이 다 사라져 버려서 이제 그의 집은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되어 주저앉아버렸습니다. 그의 고통은 이제 멈추지 않는 절망으로 다가왔습니다. 파괴적인 파도는 욥의 혼을 한 번, 두 번 계속 내리쳐서 결국은 주저앉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은근히 사용했지만 그 사실을 모르고 있던 전달자들은 욥에게 그의 손실을 알리려고 달려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대화를 욥기서 기록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욥이 왜 고통을 당했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보가 없이는 욥과 세 친구들처럼 우리도 무지몽매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드라마에서는 어떤 사람들의 고통은 전혀 설명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욥의 아내도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그녀의 슬픔 또한 욥의 슬픔만큼이나 컸을 겁니다. 그녀의 삶에서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이었을까요? 우리는 성경에서 아무런 답변을 얻지 못합니다. 이런 일이 왜 그녀에게 일어났을까? 답변이 없습니다. 그리고 종들과 그들의 가족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의 아내들은 남편을 잃었고, 자녀들은 부모님을 잃었습니다. 부모들은 자녀를 잃었습니다. 형제들은 형제를 잃고, 가족들은 직업을 잃었습니다. 종들은 왜 죽은 겁니까? 욥의 자녀들은 또 어떻습니까? 열 명이 한꺼번에 죽었습니다. 왜? 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입증하기 위해서

행한 일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멸망한다면 도대체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7,000마리의 양이 다 죽었습니다. 아무런 죄도 없는 짐승들인데 욥기에는 전혀 답을 얻을 수 없는 위대한 질문들입니다.

우리는 모든 질문에는 답변이 있고 모든 사건에는 다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에 답변을 해주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에게 계시하시지는 않습니다. 사건들은 그냥 사라져버리고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께서는 신성한 목적을 가지고 계심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며 끝없이 선하십니다.

우리 인간이 저지르는 실수는 사랑과 진리를 우리가 정의를 내리려고 하는데 그것은 심각한 시도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버린 사람들은 정의를 ‘발명’ 합니다. ‘이것이 사랑이다’, ‘저것이 사랑이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시며 또한 사랑이십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원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반드시 고통과 징계와 손실을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자기 자식을 훈육할 때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며 너에게 최상이기 때문이다.’ 때를 때리면서도 이렇게 말하지요. 이외의 다른 설명은 감상주의적 발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람들이 왜 고통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채찍질하신다는 사실만 알고 있을 뿐입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친히 징계하시고 자신이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시느니라, 하셨느니라.” (히 12:6)

평범한 사람이 욥이 당한 이 같은 손실을 당한다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마 욥이 당한 네 번의 엄청난 손실을 당하게 되면, 보통 사람 같으면 두

번째 손실 정도에서 자살하거나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욥은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탄이 그를 파멸시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욥을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사탄은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을 둘 가치조차 없습니다.

“이에 욥이 일어나 자기의 겹옷을 찢으며 머리를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내가 내 어머니 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또한 벌거벗은 채 그리로 돌아가리라. 주신 분도 주시요 가져가신 분도 주시니 주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서 욥이 죄를 짓지도 아니하고 어리석게 하나님을 비난하지도 아니하였더라.”(욥 1:20-22) 욥은 자신이 겪은 재앙에 대해서 열 가지 행동으로 반응을 합니다. 첫 번째로 그는 일어났습니다. 어쩌면 장로들과 함께 그 도시의 성문에 앉아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욥기 29:7에서 고백했습니다. “그때에는 내가 도시를 가로질러 성문으로 나가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욥 29:7) 그 당시 그는 최고의 유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의 중요한 자리에서 일어나 겹옷을 찢었습니다. 이는 극단적으로 슬픔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겹옷은 자신의 육체 또는 휘장을 상징합니다. 머리를 밀는 것 역시 애곡하고 슬퍼하는 것의 또 다른 강한 표현입니다. “오 예루살렘아, 네 머리털을 베어 내버리고 높은 곳들에서 애가를 지으라. 주가 친히 진노하여 이 세대를 거절하고 버렸노라.”(렘 7:29) 네 번째로 그는 땅에 엎드렸습니다. 이것은 겸손의 행위입니다. 그는 자신의 옷을 벗고 머리를 밀었으며 땅에 자신을 내던지고 나서 이 모든 것들을 자신에게 제공하신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욥은 자신이 이 세상에 올 때 벌거벗고 왔고 이제 그와 같은 방식으로 돌아가는 것에 만족하며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욥의 반응에 어느 누가 비난

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생각하는 만큼 그는 자아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는 완전히 깨어진 사람이 아닙니다. 아직 자아가 덜 깨진 상태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욕기를 읽어나가면 이는 분명해질 겁니다.

욕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왔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시 가져가실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그분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짓거나 책임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위로와 소유와 친절함과 자신이 숨 쉬는 것까지도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며, 주신 능력이 있으신 분이니 가져갈 권리도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소유주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으며 축복들과 권능과 선한 것 역시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합니다.

결국 마귀는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데 실패했습니다. 욕은 의롭고 진실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이 반드시 찾아내야 할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욕은 단지 강한 의지만 보였을 뿐입니다.

욕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어떤 사람이 알 수도 있고, 욕이 고백한 모든 고백 역시 어떤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염두에 두고 있는 그 마지막 모습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지혜라고 하는 것은 부서진 마음과 상한 영이 무엇인지 아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외하면 다른 모든 지혜와 희생은 다 소용이 없습니다. 이것을 알기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자신에 대해서도 결국 알 수 없습니다.

욕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한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이 교훈을 가르치는 것이야말로 이 욕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그 결말입니다. 욕에 대해서 언급된 모든 것들은 다 엄청난 기근으로 인해 잃어버려진 아들 탕자

의 이야기에서 굶주림이 탕자에게 깨달음을 준 것과 같습니다. “내가 일어나 내 아버지께 가서 그분께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을 대적하여 죄를 짓고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사오니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나이다. 나를 아버지의 품꾼 중 하나로 삼아 주소서, 하리라, 하고” (눅 15:18-19) 그리고 또 다른 굶주림이 요셉의 형제들에게 어떤 효과를 가져 왔는지(창 44:16) 그리고 나단이 이야기했던 그 비유, 어린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린 가난한 사람의 비유가 다윗에게 어떤 역사를 일으켰는지(삼하 12:1-13), 이사야가 얼마나 놀라운 환상을 보았는지(사 6:1-5), 그리고 베드로가 어떤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는지(눅 5:1-8)!

이와 동일한 역사가 욥에게도 반드시 일어나야만 합니다. 그 탕자는 이렇게 말했었지요.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도 ‘우리가 진정으로 죄를 지었도다.’ 라고 인정했습니다. 다윗도 말했습니다. ‘내가 주를 대적하여 죄를 지었습니다.’ 이사야도 고백합니다(사 6:5). 따라서 욥도 결국에는 나는 천한 자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몹시 싫어하고 티끌과 재 속에서 회개하나이다”(욥 42:6) 욥은 이 교훈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욥은 고넬료처럼 어둠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우리는 욥이 처해 있었던 그 경륜 하에서 보자면 욥은 구원받은 사람임을 믿습니다.

제2장

욥기2장

마귀는 느슨하게 돌아섰다

마귀는 일시적으로 예수님을 떠난 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욥을 공격하고 두 번째 주님 앞에 다시 등장할 시기 동안, 기간은 알 수 없으나 공백이 있었습니다. 욥기 2:1-3까지의 세 구절은 1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 내용과 같습니다. 다만 욥기 2:3 끝부분에 몇 마디 덧붙여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사탄에게 욥이 첫 번째 시험에도 여전히 신실하게 남아 있다고 기억을 상기시킵니다. 욥의 의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죄를 짓지 않았죠. 재산에 손실을 입었음에도 욥은 순전함을 그대로 지키고 있었습니다. 욥이 지은 죄 때문에 이와 같은 심판이 임한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사탄은 이제 하나님께 율타리 보호막을 제거하시고 욥을 치시면 어떻게느냐고 도전을 했습니다. 사탄은 욥이 그렇게 되면 틀림없이 하나님을

저주하게 될 것으로 확신했습니다. 사탄은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물질적으로 여러모로 돌보고 계셨기 때문이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사람은 그가 입은 손실이 외적인 경우에는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부도 잃고 가족도 잃었지만 자신의 소망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러나 혼이 공격을 받게 되면 사람은 방향 감각을 잃고 혼돈을 겪게 됩니다. 아무런 빛도 보이지 않고 소망이 사라지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심정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느끼게 되고 그 결과 하나님을 찬양해 봐야 위선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탄은 인간에게 있어서 살아남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본능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그의 뼈와 살에 대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주의 얼굴 앞에서 주를 저주하리이다, 하매’(욥 2:5) 가족을 가족으로 바꾸는 것 아닙니까? ‘가족을 가족으로’ 라는 표현은 속담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는 육체를 포함한 모든 것을 빼앗길지라도 목숨은 어떻게든 지키라는 것을 가르치는 속담입니다.

이와 같은 예는 많이 있습니다. 암이 걸린 다리를 자신의 나머지 몸을 살리기 위해 기꺼이 포기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마귀는 욥의 육체를 치도록 허락해 주신다면 아마 욥은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포기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의 뼈와 살에 대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주의 얼굴 앞에서 주를 저주하리이다”라는 말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이리하여 욥은 자신의 몸을 멸망시키도록 마귀에게 던져진 꼴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보존되도록 지키셨습니다. 그 외에 그를 지탱하고 있던 모든 버팀목들이 다 제거되고 말았습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기쁨이 제거되었지만 욥은 여전히 자신이 신뢰한 하나님께 희미하게나마 끝까지 붙어 있었습니다.

확실히 하나님의 길은 사람의 길과는 다릅니다. 사 55:8-9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과 같지 아니하며 내 길들은 너희 길들과 같지 아니하니라. 주가 말하노라. 하늘들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들은 너희 길들보다 높으며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보다 높으니라.” 이와 같이 욥은 자신의 욕신이 멸망당 하도록 마귀에게 넘겨졌습니다. 넘치는 계시의 풍성함으로 인해 교만해질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사탄의 사자”를 보내셨던 것처럼 말입니다(고후 12:7).

죄를 지은 어떤 성도 한 사람도 구원을 위해 바울에 의해 사탄에게 넘겨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고전 5:5). 몸은 죽을지라도 그의 혼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또한 광야의 어려움과 뱀들로 인해 멸망할 수밖에 없었으나 그 일로 인하여 겸손하게 되어 하나님을 알게 되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신 8:14-15). 욥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하심은 ‘주의 결말’ 임이 욥기 끝 부분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욥은 종기로 내리침을 당합니다. 염증을 동반하는 이 종기는 마치 그가 불에 데인 것처럼 부풀어 올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나병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나병은 죄의 예표이며 나병환자는 진영에서 바깥으로 쫓겨났습니다. 나병환자는 부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진영 밖에서 거주하도록 강제로 구별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진영 밖에서 욥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를 사람들이 몹시 싫어했습니다.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다 종기로 온몸이 더러워졌습니다.

이 모습은 이사야서 1:5-6에 불신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묘사해놓은 것입니다. 그리스도 또한 도성 밖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그분께는 아무런 흠모할 만한 것이 없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치욕을 짊어지고 진영 밖으로 나아

가야 한다고 말합니다(13:13). 마찬가지로 욥 또한 도성 밖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은 짐승을 희생물로 바치고 남은 내장 같은 것들과 나머지 것들을 모아 태우는 장소였습니다(레 4:12). 욥은 하나님의 희생물이었습니다. 세상 죄를 짊어지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대환난을 겪게 될 이스라엘 또한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과 천사들에게 본이 되었습니다.

욥은 재 가운데 앉아 있었습니다. 욥은 자기가 어디에 있어야 할지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욥은 완전히 자기 자신을 포기한 채 하나님의 손 위에 자신을 얹어 놓았습니다. 그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치료해달라고 구하지 않았습니다. 육체의 불편함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그는 몸을 질그릇 한 조각으로 긁어내고 있었습니다. 그의 불편함을 덜고자 하는 노력은 헛수고였습니다. 그 썩은 고름은 몸 안에서 계속 흘러 나왔기 때문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욥의 행동을 그대로 반복합니다. 외부로부터 썩은 것을 제거해보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그러나 그 모든 썩은 것들은 하나님께 완전히 굴복하지 않은 마음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이와 같이 겉을 씻어내고 문질러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멀리서 욥을 지켜보며 당연히 그를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그의 큰 고통을 목격할 때 우리는 정말 입을 다물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상했고 “동방에서 가장 위대한 자”라고 칭송받던 과거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숨 한 번 쉬는 것조차 힘이 듭니다. 손가락은 부풀어 올랐고 갈라졌으며 그의 몸 하나하나 다 통증이 있었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소유했던 재산이라는 것이 그 깨진 질그릇 한 조각입니다. 그러나 그 조각 하나가 욥에게는 얼마나 소중했는지 모릅니다. 그 조각 하

나를 들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는 그 가치를 깨달을 수 없죠. 욥의 손에 들린 그 조각은 그의 가려움을 긁어주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도구입니다. 하나님께 욥은 큰 가치가 있음을 봅니다. 욥에게는 우리가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습니다. 그 모습을 보게 된다면 실망을 금치 못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 종기 밑에 순수한 금이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나중에는 이것이 정금같이 빛난다고 말씀하십니다. 토기장이 손에 놓인 연한 질 그릇 조각입니다. 그러나 아직 부서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물레에서 떨어져 나오게 될 때 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 받는 보석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모든 작품에도 똑같습니다. 부서져야만 하는 그릇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잿더미가 있는 곳으로 나가서 주인이 온전히 빚어낼 때까지는 온전히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그분은 토기장이십니다. 욥이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가 그릇들에 대해서 말하는 지금, 욥의 아내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녀는 가족 안에서 더 약한 그릇이라는 것을 입증합니다. 그 그릇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를 알았더라면 이와 같은 일들이 유익이 될 수 있었을 테지만, 안타까운 일입니다. 바울은 그 비결을 발견했었습니다. 욥도 그것을 배워야만 합니다. 고후 12:10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연약한 것들과 치욕과 궁핍과 핍박과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노니 내가 약할 그때에 내가 강하니라.”** 욥과 그의 아내의 모습, 그리고 바울의 모습이 얼마나 다른지 주목해보십시오.

더 약한 그릇인 그녀 역시도 가족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지역에서 그들의 무덤이 그곳의 경치를 수놓은 것은 다름 아닌 그녀의 아들들과 딸들이

었습니다. 곳곳에 그들의 무덤이 경치를 형성했겠지요. 우리는 그때까지도 여전히 욥의 아내가 침묵을 지켰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녀는 남편을 격동시킵니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브의 그림자를 보게 됩니다. 욥의 아내는 욥을 선악의 지식의 나무로 시험을 합니다. 욥은 그것을 먹고 죽을 수도 있었겠지요. 3장에 가면 그가 그토록 갈망하던 그 자유에 대해서 드디어 깨닫게 될 겁니다.

그녀가 제안했던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고 했던 것은 어쩌면 욥에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동정해서 한 소리였을 겁니다. 문제는 마귀가 그 뒤에 숨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녀는 그 문제를 자신이 해결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녀의 말들은 전적으로 불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그와 같은 말을 하는 대신에 반대로 잣더미 위로 같이 가서 욥의 옆에 앉아 있어야 마땅했습니다. 욥은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죽게 될 것입니다. 아직은 죽지 않습니다. “그가 그녀에게 이르기를, 당신이 어리석은 여자들 중의 하나가 말하듯 말하니 무슨 까닭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서 좋은 것을 받으며 또 나쁜 것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서 욥이 자기 입술로 죄를 짓지 아니하니라.”(욥 2:10)

욥은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합니다. 욥은 마음에 결단을 했고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마음의 결단을 하고 생활을 합니다. 이것은 상당히 칭찬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성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로 뭔가를 해보겠다고 하지요. 물론 좋은 일이기는 하나 영성은 아닙니다. 마음에 찔림이 없는 상황에서는 하나님에 관한 진정한 지식이 없는 것입니다. 욥은 의인이었지만 그의 의는 자기 자신의 것입니다. 그는 상당한 훈련을 받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정

하신, 그가 있어야 할 곳에 영적으로 가지는 못했습니다. 그 수준까지는 오르지 못했습니다. 마귀는 욥에게 죄를 범하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겪은 그와 같은 비극을 통해서는 행할 수 없었던 것을 욥의 세 친구들을 통해서 결국 마귀가 해냅니다.

욕의 세 친구는 욥에게 일어난 그 악한 재앙에 대해서 자신들의 고향에서 전해 듣고 옛 친구를 찾아옵니다. 그들의 이름은 데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만 사람 소발이었습니다.

엘리바스의 이름은 ‘나의 하나님은 정금이다’라는 뜻이며 그는 에서의 아들이었고 데만 출신입니다. 창 36:15 “에서의 아들들 중에서 추장들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맏아들 엘리바스의 아들들 중에서는 추장 데만, 추장 오말, 추장 스보, 추장 그나스,” 데만은 에돔의 북쪽지역인데 예레미야는 데만과 에돔을 연관시켜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렘 49:20 “그러므로 주가 친히 에돔을 향하여 세운 계획과 친히 데만의 거주민들을 향하여 작정한 의도들을 들으라. 양 떼의 가장 작은 자가 반드시 그들을 끌어낼 것이요, 그가 반드시 그들과 그들의 처소들을 황폐하게 하리라.” 에스겔은 에돔을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예언 속에 포함시켰습니다. 겔 25:13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또한 내 손을 에돔 위에 내밀고 사람과 짐승을 거기서 끌어 데만에서부터 시작하여 그곳을 황폐하게 하리니 드단 사람들이 칼에 쓰러지리라.”

빌닷은 수아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데 어떤 사람은 수아사람 빌닷이 성경에서 가장 키가 작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수아사람이라는 영어 발음이 슈하이트이며 이는 신발 높이라는 뜻입니다. 둘의 발음이 같아서 수아사람인 빌닷이 키가 가장 작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성경에서 가장 키가 작은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나는 금과 은이 하나

도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슈하이트의 뜻은 키가 작다는 것도 있지만 가장 부족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적게 가질 수는 없다는 의미입니다. 빌닷은 아브라함의 둘째 부인인 그두라의 아들들 중에 막내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다툼의 아들이라는 뜻이며 뒤의 내용을 보면 그의 이름대로 살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나아만 사람 소발은 아마도 유다의 남쪽 경계 지역에 있는 나아만 출신인데 그의 이름은 참새라는 뜻입니다.

친구들이 욥을 찾아 왔을 때 그들은 욥에 대해 잘 알지 못했습니다. 겐으로는 친구인데 욥이 어떤 사람인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욥기가 32장이 더 지난 후에도 여전히 그들은 욥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채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욥을 알고 있었던 분이 한 분 계셨으니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마귀는 욥을 몰랐습니다. 욥의 아내도 몰랐습니다. 마치 알려지지 않았던 예수 그리스도와 같았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는데 자신의 백성이 알지 못함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던 것과 같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형들은 몇 번의 만남에도 이집트의 총리가 된 요셉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요셉이 자신을 드러냈을 때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욥은 “주의 결말”이 이루어졌을 때 그의 친구들에게 비로소 알려졌습니다.

욥기에는 열 명의 인물과 사건이 있는데 하나님은 이 열 명의 인물과 사건을 사용하셔서 자신의 성도 즉 욥을 통해 하나님을 알도록 하십니다. 그 인물들은

- 1) 마귀이며,
- 2) 스바사람들의 침략,
- 3) 양과 종들 위에 떨어진 하나님의 불,

- 4) 낙타를 친 갈대아 사람,
- 5) 열 명의 아들 딸의 죽음,
- 6) 아내의 시험,
- 7) 데만 사람 엘리바스,
- 8) 수아 사람 빌닷,
- 9) 나아만 사람 소발,
- 10) 부스 사람 엘리후 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이 쓰신 도구들입니다.

십계명이 이스라엘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가정교사였던 것처럼 이 열 가지가 욥을 하나님께로 인도한 가정교사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욥이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게 되는 이 놀라운 일을 마귀가 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다만 욥을 패망시키고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열 가지를 욥의 생에서 자신의 목적을 완수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욥은 한때는 살아 있었으나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졌을 때 죽었습니다. 이것이 3장에 가서 욥이 꺼낸 불평이었습니다. 그가 가장 즐겼던 그 빛이 되신 그분이 하나님이었었는데 이제는 그 빛이 슬픔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가 아예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완전한 암흑 속에 있었더라면 어쩌면 그의 슬픔이 조금은 줄어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욥의 세 친구는 욥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종들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주의 종들이 고난을 받는 것이 우리에게도 참 이상하게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금처럼 빚어갈 때 더 많이 빚을수록 우리는 점점 주의 종들을 모릅니다. 사실 우리는 그들을 쉽게 판단하고 내버리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고 심판해버린 것이 아

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천 영적 지도자들도 욱처럼 하나님께서 시험하고 정금같이 빛어 가는 단련을 받는 동안에는 마치 하나님이 내버린 것처럼 오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친구라고 불리는 이 세 명의 사람들이 욱을 포기하고 욱은 위선자이며 하나님의 심판을 마땅히 받을 자라고 결론짓는 것을 보게 됩니다.

허락받지 않고 설교했다 하여 1660년에 체포된 존 번연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이 일로 감옥에서 12년을 보냈습니다. 1678~1684년에는 두 번째 감옥에 투옥되었습니다. 번연에게 동정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또한 영적 전쟁이 치열할 때에 제자들에 의해 버림받았습니다. 바울 역시 박해를 당하는 동안에 늘 자신이 혼자였노라고 말합니다. 레스터 롤로프라는 유명한 목사는 텍사스 복지국으로부터 공격을 받았을 때 자신의 진영에 있던 그 어떤 형제도 옆에 남아 있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조지 워싱턴이라는 사람 또한 똑같은 교훈을 배웁니다. 이처럼 어려울 때 같이 있는 사람은 드뭅니다. 특히 영적 리더들에겐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어떤 어려움이 생기거나 고난을 받는 사람을 보면 ‘아! 이 사람 뭔가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책망하고 내버리는 것이 우리의 의무인 양 행동합니다.

욕의 세 친구의 슬픔은 진지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들은 무지한 가운데 있었지만 올바른 일을 했습니다. 그들은 울었으며 옷도 찢었습니다. 먼지도 뒤집어쓰고 앉았으며 입을 다물었고 욱을 동정했습니다. 우리는 ‘우는 자와 함께 울라’는 성경의 가르침을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우는 자와 함께 울 수도 있고 그보다 더한 동정심을 베풀 수는 있지만 그래도 여

전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방식에 대해서는 무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동정심이 어떻게 그렇게도 쉽게 빨리 경멸과 잔인함으로 바뀔 수 있는지를 곧 보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이 바로 세상적 지혜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제3장

욥기3장

욥이 자신의 태어난 날을 저주하다

우리는 앞서 두 장에서 욥이 실제 존재한 인물임을 살펴보았습니다. 욥의 이름은 ‘고통을 당하는’이라는 뜻입니다. 그의 출생지는 에돔이며 그의 재산은 얼마나 많았는지 동방에서 가장 큰 자라고 불렸습니다. 그는 마귀에 의해서 박해를 받았으며 마귀는 하나님으로부터 허락을 받았습니다. 박해는 그의 전 재산을 파멸시키고 그의 육체를 공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욥은 여전히 순전함을 지키고 사탄에 대해 인내했습니다. 이제 그의 친구 세 명이 옵니다. 그리고 친구들은 욥이 처한 상황에 압도당했습니다. 욥의 고통을 볼 때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 욥이 입을 열게 됩니다.

욥은 자기가 겪고 있는 질병에 대해서 7일 낮, 7일 밤동안 생각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점점 더 비참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드디어 그는 입을 엽니다. 그런데 이번에 등장한 욱은 1장과 2장에서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그는 태어난 날을 저주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일’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시지요? 여러 가지 겪는 일들을 볼 때 도대체 내가 이 골치 아픈 세상에 왜 태어났는가? 고 생각했을 겁니다. 틀림없이 그런 경험이 있었을 겁니다. 다만 여러분의 고난은 욱의 고난보다는 좀 작은 고난이었을 겁니다.

이 3장은 5부로 나뉘지는데 1부는 욱이 자신의 출생일을 저주하는 것이고(1-9절), 2부는 어렸을 때 차라리 죽었더라면 하고 얘기하는 내용이고(10-12절) 3부는 죽으면 꼭 쉴 텐데 하는 내용이고(13-19절) 4부는 죽었으면 좋겠다며 갈망하는 내용이며(13-19절) 5부는 공포로 인해 억압당하는 모습이 나옵니다(24-26절).

“이 일 뒤에 욱이 자기 입을 열어 자기의 날을 저주하니라. 욱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태어난 그 낮과 사람들이, 사내아이를 수태하였다, 하던 그 밤이 소멸되었더라면, 그 낮이 어두웠더라면, 하나님께서 위에서 그 낮을 돌아보지 아니하셨더라면, 빛도 그 낮 위에 빛을 발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어둠과 사망의 그늘이 그 낮을 얼룩지게 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낮 위에 거하였더라면, 그 낮의 캄캄함이 그 낮을 무섭게 하였더라면 좋았으리라. 그 밤으로 말한건대 어둠이 그 밤을 붙잡았더라면, 그 밤이 그 해의 날수에 끼지도 아니하고 달수에 들지도 아니하였더라면 좋았으리라. 보라, 그 밤이 적막하였더라면, 그 밤에 기뻐하는 소리가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 낮을 저주하는 자들 곧 어느 때든지 소리를 높여 애곡하려 하는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그 밤의 새벽녘의 별들이 어둡게 되었더라면, 그 밤이 빛을 바랄지라도 얻지 못하

였더라면, 그 밤이 날이 새는 것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으리니”(욥 3:1-9)

욥은 자기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이라며 자신의 날들을 저주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내용을 딱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다름 아닌 가룟 유다에게였습니다(마 26:24). 하나님의 자녀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이 비록 일시적이기는 하나 믿음이 상당히 퇴색하고 없어진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3장에서 11절, 12절, 23절에서 왜?, 즉 ‘어찌하여’ 라고 하는 표현이 다섯 번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욥은 자신의 태어난 날을 저주하고 태어난 그날이 달력에 없었더라면 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달력에는 그 날이 들어있죠.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도대체 아무런 쓸모가 없이 태어난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는 자신의 장자권을 멸시합니다. 저 자신의 출생을 탄식하는 사람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출생 즉 거듭남을 저주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출생을 그들에게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계셨던 목적과 선하심에 대해 결코 의문을 제기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바울이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에게 동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즉 이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무슨 일로 고소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시오, 참으로 다시 일어나신 분도 그리스도시니 그분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또한 우리를 위

해 중보하시느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 놓으리요? 환난이나 곤경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별거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이것은 기록된바, 우리가 종일토록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겨졌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니라.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통해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이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 있을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 놓지 못하리라.”(롬 8:31-39)

예레미야는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했을 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린 사람조차 저주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다툼의 아들’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한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대언자로 이스라엘 민족을 꾸짖고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것이라는 소식을 전달하라고 임명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임무를 수행하다가 자기 백성에게 미움을 받았고 고통을 당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자신의 태어난 날을 저주하면서 격노한 것은 자신이 고난을 당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그가 전하는 메시지에 대해서 백성들이 엉뚱하게 잘못 반응했기 때문입니다. 모세와 바울과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축복을 갈망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자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을 뻔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욕의 저주하는 모습과 비교한다면 예레미야의 경우는 훨씬 더 도덕적으로 수준이 높은 것 같습니다.

이제 고통에 있어서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고통당하신 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 12:27-28 “지금 내 혼이 괴로우니 내가 무슨 말을 하

리요? 아버지여, 이때로부터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런 까닭으로 이때까지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로부터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내가 이미 그것을 영화롭게 하였고 다시 영화롭게 하리라, 하시니라.” 마 26:39 “조금 멀리 가사 얼굴을 대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오 내 아버지여, 가능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시고는” 여기 보니 욥이 자신의 고통에 대해서 취한 태도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취한 태도 사이에는 광년만큼이나 먼 거리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욥이 저주한 날은 자신의 태어난 날뿐 아니라 다른 아닌 그것은 주의 날이요 “주의 날”을 예표하는 날인데 이스라엘이 대환난 기간에 놓이게 될 때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날이라는 표현이 처음 3장에서 10절 중에 10번이나 언급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욥이 자신의 날을 저주했는데(1절) 렘 20:14과 일치하고
 사내아이가 잉태되었다고 했는데(3절) 계 12:5의 사내아子和 일치합니다.
 그날에는 어둠이 있으리라고 한 욥 3:4은 계 6:12, 16:10과 연결되며
 ‘빛이 그 위에 비치지 아니하였더라면’ 이라고 했는데(4절) 슥 1:15과 행 2:20과 연결됩니다.

사망의 그늘이 그 낮을 얼룩지게 하였더라면 했는데(5절) 대환난 때에는 사망의 구름이 이 땅을 뒤덮을 것으로 보이며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물에 사망을 가져오는 방사선이 다 뿌려질 것입니다. 사 9:2, 시 44:19, 렘 13:16, 암 5:28과 비교를 해 보면 연결이 됩니다.

그날 밤이란 표현이 욥기 3:6-7에 나오는데 이 시대의 마지막을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표현으로 마 28:19-20, 13:43과 연결이 됩니다.

그 날이 1년의 어느 날과 연결되지 않았더라면 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다니엘의 70째주는 교회시대와는 분리되어 괄호 안에 들어간 삽입기간입니다.

그들의 애곡을 할 준비가 되어있다는 표현이 나오는데(8절) 적그리스도가 죽게 되면 하게 되는 스가랴 11:17과 연결됩니다.

‘날이 새는 것을 보지 못하였더라면’이라는 구절이 욥기 3:9에 나오는데 계 11:3-9에서 이집트에서 있었던 그 어두움이 날이 새지 못하여 그 어둠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나의 어머니의 태의 문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10절). 삼상 1:11에 나오는 사내아이의 출생과 연결이 됩니다.

욥기 3장은 야곱의 고난의 시기에 대한 탄식으로 시작됩니다. 렘 30:7에도 야곱의 고난의 때가 나옵니다. 욥은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합니다. 욥은 하나님의 주권자이시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조명의 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그 선하심을 곧바른 자들에게 대해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빛이 세 친구들처럼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그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것은 다름 아닌 그가 가지고 있었던 빛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더라면 좋았을 것을’ 하는 수준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는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도 의로운 자라고 스스로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도 의로운 사람이고 하나님도 의롭다면 왜 자신을 죄인처럼 취급하는 걸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날을 저주했습니다. 욥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철학 때문에 당혹했던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봐도 상당히 의로운 사람인데 하나님이 모르시다니, 나같은 사람에게 당연히 좋은 일이 있어야 하는데 왜 나쁜 일들이 생겼느

냐하는 것이죠.

욥의 저주는 창세기1장에서 처음 일어났던 훨씬 큰 저주의 예표였습니다. 창 1:2에 있었던 그 어둠의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원창조는 완벽했습니다. 하늘에 있는 모든 창조물들은 그들이 우주를 떠다니고, 날아다닐 때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둘러친 보호막이 제거되자 이 기름부음 받은 그룹이 하나님의 왕좌를 찬탈하기 위한 반역을 시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의 날을 저주하는 것으로 반응하셨습니다. 어둠이 우주를 덮었고, 빛은 어두워졌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그러자 어둠이 물러났습니다. 욥은 지금 그 어두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의 날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제 욥기 38장에 걸쳐서 욥은 더듬더듬 거리면서 여러 가지 의문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욥이 회개하고 밝은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저주하신 이래로 온 세상은 사악한 자의 손 안에 놓이게 되었고 어둠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 신은 사람들의 생각들을 가렸고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그들은 낮의 사람들이지 밤의 사람들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어둠의 영역으로부터 구출되어서 하나님을 아는 낮의 사람들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제 저주의 날이 제거되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날이 지속될 것입니다. 그 때까지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빛 가운데 낮에 걸어야 할 것이고 환난 중에도 기뻐해야 합니다.

최근에 제가 3살짜리 손녀에게 ‘생일 축하한다’는 전화를 걸었는데 딸이 전화를 받았을 때 제가 해피버스데이투유라는 노래를 불러주었습니다. 그러자 딸과 함께 노래를 부르며, 비록 2500마일이나 떨어져 있었고 전화

상이었지만 생일이라는 것으로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생일이란 어떤 사람을 축하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욥은 자신의 생일을 축하받기를 거부했습니다. 그의 생일에 저주를 퍼부었고 하나님께서 그날을 왜 허락하셨는지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욥은 과거에는 즐거운 생일을 맞이했었고 친구들과 자녀들과 지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모든 것이 다 잊혔습니다. 그는 죽음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때로는 너무 괴롭다보면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의아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생일을 저주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지혜와 선하심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조차도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려는 생각을 품은 적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달콤하게 사용하신다는 것을 배워야 하고 주의 징계를 경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그 밤이 내 어머니 태의 문들을 닫지 아니하고 내 눈에서 내 슬픔을 숨기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부터 죽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가 배에서 나올 때에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들이 먼저 가서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젖가슴이 먼저 가서 내가 빨게 하였던가?”(욥기 3:10-12)

모든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서 어린 시절의 인간은 가장 무기력합니다. 동물은 4-5살이 되면 다 자랍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시기가 되어도 여전히 무기력합니다. 옷도 입혀주어야 하고 목욕도 시켜줘야 하고 먹여주어야 하며 보호해 줘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교만을 숨기고 사랑을 불러오고자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태어난 날을 저주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로

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모습을 보여줄 뿐입니다. 욥의 슬픔은 자신의 청년 시기의 축복조차도 다 퇴색시켜버렸습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이제는 내가 가만히 누워 평온히 지내고 잠들어 안식하였을 것이요, 자기를 위해 황폐한 거처를 세운 땅의 왕들과 조연자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혹은 금을 가진 통치자들 곧 은으로 자기 집을 채운 자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혹은 남모르게 유산된 자같이 내가 존재하지도 아니하였겠고 전혀 빛을 보지 못한 어린 아기들 같았으리라. 거기서는 사악한 자가 소란을 그치고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안식을 얻으며 거기서는 옥에 갇힌 자들이 함께 안식하고 또 학대하는 자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자기 주인에게서 떠나 자유를 누리느니라.”(욥기 3:13-19)

이 13~19절까지의 내용은 미래에 인간이 어떻게 될 것인가의 상태에 대한 교리를 공부하고자 한다면 그리 썩 좋은 출발의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욥은 최소한 이곳에서 죽음에 대해서 제한되고 정확하지 아니한 견해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그의 탄식은 전도서에 나와 있는 것과 매우 유사합니다. 그런데 전도서는 해 아래서 일어난 일들을 관찰한 것입니다. 계시는 점진적입니다. 그 어떤 것도 단번에 계시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기뻐하심에 따라 말씀하시고 계시하십니다. 히브리서 1:1-2 “지나간 때에는 여러 시대에 다양한 방식으로 대언자들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들에는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며 그분을 모든 것의 상속자로 정하시고 또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들을 만드셨느니라.” “줄 위에 줄이 있어야 하며, 훈계 위에 훈계가 있어야 하며, 여기에도 조금 저기에도 조금 있어야”한다고 성경에 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욥이 이들 구절들에서 죽음에

대해 말할 때 잠자고 있거나 휴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몸에 대한 것이고 맞는 말입니다.

욥이 어렸을 때 죽었더라면 지금쯤 안식하고 있겠지요. 욥기 3:11에 나옵니다. 그의 숨(ghost), 혹은 혼(soul)은 낙원에 갔을 것이고 그의 육체는 무덤에서 잠자고 있을 것이며 휴식하고 있을 것입니다. 욥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죽은 자들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자가 다 안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슬픔과 수고와 박해로부터 자유롭습니다. 그곳은 악한 자가 소란을 일으키지도 않고 주인이 종을 학대하지도 않습니다.

욥은 부활에 대한 믿음도 갖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욥기 19:26 “내 살갗의 벌레들이 이 몸을 멸할지라도 내가 여전히 내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 구절이 개역성경에는 변개되어 있습니다.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고 되어있습니다. ‘육체 안에서’가 ‘육체 밖에서’로 되어 있습니다. (역주: 욥이 분명히 육체를 입고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고 있는데 그 부활을 부인하는 것이며 부활의 교리를 무너뜨리려는 것입니다.) ‘이 살갗의 벌레들이 이 몸을 멸할지라도’라고 했는데 이 벌레라는 말도 빠져 있습니다. 욥기 3:13-19만 얼핏 보면 마치 혼이 잠을 잔다는 인상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욥기의 이 구절들과 전도서와 나사로가 잠들었다고 하는 그 언급들이 혼이 잠잔다는 교리를 만들어 내게 합니다. 욥은 지금 어떤 종말론에 관한 교리를 선언하며 그에 대한 관심을 표하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는 지금 도저히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할 수 있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이와 같이 욥의 부활에 관한 신앙(욥 19:26)은 3장에 나와 있는 욥의 절규를 반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주제와 관련지어서 몇 가지 구절들과 언급을 살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윗은 시편 17:15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로 말하건대 나는 주의 가운데서 주의 얼굴을 바라보리니 내가 깰 때에 주의 모습으로 만족하리이다.” 마태복음 22:32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하셨으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매” 이 구절에서 우리는 나사로와 부자 사이의 대조를 보게 됩니다. 서신서에 보니 몸에서부터 떨어져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좋다는 바울의 고백을 듣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의 고백을 들어봐도 이것이 바울이 욥의 절망으로부터 나온 외침에서 나온 말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찌하여 그분께서 고통 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혼이 괴로운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가? 이러한 자들은 죽기를 갈망하나 죽음이 오지 아니하므로 땅을 파고 죽음을 구하기를 숨긴 보물을 구하는 것보다 더 하다가 무덤을 찾게 되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께서 둘러싸서 길을 숨기신 자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가?”(욥기 3:20-23). 욥은 지금 죽음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욥은 죽음을 꿈을 꾸는 잠으로 생각했고 그래서 죽음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23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처음으로 욥이 책임을 추궁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하나님께서 둘러싼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예레미야도 이와 유사한 말을 했는데 예레미야는 욥과 달리 항변으로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신앙고백을 합니다. “주의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지 아니하였으니 그분의 불쌍히 여기심은 끝이 없도다. ... 사람이 주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애 3:22, 26) 그런데 욥에게서는 이런 신앙고백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한 바울의 말에

서 들어봅니다. 롬 5:3-4 “그리할 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도 기뻐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체험을, 체험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서 둘러싸서 길을 숨기신 자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가?”(욥 3:23) 평생 동안 병원 침대에 갇혀서 죽지도 않고 숨만 쉬며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왜 허락하시는지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해보신 적 없으신지요? 고통스럽고 힘이 들 텐데 왜 살려두시는 걸까요? 어떤 사람은 살아가는 동안에 아내도 죽고 자녀들도 다 성장하여 떠나가고 그의 건강도 악화되고 하루하루 목숨이 붙어있는 것이 짐이 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데려가지 않으십니다. 왜 본향으로 데려가지 않으실까요? 이것이 욥이 하는 질문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질문입니다. 누가 그 질문의 답을 알 수 있을까요? 아무도 그 답을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욥의 생명에는 손대지 말라고 사탄에게 요구하셨습니다. 여기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이 세상에서의 모든 안락함과 모든 관계가 다 망가졌어도 우리의 삶을 연장하시는 데는 여전히 목적이 있습니다. 왜 이 세상에 더 살게 하시는 걸까요? 우리는 욥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선하심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을 배웁니다.

“나는 먹기도 전에 탄식하고 나의 울부짖음은 물들처럼 쏟아졌으며 내가 크게 두려워하던 것이 내게 임하였고 내가 무서워하던 것이 내게 이르렀도다. 내게는 안전도 없고 안식도 없고 평온함도 없었으되 고난이 임하였도다, 하니라.”(욥기 3:24-26) 욥은 여기서 왜 자기가 죽기를 바라는지 이유를 말합니다. 그의 삶에 있어서 그의 슬픔이 너무 일찍 찾아왔습니다. 그는 밥을 먹기도 전에 불평부터 입에서 터져 나옵니다. 밤새도록 하나님께 울부짖었겠지요. 그러나 아무런 소용이 없었으며 그는 완전히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시편 42:7-8과 비교해 보세요)

욥이 잘 나가던 때에 부를 누리며 번영을 누리던 좋은 시절에서조차도 그는 마음 한 구석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다 성취했다고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시온에서 안락하게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부지런했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서약한 것을 다 다했습니다. 그는 결코 다음과 같이 얘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훈아, 네가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 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하리라, 하였느니라.”(눅 12:19) 욥은 어리석은 부자처럼 행동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무슨 일인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하며 살았는데 일은 일어났고 고난은 오고야 말았습니다. 왜? 라고 욥은 지금 묻고 있습니다.

제4장

욥기4~5장

“무죄한 자가 멸망당한 적이 있던가?”(엘리바스)

1장과 2장에서 우리는 욥이 시련 앞에 놓였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욥기 1:6-22까지에서 사탄이 첫 번째로 욥을 공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욥기 2:1-10에서 두 번째 사탄으로부터 공격이 있었고 욥기 2:11-13에 드디어 욥의 친구들이 도착합니다. 욥기3장에서는 탄식을 하는데 첫 번째는 내가 왜 태어났는가? (3:1-10) 두 번째는 왜 나는 죽지 않았는가? (3:11-19) 하고 탄식했으며, 세 번째로 나는 도대체 왜 살고 있는가? (3:20-26)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욥기 4장~31장까지의 기록은 욥이 자신이 갔던 길이 잘못된 길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욥의 친구들이 설득을 시도하는 부분입니다. 1라운드는 욥기 4장~14장까지이며, 2라운드는 욥기 15장~21장까지이며, 3

라운드는 욥기 22장~31장까지입니다.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욥의 불평에 대해서 첫 번째로 대답을 합니다. 그는 에서의 아들입니다(창 36:4, 10-16; 대상 1:35). 에돔이라고 불리는 이두메아 동쪽 지역의 데만이라고 하는 곳의 거주민이었는데 엘리바스가 논쟁의 근거로 삼은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객관적으로 관찰을 해보니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환상을 보았는데 이를 근거로 볼 때 욥은 분명히 죄인이므로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즉 그는 체험과 관찰에 근거해서 논리를 전개한 것입니다(욥 4:16-21). 그가 그렇게 자신의 주장을 진리인 것처럼 내세우는 근거는 신비롭고 굉장히 무서운 체험을 한 것으로 말합니다. 엘리바스의 결론은 욥은 죄를 지은 위선자이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데만 사람 엘리바스가 응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와 대화하려 한다면 네가 근심하겠느냐? 그러나 누가 참고 말을 하지 아니하겠느냐?”(욥기 4:1-2) 욥이 ‘왜? 어찌하여 태어났는가? 어찌하여 죽이지 않고 살리셨는가? 어찌하여, 어찌하여...’ 라고 3장에서 이 말들을 하므로 엘리바스가 그것에 대해서 만약 친구들이 답변을 한다면 혹시 마음이 상하거나 불쾌하거나 그렇지 않겠느냐고 질문하면서 시작합니다. 이 친구들은 욥이 불평하는 소리를 들었고 자신의 삶이 무의미하다고 저주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욥에게 답변을 해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사실 친구들은 욥이 큰 죄와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아주 잘못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에 반드시 지적을 하고 고쳐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엘리바스가 질문한 것에 주목해봅시다. 욥과 의사소통을 하려고 욥이 불평하고 있었던 것에 관해 친구들이 모여서 의논을 했습니다. 욥이 이렇게 큰 고통을 당하는데 원인이 도대체 무엇일까 서로 이야기합니다. 어떻

게 하면 그를 도울 수 있을지 의논한 결과 엘리바스는 욥의 어리석은 불평에 대해서 반드시 답변을 해주어야 한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이 친구들이 보기에는 욥이 하는 말이 정말 어리석고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를 좀 꾸짖어 주고 바로 잡아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비록 욥의 슬픔이 더해지더라도 확신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말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은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말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엘리바스는 가장 나이가 많고 지혜가 많다고 주장하므로 그가 가장 먼저 답변을 하게 됩니다.

3~6절까지의 내용은 욥의 행실이 일관성이 없으며 과거에 욥이 했던 말과 비교해 보니 그 정도의 지위를 누리는 사람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라며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보라, 전에 네가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연약한 손들을 강하게 하며 넘어지는 자를 네 말로 붙들어 주고 연약한 무릎들을 강하게 하였으나 이제 그것이 네게 닥치니 네가 힘을 잃고 그것이 너를 건드리니 네가 괴로워하는도다. 이것이 네가 두려워하는 바요, 확신하는 바요, 바라는 바요, 또 네 길들의 곧바름이 아니냐?”(욥기 4:3-6)

친구들은 먼저 욥의 의로운 행위에 칭찬을 해주었습니다. 욥은 어떤 사람인가? 지혜로운 사람들 중에 속한 자로서 그 동네의 성문 위에 앉아서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충고도 해주고 지침도 알려주는 일종의 상담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나이든 사람에게 상담도 받고 하는 것은 당시 관행이었습니다. 룻 4:1-2 “그때에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 앉았는데, 보라, 보아스가 말하던 친족이 지나가므로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어이, 아무개여! 돌이켜서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돌이켜서 앉더라. 또 그가 도시의 장로 열 명을 데려다가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더라.” 창 9:1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이 당시에는 성문에 앉는 것이 마을의 유지들이 했던 일인데, 욥은 그런 지위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욥은 그 당시 살던 마을에서 알려져 있던 사람이었고 지혜로운 충고로 충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의 충고를 듣고 도움을 받았으며 욥은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는 낙담한 사람들을 말로써 붙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약한 무릎을 지녀 빛나간 사람들은 욥의 충고로 다시금 바로 잡혔습니다. 욥이 상담자로서 다른 이들을 북돋아주어 세워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온 땅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욥의 도움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증언합니다. 그가 이와 같은 일에 얼마나 열심이였으며 잘하였는지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욥이 다른 사람들에게 해준 충고와 도움이 역으로 자기 자신에게는 채찍으로 되돌아와서 자신의 슬픔이 더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것이 네게 닥치니 힘을 잃고 그것이 너를 건드리니 괴로워하는 도다.”(5절) 엘리바스가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가 다른 사람들을 가르쳤는데 이제 당신에게 어려운 일이 닥친다고 하여 절망하면 어떻게 하느냐? 네가 했던 충고에 대해서 너는 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느냐? 이번에는 너에게 어려움이 닥치니 죽고 싶다고 그렇게 말해서야 되겠느냐는 논리를 폈습니다.

이와 같은 친구의 모사가 얼마나 잔인한 것인지 우리가 쉽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욥이 당한 처지를 볼 때 친구들의 말은 너무나 잔인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 사람들이 던졌던 그 조롱과 핍박이 비슷합니다. 눅 4:23 “...너희가 분명히, 의사여, 너 자신을 고치라, 한 이 격언을 내게 말하며...” 바로 이것이 욥이 들었던 비방입니다 “욥! 당신이 했던 충고나 지키시오.

당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도 도와줬더구만. 그들에게 충고했지 않았나? 설교한대로 행동도 해야지. 당신은 위선자가 아니냐?” 이런 뉘앙스입니다.

충고를 받아들이는 것보다 충고를 해 주는 것이 더 쉽습니다. 손가락이 압착기에 놓여 있으면 사람 말을 듣기보다는 먼저 머릿속에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짝어 누르는 고통으로 인해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옴은 지금 너무나 슬픔과 큰 고통에 처해 있어서 무슨 신학적인 논리를 전개할 여력이 없습니다. 지금은 신학적인 논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누군가 이해해 줄 사람이 필요했고 그의 고통을 덜어 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은 옴이 왜 그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 원인도 찾지 못했고 더군다나 옴을 어떻게 위로해주어야 할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자신들이 하는 충고를 따르라고 하는 것보다 더 큰 잔인함이 있을까요. 위로 대신 충고를 하는 모습이라니, 이런 모습이 우리들 자신과 근본주의자들이 욕을 먹는 이유 중 대표적인 것 같습니다. 성경을 많이 알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기면 우리는 성경을 펴서 가르쳐주는 잘 하는데 실제로는 그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위로가 필요한 경우 지적만 하고 있다면 상처만 줄 뿐입니다.

옴에게 찾아온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이 겪은 고통에 대해서는 잘 알고 그 이유도 알고 있었습니다. 죄를 지어서 벌 받았다는 것ですよ. 그러나 옴의 경우는 다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그렇게 거칠게 다루고 계시는지 도저히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옴을 평가하실 때 건전하고 정직하며 곧바르고 악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로 칭찬일색이었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바울이 성령이 충만한 상태로 살았

음에도 엄청난 고난을 당했는데 이유를 알 수 없다 할 정도입니다. 자기의 슬픔에 대한 이유를 밝히 알 수 없어서 욥은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엘리바스는 욥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욥기 4:6에 따르면 이 말씀에 어떤 암시가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욥은 자기 의 때문에 진노와 심판으로부터 자신을 숨기려고 하는 것이 얼핏 보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충고도 하고 가르쳐주기도 했던 그런 것들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두려움을 살짝 덮어버린 것이 아닌가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곧바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어디에 기초한 것인지를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돕고 있기 때문에 잘하고 있으니까 자기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도덕군자들도 그렇습니다.

참으로 선한 형제들이 와서 출발은 순조로웠습니다. 고통당하는 욥과 함께 일주일 동안 울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지혜가 많았던 엘리바스가 10구절도 지나기 전에 욥에게 슬픔을 더해주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더욱 욥을 비판합니다.

엘리바스는 갑자기 젊은 사자, 늙은 사자들의 이야기를 횡설수설 늘어놓습니다. 왜 엘리바스가 이런 얘기를 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 예화는 분명합니다. 7-11절까지 보면 이렇게 친구가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원하건대 기억하라. 누가 죄 없이 멸망하였느냐? 의로운 자가 끊어지는 곳이 어디냐? 내가 보았거니와 불법을 경작하고 악을 뿌리는 자들은 바로 그것을 거두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거센 바람에 의해 멸망하고 그분의 콧구멍의 숨에 의해 소멸되느니라. 사자의 울부짖음과 사나운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젊은 사자들의 이빨이 부러지며 늙은 사자는 먹이가 없어 죽어가고 강인한 사자의 새끼들은 널리 흩어지느니라.”(욥 4:7-11) 이 구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죄 없이 망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욥 또는 가족이 강력하다 할지라도 사악한 자와 그의 가족은 반드시 멸망당하고 만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은연 중에 바로 그 강한 자가 욥이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자를 마음대로 다루실 수 있는 것과 같다는 말로 욥을 공격한 것입니다. 그리고 욥에게 말하기를, “너 혹시 역사에 대한 지식이 좀 있으면 생각해보아라. 그리고 죄 없이 망한 사람이 있거든 이름을 대보라. 의로운 사람치고 망한 사람이 있으면 말해보라.”며 추궁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너무나 자신이 넘쳤습니다. 그가 너무 자신감이 넘치다보니 까 과거 성도들의 삶을 보면 얼마든지 의롭게 살다 죽은 경우가 있음에도 그런 것은 다 가려져 보이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선택한 대로 언제든지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능력도 다 가려졌습니다. 심지어 욥의 경우는 예외적인 경우인 것도 모른 채 혼자 자기 의에 들떠서 흥분하고 있는 중입니다. 끝내 엘리바스는 욥이 위선자라고 합니다. 죄를 짓지 않고 망하는 사람은 없다고 단정 짓습니다.

그러나 의로웠던, 죄 없던 아벨은 멸망했습니다. 인생 초기에 얼마 되지 않아 끊어져 버렸습니다. 의로웠던 롯 역시 집이 불타버렸고 결국은 고향을 떠나서 굴 속에서 살았습니다. 야곱도 신명기 26:5에 멸망 받을 수밖에 없는 시리아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도 의로운 이였죠.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은 이와 같은 유사한 경우의 사람들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엘리바스도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알았어야만 했는데 어찌 그걸 몰랐는지요. 그러나 그 엘리바스는 너무나 자신의 의에 갇혀서 많은 의로운 사람이 죽음을 당한 역사를 잘못 해석하고 말았습니다.

죄 없이 망한 사람이 있으면 이름을 대보라고 욥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 물론 엘리바스가 관찰한 바에 따라서는 사람은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을 보았고, 이는 실제로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문제는 어디에서 오류가 발생했는가? 엘리바스는 모든 것을 관찰한 것처럼, 자기가 보지 못한 사건도 있을 텐데, 성급하게 일반화한 것이 바로 오류입니다. 그리고 그가 본 불행은 다 죄에 의한 결과일까요? 아닙니다. 엘리바스는 그저 자신의 의에 들떠서 말하는 겁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것은 우주의 법칙입니다. 그러나 가끔 수정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역시 자신이 뿌리지 않은 것을 거두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그들이 심지 않은 것을 거둘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악함을 심었는데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하신 것으로부터 많은 유익을 거두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잘못이 아님에도 고통을 당합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런 고통을 당하지 않은 사람은 어쩌면 불못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할 겁니다. 우리는 때가 되기 전에 성급히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엘리바스의 관찰은 어쩌면 사실일 수도 있겠으나 그가 최종적으로 내린 결론은 잘못입니다. 엘리바스의 오류는 일반적인 것으로부터 구체적인 것으로 논리를 전개시킨 것입니다. 일반적인 원칙이 있다하더라도 구체적인 사례에는 예외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욥의 경우가 바로 이 예외에 해당되는 것인데 이를 미처 모르고 일반적인 원칙을 적용하여 ‘욥은 죄를 지었고 그 때문에 벌을 받는다’고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바스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러한 자들을 멸하셨는지까지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숨이 순식간에 회오리 바람처럼 불어 멸하신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가 언급한 폭풍으로 내리친다는 것이 마치 광야로부터 불어온 바람이 욥의 자녀들을 죽였던 그것을 던지시 언급하

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욥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욥의 부서진 마음에 슬픔이 얼마나 가중되었을지 짐작이 됩니다.

사자는 짐승들의 왕입니다. 사자는 동물들이 다 두려워하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유다 지파의 사자로 불리셨습니다. 사탄은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는 사자로 비유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엘리바스가 사자 이야기를 꺼낸 목적은 이러한 예를 들어서 자신의 주장을 보다 확고히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자는 사납고 아주 교만하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강력한 턱은 먹잇감을 한 번에 제압합니다. 가고 싶은 곳으로 슬슬 돌아다니며 마음대로 정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와 비교한다면 사자의 이러한 용맹스러움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자가 울부짖으면서 사람을 위협할 수 있을지는 모르나 하나님께는 아니지요. 하나님은 그들을 침묵시키고 다 흠어버리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다른 자들을 삼키는 그 강력한 이빨을 부숴버림으로써 사자들을 다 멸하십니다. 그리고 먹이를 제거하심으로써 늙은 사자를 굶겨 죽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사자의 교만은 다 멸망당하고 그들에 대한 기억도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분명히 암시하고 있는 것은 욥과 욥의 가족이 그 지역에서 왕 같은 존재였고 가난하고 약한 자들로부터 늘 두려움과 존경의 대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이렇게 암시합니다. ‘욥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욥을 축복하셨을 리 없다. 그렇다면 욥은 분명히 다른 이들의 집과 땅을 삼켜 부를 축적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정의로운 심판이 도래할 것이고, 결국 이루어졌구나!’ 그 하나님의 심판은 욥의 자녀들에게 내려졌습니다. 젊은 사자들의 이빨이 부

러졌고 늙은 사자는 자신의 소유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엘리바스 같은 친구가 있다면 아마 원수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언제든지 원수로 돌변하니깐요. 엘리바스는 단지 이제껏 자기가 관찰한바 모든 보응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심판이라고 믿었습니다. 이번에는 자신의 믿는 바가 사실이라는 것을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환상이 분명하게 확증해준다는 주장을 합니다.

“이제 어떤 일이 내게 은밀히 이르렀고 내 귀가 거기서 조금 들었느니라. 사람들이 깊이 잠들 즈음에 그 밤에 본 환상들로 인하여 생각에 잠겼을 때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임하여 내 모든 뼈가 흔들렸느니라. 그때에 내 얼굴 앞으로 한 영이 지나가므로 내 살의 털이 곤두섰느니라. 그 영이 가만히 서 있었으되 나는 그것의 형체를 분간하지 못하였느니라.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고 거기에 고요함이 있었으며 내가 한 음성을 들었는데 이르기를,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의롭겠느냐? 사람이 자기를 만드신 분보다 더 깨끗하겠느냐?” (욥 4:12-17)

이 구절들에 대해서 히브리서 1:1-2이 짧게 주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나간 때에는 여러 시대에 다양한 방식으로 대언자들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들에는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며 그분을 모든 것의 상속자로 정하시고 또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들을 만드셨느니라.” 옛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들과 소통을 하셨습니다. 별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예언적인 계획을 전달하기도 하셨지요. 시편 19편을 조심스럽게 살펴보면 하나님의 계시의 방법이 두 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시편 19:1-6). 하늘들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가르치시는 수단이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나 7절에 가면 주석가들을 당혹스럽게 하는 변화가 눈에 확 띄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말씀을 전달하는 수단을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엘리바스는 환상을 체험했는데 그것이 그에게 상당한 영향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욥과 이 논쟁을 벌이기 전에 어쩌면 하나님께서 엘리바스가 성령님을 만나도록 하신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방법을 허락하셨는지 확실히 알 수 없지만 어쩌면 엘리바스에게 뭔가 메시지가 필요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엘리바스는 하나님이 보내신 영의 가르침을 겨우 한 조각만 알아들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메시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죄악이 가득 찬 인간의 제한된 이해력 때문이겠지요. 바울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거울을 통해서 희미하게 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으로부터 너무나 적게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우리의 능력의 한계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홍수처럼 진리를 쏟아부어주시는데 우리는 그저 안개처럼 희미하게 몇 개를 받는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설교자든 성경교사든지 겸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가르치는 어떤 것이든 겨우 10%정도만 수용될 뿐 나머지 90%는 다 땅에 떨어지고 맙니다. 그러니 똑같은 설교를 10년, 20년을 해도 여전히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환상은 깊은 잠에 빠져들었을 때 나타났습니다. 상당수의 하나님의 환상이 잠자고 있는 사이에 나타나는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잠들게 만드시기도 합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사람이 세상과 자아에 가장 적게 점령당하는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인간이 하나님에게 영감을 달라고 강요할 수 없습니다. 그 분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것이니까요. 그분의 의지에 달린 것입니다. 하나님께

서 어떤 방식으로 자신의 계시를 보내시든지 간에 우리는 늘 마음에 받을 준비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이번에 엘리바스가 본 환상은 정말 무시무시해서 그의 근본까지 뒤흔드는 엄청난 것이었습니다(14절).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절해서 30분 동안 꿈몽 앓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류의 체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한 형상이 그의 앞으로 휙 지나가는 것을 느꼈을 때 그는 모든 털끝이 곤두섰다고 했습니다. [역주: 여기에서 고스트(ghost)는 성령님으로 알려져 있는데, 영을 뜻하는 spirit과의 차이는 잘 모르겠으나 일반적으로 ghost는 Holy ghost로 쓰고 성령님을 인격으로 대할 때 사용하고, Holy Spirit은 그의 영향력이나 힘, 기능을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구분하는데 이것이 완전히 성경적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마치 유명처럼 느껴졌습니다. 엘리바스는 그것의 형태는 보았지만 얼굴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가 있는 곳으로 휙 오더니 그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침묵을 지키고 있었는데 엘리바스는 두려워 몸이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 영이 말씀했습니다.

꿈 속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루어진 대화는 사실입니다. 그분의 거룩하심과 권능은 우리가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비교해보자면 그분의 천사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간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저 코로 숨을 쉬는 존재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숨을 막으면 끝나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맞는 말씀이지만, 다만 욕에게는 이것이 적절하지 않고 적용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욕에게 필요한 말씀이 아니고 욕을 비방하기 위한 것이라면 엘리바스는 의로운 자일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엘리바스도 누구나와 똑같이 더러운 자가 아닙니까? 엘리바스는 그 환상에서 얻은 말씀을 잘못 적용한 것 같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은 이와 같이 잘못 적용한 말씀 때문입니다.

“보라, 그분은 자신의 종들을 신뢰하지 아니하시며 자신의 천사들을 어리석음으로 인해 꾸짖으시거늘”(욥 4:18).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통치를 천사들이나 인간에게 중단해 보신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지배하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와 인간의 한계, 나약함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의로운 통치를 기대하거나 신뢰하지 않으십니다. 천사든 인간이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하기에 너무 나약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단지 먼지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므로 인간이든 천사든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인간이나 천사가 하나님을 무시하며 하나님을 배제한다 할지라도 그분의 통치는 아무런 손해를 입지 않습니다. 시 50:7-12 “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오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향하여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네 하나님이로다. 내가 네 희생물이나 네 번제 헌물로 인하여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그것들이 계속해서 내 앞에 있어 왔도다. 내가 네 집에서 수소나 네 우리에서 숫염소를 취하지 아니하리니 숲의 모든 짐승과 천 개의 작은 산 위의 가축이 내 것이니라. 산의 모든 날짐승도 내가 알며 들의 들짐승들도 내 것이로다. 가령 내가 주린다 할지라도 네게 말하지 아니하리니 세상과 거기의 총만한 것이 내 것이로다.”

엘리바스의 이러한 논쟁은 욥에게 그 자신의 의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엘리바스가 하나님은 자신의 창조물과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어서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엘리바스가 또 진리로부터 시작하여 오류로 끝나버린 실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성도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돌보고

계십니다. 창조물에게 신경도 쓰지 않고 멀리 가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사탄과 주님 사이에 욥의 의로움을 두고 다툼이 있기까지 했는데, 엘리바스가 잘못 생각 한 셈입니다. 욥 5:1-5 “네게 응답할 자가 있거든 이제 부르라. 네가 성도들 중에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진노는 어리석은 자를 죽이고 시기는 미련한 자를 죽이느니라. 어리석은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내가 보았으되 즉시 그의 처소를 저주하였노라. 그의 자녀들은 안전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그들이 성문에서 짓눌리되 그들을 건져 내는 자가 없으며 그들이 수확한 것은 주린 자가 먹고 가시나무에서 난 그것도 가져가며 강도가 그들의 재산을 삼키는도다.”

엘리바스는 욥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너의 주장에 답변해줄 사람이 있다면 그 이름을 말해보라” 고요. 욥처럼 의로운 사람들이 고난을 받는 것이 맞다고 주장해줄 사람이 있는지, 과연 그러한 사람이 있는지 말입니다. 엘리바스의 고소 내용은 욥이 진노의 사람이며 어리석은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개인적인 시기심이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을 불러왔다는 논리를 전개시켰습니다.

엘리바스는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배운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만약 여러분과 제가 어째서 선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지 알고 있는 듯이 말한다면, 우리 역시 엘리바스처럼 어리석은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선한 이들이 왜 고통을 당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견해는 제한되어 있고 더 이상 논리를 전개할 수 없는 그런 판단은 멈추어야 합니다.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엘리바스는 ‘나는 보았노라.’ 고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가 본 것이 욥에게서 본 것과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가 저지른 큰 실수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는 악한 자가 뿌리를 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악한 자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한참을 인내한 후에 그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들의 집과 자녀들이 파괴되고 멸망당했습니다. 그들의 사악함이 결국 그들을 앗아가 버렸습니다. 과거에 이렇게 악한 이들이 심판을 받은 적이 있고 그것을 엘리바스가 목격한 것은 사실일겁니다.

문제는 엘리바스가 일반적인 원칙을 적용해 진리로부터 또 다른 오류로 자신의 논리를 전개했다는 것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여러 경우들은 맞을 수도 있습니다. 악한 이가 벌을 받는다. 누가 그것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욥은 잘못을 저질러서 하나님께 매를 맞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사악하지도 않고 어리석지도 않으며 남을 시기하거나 질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의로운 사람이며 하나님께서도 이를 입증해주셨습니다. 1장과 2장에서 두 번씩이나 의로운 사람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완전하며 곧바른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을 사악하고 죄를 지어 심판 받았다고 한다면 정말 심각한 잘못입니다. 엘리바스는 잘못 판단한 것입니다. 이와 유사한 일들로 교회 안에서 실족하고 상처를 입습니다.

한때는 욥이 그의 이웃의 시기를 받을 만큼 엄청난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이웃들도 축복해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욥의 재산이 얼마나 많았던지 그의 종들은 항상 그것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동물들과 짐승들, 강도들로부터 욥이 거둔 수확물을 뺏기지 않도록 울타리를 쳐서 넘어오지 않도록 지켜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울타리를 제거해 버리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우리는 신앙 테스트를 받게 됩니다. 이것은 욥의 사악함 때문이 아니고 오히려 욥에게 사악함이 없음으로 욥의 의로움을 증명하기 위한 테스트였습니다.

다. 욥의 의가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만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해서 여전히 유지되는지를 테스트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상당히 인정받는 성숙된 그리스도인에게 더 큰 고난이 닥칠 수 있다는 것을 배울 수 있는 대목입니다. 교회사에도 이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강도들이 욥이 수확한 것들을 전부 가져가 버렸고, 그의 재산을 다 삼켰습니다. 욥의 거처 역시 파괴되었고 자녀들 역시 무사하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엘리바스가 말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욥이 이러한 일을 당한 이유는 그가 제시한 것과 달랐습니다.

욥 5:8 “나는 하나님께 구하겠고 내 사정을 하나님께 맡기리라.” 엘리바스는 욥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하나님께 자백을 하는 게 좋겠어. 너 지금 고통당하고 있어, 너무나 분명하잖아. 네가 고통당하는 것은 아무런 이유 없이 무작정 당하는 것이 아니야. 다 이유가 있을 거야. 인간을 벌주시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니까. 인간의 본성은 늘 죄와 문제들을 야기시키지. 너도 인간이잖아?” 그렇다면 욥이 고통을 당하고, 그 고통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면, 그는 하나님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에는 절반의 진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의 허락 하에 사탄이 고통을 줄 수도 있습니다. 욥의 경우에는 사탄이 그 일을 수행했습니다. 엘리바스 역시 하나님이 허락하신 도구 중 하나입니다. 엘리바스가 그 사실을 알든 모르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구하겠고 내 사정을 하나님께 맡기겠다.” 고 엘리바스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엘리바스는 욥의 사정을 모릅니다. 욥과 처지가 다릅니다. 따라서 엘리바스는 욥이 무엇을 해야 할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아뢰라.’ 그의 충고는 선하고 올바릅니다. 당연히 고통당하는 사람

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왜 고난을 당하는지 모를 때 우리는 인내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바로 이것이 욥이 당하는 고난입니다. 고난을 당하는 것 자체보다 고난을 당하는 이유를 모르는 것이 더욱 참기 힘듭니다. 일반적인 원칙은 ‘죄를 지음으로 벌을 받는다, 심은 대로 거둔다’입니다. 그런데 욥은 지금 순전하고 곧바른 사람이라고 했는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지요. 엘리바스는 정말 좋은 충고를 해주었지만 타이밍이 잘못되었습니다. 욥은 지금 자신에게 동정심을 가지고 마음을 같이해줄 친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엘리바스는 그가 가지고 있는 철학 때문에 친구를 위로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엘리바스는 이제 다시 한 번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분인지를 설파합니다. 이것은 고통스러워하는 욥에게 마치 조직신학 강의를 하는 것만큼이나 너무나 이론적이고 현실에 맞지 않는 말입니다. 욥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너무나 어리석습니다. 엘리바스는 욥에게 하나님께서는 메마른 대지에 비를 내려 적시는 분이시며 자연을 통제하시는 분이라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긍휼을 베푸신다는 강론을 합니다. 욥기 5:11,15-16 “그러나 그분은 가난한 자들을 칼과 그들의 입과 강력한 자들의 손에서 구원하시나니 그러므로 가난한 자들에게 소망이 있고 불법이 스스로 입을 다무느니라.”

엘리바스는 욥과 함께 울든지 위로를 하든지 했어야 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은 주지 않고 또 한편의 설교를 했습니다. 어쩌면 최근에 욥이 농사를 짓는데 비가 오지 않았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엘리바스는 그것을 보았던 것일까요? 그는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나는 보았어.” 게다가 겸손하고 가난한 자와 악한 부자 사이의 의도적인 비교를 합니다. 아마도 욥

이 악한 부자라고 하는 것이겠죠. 하나님은 마음이 겸손한 자는 높이시지만 질시와 힘으로 부를 쟁취한 자들은 끝내 다 빼앗으실 것이기 때문이죠. 욥 5:12-14을 보면 바로 이 거짓 추론이 욥을 타깃으로 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은 간교한 자들의 계락을 실패로 돌리사 그들의 손이 그들이 경영하는 바를 이루지 못하게 하시며 지혜로운 자들을 자기들의 간계에 빠지게 하시고 거역하는 자들의 계락을 거꾸러뜨리시므로 그들이 낮에 어둠을 만나고 대낮에도 밤처럼 더듬느니라.”(욥 5:12-14)

엘리바스는 지금 욥을 고소하는 중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욥의 성공을 사악한 자의 경영이라고 보실까요? 욥은 자신의 간계에 빠진 것일까요? 욥이 그동안 했던 충고가 속임수였나요? 전혀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에서의 일을 성경 욥기 1-2장에서 이미 보았기 때문에 욥의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엘리바스에게는 단서가 전혀 없어서 모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욥의 고난의 이유를 대는 데 있어서는 그저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무지한 상황입니다.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을 어떻게 좌절시키는지에 대해 우리가 조명을 받게 됩니다. “그들이 낮에 어둠을 만나고 대낮에도 밤처럼 더듬느니라.” 악한 자들의 멸망은 환한 대낮에 일어납니다. 모두가 다 보고 알 수 있도록 사악한 자들의 계획을 다 엉망으로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래서 환한 대낮인데도 더듬거리면서 왜 이럴까? 하며 해답을 찾아 나섭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욥과 같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당황스럽고 황당합니다. 그런데 엘리바스는 자신이 답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욥은 위선자야. 죄를 짓고도 아닌 척을 하고 있어. 그러니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

엘리바스에 따르면 욥은 하나님이 바로잡기 위해서 엄청난 고난을 준

것이고, 따라서 욥이 행복해지려면 그 사실을 빨리 인정하고 고백하여 회개해야만 한다는 논리가 됩니다. 이것이 욥기 5:17-20의 내용입니다. 엘리바스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지 확신할 뿐만 아니라 욥이 겪고 있는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 5:17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욥 5:17 “보라, 하나님께서 바로잡아 주시는 자는 행복한 자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엘리바스의 충고 자체는 좋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고 나면 모든 인간은 다 행복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를 채찍질 하시느니라.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엘리바스가 한 말은 다 맞고 좋은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전과 마찬가지로 엘리바스가 아주 고상한 척 내숭을 떠는 태도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욥은 잘못을 바로 잡아야 할 처지가 아닙니다. 지금 욥이 체험하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고뇌를 겪을 만큼 그는 그 어떤 죄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나를 움직여 그를 치게 하고 까닭없이 그를 멸하게 하려 하였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욥은 고통을 당해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욥 2:3).

엘리바스는 욥과 동일한 자리에 앉을 자격이 없습니다. 욥과 수준 차이가 아주 많이 나죠. 하나님의 평가가 있기 전에 인간이 보아도 엘리바스는 교만하고, 경건한 척하며, 무지합니다. 친구가 왜 이 고난을 당하는지 욥을 어떻게 하면 위로할 수 있는지 개념이 전혀 없습니다.

욥과 그의 친구들 사이의 논쟁을 해석할 때 발생하는 문제는 그들의 말에는 진리가 있으나 오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용은 맞는데 적용할 대상이 틀렸습니다. 문제가 복잡해지는 이유는 진리가 잘못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역시 올바른

른 진리이지만 교회시대 성도들에게 적용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구절입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면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도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자신의 손으로 온전하게 하시는 분으로 소개됩니다(욥기 5:18). 다음 구절에는 매일 매일의 삶 속에서 인간을 구출해 주시는 분이시요, 기근과 전쟁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분으로 소개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잡아주시는 자는 안전하고 두려워해야 할 필요가 없다고 22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장수하고 평강을 누리며 자녀가 대를 이어 잘 번영할 것입니다. 23~26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욥기 5:23-26 “네가 들의 돌들과 동맹을 맺고 들의 짐승들이 너와 화목하리라. 이로써 네 장막이 평안한 줄을 네가 알며 네 처소를 보러 가서 죄를 짓지 아니하고 또 네 씨가 크게 되며 네 후손이 땅의 풀과 같이 될 줄도 네가 알고 곡식 단이 제때에 들어가는 것 같이 네가 장수를 누리다가 네 무덤에 이르리라.”

엘리바스가 한 이번 발언에는 많은 진리가 담겨있었습니다만, 역시 이것은 욥의 상황에 적용될 수 없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때의 모습을 신학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환난 때 남은 자들에게 적용될 겁니다. 그러나 역시 욥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욥은 사로잡힘으로부터 돌이켜졌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처음 보다 더 나은 상태가 됩니다. 그러나 엘리바스의 충고는 욥의 결과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의 충고에는 비록 많은 진리가 담겨있기는 하나 욥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잠언에 보면 적절하게 한 말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사역도 사람들에게 맞는 구절이 적용 되어야 치유가 되고 잘못 적용하면 상처가 됩니다. 위 구절은 이스라엘 민족처럼 옛 언약하에 있든지 아니면 환난 때에 적용되어야 할 구절입니다.

엘리바스는 늘 자기가 처음 시작했던 것과 같이 자신의 논리로 마무리를 짓습니다(욥 5:27). 엘리바스는 “우리가 이야기 끝에 이것을 찾았고, 읊너는 이 결론을 잘 듣고 그대로 행한다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리바스는 자신의 주장이 아주 논리적이고 절대 실패할 수 없는 완벽한 이야기인 것처럼 생각하는 전형적인 사람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학적인 어떤 상자 속에 갇히실 수 없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엘리바스가 한 말이 이론에는 맞지만 하나님의 견해까지 맞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 분은 하나님이시고, 따라서 자신이 기뻐하시는 대로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에 관해서는 훨씬 많은 것들이 남아있고 하나님의 길들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보다 훨씬 더 큼니다. “은밀한 일들은 주 우리 하나님께 속하거니와 계시된 그 일들은 영원토록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속하니 이것은 우리가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신 29:29) 우리가 행하도록 계시해주시지만 하나님이 계시해주지 않은 것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의 논리의 틀에 딱 끼워 맞추려고 하는 엘리바스의 시도는 아주 위험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계시해주려고 결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 계시하십니다. 사탄과 하나님 사이에 몇 번의 대화가 있었을까요? 성경에는 두 번만 나오지만,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가 한 가지 아는 것은 분명히 대화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계시되지 않은 것이 어마어마하게, 심지어 우주만큼 많다고 했습니다. “진실로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으나 이것들을 기록함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믿고 그분의 이

를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요 20:30-31).

욥은 지금 욥의 입장에서 어떠한 죄로 인해 매를 맞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그의 친구 세 사람이 그럴싸하게 자신들의 논리를 전개한다 할 지라도 전제 자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뒤따르는 논리 전개 역시 잘못된 것이 분명합니다.

제5장

욥기6장

“고난 받는 자를 그의 친구가 불쌍히 여길 것이로되”(욥)

욥이 자신의 슬픔을 이야기하다

욥 6:1-6 “그러나 욥이 응답하여 이르되, 아 내 고통을 철저히 달아 보고 내 재앙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으면 좋겠도다! 이제 그것이 바다의 모래 보다 무거운 터인즉 내 말들을 삼키리로다. 전능자의 화살들이 내 속에 있어서 그것들의 독이 내 영을 마시나니 하나님의 두려움들이 진을 치고 나를 대적하는도다. 들나귀가 풀이 있을 때에 울겠느냐? 소가 자기의 꼴을 보고 울겠느냐? 맛없는 것을 소금도 없이 먹을 수 있겠느냐? 달걀의 흰자위가 무슨 맛이 있겠느냐?”

어떤 이는 위 구절을 읽어보고 욥이 엘리바스를 무시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엘리바스의 말에는 반응도 하지 않고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왜 안 그럴겠습니까. 누군가가 말했듯이 엘리바스가 상당히 언변이 좋아서 멋지게 말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문제는 그가 가지고 있는 달변과 상식은 욕의 상황과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엘리바스가 달변가라는 것과 매력적인 성품 또는 공감능력이 뛰어난 것을 혼동해서 안 됩니다. 이 두 가지는 다른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사실 도움이 되지 않았고 욕은 이를 알아차린 것입니다.

욕은 너무나 슬픈 나머지 바리새인의 이야기를 들을 여유가 없었습니다. 첫 일곱 구절에서 욕은 자신의 슬픔이 어느 정도인지 설명하려고 시도합니다. 욕은 전에(욕기 3장)했던 불평과 자신이 처한 현실에서 겪고 있는 고통의 무게를 달아서 자신의 슬픔과 비교해보고 어떤 것이 더 무거운지 알아보고 싶다고까지 표현합니다. 아마 그렇게 되면 친구들이 욕이 처한 상황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내 말들이 삼켜져 버렸다”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욕은 자신의 슬픔을 설명할 수 있는 그 어떠한 말도 찾지 못하였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욕의 생활방식과 태도에 대해서 뭔가 잘못을 찾아내려고 시도했지만 이에 대해 욕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슬픔이 얼마나 큰지 그는 더 이상 말을 할 수도 없고, 슬픔이 말을 삼켜버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감정마저도 모두 왜곡되어 버렸습니다.

욕은 탄식하고 있습니다. 욕의 고통은 아주 심각했습니다. 그러나 욕이 혼란스러워 하는 것은 문제들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욕의 마음을 도려내고 휘저어 놓는 것은 하나님께서 욕을 기뻐하지 않으사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고 그분께서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신다고 그가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생각의 고뇌야말로 모든 고통 가운데서 최악의 고통입니다. 상한 영을 누가 견딜 수 있겠느냐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은 하나님의 화살

이 자기 안에 들어 있어서 자신의 영을 기름 짜듯이 짜내고 있다고 고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대적한다고 느끼기 시작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셈입니다. 욥은 지금 그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화살들은 그 분의 성도의 혼을 파괴하려는 목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자아를 짜내어 버리기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화살들이 때로는 악한 자의 불화살과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 역시 여호와의 화살들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 시 38:2에 “주의 화살들이 내 속을 단단히 꿰뚫고 주의 손이 심히 아프게 나를 누르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12-13에서도 하나님의 화살을 경험한 자가 있습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활을 당기시고 나를 화살의 과녁으로 삼으셨으며 자신의 화살 통의 화살들로 하여금 내 콩팥 속으로 들어가게 하셨도다.”(애 3:12-13) 하나님께서는 욥을 자신의 표적으로 삼으셨습니다(욥기 16:12-13을 보십시오). 그런데 마귀 역시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마귀는 마귀대로 목적이 달랐습니다. 즉 사탄이 쏘는 불화살은 늘 조심하여 치명상을 입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시험이라는 단어와 시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영어로 temptation, tempt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시험(tempt)을 하지도 받으시지도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2:1절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다고 나옵니다. 이는 모순인 것 같지만, 야고보서에서는 temptation이라는 단어와 tempt라는 단어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try라는 뜻으로 쓰인 겁니다. 즉, ‘한 번 해 보다, 시도해보다’ 라는 뜻으로 쓰인 것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정말인가 아닌가를 테스트해보셨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은 이삭

을 바침으로써 믿음이 확고히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잘했는지 시험을 치르는 것과 비슷한 의미입니다. 이처럼 야고보서 1:13에는 try, 즉 테스트로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14절에 가면 우리 안에 욕심으로 인하여 enticed, 유혹을 받았다고 나옵니다. 즉 마귀가 시험(tempted) 한 것은 유혹한(enticed) 것이고, 하나님께서 시험하신 것은 테스트하는 것으로 야고보서에서는 구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쏜 화살인가? 마귀가 쏜 화살인가? 하는 주제인데, 이 두 화살의 목적이 다르다는 것을 알면 됩니다. 마귀는 파괴할 목적으로 enticed하는 것이며, 하나님은 테스트를 통과하여 믿음이 더 강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욥의 내적인 상태를 들여다봅시다. 욥은 하나님의 화살들이 자신의 혼을 삼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늘 묵상하며 자신을 들여다 보았고, 자신의 혼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는 스스로 생각을 한다는 뜻입니다. 이와 같은 훈련을 통해 그는 믿음이 강화되었습니다. 다른 믿음의 사람들도 이 멋진 영적 훈련을 통해 믿음을 강화시켰습니다. 예를 들면 다윗도 자신의 혼에게 격려사를 합니다. **“내가 귀로 듣는 것을 통해 주께 대하여 들었사오나 이제는 내 눈으로 주를 뵈옵나이다.”**(시 42:5) 자기가 자기 혼에게 대화하는 방식으로 영적 믿음을 회복시키는 방법입니다. 욥도 과거에는 이런 방법을 사용해왔는데 오늘 이 순간에는 그의 혼이 다 말라붙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느낌도 다 사라져 버리고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누렸던 것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의 공포의 군대가 자신을 둘러싸고 멸망시키려 한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욥의 속사람은 지금 절망 가운데 놓여있습니다.

엘리바스는 3장에서 욥의 불평에 대해서 아주 무감각합니다. 욥의 여러

욥에 대해서는 냉정합니다. 욥은 자신이 비참함 가운데 놓여있고,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욥 6:5의 내용입니다. 들나귀가 풀이 있을 때에 울겠느냐? 소가 자기의 꼴을 보고 울겠느냐? 욥은 이렇게 음식이 있는데 울고불고하겠느냐 물어봅니다. 답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음식들을 치워버리면 짐승들도 불평을 하며 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일이 잘 풀릴 때에는 욥도 아주 만족스러워하면서 불평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지금 욥이 불평하고 있는 것은 그가 비참한 지경에 이르렀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친구들은 왜 이를 모르느냐는 것입니다.

5절에 따르면, 음식이 있으면 소나 나귀는 울지 않습니다. 음식이 있는 데도 운다는 것은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달걀이나 간이 되지 않은 음식을 소금이 없이 먹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욥의 탄식은 고통과 함께 갑니다. 고통에 탄식이 없으면 소금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고통스러우면 당연히 탄식이 따라옵니다. 이 두 가지는 전적으로 양립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욥은 엘리바스의 논리적인 설명에 대해서 소금이 부족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욥이 아프다는 것은 마치 달걀의 흰자위가 맛이 없는 것 같은 상황으로 이것이 매일 자신의 음식이 되어 버렸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욥은 지금 소금을 치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슬픔의 정도가 얼마나 큰지 탄식하며 설명하는 것입니다. 아마 엘리바스의 설명에 소금이 없다는 말은 골 4:6에 보면 바깥사람들에게 말을 은혜롭게 하며 소금으로 간 맞추어 하라는 말씀처럼 해야 하는데 엘리바스가 그렇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 죽기를 요청하는 발언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 내가 요청하는 것을 내가 받고 내가 갈망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면 좋겠구나! 심지어 하나님께서 나를 멸하기를 기뻐하사 자신의 손을 놓으시고 나를 끊어 버리시면 좋겠구나! 그리하면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참으로 슬픔 속에서도 내 자신을 단단하게 하리로다. 그분께서 그것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기를 바라노니 이는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들을 숨기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내 기력이 어떠하기에 내가 소망을 갖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기에 내가 내 생명을 연장하겠느냐? 내 기력이 돌들의 기력이나? 내 육체가 놋으로 되었느냐? 나의 도움이 내 안에 있지 아니하냐? 지혜가 내게서 아주 쫓겨나갔느냐?”(욥 6:8-13).

어떤 이가 죽음을 갈망하는 것은 그가 정말 비참함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욥은 지금 이 지경에 와 있습니다. 죽는 것 외에는 바라는 것이 없을 정도로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3장에 했던 그 불평을 다시 꺼내어 죽음을 갈망합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멸해달라고 갈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욥 자신의 의가 이 불평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9절).

그는 자신을 의롭다고 내세우고 하나님을 정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여기서 멈추시는 겁니까? 더 나아가서 저를 죽이십시오. 왜 이 정도까지만 고통을 주시는 겁니까? 죽이십시오. 당신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계시든지 지금보다는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저를 죽이십시오.” 욥은 강력한 태도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남자답게 죽음 앞에 담대한 모습으로 죽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은 자신의 의 가운데 의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

을 숨긴 적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신실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계시해 주신 것을 사람들에게 다 이야기 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파하여 그 일을 했습니다.

욥은 더 이상 자신의 생명을 연장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11절). 욥은 자기 자신에 관한 한 힘을 내 봐야 고통만 더해질 뿐이라고, 살려고 해 봐야 고통스럽기만 할 뿐이라며 불평합니다.

“내가 돌처럼 강한가? 내 몸이 놋처럼 강하던가? 이렇게 나약한 인간일 뿐인데!”라며 탄식합니다. 욥은 육신과 살과 뼈로 된 존재입니다. 이 육신과 살, 뼈에는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이 한계에 도달한 것입니다. 인간의 육체로는 더는 견딜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욥은 죽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욥은 죄를 짓지는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비참한 경험을 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바스의 답변에는 아무런 지혜가 없고 그에게 답이 될 수 없으며 하나님으로부터도 답변을 얻을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욥은 자신이 의로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한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 역시 가지고 있었습니다. 엘리바스는 욥에게서 모든 지혜가 사라져버려서 마치 하나님 앞에서 무식하게 죽여달라고 요청한다고 했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욥은 그 친구들이 도우려고 한다는 것을 알았는데, 어째서 이럴까?

“고난 받는 자를 그의 친구가 불쌍히 여길 것이로되 그가 전능자 두려워하기를 저버리는도다.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속임수로 대하였고 그들은 개울들의 물살같이 지나가느니라. 그것들은 얼음 때문에 거무스레하고 그 속에

는 눈이 숨겨져 있도다. 그것들이 따뜻하게 되는 때에 사라지고 날이 더울 때에 자기 자리에서 나와 소멸되는도다. 개울들이 흐르는 길의 통로들은 옆으로 벗어나 아무 데도 가지 못하고 소멸되느니라. 데마의 무리들이 바라보고 세바의 일행들이 그것들을 기대하다가 자기들이 소망을 가졌으므로 당황하고 거기에 이르러 부끄러워하였도다.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다. 내가 내던져진 것을 너희가 보고 두려워하는도다.”(욥 6:14-21)

친구가 어려운 친구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기본적인 삶의 원칙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보편적인 법칙이어서 자기 친구가 어려움에 처해 있음에도 동정하지 않는 것을 보면 깜짝 놀라게 됩니다. 사실 이와 같은 일이 벌어져서 주님은 더 슬퍼하셨습니다. “참으로 내가 신뢰한 나의 친한 친구 곧 내 빵을 먹은 자가 자기 발꿈치를 들어 나를 대적하였나이다.”(시편 41:9) 예수님께서는 가롯 유다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다를 친구라 부르셨습니다(마 26:50). 배반한 친구만큼 참기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나를 모욕한 자가 원수가 아니었으니 원수였더라면 내가 참을 수 있었으리로다. 나를 향하여 자기를 높인 자가 나를 미워한 자가 아니었으니 나를 미워한 자였더라면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로다. 오직 그것은 곧 너니 나와 동등한 자요, 나의 안내자요, 내가 아는 자로다.”(시 55:12-13)

욥은 자녀들도 잃었고 아내도 잃었으며, 건강도 잃었는데 이제는 친구마저도 잃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마지막 친구까지도 그에게서 등을 돌렸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친구라는 용어에 반대되는 것입니다. 친구라면 당연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전능하신 분의 두려움을 버리는 행위입니다. 그것은 아주 냉담한 무관심입니다. 구덩이에 빠진 나귀에게 바리새인마저도 긍휼을 보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스라엘 땅의 법칙이었습니다. 고난에 대해

서 사람들이 동정심을 가지고 궁핍을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대상이 비록 원수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본성과는 어긋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수마저도 어려움에 빠지면 도와주고자 하십니다. “네 원수가 주리거든 그에게 빵을 주어 먹게 하고 그가 목마르거든 그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잠 25:21)

옴은 또한 친구들이 자신에게 속임수를 쓴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자신을 위로해주지 않는 것을 신실하지 못한 시냇물에 비유합니다. 겨울 동안에는 흐르던 시냇물도 얼어서 샘을 형성합니다. 그러다가 봄이 되면 다시 녹아서 생수가 되어 흘러내리며 피곤한 여행자들에게 물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사람들이 가끔 샘물이 있겠거니 하고 가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는 물이 흘러내려오다가 중간에 눈이나 얼음에 의해 다른 곳으로 흘러가 버리는 수도 있고, 진흙이나 흙에 의해 더러워지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따뜻한 날씨가 되어 얼음은 녹았으나 시냇물은 말라버리는 것입니다. 여름이 되어 점점 더워지면, 시냇물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봄에는 유목민들이 물을 찾아 물이 있을 만한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분명히 물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 곳에서 물이 이처럼 말라버린 것을 보고 매우 당혹스러워합니다. 물이 있는 줄 알고 왔는데 속은 것이죠. 가족과 사람에게 필요한 물이 있을 것으로 기대했는데 없으니 당혹스럽겠죠. 당연히 공급되었어야 할 물이 공급되지 않고 거절된 샘입니다.

옴은 이 예를 자신의 세 친구들에게 적용합니다. 그들은 친구를 자처하면서도 옴을 위로해주지 않았습니니다. 위로를 기대했던 옴을 동정해주지도, 이해해주지도 않았습니니다. 그는 마치 데마의 무리처럼 물을 찾았는데 말라

버린 개울을 본 것처럼 실망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욥기 13:4에서 친구들을 무엇이랴 부르는지 주목해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사들이니라.” 욥은 친구라면 어떤 존재여야 하는지 알고 있었지만, 그 친구들은 친구 되기에 실패했습니다. 우리 역시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어떤 종류의 친구인가? 나는 예수님과 같은 친구인가? 아니면 욥의 세 친구와 같은가?’

욥은 그들의 방문 혹은 도움을 요청한 적이 없다

“내가 말하기를, 내게로 가져오라, 하더냐? 또는, 너희 재산 중에서 내게 보상을 달라, 하더냐? 또는, 원수의 손에서 나를 건져 달라, 하더냐? 또는, 강력한 자의 손에서 나를 구속하라, 하더냐?”(욥기 6:22-23)

욥은 그들이 하는 마음을 도려 내는 듯한 말에 예민해졌고, 매우 아팠습니다. 그는 혼자 있게 된 것에 슬퍼하지 않았고, 그들의 호의를 바란 적도 없었습니다. 사실 누군가를 그들에게 보내어 오기를 요청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옛 친구를 스스로 찾아온 것뿐입니다. 그럼에도 저들은 마치 욥이 그들에게 재정적인 도움을 구하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상황을 다 파악했습니다. 욥이 모든 것을 잃었음을 알았습니다. 한때 부유했던 욥에게 가난한 자들과 어려운 자들이 찾아와 도움을 달라고 하면 욥은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들의 눈에 욥이 그들의 도움을 바라고 찾아온 자처럼 보였습니다. 욥은 이제 친구들에게 더 이상 친구가 아닌 골칫거리가 되어 버렸습니다. 욥이 그들에게 돈을 달라고 요청했나요? 아니면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주기를 기대했나요? 그도 아니면 마치 아브라함이 롯에게서 약탈물을 되찾아온 것처럼 원수들을 뒤쫓아 가서 약탈물들을 되찾아와 달라고 부탁했나요? 욥은 친구들에게 자신이 아무런 부탁을

한 적이 없음을 상기시킵니다. 욥이 그들에게 기대했던 것은 단 하나, 그들의 동정심이었지만 그들은 끝내 그것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욥이 그들의 논리를 책망하고 그들의 이해를 구하다

“나를 가르치라. 내가 내 혀를 억누르리라. 내가 어디에서 잘못하였는지 깨닫게 하라. 바른 말들은 참으로 얼마나 위력이 있는가! 그런데 너희의 주장은 무엇을 책망하느냐? 절망에 빠진 자의 말들은 바람과 같거늘 너희가 그 말들을 책망하고자 꾀하느냐? 참으로 너희는 아버지 없는 자를 기죽게 만들며 너희 친구를 노리고 구덩이를 파는도다. 그러므로 이제 흡족히 여기고 나를 쳐다보라. 내가 거짓말을 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분명히 드러나느니라. 청하건대 너희는 돌아오고 그것이 불법이 되지 않게 하라. 내 의가 그것 안에 있으니 참으로 되돌아오라. 내 혀에 불법이 있느냐? 내 미각이 잘못된 것들을 분간하지 못하겠느냐?”(욥 6:24-30)

엘리바스는 자신이 관찰하고 경험한 것에 근거하여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욥은 그것이 자신의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인지를 테스트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일반적인 원칙이 나에게 해당되지 않으므로 엄격한 규칙에 의해 정말 욥이 죄인인지 확실하게 입증해 보라고 요구합니다. 이론은 제대로 적용하면 아주 좋은 것이지만, 잘못된 전제 하에 전개된 이론은 완전히 실패합니다. 올바른 말들은 얼마나 강력한 위력을 발휘하는가! 욥이 이야기하는 것은 엘리바스의 말이 올바른 말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욥은 오히려 자신에게 진리를 말해준다면 잠잠히 있겠다고 말합니다.

욥은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을 왜 이렇게 다루시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욥은 친구들이 자신의 행실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보여준다면 그들의 모든 비판을 다 수용

하겠노라고 말합니다.

이제 전세는 역전되어 욥이 친구들을 공격합니다. 그들을 향해 말합니다. “너희들의 말은 옳을지 모르나 잘못 적용했다.” 그는 죄인이 아닙니다. 그의 절망적인 상황이 그가 진실된 고백을 하고 있음을 그 친구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지금 죽음을 앞둔 사람이 거짓말을 할 리는 없으니까요. 욥은 죽음을 앞두고 깨끗한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죽으면 하나님을 만나게 될 텐데 거짓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친구들의 논리는 바람이나 공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금 아버지 없는 자를 괴롭히고, 친구를 구덩이로 밀어 넣고 있는 꼴입니다.

그들은 입술과 이빨로 구덩이를 파고 있었습니다. 욥이 하는 말에서 꼬투리를 잡아 정죄할만한 원인을 찾으려 했습니다. 친구들은 욥이 개인적으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같은 고난이 임했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만일 욥이 죄를 고백한다면 욥의 친구들은 의롭다함을 입고 하나님께서 축복 해주실 겁니다. 그러나 욥은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친구들이 죄를 짓고 있습니다. 이 세 명의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며 정죄하고자 했던 자들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욥은 자기를 비난하는 그 비난으로부터 악한 친구들이 돌이키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고 너무나 자명한 사실은 욥이 곧바르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그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이 왜 임한 것인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악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알고 있었고, 만일 죄를 지었다면 그것을 보여주었지 숨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친구들에게 다시 한 번 잘 테스트해보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왜 비참하게 되었는지 이유를 찾아보라고 요청합니다. 이것은 죄 때문이 아닙니다. 마치 혀로 음식을 맛보듯이 욥은 분별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

에, 그가 이와 같은 심판을 받을 만한 죄를 지었다면 그것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친구들과 있을 모든 논쟁에 있어 욥의 확고부동한 입장입니다. 욥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욥은 의로웠고, 이를 스스로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좋은 양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주 거친 의심과 정죄에도 굳건한 반석처럼 욥의 입장은 확고부동합니다. 욥은 자신의 순전함을 굳게 지켜 사탄의 공격이 거짓이라는 것을 입증했으며 사탄이 하나님을 설득하여 공격했다는 것 역시 거짓임을 입증합니다. 또한 친구들이 내세운 논리 역시 오류라는 것도 입증했습니다. 욥은 자신의 고난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명성을 옹호하기 위해서도 거짓 말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가 믿은 한 가지는 그가 의롭다는 것입니다.

제6장

욥기7장

“내가 침을 삼킬 때까지 나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리이까?”^(욥)

이 땅에 있는 동안의 인간의 상태

욥은 세 명의 친구들에게 자신이 겪고 있는 슬픔을 잘 관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과거의 욥의 상태와 지금 현재의 상태를 비교해보면 그가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 아님이 명백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논쟁을 시작한 순간으로 돌아와서 편견을 가지지 말고 건전하게 논리를 전개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욥에 대한 동정심을 보이는 대신 욥의 답변을 의심하며 빈정댑니다.

욥은 처음에 하나님께 요청하던 상황으로 돌아옵니다. 즉, 하나님께 자신이 죽게 해달라고 구합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 인간이 어떠한 상태에 놓여있는지에 근거하여 ‘왜 이 삶을 지속해야 하는가? 어째서 여기서

끝나기를 갈망해서는 안 되는 것인가? 이 상태라면 죽는 것이 더 낫고 그래야만 나의 비참함이 마무리 되지 않겠는가? 고 하나님 앞에 항변합니다.

“땅 위에 사는 사람에게는 정해진 기한이 있지 아니하냐? 그의 날들은 또한 품꾼의 날들과 같지 아니하냐? 종이 저녁의 어둠을 간절히 바라고 품꾼이 자기 일의 품삯을 기다리는 것 같이 내가 허무한 달들을 소유하게 되었으며 또 고달픈 밤들이 내게 정하여졌도다.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지나갈까? 하며 날이 쉼 때까지 하염없이 이리저리 뒤척이는도다. 내 살에는 벌레들과 흙덩이가 입혀졌고 내 살갗은 터지고 역겹게 되었으며 내 날들은 베 짜는 자의 북보다 빠르며 소망도 없이 허비되는도다. 오 내 생명이 바람임을 기억하소서. 내 눈이 다시는 좋은 것을 보지 못하리이다.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하리니 주의 눈이 내 위에 있은즉 내가 있지 아니하나이다. 구름이 소멸되어 사라짐같이 무덤에 내려가는 자도 다시는 올라오지 못하리니 그가 다시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며 그의 처소도 다시는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의 고통 속에서, 내 혼의 쓰라림 속에서 불평하리이다. 내가 바다나 고래이기에 주께서 나를 감시하시나이까?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잠자는 의자가 내 원통함을 풀어 주리라, 할 때에 주께서 꿈들로 나를 놀라게 하시며 환상들을 통해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이다. 그러므로 내 혼이 내 생명을 택하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나이다. 내가 내 생명을 싫어하며 계속해서 사는 것을 원치 아니하오니 나를 내버려 두소서. 내 날들은 헛것이니이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시나이까? 또 주께서 주의 마음을 그에게 두시나이까? 또 주께서 아침마다 그를 찾아보시고 매 순간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며 혹은 내가 침을 삼킬 때까지 나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

시리이까? 오 사람들을 보존하시는 주여,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주께 무엇을 하여야 하리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세우사 주를 대적하는 과녁이 되게 하시며 내가 내 자신에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범법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며 내 불법을 제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흠 속에서 잠들리니 주께서 아침에 나를 찾으실지라도 내가 있지 아니하리이다, 하니라.”(욥 7:1-21)

인간은 땅에 있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인간에는 정해진 장소와 정해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사는 장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보다 더 낮은 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장소나 시간에 의해서 제한받지 않으십니다. 그 분은 어디에나 계시고 인간은 우주 공간 속에서 떠돌아다니는 실제적인 땅 덩어리에 제한되어 갇혀 삽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그런데 이 지구는 어디를 향해 가는 걸까요? 땅은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몫입니다. “하늘 곧 하늘들은 주의 것이로되 그분께서 땅은 사람들의 자녀들에게 주셨도다.”(시 115:16) 인간이 물론 달에 방문한 적도 있습니다. 주께서 지체하시면 인간은 화성에도 갈지 모르고, 다른 행성 중의 하나에도 갈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공기가 없기 때문에 다시 지구로 돌아와야만 합니다. 인간은 땅에 거주하는 자요, 그의 거주지는 다 경계가 정해져 있습니다(행 17:26).

인간은 계속해서 땅에 머물러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사는 날도 짧고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인간의 수명이 70년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이 사실을 알고 인간이 살고 있는 그 기간에 사는 날 수를 한번 계산해보라고, 그래야 지혜로운 인간이라고 시편 90에 나옵니다. 인간의 삶은 이미 정해져있기 때문에 스토아 학파가 주장한 것처럼 그저 운명에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고, 에피큐로스 학파의 주장처럼 행운이나 운에 맡

겨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거룩하시고, 지혜로우시며, 조언자이신 하나님에 의해 정해진 것입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이 인간의 짧은 인생 기간이 전쟁이나 혹은 일을 하여 돈을 버는 날들로 비유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적군의 영토에 들어와 고생을 하는 군인으로 묘사되어 있으며 우리의 대장이신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그분을 섬겨야만 합니다. 전쟁이 끝날 때에도 우리는 군복무에서 면제를 받고 명예롭게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을 받든지 부끄러움을 당하든지 하겠지요. 당신은 어떤 종류의 군인입니까? 지금 전투에 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명예를 나누어주실 만한 명예로운 군인입니까? 그분께서는 욕을 그렇게 대접하셨습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인생의 기간은 잠시 있다가 사라져 버리는 수증기와 같이 짧습니다. 욕은 자신의 인생을 하루의 일당을 얻기 위해 일하는 것에 비유하며 베 짜는 자의 베틀북의 속도에 비유했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에는 수고가 가득합니다. 좋은 명예를 메고 노동을 합니다. 주인은 그에게 힘든 일을 하도록 강요합니다. 그의 마지막 1 온스의 에너지까지도 다 쓰도록 요구받습니다. 그러면 그 좋은 힘든 노동 가운데 하늘의 태양이 어느 지점에 와 있는가 바라봅니다. 언제나 해가 질까하고 말이죠. 그는 그림자가 길어지기만을 기다리며 노동이 끝나면 자신의 보상을 받고 쉽니다.

욕은 자신의 날들이 쓸모없는 쓰레기라고 했습니다. 그는 무기력하고 쓸모없다고 느꼈습니다. 매일의 삶이 무거운 짐 같고 헛되게 느껴집니다. 그는 밤에 잠을 잘 때에도 안식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럽습니다. 여기저기 아픈 통증으로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뒤척이면서 쉬을 찾지 못합니다.

잠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제공하신 놀라운 축복 중의 하나입니다. 일하는 자의 잠은 달콤합니다. “수고하는 자는 적게 먹든지 많이 먹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풍요로우므로 잠들지 못하리다.”(전 5:12) 만일 누군가 잠을 잘 수 있다면, 그는 하루의 전투 혹은 노동으로부터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 휴식 가운데서 다시 자신을 소생시키고 힘을 얻게 됩니다. 오! 참으로 놀라운 잠이여! 그런데 욥은 이 잠의 축복마저도 빼앗겼습니다. 그가 누우면 그의 밤은 그를 너무나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잠자리에서 이리저리 뒤척이며 편안한 자세를 찾으려 하지만 그러지 못합니다. 온몸이 쭈시고 고통스러워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 아침이 되고 똑같은 날이 반복됩니다.

욥의 비참함은 이제 외적인 것에서 내적인 것으로 옮겨져 갑니다. 육체적인 고통뿐 아니라 내적인 고통까지 더해졌습니다. 처음에 그가 잃어버렸던 것은 외적인 것, 즉 가축이나 종들, 자녀들이었고, 아내로부터 이해받지 못했고, 그 자신은 병이 들었으며, 자신을 고소하는 친구들을 잃었습니다. 그는 심지어 육체의 고통까지도 견딜 수 있었으나 그를 참을 수 없게 만들었던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혹독한 다루심이 도대체 무엇 때문인지 알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으로부터는 아무런 답도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울부짖습니다. “오 어디에서 그분을 만날지 내가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그분의 자리에라도 간다면 좋으리라!”(욥 23:3) 그 분은 37장에 가서야 등장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육체를 사랑합니다. 바울도 말했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자신의 육체를 미워하는 사람은 없다고요(엡 5장).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한 것은 정상적인 상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욥이 지금 자기 자신을 저주하는 것은 상황이 좀 다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

합니다. 바울의 사역은 평범한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경우는 한 가지 예외가 있었습니다. 욥의 고난 또한 예외입니다. 욥의 경우는 아주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 인지를 보여 주는 데 욥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남자든 여자든 그들이 지금 자신의 육체에 대하여 애지중지 하는 것만큼 더 큰 죄는 없습니다. 물론 우리의 몸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임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육체에 보이는 관심이 내적인 동기입니까? 몸을 사랑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이냐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욕심 때문에 우리 몸을 사랑하는 겁니다. 자만 때문에, 헛된 것 때문에 그래서 좋은 것을 먹고 입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그 육체 안에 선한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육체 안에도 선한 것이 없습니다.

구더기가 욥의 육체에 동지를 틀었네요. 파리들이 욥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부패한 고름덩이를 먹고자 달라붙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유일한 재산인 질그릇 조각 하나로 긁어대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의 터진 피부 안으로 흙덩이가 입혀졌고 그 안에 파리들이 알을 낳고 말았습니다.

오 불쌍한 욥이여! 이 순간까지만 해도 그 누구도 당신같이 고난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당신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당신을 위로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대화에서 우리는 당신에게 말하라고 허락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욥 당신이 진정으로 하늘에 계신 당신의 그 긍휼이 많으신 아버지께서 당신을 향한 애정과 사랑과 신뢰와 뜻과 목적을 담고 있음을 알기만 한다면 당신은 승리하는 마음으로 외칠 것인데 안타깝습니다. “아니라.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통해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이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

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 있을 것들이나”(롬 8:37-39)

최근에 낙심한 한 성도가 저에게 편지 한 통을 보냈습니다. 그는 사역을 하는 사람인데 사역을 중단하려다가 생각을 바꾸어 다시 사역을 하기로 마음먹었다고 했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보니 하나님께서 그 사역자를 다루는 것이 옅처럼 매우 당혹스러웠다고 합니다.

(편지 내용) 제가 조금 징징거리며 불평을 하더라도 용서해주십시오. 저는 때로는 제가 어디서 온자인지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불평을 한다는 것이 사실은 말도 되지 않는 일이지요. 하나님은 선하시나 저는 악합니다.

아무리 봐도 가까운 장래에는 사역만을 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제 사비로 조금씩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사역의 길이 한 걸음씩 안정되어 가는 것을 보면서 저의 직업을 버릴 수 있을 정도로 생활이 안정된다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것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꼭 알고 싶어 하는 유형의 사람입니다. Mr. Spock이라고 불러주면 좋겠네요. 이 사역을 두고 그저 소망 가운데 바라볼 수만 있는 처지가 아닙니다. 저는 목표를 세울 수는 있지만 그 결과는 제 통제 밖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했던 결과는 전혀 나오지 않고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납니다. 제가 기대했던 대로 일이 되지 않아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이 분야가 제가 성장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논리적인 설명이 없으면 아무것도 저는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사건이 전개되면 기대가 됩니다. 이 사역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원하시는 대로 뜻을 펼쳐가실 것을 소망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스타일

의 신앙생활이 저에게는 굉장히 새롭고 힘이 듭니다. 예상이 되지 않으니까요.

저는 미리 예상을 하면서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상당히 숙고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일이 진행될지 제 직관을 신뢰하는 편입니다. 문제는 제가 너무나 육신적인 스타일로 직관을 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대해 신뢰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주일은 너무나 바빠서 새벽 네 시까지 일을 해야 하지만 그 다음 주에 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한 주 동안은 사역이 조금씩 안정되어 간다고 생각하며 기뻐했는데 3주 동안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논리가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일이 그렇게 되어갑니다. 그러면 조금 더 알게 되지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방식에 대해 좀더 적응하고 성장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당혹스럽습니다.

만약 사역이 이런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것을 알았다면 저는 아마 시작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저의 계획대로 모든 것이 풀려갈 줄 알았는데 저는 벌써 100만 번이나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가 너무나 육신적인 관점에서 바라본 것이죠.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입니다. 저는 그것을 입증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옳지 못한 태도를 취했기 때문에 즉시로 벌 받아야 할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산산조각 내버려야 할 만한 사람임에도 하나님께서는 제가 가는 길에 왜 벼락을 보내지 않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참 다르신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님이라면 벌써 저 같은 사람을 심판해 버렸을 텐데요.

하나님은 저를 무언가로 만들고자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 어떤 성품이 되는가에 관심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떤 성과를 낼 것인가에 더 초점을 맞추었는데 이 같은 차이가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과 저의 관심사가 이렇게나 다릅니다.

인간은 비록 거듭났다 하더라도 하늘에다 발판을 어느 정도 두고 사는 것이 불가능해보입니다. 늘 땅에 있는 일에 온통 관심이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 단어 하나마다 하늘로 올라가서 받아야 함에도 우리의 관심사는 늘 땅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당혹스러운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의 진흙탕 속에서도 조금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지켜보시다가 또 조금 도와주시며 즐기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작품으로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인생길을 한걸음씩 터덜터덜 걸어갑니다. 그리고 위기가 생길 때마다 새로운 도전을 주십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바르게 살겠다고 결단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개미를 이렇게 저렇게 연구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상으로 연구를 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가 개미가 기어가는 길에 막대기를 꽂아 놓고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고, 또 개미가 넘어가면 막대기를 또 꽂아놓고 지켜보는 연구 말이죠. 어린 아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두고 장난을 치신다는 것은, 물론 제가 쓴 시나리오에 하나님을 가두려는 것은 아닙니다. 또 제 말이 맞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우리를 대하신다는 뜻도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지도 이미 알고 계시고 우리가 어떤 결심을 할지도 알고 계시는데 왜 굳이 우리에게 예상 밖의 일들을 허락하시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을 닮게 만들어서 작품으로, 하나님의 아들

로서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작품이 항상 무언가 골치 아픈 사건들을 요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이상한 것이지요. 좀 순탄하게 가면 안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일을 너무 어렵게 만드시니 그분을 이해한다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이해해보라고 하십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피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해해보려고 하면 피하시고. 하나님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을 이해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지만 인간은 기껏해야 변덕스럽게 생각이 이렇게 저렇게 바뀔 뿐입니다. 저는 거듭나면 인간에게 찾아오는 변화가 어찌면 이와 같은 하나님을 향한 추구를 더해보고자 하는 결단을 하게 만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듭나면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보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겠죠.

우리 주변에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지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덕스러운 인간들(그리스도인)만이 그들에게는 유일한 희망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자신의 일꾼으로 만드시는 데 50년이나 소비를 하십니다. 그 50년이 지나고 나면 몇 사람이 예수님과 비슷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주 드물게요. 제가 저 자신을 보면 하나님이 만든 작품이 됐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저를 만들어 가고 계신 것인지, 아니면 내가 날 만드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날, 저는 하나님 앞에 저를 죽여주십사 기도를 했었습니다. 결단코 죄를 짓지 않으려고요. 거듭났어도 살면서 죄를 지을까봐 차라리 지금 죽여달라고, 이 모양 이 모습으로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지 않도록, 그분의 이름에 먹칠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존재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실제로 내 안에서 이루시는 뭔가를

제외하고는 도대체 제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똥이 아닙니까? 우리가 일상 쓰는 말대로 제가 배설물이 아닙니까? 아담의 본성으로 태어난 것은 똥이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서 거듭나게 하여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새로운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의 모습은 아주 작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저 자신에 대해 지쳤습니다. 오늘도 어떻게든 살아야겠죠. 아마도 저는 내일도 지쳐 있을 겁니다.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 하나님께서도 지켜우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계속해서 작품을 만들어 가시려면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 하시도록 저를 내어드리는 것뿐이겠죠. 하나님을 믿고 사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서의 인간의 시간

욥은 이 세 명의 바리새인들이 아주 지겹도록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자신이 하는 말에는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자 결국 하나님께로 고개를 돌려 말합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불쌍히 여겨 달라고 하며 자기가 얼마나 나약하고 덧없는 상태에 놓였는지를 말합니다. 바람과 마찬가지로 욥은 사라져 버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모든 인간도 그러합니다. 인생이 좀 시끌벅적하더라도 금방 사라져 갑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욥도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시금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분은 동정심이 많으시므로 그들의 불법을 용서하시며 그들을 멸하지 아니하시고 참으로 여러 번 자신의 분노를 돌이키시며 자신의 모든 진노를 발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이 다만 육체에 지나지 아니하며 지나가고 다시 오지 아니하는 바람임을 그분께서 기억하셨도다.”(시 78:38-39)

욥은 자신이 이 땅에서 제거되어 더 이상 아무도 기억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기뻐하고 좋아했던 사람도 더 이상 볼 수 없을 겁니다. 죽음을 만나게 되면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습니다. 구름이 그 위로 지나가 버립니다. 구름은 우리 머리 위를 지나가 버리다가 가끔 그림자도 만들고 비를 뿌리기도 하지요. 그것은 잠시 뿐이며 이내 사라져 버립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과 아주 닮아 있습니다. 더 이상 구름이 보이지 않습니다. 인간도 같습니다. 지금은 마치 이 세상이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내가 이 세상의 주인공인 것처럼 이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일이 다 자신의 삶과 연관이 있는 것 같이 느껴지죠. 그래서 자신의 의식 하에 자기중심적으로 삽니다. 온 우주에 있는 사물 가운데 자신의 삶이 얼마나 보잘 것 없는 존재인지 인간은 깨닫지 못합니다. 내가 죽으면 장례식에 몇 명이나 올 것인가? 우리의 증조부, 고조부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과연 몇이나 될까요? 맥아더 장군이나 닉슨 대통령을 얼마나 자주 생각하십니까? 그들은 한때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누가 그들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사람들처럼 그들도 죽고 자신의 처음 난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의 가족들은 그를 그리워하겠지만 그들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죽음으로 가는 길은 그저 일방통행입니다. 돌아가는 길이 없습니다. 수백만의 사람들이 그 여행을 떠납니다. 아무도 자신의 집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합니다. 우리는 오직 단 한 번 죽기 때문에 잘 죽어야 합니다.

욥기 7:11이야말로 우리가 다루고 있는 주제입니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의 고통 속에서, 내 혼의 쓰라림 속에서 불평하리이다.” 욥은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영의 고통 가운데 마음의 쓴 뿌리가 쌓였기 때문에 말을 하겠다고 합니다. 욥과 똑같은 딜

레마에 빠졌던 다윗도 하나님을 향해서 말합니다. “주께서 일을 행하셨으므로 내가 말을 하지 아니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였나이다.”(시편 39:9)

욥은 곧 죽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는 혼에 쓴 뿌리가 가득 차서 이제 말하게 될 겁니다. 그는 지혜롭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욥의 처지가 되어 본다면 누구든지 욥을 지혜롭지 못하다 비판할 수 없을 겁니다. 욥은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합리적으로 말할 여유가 없고 올바른 신학을 전개할 상황도 아닙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왜 자기 같은 미물에 그렇게 관심이 많으신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고통을 주시고 지켜보시며 못살게 하시냐는 겁니다. 욥이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내가 물개여서 작살을 들고 언제 나를 찌를지 관찰하고 계시는지요. 왜 그러십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왜 자신을 내버려두어 죽게 하지 않으시는지 궁금합니다. 고래잡이가 고래를 지켜보듯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보고 계신다고 비난합니다. 밤에는 잠이 들라 치면 악몽을 꾸게 하시고 환상을 보게 하셔서 겁을 주시니 차라리 목이 졸려 죽는 것이 낫다고 합니다. 욥은 자신의 인생을 미워하고 살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해 자신을 내버려두라고 소리칩니다. 그에게는 더 이상 어떠한 노력도 시간도 필요치 않았습니

욥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루심에 대해 질문하다.

욥은 하나님의 자신을 향한 관심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처럼 낮은 위치에 있는 인간을 훈육하거나 채찍질하기 위해 시간을 들이신다는 것은 그분의 성품과 지위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시편 8편 기자가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 속에 깊이...주께서 그를 찾아오시나이까?’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욥이 말합니다. “이끼처럼 의미 없는 저에

게 왜 그렇게 관심을 기울이시고 훈련을 시키시며 때를 때려서 작품을 만드시려 애쓰시는지요. 도대체 인간이 무엇이기에 제가 움직일 때마다 간섭을 하시는지요. 왜 당신은 인간을 내버려두시지 못하십니까? 하나님의 이러한 주목을 받을 만큼 저는 그렇게 중요한 인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드디어 욥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원하셨던 목적에 도달했구나 (욥 7:20).’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그 자신이 죄를 지었다고 인식하고 있지만 그 누구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모든 성도들은 자신이 죄를 지었음을 고백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규칙적으로 짓는다는 것도요. 그러나 이것은 아직 마음이 상하여, 마음이 부서지고 깨져서 하나님 앞에 하는 고백은 아닙니다. 욥이 지금 고백을 하고는 있지만 아직 상한 마음을 주님 앞으로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 이 고백을 할 때마저도 욥은 자신의 의와 결단을 마음에 굳건히 다진 채입니다.

욥은 고백했습니다만 안식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는 논리를 전개합니다. “만약 이 고통이 죄 때문이라면, 죄를 고백했으니 용서해주시고 평안한 마음을 주시겠지.”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앞서 말했습니다. 욥은 그 자신의 죄로 인해 고통을 겪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는 자신의 죄 때문에 고통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로 인해 고통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의를 처리받기 위해 훈련받는 중입니다. 우리는 지금 욥에게 그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아야 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고통을 주시는지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모르면 이와 같이 답답함을 느끼게 됩니다.

나는 많은 성도들이 이와 같은 함정에 빠졌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들은 아마 자신이 죄를 지어서 이런 결과를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마귀가 그렇게 생각하도록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욥처럼 하나

님이 자신에게 화를 내고 계신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죄를 고백하게 되고, 자백했으니 용서가 되었겠지 생각합니다. 짓지도 않은 죄를 고백하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획하고 있는 모든 것들의 방향이 이제는 바뀌게 될 거라고, 이제 고통이 사라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 안식이 없습니다. 그러면 매우 당혹스러워합니다. 바로 이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저주합니다. 그러나 욥은 그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사실이 아닌 것을 말했고, 현명하지 못한 것들을 입을 열어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의 딱한 처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대적하여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기대를 걸고 계십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도 기대를 걸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7장

욥기8장

“위선자의 소망은 멸망하리라”(빌닷)

이성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처럼 답답한 것은 없습니다. 특히 누군가가 우리의 논리를 무시한다면 너무도 답답할 겁니다. 우리는 옳은데 우리의 반대자가 패배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짜증은 더욱 늘어납니다. 빌닷은 욥이 입을 다물지 않자 화가 머리 끝까지 났습니다. 욥은 죄를 지었다고 인정할 생각이 없으며 따라서 그는 지금 당하고 있는 것보다 더 큰 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빌닷은 생각합니다. 소발은 잔인한 자입니다. 그의 말을 들어보시지요. “...그러즉 하나님께서 너로부터 네 불법에 상응하는 것보다 적게 취하시는 줄 알지니라.”(욥 11:6)

“빌닷이 응답하여 이르되, 네가 어느 때까지 이런 것들을 말하려느냐? 어느 때까지 네 입의 말들이 거센 바람 같겠느냐?”(욥 8:1-2)

빌닷은 엘리바스에게 한 욱의 답변을 듣고 당혹스러웠습니다. 그가보니 욱의 답변은 횡설수설에 불과하고 비정상적인 사람의 “허풍”에 불과했습니다. 수아사람 빌닷에게는 욱의 말은 비이성적이고 불경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욱의 불평을 “이런 것들”이라고 평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욱에게 묻습니다. 언제까지 그런 변명을 늘어놓고 사실은 은폐하려느냐고 말입니다. 빌닷도 욱의 마음을 읽어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음문을 열고 욱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저 겉으로 들려오는 말들(그것도 죽어가는 사람의 말들)을 들을 뿐이요 전통과 자기는 리로 판단할 뿐입니다.

빌닷의 질문을 잘 들어보면 그가 명철도 동정심도 없음을 보게 됩니다. 빌닷이 어리석은 것은 지금은 질문을 할 때도 계재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질문은 고통당하는 성도의 침대에서 할 것이 아니고 세미나에서 혹은 안수식에서 해야 할 것입니다.

빌닷이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면 그는 기도해야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고통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에게 빌닷처럼 말하는 사람이 과연 제정신 인가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신학에 따라 행하셔야만 한다고 믿는 신학자만이 빌닷처럼 행동할 뿐입니다.

그는 욱이 “바람”으로 가득하다고 비난했습니다. 욱은 자신은 혼의 고뇌 가운데 말해움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도 빌닷은 욱이 왜 그런식으로 말하냐며 욱이 말한 내용을 두고 그를 비난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고통당하는 사람은 그 시련의 순간에는 동정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허락하시는지는 우리가 알아야 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통당하는 자들의 불평을 “거센 바람”으로 바라본다면 우리 자신이 잘못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 두 손을 입

에 대고 조용히 주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판단의 공의를 굽게하시느냐?

욥 8:3-8 “하나님께서 판단의 공의를 굽게 하시느냐? 전능자께서 정의를 굽게 하시느냐? 네 자녀들이 그분께 죄를 지었으므로 그분께서 그들의 범법으로 인해 그들을 내버리셨을지라도 네가 만일 늦기 전에 하나님께 구하고 전능자에게 간구하며 또 네가 순수하고 곧바르면 이제 그분께서 반드시 너를 위해 깨어나사 네 의가 거하는 처소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비록 네 시작은 작을지라도 네 마지막 끝은 심히 크게 되리라. 원하건대 너는 이전 시대 사람들에게 물으며 네 자신을 예비하여 그들의 조상들이 탐구한 바에 주의를 기울이라.”

빌닷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옹호할 목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은 불의 하시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판단의 공의를 굽게 하시느냐?”고 물었습니다. 답변은 “아니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올바르게 판단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도 이렇게 물었었지요. “온 땅이 심판자께서 의롭게 행하여야하지 아니하리이까?” 물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롭게 행하실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것이 주제가 아닙니다. 빌닷은 욥이 겪은 고통을 포함해 모든 고통과 재앙은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 심판하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다르게 생각하는 것은 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 시키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빌닷은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해 너무도 모르고 있네요.

빌닷은 논의되고 있는 주제를 오직 논리적으로만 해결키 위해 질문을 하는 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사항을 머리로 따져보는 냉정한 지식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가 갖고 있는 기본질문은 이러합니다. “하나님께서

잘못을 저지를수 있는가?” 올바른 질문입니다. 많은 철학도 이런 식으로 질문합니다. 논리에 따르면 답변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아무런 잘못을 저지를 수 없으시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기본개념은 옳고 그름입니다. 올바른은 하나님의 속성이고 옳지 않음을 하나님과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잘못 하실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전제하에 빌닷은 욱의 재앙에 대해 이렇게 논리적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네 자녀들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죄를 지었고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벌하셨다. 네 자녀가 폭풍 불던 날 집이 무너져 죽었을 때 그것은 그들이 끔찍한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이었다. 너는 그렇게 결론짓는 것이 마땅하다.” 빌닷은 다른 두 친구와 동일한 노선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잘못을 벌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어떤 비극도 어떤 특정한 죄 혹은 숨겨진 죄의 결과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빌닷은 결과로부터 원인을 추정하는 논리전개방식을 사용하고 있군요. 우리는 모든 결과에는 그에 상응하는 원인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원인을 항상 이해한다고는 주장할 수 없습니다. 빌닷과 그의 두 친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어쩌면 욱의 숨겨진 죄로인해 하나님께서 그의 열 자녀를 죽이셨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것 같군요. 그런 경우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그분의 심판은 또한 의롭습니다. 빌닷의 논리는 이렇게 계속됩니다. “자녀들의 죄들과 욱의 재앙에도 불구하고 만약 욱이 죄를 고하고 하나님께 간청한다면 용서를 받고 모든 것이 원상복구 될것이다.” 욱이 다시 변성한다면 그것은 그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입증할 것입니다.

후에 욱은 회복될 것이고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고백하는 것은 욱이 아니라 욱의 세 친구들이었습니다. 빌닷은 하나님께 기도 드리면

항상 상황이 개선되어 이전 상태로 돌아갈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다릅니다. 기도해도 현재 당분간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지 모릅니다. 어떤 면에서는 사태가 더 악화되기도 합니다. 바울의 변은 그의 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에 대한 바울의 기도 또한 아무런 상황 변화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방식에 대해 무지한 자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기도에 대한 태도는 너무도 미신적입니다. 그들은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즉시 응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교회 시대의 기도와 왕국이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혼돈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진 약속들은 자기들에게 잘못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닷은 지금 수술실에 있는 것도 아니고 대기실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는 병원 밖으로 나와 논쟁을 일삼고 있습니다. 욥의 고난은 아랑곳 하지 않고 자신은 아무런 책임을 지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줄 하나밖에 안달린 벤조를 연주하듯 지루한 연설을 틀어놓으니 정말 미칠지경입니다.

4명의 소경에게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느냐고 물었습니다. 한 사람은 코를 만지면서 뱀처럼 생겼다고 했지요. 또 한 사람은 꼬리를 만지더니 밧줄 같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세번째 사람은 귀를 만졌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이 문 같다고 했지요. 마지막 사람은 옆을 더듬더니 담벼락 같다고 했다는군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성격이나 혹은 친구의 성품을 옹호할 필요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옹호해 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분은 항상 의로우시고 거룩하시며 무모하십니다. 결국은 모든 창조물은 그분을 그렇게 알게 됩니다. 물론 빌닷이 한 말에는 진리가 들어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왜 욱을 그리대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감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빌닷은 “어떻게”에서 “만약”으로 나아갑니다.

“원하건대 너는 이전 시대 사람들에게 물으며 네 자신을 예비하여 그들의 조상들이 탐구한 바에 주의를 기울이라. (우리는 겨우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며 또 땅 위에 있는 우리의 날들은 그림자이므로 우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네게 가르치고 네게 말하며 자기 마음에서 나온 말들을 말하지 아니하겠느냐?”(욥 8:8-10)

빌닷은 욱이 죄를 지어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욱을 잘못 벌하고 계신 것입니다. “원하건데, ...물으라”고 말하는 모습이 자기 의에 가득 차 있습니다. 빌닷은 욱에게 잘 생각해보고 옛조상들이 사악한 자들과 위선자들에 대해 내린 판단들로부터 답을 구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결국 옛 자료 역시 하나님께서는 항상 사악한 자들은 벌하시고 의로운 자들은 구하셨다고 보여줄 것이니까요.

인류의 긴 역사와 비교해 볼 때 우리의 인생은 너무도 짧으니(기껏해야 하루치 경험이나 될까 말까 하니까요) 그간에 보존된 기록들이 유용하단 것이지요. 구전되어 온 전통 같은 것들을 참조로 해서 욱이 처한 상황을 해석해 보자는 것이지요.

역사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에 대해 심판하였음을 보여줍니다. 아담 이전 창조세계, 아담과 이브, 그리고 가인과 홍수 이전 시대의 사악한 무리들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의 증거입니다. 빌닷이 보기에는 욱은 심판을 받고 있으며 따라서 욱은 죄인이 틀림없다는 것입니다. 옛사람들이 하나님의 지노를 피할 수 없었듯이 욱도 그러하다고 그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골풀이 진흙없이 자랄 수 있을까?

“골풀이 진흙도 없이 자라겠느냐? 아마가 물도 없이 자라겠느냐? 그것은 푸른 기가 여전하고 베이지도 아니하였으나 다른 채소보다 먼저 시드느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모든 자의 행로들도 그와 같으며 위선자의 소망은 사라지리니 그의 소망은 끊어지고 그가 신뢰하는 것은 거미줄이 되리라. 그가 자기 집에 기댈지라도 그 집이 서지 못하며 그가 그 집을 굳게 붙들지라도 그 집이 견디지 못하리라. 그는 해 앞에서 푸르며 그의 가지는 그의 정원에서 뺏어나가고 그의 뿌리들은 무더기를 감싸며 돌들이 있는 곳을 보는도다. 그분께서 그의 자리에서 그를 떼 내어 멸하시면 그의 자리도 그를 부인하며 이리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 하리라. 보라, 그의 길의 기쁨은 이와 같으니 다른 자들이 그 땅에서 자라나리로다.” (욥 8:11-19)

빌닷은 역사의 교훈을 뒤로하고 이번에는 골풀과 아마라는 식물을 예로 들어 설명합니다. 이 아마 혹은 갈대는 나일강변의 습지에서 자랍니다. 바로 이곳이 아기 모세가 숨겨졌던 곳이지요. 이것은 거두어서 종이 만드는데 쓰였습니다. 이 식물은 진흙과 물이 있어야 잘 자랍니다.

빌닷의 논조는 간단합니다. 인간이 잘 되려면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주시지 않으면 인간은 물없는 갈대처럼 말라비틀어진다는 것이지요. 이어지는 내용에서 빌닷은 하나님께서 변영하는 것처럼 보이는 악한 자들을 어떻게 끊어버리셨는지를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보기에 욥은 하나님의 길을 내버렸기에 모든 위선자들의 소망처럼 비참하게 끝나버릴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위선자의 소망은 사라지리니” 라고 했습니다. 욥의 소망이 겉보기에는 강하고 건강한

것 같으나 실상은 물 없는 골풀과 갈대처럼 끊어져 멸망할 것이라고 빌닷은 은근히 암시하고 있습니다.

욥의 집은 거미의 줄처럼 되어 살짝만 기대도 부서져버릴 것입니다. 사실 욥의 길은 광야에서 불어온 폭풍에 의해 부수어졌습니다. 그러니 빌닷이 무슨 말을 하는지는 너무도 뻔하다고 하겠습니다. 빌닷은 골풀을 키우는 물과 거미집과 정원에 있는 부드러운 화초를 사용해서 위선자들 역시 햇빛 가운데 푸르르고, 번성하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뿌리가 말라버린다고 주장합니다. “사악한 자가 큰 권능을 가지고 스스로 푸른 월계수같이 뻗어 나간 것을 내가 보았으나 그가 사라졌으니, 보라, 그가 없어졌도다. 참으로 내가 그를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였도다.”(시 37:35-36) 엘리바스도 비슷한 말을 했었지요. “어리석은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내가 보았으되 즉시 그의 처소를 저주하였노라.”(욥 5:3)

빌닷의 주장에 따르면 위선자는 바위 속에 깊게 뿌리내리린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를 멸망시켜 그자리에서 제거해 버리시기에 나중에 보면 그가 존재했었다는 증거도 전혀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빌닷은 이처럼 온갖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 욥에게 그가 위선자임을 설득시키려고 합니다.

보라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을 버리지 않으시느니라.

“보라,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악을 행하는 자들을 돕지도 아니하시고”(욥 8:20) 욥기 첫부분에서 우리는 욥이 “완전하고 곧바른” 사람임을 확인한 바 있었습니다. 그것은 욥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였습니다. “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깊이 살펴보았느냐? 그와 같이 완전하고 곧바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멀리하는 자가 땅에 없느

니라, 하시니라.”(욥 1:8)

이 구절을 보니 욥의 세친구(빌닷 포함)는 욥의 성품에 대해 전혀 옳지 않은 견해를 갖고 있었군요. 세 친구 모두 각자 욥의 죄와 위선에 대해 비난했지요. 결국 이들이 다 틀린 셈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를 알고 계시고 욥도 알고 있고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욥기 앞부분에서 계시된 그 말씀들이 없었더라면 우리 역시 욥이 왜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에 대해 무지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빌닷은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을 버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견해는 일부만 옳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하나님께 호의를 입었는데도 고난을 당했으나 그것은 죄의 결과가 아니었으니까요. 침례인 요한도 스테반도 사도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도 “버림받은” 사람이었지요. 히브리서 11장에 가면 의인도 적어도 이 세상에서는 버림받을 수 있다는 증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영원히 버림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분은 자신의 자녀들을 다시 부르십니다. “우리는 반드시 죽으며 땅에 쏟아진 물 즉 다시 모으지 못하는 물과 같으나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중시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방법을 고안하사 자신의 내쫓은 자가 자기에 게서 아주 쫓겨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삼하 14:14)

하나님께서 악한자들이 죄를 짓는 데 직접 도와주시지 않는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분은 악을 저지르실수 없고 사람으로 악을 저지르도록 시험하시지도 않습니다. 만약 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으면 그들은 영원토록 소망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은혜로 인해 이들을 도우십니다. 니스웨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을 도울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었습니다. 우물가의 여인과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

힌 여인도 그러합니다. 이들 역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지요 빌닷의 견해에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기는 하나 그의 무지와 잘못된 태도 역시 자명합니다. 그는 왜 욥이 것처럼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간단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고난을 당하는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공개적으로 거스르고 있기에 악한 일을 당하게 되었을 겁니다. 이런 경우일지라도 고통당하는 사람을 비난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만 이렇게 훈계를 받으면 됩니다. **“형제들아, 만일 어떤 사람이 잘못에 빠지거든 영적인 너희는 온유의 영으로 그러한 자를 회복시키고 네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갈 6:1) 최고의 반응은 고통당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해주고 나서 입을 다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판단 역시 욥의 세 친구들처럼 대개는 잘못된 판단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구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백성)들을 왜 그런 식으로 다루고 계신지에 대해 우리는 정확히(혹은 전부를) 모르고 있으니까요.

제8장

욥기9장

“그분은 까닭 없이 나의 상처들을 더 늘리시는도다”(욥)

욥 9:1-4 “그때에 욥이 응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그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사람이 어찌 하나님과 견주어 의로우랴? 그가 그분과 논쟁하려 할 지라도 천 마디에 한 마디도 그분께 대답하지 못하리라. 그분은 마음이 지혜롭고 힘이 강하시니 누가 자신을 강박하게 하여 그분을 거역하고 형통하였느냐?”

그분의 권능

욥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의로울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한지가 의문입니다. 이어지는 두 장에서 우리는 욥의 이 의문에 대한 딜레마에 대해 살펴 볼 겁니다. 그는 만약 하나님께서 천

개의 고소를 하신다면 과연 그 중 하나라도 답할 수 있을까 생각해봅니다. 과연 그 분의 심판대에 서서 자신의 입을 열어 자기 주장을 내세울 수 있을까요?

당신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호소하시겠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을 몰라서, 무지해서 그랬다고 하실 겁니까? 만일 그렇게 답하신다면, 당신 자신의 양심이 당신을 고소할 겁니다. “율법을 소유하지 않은 이방인들이 본성을 통해 율법 안에 들어 있는 것들을 행할 때에 이런 사람들은 율법을 소유하지 않아도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사람들은 또한 자기 양심이 증언하며 자기 생각들이 서로 고소하고 변명하는 가운데 자기 마음속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보이느니라.) 이런 심판은 하나님께서 나의 복음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그 날에 이루어지리라.” (롬 2:14-16)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자신은 몰랐다고 말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창조물들이 당신을 고소하면서 손가락질 할 겁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세상의 창조 이후로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 깨달아 알 수 있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롬 1:19-20).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답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1. 땅

첫 번째 욕의 논증은 땅에 대한 것입니다. “그분께서 산들을 옮겨도 그것들이 알지 못하니 그분께서 분노하사 그것들을 뒤엎으시는도다. 그분께

서 땅을 흔드사 그것의 자리에서 떠나게 하시니 땅의 기둥들이 떠는도다.”(욥 9:5-6). 하나님 앞에 자신이 의롭다는 딜레마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깨달아감에 따라 점점 커져갑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권능은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습니다. 엄청난 규모의 산 앞에서 인간은 너무나 왜소해집니다. 우리는 산이 마치 고정되어 움직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아버지의 복들이 내 조상들의 복들보다 나아서 영존하는 산들의 가장 먼 경계에까지 이르렀도다. 그것들이 요셉의 머리 위에 임하며 자기 형제들로부터 구별된 자의 머리에 있는 관 위에 임하리로다.”(창 49:26), “그분께서 서서 땅을 측량하셨으며 그분께서 바라보시고 민족들을 쪼개어 몰아내시매 영존하는 산들이 흠어졌고 영원한 작은 산들이 엎드렸나니 그분의 길들은 영존하는도다.”(하 3:6)

욥은 하나님께서 산들을 뒤엎는 것이 마치 어린아이의 장난처럼 쉽다고 말합니다. 그분께서 원하시면 없애실 수도 옮기실 수도 있습니다. 지질학을 공부해보면 산이 원래 존재하지 않았던 곳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래 산이 그곳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없애실 수도 있습니다. “음성들과 천둥들과 번개들이 있었고 또 큰 지진이 있었는데 지진이 얼마나 크고 강력한지 사람들이 땅 위에 있는 이래로 그와 같은 것이 없었더라. 그 큰 도시가 세 조각으로 갈라지고 민족들의 도시들도 무너지며 또 큰 바빌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 그분께서 그녀에게 자신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 잔을 주시니라. 또 모든 섬이 사라지고 산들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또 무게가 각각 일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에서 나와 사람들 위에 떨어지매 사람들이 우박의 재앙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모독하니 이는 그것의 재앙이 지극히 컸기 때문이더라.”(계 16:18-21) 하나님께서 화가 나시면 온 우주는 아주 심각한 위기에 봉착할 것입니다.

그분의 권능은 그저 산들을 뒤엎는 정도가 아니라 땅의 기초에까지 닿을 수 있습니다. 삼손이 셀 수 없이 많이 있는 것 같은 그런 힘으로 땅의 기초를 하나님께서 뒤흔드립니다. 얼마나 큰 지진이 일어날까요?

2. 하늘들

욥 9:7-9. “그분께서 해에게 명령하사 뜨지 못하게 하시고 별들을 봉하시며 그분께서 홀로 하늘들을 펴시고 바다의 파도들을 밟으시며 악투루스 별과 오리온 별자리와 플레이아데스 별무리와 남쪽의 방들을 만드시고” 두 번째 욥의 논증은 하늘들에 대한 것입니다. 욥은 땅 위에 있는 하나님의 권능으로부터 하늘들에 있는 장면으로 옮겨갔습니다. 모든 것은 그분의 발밑에 있습니다. 태양도 하나님께서는 보이с카우트가 캠프파이어 할 때 튀는 작은 불꽃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주의 하늘들 곧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작품과 주께서 정하신 달과 별들을 내가 깊이 생각하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 속에 깊이 두시나이까?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찾아오시나이까?”(시 8:3-4) 이 모든 것들이 그분의 손가락의 작품들이라고 묘사되어 있습니다(시 8:3-4). 수 10:13에 보니 하나님께서 전투하는 어느 날 해를 일시적으로 멈추게 하신 적이 있습니다. 환난 때에는 그 빛이 어두워지게도 하실 겁니다. “그분께서 여섯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보니, 보라, 큰 지진이 나며 해는 머리털로 짠 상복같이 검게 되고 달은 피같이 되며”(계 6:12)

욥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자신이 너무 작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덕을 만드실 수도 있고 뒤엎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의 기초들을 조성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이 땅의 기초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계십니다. 또한 손가락으로 태양과 달, 별들도 만드신 분이시

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해, 달, 별들을 나무에서 떨어지는 무화과처럼 떨어지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텐트처럼 펼쳐 놓으셨고 그 하늘들을 셀 수도 없는 별들로 빛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별들의 이름과 그것의 위치도 다 알고 계십니다. 바람의 날개들을 타고 걸으십니다. 그분은 구름 위를 밟으시고 마치 단단한 땅 위로 걷는 것처럼 바다를 걸으십니다. 이분은 욥의 호흡의 기원이 되신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욥은 감탄하며 외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 당연합니다.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처럼 의로울 수 있겠는가!

이런 엄청난 하나님 앞에서 욥은 큰 별에 대해서 언급했었는데(9절) 그의 의도는 하나님께서 하늘들을 펼치고 그 별들을 궤도에 올려놓으셨음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악투루스라는 별은 하늘에서 네 번째로 밝은 별이며 베티스라는 성운에 있어서는 가장 밝은 별입니다. 그런데 그 성운은 지구로부터 무려 36광년 정도 떨어져있습니다. 이 별은 큰곰자리와 연관이 있습니다. 욥기 38:32을 참조해보십시오. 오리온이라고 하는 별은 거인이라고 불리는 별자리인데 그 별 한 개의 범위가 약 220경 정도 되는 아주 큰 별입니다. 태양보다도 무려 2경 200조 배 만큼 큼니다. 이와 같이 어마어마하게 큰 별들을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플레이아데스(Pleiades)라는 성단은 타우루스(Taurus) 성단의 목 부분에 있는 일곱별에게 주어진 이름입니다(릭크만의 주석에서 인용).

3. 그분의 길

욥 9:11 “보라, 그분께서 내 곁을 지나가셔도 내가 그분을 보지 못하며 그분께서 또한 계속 나아가셔도 내가 그분을 알아내지 못하는도다.” 물 위를 걸으시며 하늘들에다 별들을 던져 넣으신 그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은 무

소부재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분의 임재를 알아차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움직이시고 결코 어디에 계신지 들키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이것이 마치 바람 같으신 분이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바람이 불어 느껴지기는 하나 어디에서 불어와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분은 인간이 찾을 수 없는 분입니다.

4.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

욥 9:12. “보라, 그분께서 가져가시면 누가 그분을 막을 수 있겠느냐? 누가 그분께 이르기를, 주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겠느냐?”

욥은 창조된 것들이 그들을 만든 분께 ‘주께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라고 말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립니다(12절).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이 하나님이시고 모든 지혜와 권능을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원하시는 대로 행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취해가려고 하신다면 무엇이랴 말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취할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건강을 잃었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입니다. 욥의 자녀들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다 죽었다면 그것 역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욥의 경우처럼 친구들이 우리를 대적한다면 멈추지 않으시고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이 경우에 ‘도대체 하나님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제 정신이라면 그렇게 말할 수 없겠지요. 욥은 하나님께서 이런 권능이 있으신 분임을 일찍이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주실 수도 가져가실 수도 있는 권능이 그 분 안에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이르되, 내가 내 어머니 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또한 벌거벗은 채 그리로 돌아가리라. 주신 분도 주시요 가져가신 분도 주시니 주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고”(욥기

그분이 나를 제압하십니다.

욥 9:13. “하나님께서 자신의 분노를 거두지 아니하시면 교만한 협력자들이 그분 밑에서 허리를 굽히겠거늘” 하나님이 분노하시면 인간의 몸은 전혀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있어서는 언덕들이 뒤집어지고 땅들이 그 기초로부터 제거되며 바다가 끓어오르는데 이 상황에서 도대체 인간이 인간을 도와보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교만한 자는 이 때 하늘을 향해 저주를 퍼부을 수도 있고 칼을 뽑으며 하나님께 도전장을 던질 수도 있겠지만 그래 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엄청난 바람이나 파도와 맞서 싸우려고 할지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면 하늘들 위에 앉아서 비웃지 않으시겠습니까(시 22편)? 인간의 팔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대적의 군대들을 자신에게 굽히도록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시는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욥의 처지는 욥을 돕고자 하는 자들보다 약한 상황이었습니니다. 욥 9:14. “하물며 내가 어찌 그분께 대답하겠으며 내 말들을 택하여 그분과 변론하겠느냐?” 인간 안에는 아무런 도움이 없는데 욥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나약한 자보다 욥은 지금 더 나약합니다. 그래서 욥은 그 분께 아무 대답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비록 자기가 옳다고 믿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대꾸를 할 수는 없습니다.

비록 자신이 죄가 없다 할지라도 화가 나신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대신하여 자신의 처지를 하나님 앞에 호소해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욥9:15. “비록 내가 의로울지라도 그

분께 감히 대답하지 못하겠고 도리어 나를 심판하시는 이에게 간구하리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진노와 권능 때문에 비록 스스로가 의롭다고 믿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감히 답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본문에 언급된 대로 심판자이시라면, 욥은 답을 하는 대신 그분의 긍휼을 구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초청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다른 것에 바탕을 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한다면 제발 지금 서 있는 그곳에 머물러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차라리 당신의 변호자를 찾을 때까지 손으로 입을 가리고 있는 것이 나을 겁니다.

욥은 심지어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시더라도 그것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욥 9:16. “내가 그분을 부르므로 그분께서 내게 응답하셨을 지라도 그분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니” 자신의 상태가 나아지지 않았으므로 어떻게 응답받았다고 믿느냐는 것입니다. 욥은 여기서 상당히 곤경에 빠져 있습니다. 욥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으로 인해 너무 놀라 그분께서 응답을 하셨다 하더라도 못 믿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리 없다고 믿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 압도당하여 못 믿겠다는 뜻이라면 욥은 자신이 너무나 보잘 것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비록 하나님께서 만나주셨다 해도 못 믿겠다는 의미일 겁니다. 또 그 반면에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창조물에 관심이 있으신지도 의문스럽습니다. 그 누가 이러한 욥에게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욥은 하늘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욥은 지금 자신이 알고 있는 것 외에는 모르고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과 제가 욥이 견디는 만큼 견딜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하

나님 앞에 아무런 의문도 제기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욥의 처지였다면 몇 배로 더 했을 겁니다.

욥 9:17-19 “그분께서는 폭풍으로 나를 꺾으시고 까닭 없이 내 상처를 늘리시며 내가 숨도 쉬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쓰라림으로 나를 채우시는도다. 내가 힘에 대하여 말할진대, 보라, 그분께서는 강하시며 심판에 대하여 말할진대 누가 내게 변호할 시간을 정해 주리요?” 욥은 지금 자신이 처한 상태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자기를 이런 방식으로 다루시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나에게 화가 나셨구나.’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방식 말고도 그를 다루실 수 있으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욥을 완전히 쪼개진 배처럼 산산조각 내셨습니다. 상처를 입고 또 입고, 하나님 앞에 끝없이 얻어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에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왜 그러시는 겁니까? 굉장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를 밝히지 않으십니다.

욥기의 기록 목적은 고통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계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책 속에 보니 사탄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거짓말을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욥은 결국 마음의 곧바름으로 하나님을 섬겼고 두 배로 축복을 받게 됩니다. 욥의 상황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가 죄는 아니었습니다. 욥이 분명히 고난당하는 이유가 있었지만 죄는 아니었습니다.

욥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숨을 고르는 것조차 힘이 듭니다. 자신이 죄가 없다고 호소하는 것마저 두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항변할 수도 없고 감히 목소리를 높여서 대적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다투며 조건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욥이 하나님 앞에 죄 없음을 호소하기 두려워하다

욥 9:20. “내가 스스로 의롭다 하면 내 입이 나를 정죄할 것이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완전하다, 하면 그 말이 또한 내가 비뚤어진 것을 입증하리라.”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항상 올바른 것만 말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계심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만약 욥이 하나님 앞에 심판 날짜를 받았다 할지라도 자신에 대해서 무엇을 변호할 수 있을까요? 스스로를 의롭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시도마저 해가 될 겁니다. “만일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우리가 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며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요일 1:8) 하나님 앞에서 감히 나는 무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욥의 고난에 대한 답은 무엇인가? 왜 고난을 당했을까? 만약에 욥이 완전함을 주장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욥의 자녀들을 데려다가 아버지에게 대해 이야기해 보라고 하실 겁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아버지의 잘못들을 고발하겠지요. 누가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다고, 완전함을 주장하겠습니까? 아주 종교적인 사람은 그럴 수 있겠지요. 우리 모두를 완전히 산산조각 내 버릴 수 있는 증거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렵지 않게 찾아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는 그분의 공훈은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 소망이 충분하니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욥 9:21. “비록 내가 완전할지라도 나는 내 혼을 알려 하지 아니할 것이요, 내 생명을 멸시하리로다.” 욥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고 있지 못한 것 때문에 겁을 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있다고 하는 진정한 표적은 자기 자신을 전적으로 혐오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빛에 다가가면 갈수록 자신의 흉측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최고의 사람은 겉으로 드러난 것보다 항상 자기 안에 훨씬 더 사악함이 존재함을 인식하고 자신을 의심하는 사람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겉으로 하는 죄의 행동들이 아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차 개선되는 때는 다름 아닌 자신의 마음속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입니다. 여러분의 본성 자체가 부패되었고 고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아야 합니다. 욥과는 달리 우리는 생명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마귀의 다음과 같은 선언이 맞는 것 같습니다. “...가족으로 가족을 바꾸오니 참으로 사람이 자기의 생명을 얻기 위해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리이다.”(욥 2:4) 욥은 자신의 생명을 멸시하는 상황에까지 왔으므로 영적 성장을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십니다.

욥 9:22. “이 일이 한 가지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분께서 완전한 자와 사악한 자를 멸하신다, 하였도다.” 욥이 드디어 결론을 내립니다. 인간은 어떻게 살든지 하나님 앞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똑같이 대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모든 진리는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이집트 사이에 구별을 두셨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경우 이 지상에서 살고 있는 동안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취급된다는 것입니다. 즉, 비가 의로운 자에게 내리고 불의한 자 위에도 내리는 것처럼, 악한 자와 선한 자 모두에게 태양이 비추는 것처럼 말입니다.

아마 욥과 그의 친구들은 이 진리에 대해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욥은 그런 입장에서 바뀌었고 회심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은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말하는 것처럼 죄를 지은 위선자가 아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원하시는 대로, 기뻐하시는 대로 하십니다. 독일과 영

국, 폴란드에 폭탄이 떨어질 때 수천 명의 무신론자와 그리스도인들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회초리에는 아무런 구별이 없죠. 하나님께서는 사악한 자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사악한 자가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고 기뻐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그 분의 눈앞에는 성도의 죽음이 고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시 116:15

욥 9:24. “그분께서 땅을 사악한 자들의 손에 넘겨주셨으며 땅의 재판관들의 얼굴을 가리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그분이 어디에 있으며 또 누구이겠느냐?” 욥은 사악함이 온 천하를 뒤덮었다고 논리를 전개했습니다. 그래서 사악한 자가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죠. 눅 4:6. “마귀가 그분께 이르되, 이 모든 권능과 그 왕국들의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그것이 내게 넘겨졌으므로 누구든지 내가 원하는 자에게 그것을 주리라.” 아니 어떻게 이런 상황이 된 것일까요? 기름부음을 받은 그룹을 누가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마귀가 하나님을 떠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 먹을 줄 모르셨을까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를 알고 계셨다고 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빛의 천사를 가두어 이 세상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을 수 없으셨을까요? 막으실 수 있음에도 왜 내버려두셨을까요? 왜 지상에 마귀가 내려오도록 허락하셨냐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마귀에게 시험받게 내버려 두셨냐는 거죠. 이것은 아주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누구라는 겁니까? 문제는 이 질문들에 의문을 품어도 하늘에 가야 답이 나오지 일시적인 이 지상에서는 답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욥에게는 이제 하나님과의 만남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1. 그의 삶이 빠르게 지나갔다.

욥 9:25-26. “이제 내 날들이 파발꾼보다 빨리 지나가며 달아나 버리므로 좋은 일을 보지 못하는도다. 그 날들이 빠른 배들처럼 지나갔으며 또 먹이를 향해 치달는 독수리처럼 지나갔도다.” 욥기에 보면 인생을 열 가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욥은 자신의 인생이 자기로부터 빠르게 도망가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곧 자신의 심판자를 뵈게 될 것입니다. 마치 빠른 말이 달려가는 것처럼, 수평선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배처럼 인생은 달려갑니다. 저 높이 있던 독수리가 바람을 타고 먹이를 향해 내리쫓듯이 인생은 쉬지 않고 달려갑니다. 인생이 궁극적으로 낚아채는 먹이는 바로 사망입니다.

2. 욥은 두려움 때문에 마음의 위안을 얻을 수가 없다.

욥 9:27-28.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가 내 원통함을 잊고 내 근심에서 벗어나 내 자신을 위로하리라, 할지라도 내가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며 주께서 나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할 줄을 아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실재가 내 앞에 있고 하나님과 곧 만날 약속이 다가오는 순간에도 아무런 위로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하나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무죄하다 하지 않으실 테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욥은 자신이 사악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29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놓고 보았을 때 사악한 행동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내가 만일 사악하다면 지금 왜 이 수고를 하고 있겠는가? 이미 심판을 받아 끝났을 것이다. 내가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애를 쓰겠는가? 나는 사악하지 않다.’

3. 스스로 깨끗하게 한들 소용이 없다.

욥 9:30-31 “내가 눈 녹은 물로 내 몸을 씻고 그 어느 때보다도 내 손을 깨끗이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도랑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마저도 나를 몹시 싫어하리이다.”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고 있다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상태로 만들 수 없음을 인정했습니다. 자신이 스스로 아무리 깨끗이 정화를 해봐야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몹시 싫어하시며 시궁창에 던져 버리실 것이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욥의 옷마저도 욥의 죄악된 육체에 닿는 것을 두려워 할 정도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닙니다. 그 분은 인간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 같은 존재는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 하나는 유일성입니다. 욥이 이런 분과 만나기 위해서는 중재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중재자 한 사람을 보내십니다. 그가 바로 엘리후입니다. “조금만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을 그대에게 보이겠노라.”(욥 36:2) 하나님께서 엘리후를 보내시어 세 친구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욥에게도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를 취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욥은 나머지 구절에서 세 가지를 요청합니다. ‘주님, 이 막대기를 제거해 주십시오. 괴롭습니다. 그리고 중재자를 보내주십시오. 저는 하나님처럼 크고 의로우신 분 앞에 나설 수 없습니다. 누군가 저 대신 아버지 앞에 서게 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무서워서 입을 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 어느 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

제9장

욥기10장

**“하나님께서 나에게 책임을 물으시는 그것이
무엇인지 말씀해주십시오!”**(욥)

이 장은 욥이 하나님께 항변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욥이 고난당하는 것이 그의 잘못으로 인함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욥의 고난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람을 다루시는 데 있어서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확고하게 입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창조물에 대해 긍휼과 사랑을 베푸시는 것은 그들의 사랑을 필요로 하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없으면 무엇인가 결핍이 되기 때문이 아닙니다. 마귀가 속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얻어서 자신을 섬기도록 하려고 뇌물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을 베푸심은 인간이 하나님을 잘 섬기기 때문이 아닙니다. 마귀는 하나님께서 욥을 선하게 대해주셨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잘 섬긴 것이지, 그를 치시면 그가 분명 하나님을 저주할 것

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욥은 고난으로 자신의 의로움을 입증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분을 섬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경배와 존귀를 받아 마땅한 분이시기 때문에 섬겼을 뿐입니다. 또한 욥의 고난은 왜 의로운 이들이 고난을 당하는가에 대해서 사람들과 천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준 예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욥의 고난은 모든 성도들의 고난이 그런 것처럼 욥에게 있어서 부족했던 부분을 바로잡아 완전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욥의 고난이 죄의 결과는 아니었지만 우리는 욥이 그 고난 때문에 결국 죄를 짓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죄는 육신의 죄라기보다는 영으로 짓는 죄입니다. 만약 이 문제에 있어서 의심이 생기는 분이 있다면 욥이 고난에 대해 취한 태도와 다윗, 예수님 그리고 바울의 태도를 비교해 보면 금방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 두 인간 그룹의 고난에 대한 반응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욥 10:1-2. “내 혼이 살기에 지쳤으니 내가 내 원통함을 내 위에 두고 내 혼이 쓰라린 가운데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며, 나를 정죄하지 마소서, 하리라. 어찌하여 주께서 나와 다투시는지 내게 보여 주소서.” 욥은 이제 사는 것에 지쳤습니다. 인간이 죄에 대해서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지쳤다고 하는 것은 올바른 일입니다. 그래서 요한도 예수님께서 속히 돌아오셔서 사악한 자들을 심판해 주십사 기도했었습니다. 이 세상은 날로 악해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가 매우 힘들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복음전도 여행 중에 많이 지쳐 어떻게든 기회만 되면 쉬려고 했었습니다. 예수님도 이리저리 다니는 여정 가운데 지치셔서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쉬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육체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지치고 피곤한 것은 당연한 일

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불평을 한다면 하나님을 불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불평을 했고 그래서 소멸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지쳤을 때는 하나님께 있는 사실 그대로를 고백하면 됩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는 그분께 다 맡기면 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잡아 주실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좋은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내 아들이,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며 그분께서 바로잡아 주시는 것에 싫증을 내지 말라.”(잠 3:11) 우리는 히브리서에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바로 잡으신다는 말씀을 상기할 수 있습니다.

욥은 지금 이 상황에서 슬픔으로 인해 지쳤고 자기 혼에 대하여 분통을 터뜨립니다. 예레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욥도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이 두 사람의 동기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욥의 불평은 그의 혼이 불평하는 것이고 이는 결국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정죄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합니다. 사실은 그가 하나님께 정죄 받고 있지 않은데 말이죠. 욥은 전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건전한 교리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심에 대해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욥의 처지에서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알 수 없으니 그렇게 밖에 반응을 할 수 없겠죠. 우리의 양심은 우리에게 비극적인 사건이 있을 때마다 우리를 질책합니다. 로마서 8장을 기록하신 목적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음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으며 하늘이든 땅이든 천사들이든 마귀들이든 삶이든 죽음이든 간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로마서 8장의 기록 목적입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선언하십니다.

욥 10:3-7 “주께서 학대하시는 것과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멸시하시고 사악한 자의 계략 위에 빛을 비추어 주시는 것이 주께 선한 일이나이까? 주께서 육신의 눈을 가지셨나이까? 주께서 사람이 보는 것처럼 보시나이까? 주의 날들이 사람의 날들과 같나이까? 주의 연수들이 사람의 날들과 같으므로 주께서 내 불법을 조사하시고 내 죄를 찾아내시나이까? 주께서는 내가 사악하지 아니한 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건져 낼 자가 아무도 없나이다.”

15절에 보니 욥이 혼란으로 가득 차 있다고 나오는데요. 욥이 하나님께 던진 질문과 고소하는 내용들을 보니 상당히 혼란스러워 보입니다. 욥이 질문합니다. “하나님, 혹시 하나님께서 창조한 것들을 억압함으로써 쾌락을 느끼시나요? 그래서 저를 괴롭히시는 건가요?” 이를 보면 욥이 정말 하나님에 대해 무지함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억압하고 학대하는 분이 아닙니다. 사탄이 크게 억압하는 자이며 사탄이 욥에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압박을 가하는 중이죠. 하나님께서는 의인들보다 사악한 자에게 호의를 더 보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에게도 선하게 대해주시고 섭리적인 손길로 매일 복을 주십니다. 그럼에도 욥은 하나님께서 의인을 억압하시면서 어떤 쾌감을 느끼시는 것이 아닌가, 사악한 자들에게는 왜 벌을 내리지 않고 내버려 두시는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욥과 그의 친구들이 내세웠던 철학과는 정반대이죠.

욥은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밤낮 조사하는 사람들처럼 하나님께서도 그리 행하시는 것입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진리를 찾지 못하는 악한 자의 것과 같은 눈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혹시 그들이 진리를 찾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는 눈을 가진 자들과 같으십니까? 인간의 눈은 육신에 속해있기 때문에 그 어둠 속에 가려져 있는

것들을 보아야만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처럼 완전히 모든 것을 다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제한된 어둠 가운데서 볼 수밖에 없는 눈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런 눈을 가지신 분이 아니실진대 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 관점에서 볼 수밖에 없고 그가 바라보는 것은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마치 운전할 때 처럼 말이죠. 인간은 외적인 것 외에 내면의 마음과 혼을 진정으로 볼 수 없습니다.

욥은 하나님은 인간과는 다른 분이시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 하나님께서 자기에겐 행하시는 것들이 인간과 다르지 않게 보였습니다. 욥 안의 어떤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마치 사자처럼 그를 누르고 파괴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어째서 욥은 하나님의 원수가 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가득한 인간이시란 말인가요? 욥은 묻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자기 안에서 악한 것을 찾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로 그분을 붙잡으려고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욥은 자신이 사악하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혼란의 원인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도 역시 그 사실을 알고 계심을 압니다. 그러나 욥과 그의 세 친구들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다루시는 것이 마치 악한 자를 다루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오! 모든 인간들에게 있는 이 혼란과 어두움은 하늘로부터 오는 참된 계시를 받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존재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계시의 말씀을 가지고 있기에, 주를 찬양합니다. 첫 번째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외의 모든 것은 우리에게 어둠과 혼란만 줄 뿐입니다. 욥은 무슨 일이 있어났든지 간에 누구도 하나님 외에 자신을 구원할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욥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욥 10:8-13. “주께서 주의 손으로 나를 만드시고 사방으로 내 전체를 빛으셨으니 이제는 나를 멸하시나이다. 간청하오니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진흙처럼 만드셨거늘 다시 흙으로 데려가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젖같이 쏟으셨으며 치즈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주께서 나를 살갓과 살로 입히시고 뼈와 힘줄로 내게 올타리를 치셨으며 생명과 호의를 내게 베푸시고 주의 돌보심으로 내 영을 보존하셨나이다. 주께서 이것들을 주의 마음속에 숨기셨사온즉 이 일이 주께 있는 줄 내가 아나이다.”

욥은 하나님께 자기가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사실을 상기시켜드립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이 땅의 먼지로부터 인간을 섬세하게 빚으셨습니다.” 욥은 창조의 이야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욥이 하나님께서 어떤 손길로 인간을 빚으셨는지 묘사하는 내용을 보면 아주 흥미롭습니다. 그 과정이 아주 경이롭고 신비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는 모습이 마치 우유를 응고시켜 치즈를 엉기게 만드는 과정과 비슷하게 묘사됩니다.

텐트를 칠 때 말뚝을 세우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뼈도 그와 같은 목적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또한 그 위에 살갓이 입혀지고 힘줄로써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인간의 장기는 나중에 덧붙인 살들로 잘 보존되어 보관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숨을 불어 넣으셔서 인간은 살아 있는 혼이 되었고 창조자의 그림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재창조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거의 모르고 있습니다. 그가 재창조되기 위해서는 먼저 먼지처럼 아주 낮아져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먼지에서 무엇을 만드실 수 있을까요? 그 흙에 수분이 더해지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만드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드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수분은

그들의 눈물입니다. 욥은 하나님의 재료에 자신의 눈물을 더하게 될 것입니다. 인간이 고난을 당하며 눈물을 흘려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방법대로 인간을 만드실 겁니다. “그러므로 내 아들이, 주의 징계를 경시하지 말며 주께서 너를 책망하실 때에 기진하지 말라.”

욥은 하나님을 자신의 창조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을 결코 의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욥은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자신을 만드셨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는 파괴되기 위하여 창조되었는가? 욥은 하나님께서 하는 일을 알 수 없기에 절규합니다.

이러한 그의 혼란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알고 있음을 확신합니다. “주께서 이것들을 주의 마음속에 숨기셨사온즉 이 일이 주께 있는 줄 내가 아나이다.”(욥 10:13)

욥은 왜 그분의 선하심과 지혜에 대해 그분을 찬양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욥뿐만이 아니라 고난을 당하게 될 모든 성도들 역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에는 왜 여러분에게 고난이 허락되었는지 모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이런 상황에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한 가지는 그분의 은혜가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욥 10:14-17. “내가 죄를 지으면 주께서 나를 주목하시고 내 불법을 사면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내가 사악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머리를 들지 아니하리이다. 나는 혼란으로 가득하오니 그런즉 주께서는 내 고난을 보소서. 그것이 늘고 있나이다. 주께서 사나운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다가 주의 놀라우심을 내게 다시 보여 주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증인들을 새로이 세우사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주의 격노를 더하시니 변화와 싸움이 나를 치나이다.” 욥은 자신의 죄를 하나님으로부터 숨길 수 없

다고 인정합니다. 사실상 하나님의 진노는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이고 매우 엄한 것입니다. 만약 욥이 의롭다면 그래서 너무 혼란스럽다 할지라도,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렇다고 주장하지 못합니다.

욥은 혼란 가운데 하나님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간청합니다. 사탄은 마치 파도가 치듯 계속해서 욥에게 군대를 파견하고 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힘도 없고, 자신이 어떠한 간청을 해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대적할 증인을 세우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욥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가장 확실한 답 하나는, 죽음뿐입니다.

욥은 처음에 외쳤듯이 다시 죽음을 허락해 달라고 울부짖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자신을 태로부터 이끌어 내셨는지 묻습니다. 자신의 인생에 어떤 목적이 있는지 묻습니다. 그는 가족을 잃었습니다. 장래에 대한 소망은 가족의 죽음으로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는 수입의 모든 원천을 잃었습니다. 그의 재정적인 안정이나 도움을 얻을 만한 모든 계획도 사라졌습니다. 그의 육체와 혼은 그가 말한 것처럼 파괴되는 중입니다. 도대체 왜 그가 태어났어야만 할까요? 이를 합당하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 모든 것이 욥에게는 아무런 목적도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왜 태어나면서 자신이 죽지 않았는지 탄식합니다. 그때 죽으나 지금 죽으나 무엇이 다른가? 어머니 뱃속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더라면 얼마나 편안했을까! 욥의 절규입니다.

욥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앞에 대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자기가 죽기 전에 위안이라도 얻게 더 이상은 괴롭히지 마시고 자신을 내버려두시라 간청하고 있습니다.

욥의 삶은 비참했습니다. ‘돌아올 수 없는 그곳’, 무덤으로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어둠의 땅” 이요, “죽음의 그림자” 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그곳이 아무런 질서도 빛도 없는 장소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물론 욥이 사후 세계에 대해 이해하고 있던 내용이 불완전함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모세의 시절에 관해 새로운 조명을 주셨습니다. 계시는 점진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져왔고 성경은 완성될 때까지는 성령님의 조명이 조금씩 진행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공부할 때 올바르게 나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요소인 것이지요. 욥은 자기도 모르는 새에 적그리스도가 잠시 머물게 될 바깥 어둠의 세계에 대해 묘사하게 됩니다. “이에 왕이 종들에게 이르되, 그의 손발을 묶고 그를 데려다가 바깥 어둠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갇이 있으리라, 하니라.”(마 22:13), “이들은 물 없는 샘이요 폭풍에 밀려다니는 구름이라. 그들을 위해 어둠의 안개가 영원토록 예비되어 있나니”(벧후 2:17)

제10장

욥기11장

“거짓말이 사람들을 잠잠하게 하겠느냐?”(소발)

욥 11:1-4. “그때에 나아마 사람 소발이 응답하여 이르되, 많은 말에 대해 대답해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말로 가득한 사람이 의롭게 되겠느냐? 네 거짓말이 사람들을 잠잠하게 하겠느냐? 네가 조롱할 때에 아무도 너를 부끄럽게 하지 못하겠느냐? 네가 말하기를, 내 교리는 순수하고 나는 주의 눈에 깨끗 하나이다, 하였도다.”

“욥을 향한 소발의 고소”

소발의 이름은 ‘참새’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의 행동은 매에 더 가깝습니다. 이 소발이라는 이름이 땅의 새 목록 중에 들어있는 것이 참으로 의미심장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새들은 마귀들이라고 마태복음서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땅의 새들과 소밭의 이름을 비교한 이유는 씨 뿌리는 자와 겨자씨 비유의 말씀을 보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욥이 어떤 행동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시켰는지를 어떻게든 찾아내려고 했던 다른 두 친구들과는 달리 소밭은 욥이 두 친구들에게 반박한 내용을 트집 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공격은 앞선 두 친구들보다 훨씬 잔인합니다.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소밭을 존중해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 해도, 다음에 이어지는 소밭의 행동을 보면 그 마음이 싹 사라질 겁니다. 이 사람의 태도는 거짓 경건함과 우월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는 욥에게 헛된 말장난을 하고 있다며 고소합니다. 욥의 불평과 답변에 대해서 그저 말이 많은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둔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이 정말 욥의 친구가 맞을까요? 그럼에도 소밭은 이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말을 너무 많이 한다고 생각이 들 때 지겨워하고 짜증스러워 합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하려는 마음보다는 지적하게 되고, 비난을 하게 되지요. 소밭은 욥으로부터 당연히 자신이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해주지 않자 당황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욥이 하지도 않은 말을 한 것처럼 말하며 그를 비난합니다. 4절을 보십시오. “네가 말하기를, 내 교리는 순수하고 나는 주의 눈에 깨끗하나이다, 하였도다.” 사람들은 자신이 이끄는 방식으로 따라오지 않으면 마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한 것처럼 마귀 들린 것이 아니냐며 몰아붙이거나 가난한 자를 왜 돕지 않는가, 왜 향유를 낭비하는가 등의 트집을 잡습니다. 소밭이 욥에게 하고 있는 것이 딱 이러한 모양새입니다.

소밭은 지금 욥에게 거짓말을 한다며 고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은 소밭이 욥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 자기가 깨끗하다고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 욥 7:20에서 이미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인

임을 인정하고 고백했습니다. 욥은 다만 자신이 위선자는 아니라고 말했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만한 죄를 짓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소발의 좌절을 보게 됩니다. 소발은 열변을 토하며 자기 주장을 하다보니 냉정을 잃어버렸습니다. 소발은 경멸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는 상당히 선한 사람이었을 것이고 훌륭한 일도 많이 했을지 모르지만 이 순간 만큼은 너무나 천박한 지경에까지 수준이 낮아졌습니다. 친구에게 아주 형편없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친구인 욥이 엄청난 일을 당했음에도 친구로서의 동정심은 눈을 찢고 찾아봐도 없군요. 욥은 정말 위로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소발은 자신의 ‘응보의 교리’ 때문에 눈이 어두워져 있습니다. 위로가 필요한 친구도 보이지 않고, 어쩌면 욥보다도 더 죄악된 성품을 지니고 있는 자신에 대해서도 잊어버린 채 자기 의에 가득 찬 모습입니다. 게다가 소발은 하나님께서 욥을 꾸짖으셔야 한다고 갈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야단 좀 치시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비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소발입니다.

소발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갈망합니다.

욥 11:5-6. “그러나 원하건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자신의 입술을 여사너를 치시며 지혜의 은밀한 것들을 네게 보여 주시되 그것들이 지금 있는 것의 두 배나 됨을 보여 주시기를 바라노라! 그런즉 하나님께서 너로부터 네 불법에 상응하는 것보다 적게 취하시는 줄 알지니라.”

소발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갈망합니다. 그런데 그 목적은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이 욥을 위로하시기를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야단치시기를 갈망합니다. 욥은 자기가 농장과 가족과 친구들, 건강을 잃을 만큼 잘못을 저지른 적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 왜 자신이 이

렇게 고난당해야 하는지 속 시원히 답변해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소발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꾸짖으시며 그가 숨기고 있는 죄들을 드러내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숨긴 죄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들을 폭로하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소발은 욥이 생각하는 것보다 욥의 죄가 적어도 두 배 정도는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소발은 손을 들고 그의 눈을 하늘로 향한 채 절망 가운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셔서 욥의 사악함을 그에게 깨닫게 해주십시오! 욥은 그제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져가 버리셨지만 그럼에도 그가 두 배로 심판받아야 마땅한 자라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소발 안에서 목격하고 있는 것은 바로 종교의 사악함입니다. 이것은 가장 오래된 속임수 중 하나이죠. 인간은 하나님께 상당히 의문스러운 요청을 지원해달라고 호소합니다. 그래서 소발은 하나님께 이렇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의 동맹이 되어 욥을 공격해주시죠.’ 이것은 오랫동안 많은 이들의 기도 가운데 있었습니다. 기도가 하나님께 회개하거나 겸손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교리, 성취, 감정을 선포하는 기회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된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있는 그대로 기도를 해야지, 포장된 말로 해서는 안 됩니다. 소발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진이 일어났다는지, 비행기 사고가 났다는지, 에이즈가 창궐했다는 등의 소식을 접하면 그런 일을 당할 만한 사람들이니 당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합니다. 이렇게나 쉽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 있는 더 깊은 사실은 놓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는 반드시 이렇게 해야만 한다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잘 모르면서 말이

죠. 그런데 이런 일들은 신성모독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혀 그런 분이 아니신데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소개하는 경우가 되겠죠.

소발이 욥이 너무나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하지 못하다고 믿고있습니다.

욥 11:7-12. “네가 조사한다고 하나님을 찾아낼 수 있겠느냐? 네가 전능자를 완전히 찾아낼 수 있겠느냐? 그것은 하늘만큼이나 높으니 네가 무엇을 하겠느냐? 또 지옥보다도 깊으니 네가 무엇을 알겠느냐? 그것의 한계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그분께서 끊으시고 가두시며 함께 모으시면 누가 능히 그분을 막겠느냐? 그분께서 허망한 사람들을 아시고 사악함도 보시나니 그런즉 그분께서 그것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시겠느냐? 사람이 들나귀 새끼같이 태어날지라도 허망한 사람은 지혜롭게 되고자 하느니라.”

우리는 소발이라는 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기 때문에 그를 존중하지 않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 그가 하는 유려한 말들에 깊은 인상을 받았을 겁니다. 하지만 알고 보면 그가 한 말 중에 욥이 하지 않은 고백이나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분이심을 알았습니다. 만약에 우리 인간이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면 인간보다 위대하지도 않고 유한한 존재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알려주셔야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 영생은 그 분을 아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생은 이것이니 곧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요 17:3)

어떤 남자든 여자든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보편적인 지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창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인 하

나눔에 대한 지식은 성경,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경을 공부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기 위해 망원경과 현미경을 동원한다고 해도 찾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10장에 보면 하나님을 찾기 위해 저 하늘로 올라가고 바다 밑으로 내려가는 사람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실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도 아닙니다. 그 분을 안다는 것은 영적인 발견이고 모든 인간에게 자신에 대해 계시하시며 초대해 주십니다.

우리는 소발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던 내적 동기에 대해 깊이 생각해 봅시다. 그는 욕이 거짓말쟁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욕을 그렇게 비난을 해놓고 왜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떠드는 것일까요? 자신을 내세우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나 위대하신 분인데 너는 그것도 모르고 있느냐 이런 의미입니다. 아주 교만이 충만한 모습입니다. 소발은 하나님의 길을 알고 있고 이해하고 있다고, 또 어떤 방식으로 일하는지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반드시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는 지금 전혀 하나님의 일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발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욕이 고백하지 않은 죄가 있어서 벌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죠.

소발은 자기가 내세우는 것처럼 인간이 헛되다면, 그 자신은 무엇입니까? 그도 야생 당나귀처럼 어리석고 길들여지지 않은 존재임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소발은 자신이 묘사한 평범한 인간에 대한 평가에 자기 자신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소발이 욥에게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라 요구하다

“만일 네가 네 마음을 예비하고 그분을 향하여 네 손을 내밀 때에 네 손에 불법이 있거든 그것을 멀리 버려서 사악함이 네 장막들 안에 거하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면 네가 흠 없이 네 얼굴을 들리라. 참으로 네가 굳건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네 고통을 잊고 그것을 흘려가는 물로 기억할 것이기 때문이라. 또 네 일생이 대낮보다 더 밝으리니 네가 빛을 발하여 아침 같이 되고 또 소망이 있으므로 네가 안전하며 참으로 네 주위를 파고 안전히 안식하리로다. 또한 네가 누워도 아무도 너를 두렵게 하지 못하겠고 참으로 많은 사람이 네게 간청하리라.”(욥 11:13-19)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그 누구도 전문가가 될 수 없습니다. 비록 전문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제대로 인식하지는 못합니다. 진정한 도덕은 그 도덕에 대해서 의식적으로 누군가에게 가르침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도덕은 우리 지성을 통해서 머리로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도덕적 문제에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머리로 의식을 한다고 해서 우월해질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행동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도덕적 문제, 영적 문제,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욥기서 마지막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우리는 소발이라는 사람이 주장하는 ‘새롭게 되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만약 욥이 하늘을 향해서 그의 손을 들고 그의 집에서 사악함을 모두 버리고 흠 없는 얼굴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확고부동한 확신을 얻게 될 것이라고 소발은 주장합니다. 그러니 어서 빨리 죄를 자백하라고 합니다. 바로 이것이 수백만의 그리스도인들이 매주 실행하고 있는 공식 아닙니까? 자백하고 용서받고 또 자백하고 용서받고 매주 되풀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목표는 경배하거나 찬양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와 같은 과정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것은 단순히 공식에 불과 하지 않습니까? 마음은 없지만 잔잔한 음악으로 그럴싸하게 회개의 분위기를 만들어 감정에 호소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강단으로 나와서 감정을 고조시키는 발언으로 분위기를 더욱 끌어올립니다. 손을 들고 얼굴을 들어 찬송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체험’ 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서 진정으로 주님께 경배 드렸다고 믿으며 각자 제 갈 길로 갑니다. (역주: 최근에 토저라는 사람이 출판한 “쇼인가, 예배인가”라는 책을 보면 현재 드러지고 있는 예배는 거의 쇼에 가깝고 공식적으로 움직이며 마음이 담겨있지 않다고 합니다.)

참된 경배는 공식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스럽고 자발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 바알의 대언자들은 자신들의 영을 분위기를 상기시키는 용도로 사용했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식의 함정을 피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경배해야 하는지는 가르칠 수 없습니다. 경배란 진실로 진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이 압도되어 하나님께 경배해야 합니다. 오직 성령께서만이 이것을 계시해주실 수 있습니다.

응보의 신학은 심고 거두는 것을 분명하게 확실히 하라고 가르칩니다. 지금 현재 욕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거두고 있으니 그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번영의 축복을 다시 거두게 되지 않을까하는 논리가 바로 응보의 신학입니다. 욕 11:16-19까지의 약속들을 보십시오. 욕은 자백하고 회개하면 모든 비참함이 다리 아래 흘러가는 물처럼 다 잊혀질 것이라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혼돈도 제거될 것이며 하나님께로부터 밝은 깨달음이 올 것이라고, 자신의 땅에서 안전하게 거하게 될 것’ 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니 회개하라. 달콤한 잠도 자게 될 것이고, 모든 원수들과 평안한 관계가

될 것이다.’

그런데 이 약속들은 사실 환난 때에 유대 땅에 있게 될 유대인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게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천년왕국 때 다 이루어질 일들입니다. 그러나 지금 욥에게 이것을 적용하는 것은 미친 짓입니다. 이미 백 번 이상 말했지만 욥은 회개해야 할, 자백해야 할 죄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소발이 죄를 자백해야 할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죄인이며 욥은 하나님께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소발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면, 당신은 그저 어떤 개인의 절대적 교리를 듣고 있는 셈입니다. 만사가 형통하면 그 사람의 주장이 합리적으로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발생하면 그의 주장은 적절치 못한 것이 됩니다. 소발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떳떳하게 설 수 있는 순전함이 무엇인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소위 ‘번영 교리’, 즉 하나님께 순종만 하면, 믿기만 하면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진다는 스타일의 신앙에 대해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번영 신학이 오늘날 너무나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응보의 신학의 또 다른 측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전의 앞, 뒷면처럼 말이죠. 이런 신학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정하신 목적이 바로 자녀의 건강과 부, 그리고 번영이라고 가르칩니다. 아주 교활한 속임수로 성경에서, 그것도 하나님의 경륜이 서로 다른 부분에서 이런 저런 구절을 뽑아서 적용합니다. 아전인수 격이지요. 그리고서 자신들이 만사형통하고 건강하니 교리가 옳다는 증거다 이렇게 둘러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불행을 겪고 있거나 질병 가운데 있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다는 말이 되지요. 요즘의 이런 신학이 옴의 세 친구의 그것과 다른지요. 그러니 이런 교리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실제 자신의 삶에서 그 번영신학과 모순되는 사건이 발생하면 얼마나 낙심하고 신앙이 무너져버리겠습니까?

제가 시애틀 남부지방의 작은 도시에서 이와 똑같은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지역의 소방서는 한 궁핍한 가정에 음식 바구니를 배달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크리스천 소방관이 물었습니다. “이 음식 말고도 다른 것들이 필요할 텐데, 혹시 근처에 도와줄 수 있는 교회는 없나요?” 그러자 그 가정의 여주인이 답했습니다. “오, 안돼요. 우리는 교회에 그런 요청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 사람들은 우리가 아프고 경제적으로 궁핍한 이유가 믿음이 부족해서라고 생각하니까요..”

소발이 옴에게 그의 충고를 거부하면 안 된다고 경고하다

옴기 11:20 “그러나 사악한 자들의 눈은 쇠하여 그들이 도망하지 못하리니 그들의 소망은 숨을 거두는 것과 같으리라, 하니라.”

소발은 옴이 죄를 자백만 하면 많은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언급하며 쪽 나열합니다. 그리고서 자신의 충고를 거부하면 안 된다고 경고를 덧붙이죠. 만약 옴이 소발의 충고를 거절한다면 사악한 자의 운명에 처하게 될 것이며 그 운명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는 경고를 합니다. 소발은 하나님은 분명히 자신이 주장하고 있는 옴의 신학을 지지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그 신학을 무시하는 자들은 다 하나님께 심판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여러분께 각자 자기 자신의 교리를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를 요청합니다. 혹시 이런 잘못된 번영 신학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도 가끔씩은 이런 신학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우를 범하지는 않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제11장

욥기12~14장

“너희만 사람으로구나, 지혜가 너희와 함께 죽으리라”

이제 이어질 세 장, 욥 12~14장에서 우리는 욥의 제1라운드 마지막 답변을 듣게 됩니다. 욥과 세 친구와의 논쟁은 총 3라운드로 진행이 됩니다. 3라운드 중에서 첫 번째 라운드의 마지막 답변입니다. 이 내용은 욥이 소발의 아주 교만한 연설에 대해서 답변한 것뿐만 아니라 나머지 세 친구 모두를 한꺼번에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그는 친구들과 대화하면서 답변을 하지만 마지막 부분에 가면 하나님을 향해, 자신을 향해 불평을 늘어놓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욥은 친구들에 비해 부족한 사람도 아니고 열등한 사람도 아닙니다.

욥 12:1-5 “이에 욥이 응답하여 이르되, 틀림없이 너희만 사람으로구나.

지혜가 너희와 함께 죽으리로다. 그러나 나도 너희만큼이나 명철하며 너희보다 못하지 아니하니 참으로 이와 같은 일들을 누가 알지 못하느냐? 내가 하나님을 부르면 그분께서 내게 대답하시는데 이런 내가 자기 이웃에게 조롱을 당하는 자처럼 되었고다. 곧바른 의인이 비웃음을 받아 조롱을 당하는도다. 자기 발로 인해 미끄러질 자가 편안히 거하는 자의 생각 속에서 멸시받는 등 불같이 되었도다.”

옴은 이기적이고 거만한 친구들에 대해서 진절머리가 났습니다. 이 자들은 자기들의 신학이 너무나 옳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심지어는 하나님과 인간도 자신의 신학에 일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최악의 교조주의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만이 옳고 자기들의 말에 동의하지 않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니 몇 년 전에 젊은 목사 한 사람이 질문한 것이 생각납니다. 그가 물었습니다. “블루 형제님, 어떤 사람이 마귀에 사로잡혔다, 그걸 어떻게 분별하시나요?” 저는 그 사람에게 농담조로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누구든지 나와 견해가 다르면 다 마귀 들렸습니다!”

또 한번은 시애틀 주를 지나서 목사들의 친목모임에 가던 중이었습니다. 내 친구牧사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이며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서로 대화를 나누던 중에 그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형제님, 요즘에는 도대체 하나님을 위해 살고 있는 크리스천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당신이나 나나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살죠.” 제가 이렇게 답변한 이유는 그가 저를 떠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두 예화의 경우 모두 우스갯소리로 답변을 했습니다.

욥 12:2 “틀림없이 너희만 사람이로구나. 지혜가 너희와 함께 죽으리로다.” 욥은 친구들을 비꼬고 있습니다. “너희만 사람이로구나. 너희만 인간이고, 나머진 다 짐승이구나. 너희만 똑똑하구나.” 그래서 지혜가 너희와 함께 죽는다는 말을 한 겁니다. 이 친구들이 모든 지혜를 다 가지고 있으니 그들이 죽으면 이 세상에는 지혜가 없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욥은 이와는 정반대의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음과 같은 구절에서 이 사실을 분명하게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표현에서 상당한 풍자와 해학을 보게 됩니다. 욥은 친구들이 자기 스스로에 대해 상당히 교만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몹시 거슬렸던 것 같습니다. 이 친구들은 자기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창조물을 다루시는 것에 대해서 모든 해답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현재의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스스로를 높이는 것은 물론 향후 미래 세대를 포함한 인간을 통틀어서 자신들 만큼의 지혜를 가지고 있을 사람은 없다는 인상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이들의 무지를 공격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지혜가 너희와 함께 죽을 것”이란 말이군. 오 세상에! 만약 너희가 죽으면 이 세상은 어찌 되는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인가?!”

욥은 이와 같은 방식의 답변을 이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이 말하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며 더 이상의 이야기는 시간낭비에 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욥은 명철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해력이 충분했고 친구들보다 결코 못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얘기한 모든 것을 다 살펴봐도 욥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의 핵심을 찌르기는커녕 답변의 원인 근처에도 가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들의 그런 태도로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겠습니까? 전혀 단서를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욥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전혀 감을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욥은 자기 이웃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고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비유했습니다. 난 지금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인데 너희가 나를 이렇게 대하면 되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욥은 절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웃이라는 사람들이 호응을 안 해줍니다. 이웃이라는 사람이 친구의 말을 듣고 멀거니 서서 지켜봅니다. 위로하기는커녕 숨어버립니다. 불행이 닥쳤는데 그것을 보고 조롱을 했습니다. 욥이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데도 말이죠.

하나님의 손이 욥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친구들이 욥을 구출했습니까? 아니면 그의 고통을 덜어주었나요? 아니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나서서 욥을 꾸짖고 조롱했으며 심지어는 정죄했습니다. 친구들은 욥이 마땅히 자기 가족과 건강을 잃을 만한 큰 죄를 지었다고 주장하면서 그의 울부짖음을 조롱했고, 신실하지 못하다 평했습니다.

롯은 사위에 의해 조롱을 받았었는데요. 물론 이 조롱은 사위들의 마음 속에 있는 사악함으로 인한 것일 수 있고, 롯이 행했던 이전의 행실이 합당치 못하여 비웃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둘 다일 겁니다. 그러나 욥의 경우는 이와 다릅니다. 욥은 흠잡을 데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만큼 그의 성품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차이는 그들의 신앙체계가 다른 데에 있었습니다. 롯은 자기 사위의 그 부도덕한 삶의 태도 때문이든지, 혹은 롯 자신이 타락했기 때문에 조롱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소위 친구라고 하는 이들의 거짓 신학 때문에, 거짓 믿을 때문에 조롱을 당한 겁니다. 신학은 때로는 사람을 차갑고 사악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욥은 과거에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제공했던 사람입니다. 과부들과 고

아들을 먹이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충고와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욥의 지혜를 구하러 왔고 욥이 믿는 하나님을 믿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 내용은 욥기 2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고통을 당하고 있는 순간, 존경은커녕 무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비슷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마 27:42에서와 같이 말했습니다. “그가 남들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 것이라. 그러면 우리가 그를 믿겠노라.”(마 27:42) 마귀는 우리의 불행을 이용해서 우리를 대적하는 데 사용합니다. 많은 위대한 사람들이 열매 맺는 삶과 사역을 하다가 마지막 인생의 끝부분에 와서 사람들이 자신을 존경하지도 않고 무시하는 것을 봅니다. 그들은 나이듦과 질병이 ‘약해짐’이라고 믿고 있죠.

응보의 교리

욥 12:6-11. “강도들의 장막들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격노하게 하는 자들은 안전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 풍성히 가져다주시는도다. 그러나 이제 짐승들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너를 가르치리라. 공중의 날짐승들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네게 일러 주리라. 혹은 땅에게 말하라. 땅이 너를 가르치리라. 바다의 물고기들이 네게 밝히 알려 주리라. 이 모든 것들을 통해 주의 손이 이 일을 이루신 줄을 누가 알지 못하느냐? 모든 생물의 혼과 모든 인간의 숨이 그분의 손에 있느니라. 귀가 말들을 시험하지 아니하느냐? 입이 음식을 맛보지 아니하느냐?”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께서는 항상 사악한 자들을 벌하시고 의인들은 복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가장 기초적인 논쟁이었습니다. 물론 하나

님께서 악한 자에게 벌을 주시는 것은 맞습니다. 문제는 그 심판이 때로는
헌왕좌심판 때까지 연기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제 20:11).

지금 욥이 우리에게 밝히려는 내용은 아마 욥의 세 친구는 물론이고 모
든 이들에게 너무나 명백한 사실입니다. 많은 사악한 자들이 아주 잘 먹고
잘 삽니다. 어떤 사람은 무력으로 부자가 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학식으
로 부자가 되기도 합니다. 모든 미국사람들은 4월이 되면 다 탈취당합니다.
실제적으로 그들의 소득의 50%정도가 미국의 주나 연방정부가 다 세금으
로 거둬가서 자신의 친구나 가족들을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데 다 써 버립
니다.

강도들은 번영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했지만 계속해서 그
들의 손에는 부가 있습니다. 시편 기자도 한때는 그러한 현상을 보고 분노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왜 그리 하셨는지 진리를 알려주셨습니다
(시 73편).

그리스도인들은 잘되는 사람을 시기해서는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자
기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을, 즉 인생의 몫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께 왜 나는 이 정도밖에 못살게 하느냐고 하면 안 됩니다. 야게의 아들인
아굴의 자세가 올바른 자세입니다(잠 30:7-9).

욥이 하나님께는 채찍질을 당한 적이 없는 사악한 자들의 예를 들고 나
서 이번에는 들의 짐승에게로 논점을 옮깁니다. 욥이 이 예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삶의 불공평함입니다. 인간은 의롭다고 하여 강도와 재난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악하다고 해서 항상 고난을 당하고 심판을
당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고 살고 있는 창조 세계는 우리 인간에게 그 어떤
것도 ‘신성’ 하거나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언제든지 불행을 당
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욥은 친구들에게 숲으로 가서 짐승들에게 물어보라고 권합니다. 인생의 참된 특징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도 범하지 않은 토끼나 쥐에게 물어보자는 것입니다. 왜 너희는 그렇게 불안해하는가. 이 들은 어제 잡아 먹힐지 모르는 운명이니 밤낮 불안하겠죠. 무기력한 이 생명들은 왜 잡아먹혀야만 할까요? 이 세상에 태어났으니 강한 짐승에게 잡아먹히는 겁니다. 이유는 그것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저주받고 사탄의 통치하에 놓여 있는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어려움이 닥치는 겁니다. 이 저주가 완전히 제거될 때까지는 그 어떤 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역주: 예수님이 오셔서 저주가 제거되어야만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갑니다. 프란시스 웨퍼는 “우리는 비정상적인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라는 내용의 설교를 많이 합니다.) 그때까지는 누군가가 누군가를 잡아먹습니다. 약육강식, 정글의 법칙이 적용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인간 사회나 동물의 세계나 이 지구 상에서 그 누구도 이 법칙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욥은 친구들에게 이번에는 공중의 새들을 잘 관찰해 보라고 합니다. 그 예는 똑같습니다. 이 날개 달린 짐승들은 매나 독수리로부터 안전하지 않습니다. 바다의 물고기들도 운명이 같죠. 다음 예화가 지금 말씀드리는 상황을 분명하게 보여줄 것 같습니다.

어느 날 농부 한 사람이 집 발코니에 서 있었는데 개똥지빠귀라는 새 한 마리가 벌레를 잡아먹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새가 큰 지렁이 한 마리를 낚아채어 삼켜버렸습니다. 지렁이는 그렇게 먹잇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양이 한 마리가 잡아먹기 위해 계속해서 새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새는 전혀 눈치 채지 못했지만 그 역시 고양이의 먹잇감이 되었습니다. 고양이는 배부르게 먹고 만족스럽게 그늘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늘 그렇듯

배가 부르면 주위 경계에 소홀해집니다.

농부가 사는 집 옆에는 큰 개 한 마리를 키우고 있었는데 이 개는 가끔씩 이 농부의 마당으로 와서 고양이를 추격했습니다. 고양이는 느긋하게 쉬고 있다가 갑작스런 개의 추격에 물려 죽고 말았습니다. 고양이의 죽음에 화가 난 농부가 소총으로 개를 쏘아 개 역시 농부의 희생물로 죽었습니다. 하지만 이웃집의 소유물인 동물을 죽이는 것은 불법이죠. 농부는 경찰에 체포되었고, 벌금을 낸 후 이웃끼리 원수지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짧은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사람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것이 항상 어떤 잘못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비정상적인 사탄의 통치 하에 있는 세상에 살면서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놀라지 마십시오. 태어나면 자동적으로 불시에 희생당할 수 있는 가능성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이것이 강도의 장막에서 사실인가 아닌가? 사실입니다. 혹은 창조세계에서도 그러한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욥의 경우에는 왜 사실이 될 수 없을까요? 욥은 아무런 이유 없이 고난을 당했다고는 볼 수 없습니까? 이것이 욥이 도달한 결론입니다. 그는 그가 고통당하는 이유를 아직 발견하지 못했습니다만 욥은 이 재난이 그의 개인적인 죄로 인한 것임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귀가 소리를 시험하고 우리의 입천장이 음식의 맛을 시험하듯 이 상식은 이와 같은 일들을 충분히 시험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을 잘 읽어보면 욥기를 공부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욥은 이 친구들이 알고 있는 것만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잘 알고 있다

욥 12:12.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많은 날을 산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

니라.” 욥 13:1-5. “보라, 내 눈이 이 모든 것을 보았고 내 귀가 그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가 아는 것, 바로 그것을 나도 아노니 내가 너희보다 못하지 아니하니라.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아뢰고자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사들이니라. 오 참으로 너희가 모두 잠잠하면 얼마나 좋으리요!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하나님은 옛적부터 계신 분입니다(단 7:9,13,22). 확실히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지혜를 가지고 계십니다. 욥은 그의 세 친구들이 알고 있는 것만큼 하나님에 대해 많이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다고 믿는 것을 열거합니다. 후에 욥은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분을 모르고 있음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혜와 힘, 그리고 명철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은 너무도 큰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무너뜨리시면 다시 세울 수가 없고, 그분이 사람이나 나라를 단으시면 다시 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근을 부르시면 비는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엘리야의 시대를 보면 이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문들을 여셨을 때 노아의 시절에 홍수가 온 땅을 뒤덮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밝히시면 속일 수 없습니다(왕하 6:12).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자도 얼마든지 속일 수 있습니다(살후 2:11).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하도벨의 전략을 어리석게 만들어 압살롬이 이를 거부하여 패배하게 하셨습니다(삼하 17:23). 계 19:16에 나와있는 것처럼 주님은 모든 왕들을 다스리는 주권자이십니다. “그분께는 그분의 옷과 넓적다리에 왕들의 왕, 주들의 주라고 기록된 한 이름이 있느니라.”

이스라엘은 죄 때문에 지도자들이 다 포로로 잡혀 간 적이 있었습니다.

“보라, 주 곧 만군의 주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로부터 의지하는 것과 의뢰하는 것 즉 모든 의지하는 빵과 모든 의지하는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대언자와 분별 있는 자와 원로와 오십인 대장과 존귀한 자와 조연자와 솜씨 좋은 장인과 달변의 연설가를 제거하시느니라. 내가 아이들을 주어 그들의 통치자가 되게 하며 아기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리니 백성이 학대를 받되 각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각 사람이 자기 이웃에게 학대를 받으며 아이가 원로에게 교만히 행하고 천한 자도 존귀한 자에게 그리하리라. 어떤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 형제를 붙들고 이르기를, 네게는 옷이 있으니 너는 우리의 치리자가 되어 이 파멸을 네 손으로 주관하라, 할 것이요, 그러면 그 날에 그가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치유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리라. 내 집에는 빵도 없고 옷도 없나니 나를 백성의 치리자로 삼지 말라, 하리라. 예루살렘이 파멸당하고 유다가 몰락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허와 그들의 행위들이 주를 대적하며 그분의 영광의 눈을 자극하기 때문이니라.”(사 3:1-8)

하나님은 빛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명철의 원천이 되십니다. 그림자는 히브리서에서 말한 것처럼 모형이나 예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자라고 하는 것은 낮의 열기로부터 안식처가 될 수 있고, 본문에서의 내용처럼 어둠의 장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둠의 그림자로부터 무지의 그림자로부터 자신의 빛나는 광채가 있는 곳으로 이끄시는 분입니다.

모든 민족들이 다 그분의 명령 하에 놓여 있습니다. 사 40:15 “보라, 민족들은 물통의 한 방울 물 같고 저울의 작은 먼지같이 여겨지느니라. 보라, 그분께서는 매우 작은 것을 드시듯 섬들을 드시나니” 하나님께서는 민족들을 자기가 기뻐하시는 대로 쓰십니다. 민족들이 의로우면 높임을 받습니다. 그들의 목적을 다하면 파괴될 수도 있습니다. 왕국에 있어서도 하나

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다시 민족들의 머리로 세우실 겁니다. 모든 구원받은 민족들이 다 이스라엘에게로 모여들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날들에 주의 집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세워지며 작은 산들 위로 높여지리니 모든 민족들이 그곳으로 흘러들리라.”(사 2:2)

“땅에 있는 백성들의 우두머리들의 마음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 없는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시며”(욥 12:24) “그 즉시로 그 일이 느부갓네살에게 이루어지니라. 그가 사람들에게서 쫓겨나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의 이슬에 젖고 마침내 그의 머리털이 독수리의 깃털같이 자랐으며 그의 손톱이 새들의 발톱같이 되었더라.”(단 4:33)

욥 12:25. “빛이 없는 어둠 속에서 더듬게 하시고 술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롯의 집에 침입했던 침입자들의 시도로 욥 12:24, 단 4:33이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입증이 됩니다. 예를 들면 욥 12:25에는 창 19:11에서와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작은 자든 큰 자든 그 집 문에 있던 남자들을 다 쳐서 눈을 멀게 하니 이에 그들이 문을 찾느라 힘들어하더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원수를 낮추시는 그 능력은 잘 아시는 것처럼 다소의 사울이 장님이 된 예에서도 잘 살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엘루마리는 점쟁이가 성령을 돈 주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해 돈으로 사려고 하다가 맹인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욥 12:13-25에서 욥이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한 말은 다 맞는 말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많이 알지만 자신의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과 방법으로 다루시는지 무지하다는 것에 있습니다. 욥은 지금 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는지 여전히 모르고 있습니다. 성경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욥에게는 지식이 있었지만 그

것이 그의 고통을 완화해주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지식은 오히려 그의 고통을 가중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지식은 오히려 그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음에도 욥의 고통을 제거해주시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담에도 ‘모르는 게 약이다.’ 라는 말이 있죠. 욥은 하나님에 대해 많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식이 현재 벌어지는 상황과 맞지 않으니 답답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 대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견해를 버릴 때에 만 올바른 인간이 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거짓말을 하다.

욥기 13:13-28에서 욥은 자신이 친구들보다 열등하지 않음을 보여준 후에, 그들이 하나님을 좋게 보이게 만들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꾸짖습니다. 그들은 욥의 주장과 그의 슬픔을 이해하는 것에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응보의 신학은 그들의 영적인 눈을 완전히 감게 만들어서 욥이 고난당하는 이유가 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단 하나만 남겨두고 모두 제외시켜 버렸습니다. 그 친구들에게 욥은 죄를 짓고 있는 위선자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욥의 항변에는 귀를 닫고 오로지 꾸짖기만 했는데 이는 하나님을 위해서였습니다. 네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의롭게 심판하신 것이며 그래서 네가 벌을 받는 것이다, 이것을 입증하려고 욥을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욥은 무죄이고, 죄가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죄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괴롭히는 상황이 되어 버리니까요. 그래서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을 옹호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욥을 비난해야만 합니다.

욥은 자신이 죄가 없음을 알았고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비극을 체험하도록 허락하셨을 때에는 자신이 모르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욥의 친구들은 욥이 어리석고 죄인이며 거짓말쟁이 위선자라고 계속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바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욥을 ‘완전하고 순전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에서 멀리 떠난 자’라고 평가하셨기 때문에 친구들의 생각이 잘못된 것입니다. 이 친구들은 욥이 죄인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루실 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결국 무지하여 하나님이 의롭지 못하다 고소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 친구들은 자신들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을 위한다고는 하지만 결국 사악하게 말하는 셈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시시기를 자기들이 알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주장에 끼워 맞추어 생각했습니다. 욥은 그들에게 그들이 믿고 있는 대로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라 기대하고 하나님 마음에 들려고 시도하는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아직 말씀하지도 않으셨는데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범복을 입고 마치 판사처럼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명의 친구들은 욥의 상태에 대해 스스로를 속이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을 속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들을 살펴보신다면, 그들의 마음도 살펴보실 것이고 결국 그들의 죄가 드러나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욥의 무모한 이야기

욥 13:6-28. “이제 내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항변을 들어 보라.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사악한 말을 하려느냐? 그분을 위하여 속임수로 말하려느냐? 너희가 그분의 외모를 용납하려 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논쟁하려 하느냐? 그분께서 너희를 조사하시면 좋겠느냐? 혹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조롱하듯 너희가 그분을 조롱하느냐? 만일 너희가 은밀히 사람들의 외모를 용납하려 할진대 그분께서 반드시 너희를 책망하시리니 그분의 뛰어난이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분의 두려움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아니하겠느냐? 너희의 기억들은 재와 같고 너희 몸은 진흙 몸과 같으니라. 잠잠하고 나를 내버려 두어 내가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어찌하여 내가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그분께서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분을 신뢰할 것이요, 오직 나는 그분 앞에서 내 자신의 길들을 유지하리라. 그분께서 또한 나의 구원이 되시리니 위선자는 그분 앞에 나오지 못하리라. 내 말을 부지런히 들으며 내가 선포하는 것을 너희 귀로 들으라. 이제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정리하여 제시하였은즉 내가 의롭게 될 줄 아노라.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냐? 이제 내가 잠잠하면 숨을 거두리라. 오직 내게 두 가지만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를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주의 손을 내게서 멀리 거두시옵소서. 또 주의 두려움으로 나를 무섭게 하지 마시옵소서. 그리하시고 주께서 부르소서. 내가 응답하리이다. 아니면 내가 말하게 하시고 주께서는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 불법과 죄가 얼마나 많으니이까? 나로 하여금 내 범법과 내 죄를 알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주께서 주의 얼굴을 숨기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이리저리 흠날리는 낙엽을 부수려 하시나이까? 마른 지푸라기를 뒤쫓으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고 또 나로

하여금 내 젊을 때의 불법들을 소유하게 하시나이다. 또한 주께서 내 발을 차
꼬에 채우시고 내 모든 행로를 면밀히 살피사 내 발뒤꿈치에 자국을 남기시
니 그런즉 그가 썩은 물건처럼 또 좀 먹은 옷처럼 소멸되나이다.”

우리는 이 구절들에서 욥의 절망스러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지금
무슨 결과가 나오든지 관계없이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쏟아 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욥이 이런 말들을 하는 당시의 그의 마음 상태가 어떠했
는지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지금 단 한 마디의 설명도 듣지 못한 채 10명의
자식이 한꺼번에 죽어버린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재산도 한
꺼번에 사라졌습니다. 그의 건강한 모습도 지금은 끔찍한 모습으로 변해버
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친구 세 사람이 찾아와 위선자라고 고소를 합니
다. 그리고 하나님께도 아무런 답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권능과 그분의 목적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가지고 있습니다. 다
만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속에서 목적하신 바가 무엇인지 말씀을 왜 계시
해 주시지 않는 것인지 의아해하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 욥은 지혜롭지 못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욥을 즉시 정죄
하려고 입을 열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고백하지만 우리는 그를 비난할 자
격이 없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욥처럼 이러한 고난 중에도 믿음과 성품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습니까?

욥이 말하기를 자신의 살을 자기가 입으로 문다고까지 말했습니다. 우
리나라 속담으로 치면, ‘이를 악문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목숨을 걸
고서라도 어떤 일을 해내고 말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이와 비슷한 표
현으로 ‘내가 내 코를 잘라 얼굴을 치겠노라’ 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내
얼굴을 내가 때릴 때 코가 잘릴지라도 하겠노라’는 뜻입니다. 욥 13:15 “그
분께서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분을 신뢰할 것이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욱의 위대한 신앙을 입증해줍니다. 하나님을 이해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능력을 믿고 그분께 순종하고자 했습니다.

15절은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구절 중의 하나입니다. 많은 순교자들이 이 구절을 읽고 얼마나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었는지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을 겁니다. 이 구절에 표현된 믿음이야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자세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우리는 이와 같은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즉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시기에 신뢰해야 합니다.

만약 욱이 여기서 멈추었다라면, 모든 일이 잘 되었을 텐데, 아쉽게도 여기서 멈추지 않고 지나칩니다. 욱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가야 할 길을 가려고 계속 시도하며 자기 주장을 내세웁니다. 이것이 욱의 실수 중 하나였습니다. 욱기에는 여러 주제가 들어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욱의 실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고집대로 계속 밀고나가려는 태도로부터 욱을 분리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결국은 자기 의 때문입니다. 나중에는 다 치유가 됩니다. 하나님의 사역이 잘 완성되면 욱은 자기 자신의 길에 대해 더 이상 관심을 가지지 않을 겁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길입니다.

욕은 자신이 위선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장을 의롭다 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겪고 있는 이 비참한 모습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욱은 자신이 죽은 후에 그 분이 오게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부활 때에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의롭다함을 받을 것이라 자신했습니다 (욱 13:18).

그런데 중간에서 욱을 위해 하나님께 변호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필요했는데 그 분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침묵하고 계시고, 그의 친구들은 그를 비난합니다. 그의 아내는 그의 결심

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결국 그는 그 자신을 스스로 옹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해야만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가 곧 죽을 것 같았고, 그의 마지막 숨을 쉬게 될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욥이 스스로를 옹호하는 말을 하기 전에, 욥은 하나님께 두 가지를 요청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그 손을 자신에게서 거두어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도 못할 정도로 고통스러우니 고통을 조금만 완화시켜 주십사 하는 것이죠. 둘째, 하나님께서 그에게 조금만 친절히 대해주시고 그에게 확신을 주셔서 그의 두려움이 떠나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된다면, 그는 하나님과 만날 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욥은 그의 기도에 대한 답변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엄청난 고통은 그에게 혼란만 더해주었습니다(욥 10:15). 욥은 하나님께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보여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면 그가 그의 고통에 대한 답을 얻을 것이라고요. 욥은 자신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제발 내게 알려주십시오.” 이것이 그의 요청입니다.

그런데 욥은 개인적인 죄들에 대해서는 의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친구들과의 논쟁에서 그가 계속해서 자신은 무죄하다고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욥이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지적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욥 13:26은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 앞에 이 정도의 진노를 살 죄는 젊은 시절에 지은 죄밖에 없고 지금은 지은 죄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이 과거에 지은 죄들을 기록해 놓으셨다가 지금 그 죄값을 받으시는 것인가요?”

시련과 고난을 체험하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련 속에 내버려두셨다고 생각할 때 그것이 가장 견디기 어려운 고통입니다. 욥은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발견할 수 없는 곳에 자신을 숨기시

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욥 23:3). 이렇게 궁핍한 상황에 처하면 원수가 아니고서는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나?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속 시원히 말씀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크겠지요.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의 울부짖음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분을 버리셨는지 모든 성도가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왜 그 진노의 잔이 옮겨지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옮기실 수 있음에도 그리 하지 않으셨습니까. 왜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아들을 구하지 않으셨을까요? 그것이 질문입니다. 그리고 베다니의 나사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시기를 죽음에 이르는 병은 아니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라고 하는 나사로의 누이는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시기만 했더라면 나의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거기에 계시지 않았을까요? 주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아서 기쁘다고 하셨습니다. 이상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게다가 죽게 될 이가 우리 형제라면 더 이상해집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힐 지경인데 왜 그분은 오시지 않을까요? 왜 우리는 그분을 찾을 수 없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가 되신 것일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아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잘 처리해 놓으신 빛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 판단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원수가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이 이제껏 가져본 친구 중 가장 좋은 친구이고, 하나님이십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시간 동안 왜 자신과 씨름을 하고 계신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통치하는 더 중요한 일들이 있으실 텐데, 왜 자신과 같은 미물과 씨름을 하시는지 말입니다. 너무나 신기

해서 시편 기자는 시 8:4에 “사람이 무엇이관대 주께서 그를 생각 속에 깊이 두시나이까.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찾아오시나이까.” 라고 기록했습니다. 욥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해는 되지 않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밀려옵니다. 길에 떨어져 굴러다니는 낙엽 같은 인간인데 왜 하나님은 나와 다투시며 씨름하시는 걸까, 낙엽 같은 자에게 하나님은 왜 관심을 가지시는 걸까. 욥은 정말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사울은 벼룩을 추적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모기에 긴장했습니다. 중요한 일은 놓아두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긴장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에 아주 중요한 일들을 다 제쳐두고 왜 자기 같은 미물에게 시간을 들여 작품을 만드시려고 하는지요. 마른 지푸라기 같은 자신을 계속 추적하시는 것이 무엇 때문인지 욥은 아직도 그 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욥은 하나님께 왜 온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과 고문을 당하도록 감옥에 집어넣으셨냐고 고소합니다. 욥의 말은 비유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최고의 종들이 갇히고 묶여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찬송을 불렀습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 있는 베냐민 감옥에 갇혀있었습니다(렘 20:2). 그래서 자신의 고통을 욥의 그것과 비교했습니다. 쯔미 먹은 옷처럼 욥은 점점 지쳐가고 있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그의 삶은 먹혀들어가고 벌레들이 그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의 외모의 비참함을 무슨 말로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예루살렘의 멸망과 비참함은 예레미야가 탄식하며 묘사했던 것처럼 욥의 고통과 가장 닮아 있습니다. 한때 잘나가던 예루살렘이 비참해진 것과 한 때 동방의 최고의 부자였던 욥이 이렇게 비참하게 된 모습이 너무나 닮아있다는 것입니다. 애 4:1-12 “어찌 금이 어둡게 되었는가! 어찌 가장 좋은 정금이 변질되었는가! 성소의 돌들이 모든 거리의 위 부분에 쏟아졌

도다. 정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이 어찌 토기장이의 손으로 만든 질항아리같이 여겨지게 되었는가! 바다의 괴물들도 젖을 꺼내어 자기 새끼들이 빨게 하거늘 내 백성의 딸은 광야의 타조들같이 잔인한 자가 되었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그의 혀가 입천장에 붙고 어린아이들이 빵을 구하나 그들에게 그것을 떼어 주는 자가 없도다. 맛을 즐기며 먹던 자들이 거리들에서 황폐하게 되고 주홍색 옷을 입고 자란 자들이 거름더미를 꺼안으니 내 백성의 딸의 불법으로 말미암은 형벌은 소돔의 죄로 말미암은 형벌보다 크도다. 소돔은 순식간에 멸망을 당하였고 어떤 손도 소돔 위에 머물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녀의 나사르 사람들이 눈보다 순결하고 젖보다 희며 그들의 몸이 루비보다 더 붉고 그들의 윤택함이 사파이어 같더니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으므로 거리에서 그들을 알아볼 수 없으며 그들의 살갗이 뼈에 붙고 말라서 나무토막같이 되었다. 칼에 죽은 자들이 주려 죽은 자들보다 낫도다. 밭의 열매가 부족하므로 이들이 타격을 받아 쇠약해지느도다. 내 백성의 딸이 멸망할 때에 인정 많은 여인들의 손이 자기 자식들을 삼으니 그들이 저들의 음식이 되었다. 주께서 자신의 격노를 이루시며 자신의 맹렬한 분노를 부으사 시온에 불을 지르시니 그 불이 그것의 기초들을 삼켰도다.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의 성문들로 들어갈 줄은 땅의 왕들과 세상의 모든 거주민들이 믿지 못하였으리도다.”

나무의 장점

고통은 너무나 분명하고 빠르게 옵니다. 누구도 고통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이는 이렇게 물어볼 지도 모릅니다. “왜 우리에게 고통이 있습니까?” 답변은 “당신이 이 지구에 태어났기 때문”입니다(욥 5:7). 인간이 태어나보니 온통 문제투성이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사탄이 통치하는

저주받은 땅이기 때문입니다. 남자들은 화성에서 온 것이 아니며, 여자들도 금성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지구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담 안에서 말이죠. 인생을 사는 동안 고통을 당할 뿐만이 아니라 그 인생이 순식간에 지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말라 시들어 버리는 꽃에 인생을 비유합니다.

욥은 앞서서 하나님께 질문했었습니다. 왜 낙엽과 지푸라기 같은 자에게 관심을 가지고 찾아오시는지요. 그는 왜 하나님께서 자신의 눈을 열어 너무나 하찮은 인간을 보게 하시는지 묻습니다(욥 14:3). 그 답은 4절에 나와 있습니다.

나무에게는 죽었을 때에도 소망이 있다

나무는 인간보다 더 나은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욥이 해 아래서의 삶들에 대해 가지고 있는 관점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나무는 베일 수 있고 목재소로 가서 목재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의 경우에 죽은 것처럼 보이는 그루터기나 뿌리로부터 다시 새롭게 자라나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한번 잘리면, 하나님께서 그를 무덤으로부터 불러내기 전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저 흙으로 돌아갈 뿐입니다. 그가 베어지면, 그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것이 인류 역사가 질문해온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가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물어볼 겁니다. 인간이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오늘날에도 세상 사람들은 묻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인간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육체로부터 떠나면 주님과 함께 있게 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지옥에 있게 되죠. 성경을 떠나서는 욥의 질문에 대한 답이 없습니다.

욥은 지금 무덤 속에 숨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보이는 진노로부터 피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진노가 지나가고 난 뒤에는 자신이 부활할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여러 종류의 부활과 그 정해진 때에 대해 공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죽은 자들의 부활,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 환난 성도의 부활 등 여러 종류의 부활이 있고, 이 부활들은 정해진 때에 이루어질 것이므로 세대적 진리에 입각하여 잘 구분해서 공부해야 합니다.

“나는 주께 응답하리니”는 욥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부르실 것이고 그러면 욥은 답변하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나사로가 죽음에서 걸어 나왔듯이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욥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의 믿는 자들 모두가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욥은 죽을 준비가 되었고 그 부르심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산들이 요동하고 바위들이 닳아 제거되는 것처럼, 노아의 홍수 때처럼 이 지상의 모든 것들이 씻겨나가는 그 때, 인간 역시 그림자처럼 사라져버리고 더 이상 기억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욥의 육체가 계속해서 고통 중에 있을 것이며 그의 혼은 여전히 그와 함께 신음할 것입니다.

제12장

욥기15, 18, 20장

욥과 그의 세 친구들 사이의 두 번째 논쟁

이번 두 번째 논쟁에서도 역시 똑같은 순서가 이어집니다. 이번에는 각자가 지난번 발언보다 조금 더 진전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이 분명히 엄청난 죄를 지었고, 그것이 그의 고통을 가져왔다, 그럼에도 욥이 무고하다 항변하는데 이것은 반역적인 도전이고 멸망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줄 뿐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친구들의 이전보다 진전된 입장이라는 것이 좋은 쪽이 아니라 더 안 좋은 방향으로 욥을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의 순전함을 주장했고, 자신의 고난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고난들이 죄 때문에 주신 심판은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욥은 마지막 날들에 이 땅에 서실 하나님을 구속주로 여기고 그분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욥은 지

금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자신의 혐의를 벗겨주시리라 믿고 있습니다(욥 19:25-27). (역주: 참고로 26절에 “내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보리라.”라고 되어 있는데 개역 성경에는 “내 육체 밖에서”라며 욥의 부활 신앙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육체를 입고 주님을 뵈게 됩니다.)

우리는 세 명의 친구들을 그룹으로 모아서 이들의 발언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독자들에게는 좀 더 편리하고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욥의 답변에 주목을 하려고 합니다. 욥에 대한 친구들의 공격은 처음에 15장에서 엘리바스가 선두로 나섰고, 18장에서 빌닷이 이를 약간 수정합니다. 그리고 20장에 가서 소발이 공격을 강화합니다.

욥기15장

욥 15:1-6 “그때에 데만 사람 엘리바스가 응답하여 이르되, 지혜로운 자가 헛된 지식을 말하며 동풍으로 자기 배를 채우겠느냐? 그가 무익한 이야기로 변론하겠느냐? 혹은 아무 효력 없는 말로 변론하겠느냐? 참으로 네가 두려워하는 것을 내버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그만두나니 네 입이 네 불법을 말하며 네가 간교한 자의 혀를 택하는도다. 너를 정죄하는 것은 내가 아니요, 네 입이라. 참으로 네 입술이 너를 대적하여 증언하느니라.”

엘리바스는 욥을 15가지 죄목으로 고소합니다.

1. 헛된 지식을 가지고 있다(15:2).
2. 허풍을 떨고 있다(15:3).
3. 무익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15:3)
4. 전혀 유익이 되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5.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15:4).
6. 기도를 중단했다.
7. 불법을 말하고 있다(15:5).
8. 거짓된 혀를 택했다.
9. 그가 말한 것들에 대해 분명히 유죄다(15:6).
10. 자기가 이 지상에서 아주 위대한 자인 것처럼 스스로를 자랑하고 있다(15:7).
11. 지혜를 제한하고 있다(15:8).
12. 자기가 우월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15:9).
13.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15:12).
14. 죄를 묵인하고 있다(15:12).
15. 하나님에게서 그의 영을 돌이켜 대적하고 있다(15:13).

엘리바스는 지금 욥의 불평과 비참함에 대해 들어주는 대신에 자신의 신조에도 어긋나는 이론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의 결론은, 욥이 죄를 지었으므로 심판을 받았고, 회개치 않으므로 멸망해도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신조를 우선시하기보다는 오히려 부차적인 신학을 우선시하는 이들에게서 나타나는 결론입니다. 자기 의와 주장대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신학은 인간의 노력과 연구의 결과일 뿐 얼마든지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학은 절대 하나님보다 우선시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지금 욥을 다루고 계시고, 욥 역시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비록 이러한 다루심들이 욥의 신조와 또 세 친구들의 신조와 반대되는 것이었지만 말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죄를 지으면 벌을 받고, 선한 일을 하면 복을 받는 것이 합당한데, 욥은 잘못된 것이 없음에도 이렇게

계속해서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것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조와 맞지 않았겠죠. 엘리바스는 결론을 내리기를 욥이 불평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라서 기도도 중단하고 허풍만 떨고 있다고 했습니다. 욥 15:1-17까지의 내용은 욥이 동방에서 아주 유명한 지혜자라고 알려져 있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고 믿게끔 만듭니다. 엘리바스는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의 나쁜 형편을 비난하며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입니다. **“내가 네게 보여 주리니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본 것을 밝히 보이리니”**(욥15:17)

엘리바스는 욥이 사악한 자라는 전제 하에 사악한 자가 당하는 불행한 일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마치 지푸라기로 사람의 형상을 하나 만들고 불태우고 발로 차는 잔인한 행위를 욥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는 욥의 인생에 있었던 사실들을 모아서 색칠을 하여 끔찍한 그림을 만들어 욥을 겁주고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악한 자가 받아야 할 몫’에 대한 그의 신조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몫이 지금 욥이 받고 있는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욥에게 그러한 몫이 임했으니 욥이 사악한 자라는 논리입니다.

엘리바스는 사악한 자에게 임하는 20가지의 심판을 열거합니다. 물론 이 심판들에도 일말의 진리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 오류들도 있습니다. 그 중 가장 크고 악한 오류는 욥에게 이것을 적용한 것입니다. **“사악한 자는 그의 평생 동안 아픔으로 고통을 당하고 그분께서 학대하는 자에게 그의 헛수를 숨기셨으므로”**(욥 15:20) 그 사악한 자에게 임하는 심판은 욥을 겨냥하고 있습니다(욥 15:29 참조).

하나님에 관한 진리는 엘리바스의 신조 속에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믿고 있는 것이나 우리가 그리 될 것이라고 믿고 있는 내용에는 하나님의 진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발견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는 것과 반대되는

그 어떤 계시나 추측이 있다면 그것은 무시하면 됩니다.

욥기 18장

“어찌하여 우리가 네 눈앞에서 미친한 것으로 평가되어야 하느냐?”(빌닷)

빌닷의 발언입니다. 이번 장은 설명이 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는 단순히 욥에 대한 사악한 공격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욥 18:2-4에 보면 욥이 한 발언에 대해서 냉소적으로 비꼬는 풍자가 들어 있습니다. 또한 5절은 욥을 고소하는 내용이 아주 길게 열거 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사악한 자의 거처들이 이러하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가 이러하니라, 하니라.”**(욥 18:21)

빌닷은 욥의 사악함으로 인해 그의 영향력이 사라질 것이며, 욥이 사람들에게 해 준 조연도 결국에는 자신에게 함정이 되고 말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16-21절은 욥의 경제적인 번영에 대한 공격입니다. 그의 뿌리와 가지들이 다 말라 버리고, 그의 이름도 소멸되며, 그의 자손들 역시 남아 있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마지막 그의 비참한 모습에 놀라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빌닷은 엘리바스와 같이 모든 면에서 잔인합니다. 빌닷 역시 엘리바스처럼 욥과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의 잔인함은 하나님의 길에 대한 그의 무지로 인한 결과입니다. 그의 신념은 전통과 교조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욥기 20장

“악한 자의 승리는 짧다”(소발)

이번 장의 첫 부분은 시편 1편에 나오는 ‘악한 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욥기서의 내용은 동쪽에 있었던 위대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나 이와 동시에 야곱이 고난 가운데 처하게 될 유대인들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20장 나머지 뒷부분 대부분의 내용은 적그리스도에 대한 예언과 유대인 중 남은 자들을 향해 이루어질 적그리스도의 사악한 행위에 대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물론 소발의 비평은 일차적으로 욥을 향한 것입니다.

소발이 생각하기에는 욥이 자신이 합리적으로 다가섰음에도 첫 번째 접근에서부터 차단하니 이제는 더 강하게 나가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는 거의 저주에 가까운 발언을 욥에게 간접적으로 합니다. 20장 역시 15장과 18장처럼 같은 방식으로 시작됩니다. 욥 20:5 “사악한 자의 승리는 잠시 뿐이요, 위선자의 기쁨은 잠깐뿐이니라.” 욥은 이 사악한 공격의 대상이 됩니다.

이 장은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읽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적그리스도에 대한 묘사이고, 두 번째는 욥을 향한 공격입니다.

처음 10절에서 소발은 사악한 자가 이제 제거될 것이고 잊혀질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꿈같이 날아가 버리니 찾을 수 없으며 참으로 그가 밤의 환상같이 쫓겨가리라. 그를 본 눈도 다시는 그를 보지 못할 것이요, 그의 처소도 다시는 그를 바라보지 못하리라.”(욥 20:8-9)

11-29절은 한 마디로 말하면 욥이 물질적으로 모든 소유를 다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신속한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

습니다. 그 이유가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으며 자기가 짓지 아니한 집을 폭력으로 빼앗았기 때문이니라.”

첫 번째 대화에서 각각의 화자는 욱의 고통에 대해 나름의 이유를 주장했고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과 어떻게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할 것인지 제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의 대화에서는 친구들이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짜증을 내고 화를 내며 욱에 대해 이제는 저주를 퍼붓고 있습니다. 이제 욱은 아주 극단적으로 사악한 위선자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이제 다음 장에서 각각에 대한 욱의 답변을 보고자 합니다.

제13장

욥기 16-17, 19, 21장

두 번째 대화에서의 욥의 답변

“너희들은 모두 쓸모없는 의사들이로구나”(욥)

욥이 친구들에게 답변한 두 번째 라운드는 16, 17, 19, 21장에 나와 있습니다.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은 드디어 욥에 대해서 두 번째 공격을 퍼붓습니다. 이제 욥 자신이 스스로를 방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동정심은 당연한 것입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자연스럽게 동정심을 배웁니다. 이러한 동정심은 심지어는 원수들에게까지 확장되어야 합니다. 원수가 길에 쓰러져 있으면 그를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욥을 위로하는 자는 찾아볼 수가 없네요. 욥은 그의 세 친구들을 비참한 위로자라고 불렀습니다.

욥은 그들에게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은 이미 자신도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논리는 허황됩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을 꾸짖습니다. 만약에 상황이 뒤바뀌어서 친구들이 지금 고통을 당하는 중에 욥이 그들을 찾아갔다면, 욥은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슬픔을 덜어주려고 노력했을 겁니다. 슬프게도 이 친구들은 자신들의 잘못된 신조를 고집하다가 욥의 문제를 동정심을 가지고서 다가설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욥이 어떤 비밀스러운 죄를 지었고, 하나님의 심판이 그에게 임했다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욥을 위로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 반대되는 행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지지하기 위해 욥을 공격해야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욥기 16장

욥 16:7-14 “그러나 이제 그분께서 나를 지치게 하셨으니 주께서 내 온 무리를 황폐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주름살로 나를 채우셨으니 그것은 곧 나를 대적하는 증거로소이다. 내 야윈 모습이 내 속에서 일어나 내 얼굴을 향해 증언하는도다. 그분께서 진노하사 나를 찢으시고 미워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가시니 내 원수가 눈을 날카롭게 하여 나를 쏘아보며 그들이 나를 향해 입을 크게 벌리고 모욕을 하며 내 뺨을 때리고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였도다. 하나님께서 나를 경건치 아니한 자에게 넘겨주시고 사악한 자의 손에 던지셨도다. 내가 평안하였으나 그분께서 나를 부서뜨려 쪼개시며 또 내 목을 붙잡고 나를 흔드사 산산조각 내시며 나를 세워 자신의 과녁으로 삼으셨도다. 그분의 활 쏘는 자들이 나를 에워싸거늘 그분께서 내 콩팥을 갈기갈기 쪼개사

아끼지 아니하시며 내 쓸개를 땅에 쏟으시고 또 그분께서 터지고 터지도록 나를 부수시며 거인같이 내게 달려드시는도다.”

욥은 이제 방향을 바꾸어서 친구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교대로 항변합니다. 그는 자신의 가족과 친구들이 자신을 버렸다고 한탄합니다. 고난 중에 있는 것도 괴로운데 계속 외롭게 홀로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역설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마귀야말로 욥을 비참하게 만드는 원인임을 알고 있습니다. 결국 가족과 친구들을 다 잃게 되었지요. 그런데 마귀의 사역이 끝나고 나면 그의 수하들은 기근에 허덕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방해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모세와 바울의 경우처럼, 우리도 우리가 버림을 당했을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가장 달콤한 교제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진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을 갖지 않는 자들을 위로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즉, 인간이 고난을 당할수록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진다고 해서 그 주변 사람들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위로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은 인간대로 위로를 해줘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반역을 저질러 매를 맞고 하나님께서 그들로부터 얼굴을 돌리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고 축복하며 도와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해야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인 예화는 우리의 책임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다음의 세 가지 진리를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첫째, 마귀는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마귀는 여러분의 원수입니다. 둘째, 주님도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려고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부가 아닌 진정한 부를 찾

게 하기 위해서 말이죠. 셋째, 우리 주변 사람들이 이처럼 고난을 당할 때는 우리는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욥은 사탄의 공격을 받기 전에는 잘 먹고 안락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의 피부가 태양에 그을리고 온갖 종기로 인해 살이 썩어 역겨운 모습이 되었습니다. 이에 비참함이 더해져 벌레와 파리들이 수없이 많은 마귀들처럼 밤낮으로 성가시게 찾아와 괴롭혔습니다. 욥은 그 자신의 피부로 덮여있는 뼈를 보면서 너무 비참하여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욥이 받은 심판이 얼마나 끔찍한지요.

욥의 처지는 잔인한 적군에 의해 포로로 사로잡힌 것과 비슷한 모습입니다. 그는 단지 포로로 붙잡힌 것이 아니라 원수가 그를 조롱하며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욥의 고난은 어쩌면 가시관일 수도 있고, 갈대일 수도 있으며 자주색 옷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괴롭히기 위해 로마 병사들이 사용했던 것입니다. 사악한 자는 점점 더 사악해지고 있습니다. 욥은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이 산채로 살가죽을 벗기는 것 같고 지나가다 갑자기 얼굴을 후려치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이 원수들은 마치 때로 몰려다니는 배고픈 사자나 굶주린 개처럼 달려듭니다. 그들은 으르렁대며 욥을 조롱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사악한 자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욥은 하나님과 마귀 사이에 오고 간 대화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시고 그분의 허락하신 뜻이 아니면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련의 일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사탄을 비난하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이 교훈을 배워야 합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

인들은 어떤 문제만 생기면 마귀를 비난하거나 사악한 자, 혹은 그들의 친구 때문이라고 책임을 전가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마치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영적인 인물이라서 사람들의 공격을 받을 만큼, 순교를 당할 만큼 영적이라고 스스로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목적과 반대되는 일입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그의 고통에 개입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경건치 아니한 자에게 넘겨주시고 사악한 자의 손에 던지셨도다. 내가 평안하였으나 그분께서 나를 부서뜨려 쪼개시며 또 내 목을 붙잡고 나를 흔드사 산산조각 내시며 나를 세워 자신의 과녁으로 삼으셨도다. 그분의 활 쏘는 자들이 나를 에워싸거늘 그분께서 내 콩팥을 갈기갈기 쪼개사 아끼지 아니하시며 내 쓸개를 땅에 쏟으시고 또 그분께서 터지고 터지도록 나를 부수시며 거인같이 내게 달려드시는도다.”(욥 16:11-14). 이 구절을 잘 읽으시면서 교훈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요나가 니느웨에서 설교했을 때 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실은 왕이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행동으로 입증됩니다. “사람과 짐승이 붉은 베옷을 입고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참으로 그들이 각각 자기의 악한 길과 자기 손의 폭력에서 떠날지니라.”(욥 3:8) 사악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행하고자 하신 재앙으로부터 돌이키셨습니다. 그런데 욥에게는 왜 전혀 안식을 주지 않으시는 걸까요. 욥은 우리가 본 것처럼 붉은 베옷을 자기 몸에 걸쳤습니다. 그리고 상처 입은 황소처럼 욥의 기력이 바닥에 뒹굴고 있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하나님을 향해 눈물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답변도, 안식도, 위안도 없습니다.

누가 그분의 길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신조를 만들어놓고 하나

님께서 이에 따라 행동하도록 기대하겠습니까? 오, 불쌍한 욥이여! 우리는 당신의 경우를 압니다. 우리는 당신의 고통 뒤에 무엇이 있는지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 아버지께서 당신의 성품을 순수한 금보다도 높게 평가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당신은 모르고 있군요. 그러나 죽기까지 신실하셔서 생명의 관을 받으십시오. 또 다른 한 분이 오고 계십니다. 당신은 그분의 예표입니다. 그분 역시 무죄함에도 고난을 받으실 겁니다. 그분께서 당신을 옹호해주시고, 당신의 변호자가 되어 주실 겁니다. 욥이여, 그 때까지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욥기 17장

욥 17:1-5에서 욥은 그의 종착점이 무덤인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죽게 하실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의 숨에는 이미 사망의 냄새가 풍겼습니다. 이제 그를 위해 무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들에는 욥이 하나님만이 자신을 이해하신다고 진술합니다. 이쯤 되면 이 지구 상에서 그 누구도 욥의 마음과 그의 고난의 이유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욥은 3절에서 묻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와 손을 마주칠 자가 있는가?” 즉 욥과 같은 운명의 삶을 같이 할 자가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누가 욥의 편에 서서 그와 뜻을 같이 해줄 사람이 있냐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한 발 앞으로 나아와 보증을 서주겠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욥은 세 명의 친구들로부터 이해를 구하는 것이 왜 불가능한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욥이 겪는 고통의 성격이 무엇인지도, 원인에 대해서도

눈 먼 자입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의 계시가 있어야만 그들의 눈을 뜨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책의 맨 끝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리는 그들에게 감추어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조명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욥은 이제 그의 친구들에게 아침하지 않고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를 감추고 계시며 그들을 높이실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이죠. 이후에 보니, 욥은 높여졌고, 그들은 낮아졌습니다.

6절에서 욥은 과거에 그의 존재로 인해 사람들이 즐겁게 춤을 추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한때 욥은 기쁨의 원천이었고 친구들에게도 기쁨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속담거리가 되었습니다.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되었느냐며 수군수군하는 대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저주하고 또 저주합니다.

고난은 양날 선 칼입니다. 그래서 고통당하는 사람의 인생에서 무엇인가를 성취시킬 뿐만 아니라 그를 지켜보는 이들의 삶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욥의 고난은 두려움과 격려의 메시지를 줍니다(욥 17:8-9). 사도 바울도 말했습니다. “주 안에 있는 형제들 중의 많은 이들이 내가 결박당한 일로 인해 확신을 갖게 되어 두려움 없이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빌 1:14)

사람들은 믿음의 동료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때로는 두려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용기를 얻기도 하며 감동을 받기도 합니다. 사악한 자들은 조롱을 하고 잔인한 짓을 저지릅니다. “어떤 일에서도 너희의 대적들로 인해 무서워하지 아니한다 하는 것을 내가 들을 수 있으리라. 그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명백한 증표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표니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 아니라 그분으로 인해 고난당하는 것도 주께서

그분을 대신해서 너희에게 주셨나니”(빌 1:28-29).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자신의 신념에 일치시키려고 시도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그가 영적으로 소경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특히 고난에 있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고난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자신이 주장하는 대로 하나님을 끼워 맞추면 안 됩니다. 욥은 친구들에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10절).

다음의 여섯 구절에는 욥의 낙심되고 우울한 마음이 깊이 있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욥17:10-16 “그러나 너희 모두로 말하건대 너희는 돌이키고 이제 오라. 내가 너희 가운데서 지혜로운 자 하나를 찾을 수 없느니라. 내 날들이 지나갔고 내가 목적인 것들 곧 내 마음의 생각들이 좌절되었도다. 그것들이 밤을 낮으로 바꾸니 어둠으로 인하여 빛이 모자라는도다. 내가 기다리면 무덤이 내 집이 되겠으므로 내가 어둠 속에 내 침상을 만들었고 썩는 것에 이르기를, 너는 내 아버지라, 하며 그 벌레에게, 너는 내 어머니요 내 누이라, 하였거늘 이제 내 소망이 어디 있느냐? 내 소망으로 말하건대 누가 그것을 보겠느냐? 우리의 안식이 다 함께 흙 속에 있을 때에 그것들이 구렁이의 빗장들로 내려가리로다, 하니라.”

욥에게 있어서 그의 인생은 그의 뒤에 놓여있고 사망에 눈앞에 있습니다. 그의 목표와 계획은 다 사라졌습니다. 목표와 목적, 그리고 소망은 사람의 눈에 빛을 제공합니다. 그것은 밤을 낮으로 바꾸어 줍니다. 하지만 욥에게는 이러한 빛이 사라졌습니다. 어둠이 그의 눈앞에 있습니다. 이제 무덤과 부패, 사망과 벌레야말로 욥의 입양한 가족입니다. 욥은 그것들이 이제는 너무 익숙해져서 그들을 아버지와 어머니라 부릅니다.

16절의 내용은 지옥의 문들과 빗장에 관한 언급입니다. 지옥은 구약시대에 죽은 자들의 거처이고 빗장 쳐진 감옥입니다. 요나는 2:6절에서 이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교회가 세워질 때에 지옥의 문

들이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고 마태복음 16장에서 말씀하셨는데 그때 말씀하신 그 문들입니다.

욥기 19장

19장에서 빌닷의 두 번째 공격에 대한 욥의 답변

욥은 빌닷과 그의 동료들에게 비록 자신이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과 자신의 문제이지 왜 너희가 간섭하느냐고 말합니다. 그러니 빌닷은 입을 닫고 참견을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가장 절망스러운 일은 그가 그의 슬픔에 대해서 아무에게도 이해받지 못한다는 것과 그를 향한 동정심을 아무도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6절에서의 욥의 외침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뒤엎으시고 자신의 그물로 나를 에워싸신 줄 이제 알지니라.” 욥은 하나님의 포로가 되어버렸습니다.

욥 19:7-13에 신성한 예언의 말씀이 전개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억울하여 부르짖으나 그분께서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가 크게 부르짖으나 심판이 없도다. 그분께서 내 길을 돌려 막으사 내가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행로들에 어둠을 두시며 내게서 내 영광을 빼앗아 가시고 관을 내 머리에서 가져가시며 사방에서 나를 멸하셨으므로 내가 사라졌도다. 또 그분께서 내 소망을 나무처럼 옮기시고 또한 나를 향해 친히 진노하시며 나를 자신의 원수들 중의 하나로 여기시는도다. 그분의 군대가 함께 나아와 나를 치려고 자기들의 길을 쌓아 올리며 내 장막을 둘러 진을 치는도다. 그분께서 내 형제들을 내게서 멀리 떠나가게 하시니 내가 아는 사람들이 진실로 내게 낯선 자가 되었고도다.”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중에 겪게 될 일을 예언으로 보

여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욥기라는 책이 하나님의 신성한 계획을 우리에게 그림으로 보여주는 계시의 책이라고 반복해서 언급했습니다. 필요에 의해 하나님께서 그분의 씨를 다루시는 예언입니다. 사실 욥기의 대부분이 약속하신 씨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씨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만이 아니라 복수(씨들), 즉 그분을 따르는 자들을 말합니다.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야곱의 환난이라고 하는 그 기간에 유대인들이 겪을 고통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의 영광과 관을 다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 또한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기쁨이 그치고 우리의 춤이 변하여 애곡이 되었으며 우리의 머리에서는 관이 떨어졌나이다.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 우리에게 화가 있을지 어다!”(애 5:15-16). 우리는 독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사실을 상기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고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한다는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 구절들에 대해서 누가 논쟁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고통의 원인이 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우리는 정말 두려움과 인내를 배우게 되고 우리 자신을 낮추게 됩니다.

욥 19:14-20 “내 친척들은 끊어지고 내 친한 친구들은 나를 잊었도다. 내 집에 거하는 자들과 내 여종들이 나를 낯선 자로 여기니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외인이 되었도다. 내가 내 종을 불러도 그가 대답하지 아니하매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였도다. 내가 내 몸에서 난 자식들로 인해 간청하였으되 내 숨결이 내 아내에게 낯설도다. 참으로 어린아이들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서면 나를 비방하였도다. 내 마음속 친구들이 다 나를 몹시 싫어하며 내가 사랑한 자들이 나를 치려고 돌이켰도다. 내 뼈가 살갓과 살에 달라붙으니 내가 잇몸만 가지고 피신하였도다.”

예수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욥도 그와 가까운 친구들로부터 버림당했습니다. 그의 친구들이 그를 잊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한 분만의 막대기 아래로 우리는 늘 지나가기 마련입니다. 그 막대기가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친구들이 도망하여 점점 수가 줄어듭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도이실 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가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내 버릴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고통당하는 성도에게 그리스도의 영을 보여주고, 섬기는 것입니다.

욥은 종들을 불렀습니다. 과거 같으면 달려왔을 터인데 처지가 이렇게 되고 보니 아무도 없습니다. 그의 숨결마저도 그의 아내에게는 불쾌하게 느껴졌습니다. 자녀에 대해 물어보아도 무시당합니다. 욥이 있을 때는 늘 자식들이 아버지 앞에 서 있었는데, 이제는 대적합니다.

19절이야말로 가장 슬픈 구절입니다. 욥이 고통 중에 있는 심경을 잘 보여줍니다. 이보다 더 어떻게 나쁠 수 있을까요? **“내 마음 속 친구들이 다 나를 몹시 싫어하며 내가 사랑한 자들이 나를 치려고 돌이켰도다.”**

욥의 가장 친한 친구들, 그의 종들, 그리고 그의 아내까지 모두 그에게 거리를 두고 떠났습니다. 불쌍한 욥이여! 누군가 그대를 위해 울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당신이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도록 누군가 따뜻한 눈물 한 방울만 그 눈썹 위에 떨어뜨려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늘로부터 한 줄기의 빛만이라도 임했더라면, 어린 아이가 아버지가 안됐다는 듯이 미소라도 한 번 지어준다면, 어머니의 부드러운 손길이 한 번이라도 있었더라면 새로 태어난 것 같은 기쁨이 있었을 것을. 그러나 그렇지 못했습니다. 아직은 그런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 참으로 귀중한 우리의 욥을 보십시오. 이 귀중한 욥을 바라보며 두려워하고 그를 불쌍히 여

깁시다. 욥은 그의 친구들보다 훨씬 우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 이런 시련을 받는다면 그보다 훨씬 못한 우리들은 당연히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은 아주 방자하게 행동했습니다. 예수님 같은 분이 십자가에서 심판받으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부당하시는 우리 주님을 구원자로 바라보고 그분을 사랑합시다. 그리고 뒤이어 있을 환난을 겪게 되는 이스라엘을 보며 그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욥기 21장

욥의 세 친구가 응보의 교리, 즉 죄를 지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교리를 확고하게 붙들고 있는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제자들도 그런 생각과 교리를 붙들고 있었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태어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의 이야기가 바로 정확한 예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에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시매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여쭙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누가 죄를 지었기에 그가 눈먼 자로 태어났나이까? 이 사람이니이까, 그의 부모이니이까? 하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나 죄를 짓지 아니하였으며 다만 이것은 그에게서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요 9:1-3). 그리고 또 다른 예는 바울이 뱀에 물렸을 때입니다. 그 섬사람들은 바울이 뱀에 물린 것을 목격하자 살인자라서 하늘이 벌을 준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늘이 보복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그 독사를 불에 던지고 아무런 해를 입지 않자 신이 내려왔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응보 신학의

결정판이 아닐런지요.

15절 첫 부분에서 욥은 그들의 응보신학이 거짓임을 보여줍니다. 그는 그들의 입에 손을 대고 들을 수 있으면 들으라고 합니다. 자신이 하는 말에 설득이 되지 않으면 그때 가서 조롱하라고 말합니다. “그때에 나아마 사람 소발이 응답하여 이르되, 그러므로 내 생각들이 나로 하여금 답변하게 하나니 이것으로 인해 내가 서두르노라. 나를 모욕하는 책망의 말을 내가 들었으므로 내 지각의 영이 나로 하여금 답변하게 하는도다. 네가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그분께서 사람을 땅에 두신 이래로 사악한 자의 승리는 잠시 뿐이요, 위선자의 기쁨은 잠깐뿐이니라. 비록 그의 뛰어남이 하늘들에까지 달고 그의 머리가 구름들에까지 미칠지라도 그가 자기 동처럼 영원히 사라지리라. 그를 본 자들이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그가 꿈같이 날아가 버리니 찾을 수 없으며 참으로 그가 밤의 환상같이 쫓겨가리라. 그를 본 눈도 다시는 그를 보지 못할 것이요, 그의 처소도 다시는 그를 바라보지 못하리라. 그의 자녀들은 가난한 자들을 기쁘게 하려고 힘쓰겠고 그의 손은 그들의 재물을 돌려주리라. 그의 뼈들은 그의 젊을 때의 죄로 가득한즉 그와 함께 흙 속에 누우리라. 그의 입이 비록 사악함을 달게 여기고 그가 그것을 혀 밑에 감추며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입 안에 가만히 물고 있을지라도 그의 음식이 그의 창자 속에서 변하고 그 속에서 독사의 쓸개즙이 되느니라.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다시 토하리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의 배에서 나오게 하시리라.”(욥 21:1-15)

욥기 21:6 “비록 그의 뛰어남이 하늘들에까지 달고 그의 머리가 구름들에까지 미칠지라도” 욥은 그에게 안전이 보장된 곳이 없어서 떨고 있습니다. 그는 과거에 그가 누렸던 지위와 권세, 번영, 건전한 삶을 생각하며 두려워했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에 면죄부를 받았다 말

할 수 있을까요? 욥 역시 그래서 두려워했습니다.

잘 기억해주시시오. 욥의 세 친구들은 사악한 자가 젊은 시절에 끊어지고 한창 젊은 나이에 죽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그 자녀들의 집이 파괴되고, 다른 이들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한결 같이 주장했던 노선입니다. 문제는 이 세상에서 그와 반대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사악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욥에게 이런 일이 발생했으니 응보의 신학에 따라 그는 사악한 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러자 욥은 그들의 무지함을 폭로합니다.

그의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욥 21:7 ‘어찌하여 사악한 자가 늙도록 잘 지내며 권세도 강한가? 게다가 그들의 자손은 왜 대대손손 번영하는가. 하나님의 막대기도 그들에게 떨어지지 않았다. 그렇다면 너희가 말하는 그것과 맞지 않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 욥이 묻습니다. 그리고 농부들이 사악한 집의 황소가 튼튼하다고 칭찬하고, 그가 새끼 낳는 것을 실패하지 않고, 공원과 길거리를 몰려다니며 축제를 즐기는 사악한 자들이 왜 축복을 받는 것인가?’ 라며 계속해서 친구들에게 묻습니다. 또 향연에도 참여하고 춤추는 무도회도 가고, 연극도 구경하며 온갖 것들을 다 즐겨도 고난 당하지 않으니 부와 쾌락 가운데 인생을 살아도 죽을 때 평안하게 죽는 사람들은 어찌해서 그런 삶을 살 수 있는지 묻습니다. 평생 동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며 죽을 때에도 하나님을 저주하며 죽었는데 전혀 고통을 당하지 않는다, 기도를 거부하고 기도하는 자를 조롱해도 늙도록 오래 살며 후손들까지 오래오래 잘 사는데 왜 그런지 묻습니다.

욥 21:16-26에서 욥은 자문자답을 합니다. “보라, 그들의 복이 그들의 손 안에 있지 아니하니 사악한 자의 계약은 내게서 매우 멀리 있도다. 사악한 자의 등불이 얼마나 자주 꺼지는가! 그들의 멸망이 그들에게 얼마나 자주 닥치

는가! 하나님께서 친히 분노하사 고통을 나누어 주시는도다. 그들은 바람 앞의 지푸라기 같고 폭풍에 휩쓸려가는 거 같도다. 하나님께서 그의 불법을 그의 자녀들을 위해 쌓아 두시며 그분께서 그에게 보응하시니 그가 그것을 알리라. 그가 자기의 멸망을 자기 눈으로 보고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리라. 그의 달수가 중간에서 끊어지면 그의 뒤에 그의 집에서 그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느냐?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그분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어떤 사람은 기력이 넘치며 심히 편안하고 평온한 가운데 죽으며 그의 가슴에는 젖이 가득하고 그의 뼈는 골수로 젖어 있도되 다른 사람은 혼이 쓰라린 가운데 죽고 결코 즐겁게 먹지도 못하는도다. 그들이 한 가지로 흠 속에 누우매 벌레들이 그들을 덮으리로다.”

인생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있는데 못된 사람이 잘 살고 훌륭한 사람이 못살기도 하고, 또 훌륭한 사람이 잘 살기도 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세상에서 잘하고 사는 사람도 못하고 사는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슬픔을 골고루 나누어주셨습니다. 욕이 답변을 하며 질문합니다. 도대체 사악한 자의 촛불이 얼마나 자주 꺼지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답변할 수 없습니다. 응보신학에 따라 항상 젊은 시절에 사악한 자는 불이 꺼져 죽는가 보니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 촛불이 꺼지기 전에 90살이나 100살까지 살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반역하는 10대에 죽을 수도 있지요. 다만 언젠가는 꺼지겠지요. 그러나 언제인지는 모릅니다. 사악한 자가 어떤 경우에는 일찍 끊어집니다. 또 그들의 젊은 자녀들도 그들의 사악한 인생의 열매를 거두어들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런 가능성은 있겠지요. 따라서 “어떤 사람은 기력이 넘치며 어떤 사람은 혼이 쓰라린 가운데 죽으며… 즐겁게 먹지도 못”합니다(23-26절). 하나님은 슬픔을 나누어 주십니다. 사악한 자가 번영하기도 하고 오래 살기도 하며

겉보기에는 행복한 삶을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26절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욥 21:27-34 “보라, 내가 너희 생각들을 알며 나를 치려고 부당하게 꾸민 계략들을 아노라. 너희가 이르기를, 통치자의 집이 어디 있느냐? 사악한 자의 거처들이 어디 있느냐? 하는도다. 너희가 길 가는 자들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너희가 그들의 증거들 곧 사악한 자가 멸망의 날까지 남겨진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들이 진노의 날로 끌려 나가리도다. 누가 그의 얼굴을 향해 그의 길을 밝히 보여 주겠느냐? 그가 행한 바를 누가 그에게 갚아 주겠느냐? 그럼에도 그가 무덤으로 이끌려 가서 묘지에 머물리라. 그가 골짜기의 흙덩이들을 달게 여기리니 무수한 자들이 그보다 앞서 간 것 같이 모든 사람이 그의 뒤에 모여들리라. 그런데도 너희가 어찌 나를 헛되이 위로하느냐? 너희 대답 속에는 거짓이 있느니라, 하니라.”

욥은 그가 말했을 때 그들이 반박을 하려고 궁리 중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 다. 그래서 욥이 미리 말합니다. 사악한 통치자들이 다 망했고 그들의 성이 다 망했으니 욥이 망한 것 역시 사악한 통치자이기 때문이 아니냐고 말하려는 것을 눈치 챌 것입니다. 욥은 큰 왕의 대로를 여행하는 유목민들을 상기시키고 그 와중에도 사악한 자들이 다 살아남고 진노를 피해 버젓이 살아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이냐고 반박합니다. 그리고 욥이 질문합니다. “따라서 누가 그의 얼굴을 향해 그의 길을 밝히 보여 주겠느냐. 그가 행한 바를 누가 대신 갚아주겠느냐? 그 사악한 자들이 다 피해버리면 누가 대신 대가를 치르겠느냐?” 그러나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결국은 아무리 살아남고 진노를 피하며 운이 좋았다 하더라도 결국은 땅의 흙 속에 침대를 만들고 누우며 벌레가 잔치를 벌이는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욥의 이 모든 논쟁으로 볼 때에 친구

들의 모든 답변이 거짓인데, 소경된 의사가 어찌 그를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친구들로부터의 위로는 기대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제14장

욥기22, 25장

두 번째 대화에서의 욥의 답변

“그분과 친숙해짐으로 마음에 평안을 얻으라”

이번 두 장은 욥의 세 명의 친구들이 욥의 사악함에 대해서 욥을 설득시키려고 애를 쓰는 마지막 노력을 담고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30절에 걸쳐서 장황하게 애를 쓰며 노력을 하는 반면 빌닷의 경우에는 욥에게 충을 쓰는데 여섯 발밖에 남지 않아서 짧은 6절에 걸쳐서 마무리를 짓고 맙니다. 반면 소발은 이번에는 아예 장전도 하지 않고 그냥 입을 다물어 버립니다. 3라운드에서 소발은 아무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소발은 사실 한 발도 맞추지 못하고 실탄을 다 소비해버려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지요. 욥이 필요로 하는 답변도 하지 못한 채 끝나버립니다.

이 세 사람의 친구는 한 마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루시는 데 대해 인

간이 무능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즉 하나님의 계시로 깨닫기 전에는 절대 인간 스스로는 깨달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미 우리는 1장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하늘에서 벌어진 사건을 하나님이 계시를 통해 알게 해주셨으니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사물을 판단할 때에 외모나 교조주의, 철학에 입각해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권자이시고 그래서 자신의 영원한 목적에 부합되는 방식으로만 하늘과 땅의 모든 일을 처리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의로우시고 공홀이 많으시며 주권자이심을 배웁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들이 전적으로 신뢰하실만한 자격을 갖추신 분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지막 결론을 보면 항상 하나님의 행동은 다 의롭다는 것이 판명됩니다. 이 마지막 라운드에서 엘리바스는 욥에게 서로 관계가 없는 네 가지 질문을 마지막으로 던집니다.

욥기 22장

1. 욥의 의로움이 하나님께 무슨 도움이 되느냐?

욥 22:1-4 “그때에 데만 사람 엘리바스가 응답하여 이르되, 지혜로운 자가 자기를 유익하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하나님을 유익하게 할 수 있겠느냐? 네가 의롭다 한들 그것이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되겠느냐? 네가 네 길들을 완전하게 한들 그것이 그분께 이익이 되겠느냐? 그분께서 너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너를 책망하시겠느냐? 그분께서 너와 함께 심판 자리로 들어가시겠느냐?”

엘리바스의 첫 번째 질문은 다섯 개의 작은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욥은 자신이 죄가 없다고 주장했고 자신이 의롭다는 사실을 선언했었습니다. 이로 인해 엘리바스는 점점 좌절합니다. 욥이 자신의 말로 설득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욥이 죄를 고백하게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엘리바스는 속으로 욥이 하나님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는 것인가 생각하며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와 같은 생각이 어리석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꾸짖으려고 합니다.

엘리바스의 주장은 이런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는 이 세상의 삶에서는 인간 스스로를 이롭게 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잠언이라고 하는 책은 젊은이에게 지혜를 주고 인생의 가야 할 길을 보여주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이 자신에게 신실함의 결과로 하나님께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인간이 결코 하나님께 이익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필요로 하는 것이 전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시 50:8-12 “내가 네 희생물이나 네 번제 헌물로 인하여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그것들이 계속해서 내 앞에 있어 왔도다. 내가 네 집에서 수소나 네 우리에서 숫염소를 취하지 아니하리니 숲의 모든 짐승과 천 개의 작은 산 위의 가축이 내 것이니라. 산의 모든 날짐승도 내가 알며 들의 들짐승들도 내 것이로다. 가령 내가 주린다 할지라도 네게 말하지 아니하리니 세상과 거기의 충만한 것이 내 것이로다.”

그러나 달란트 비유를 보면 주님께서서는 자신의 종들이 하나님의 왕국에 유익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종의 섬김을 필요로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들이 그렇게 하기를 기대하시면서 명령을 내리실

뿐이지요. 따라서 엘리바스는 욥에게 얘기해봐야 욥은 이미 알고 있고, 새로운 이야기는 없습니다.

욥은 욥의 의로움과 완전함이 전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말을 친구 엘리바스로부터 듣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엘리바스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욥의 의로움과 곧바름을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귀에게 욥에 대해 자랑을 하셨습니다. “내 종 욥을 깊이 살펴보았느냐.” 그러한 자가 땅에 없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칭찬하신 바로 그 행실이 사탄의 관심을 끌었던 것입니다. 사탄의 생각은 욥이 그렇게 고백한대로 자신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단지 하나님 앞에 뇌물을 바치기 위해서라는 것이었습니다. 욥이 ‘내가 이렇게 잘하면 좋은 것으로 주시겠지.’ 라는 생각으로 올바른 생활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했던 것이죠. 사실 이러한 사탄의 논리는 상당히 일리가 있는 생각입니다. 주님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보상을 바라지 않고 순수하게 신앙 생활하는 사람이 사실 많지 않기 때문에 사탄이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놀랍게도 욥은 하나님 자신만을 사랑하는 인물로 등장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드립니다. 그러나 엘리바스는 욥이 그렇게 뜨겁고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는 동기가 다 이익이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엘리바스는 응보의 신학 입장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도 높으시고 거룩하시며 스스로도 충분하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의 선함과 노력에 의해 하나님이 감동받으시거나 깊은 인상을 받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것은 절반의 진리일 뿐입니다.

2. 혹시 다음과 같은 죄를 지은 것은 아니냐?

욥 22:5-11 “네 사악함이 크지 아니하냐? 네 불법이 끝이 없지 아니하냐? 네가 까닭 없이 네 형제로부터 담보물을 취하고 헐벗은 자의 옷을 벗기며 피곤한 자에게 마실 물을 주지 아니하고 주린 자에게 빵을 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강한 자로 말하건대 그는 땅을 소유하였으며 존귀한 자는 거기서 살았도다. 네가 과부들을 빈손으로 내보내고 아버지 없는 자들의 팔을 꺾었도다. 그러므로 올라미들이 너를 둘러싸고 갑작스러운 두려움이 너를 괴롭히며 또는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넘치는 물들이 너를 덮느니라.”

욥은 지금 엘리바스에 의해 다음과 같은 죄를 지었다고 기소를 당했습니다. 담보물로 사람의 옷을 취하고 배고픈 이에게 빵과 물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과부들과 고아들을 배고픈 채로 돌려보냈다고 했습니다. 엘리바스가 이렇게 고소를 했는데 거기에는 한 사람의 증인도 없습니다. 혼자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와 같은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부과하실 것이라 생각했던 심판을 욥이 겪고 있으니 욥이 그런 죄를 지은 것이 맞다고 이야기합니다.

3.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욥 22:12-20 “하나님은 하늘 높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냐? 별들의 높음을 보라. 그것들이 얼마나 높이 있는가! 그런데 너는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시느냐? 그분께서 어두운 구름을 뚫고 심판하실 수 있겠느냐? 뽕뽕한 구름들이 그분을 덮은즉 그분께서 보지 못하고 하늘의 순환 회로에서 다니실 뿐이라, 하는도다. 네가 사악한 자들이 밟던 옛 길을 주목해 보았느냐? 그들은 때가 되기도 전에 끊어졌고 그들의 기초는 홍수로 뒤덮였느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아뢰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전능자께서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겠나이까? 하였으되 그분께서는 좋은 것들로 그들의 집을 채우셨느니라. 그러나 사악한 자의 계략은 내게서 아주 멀리 있느니라. 의로운 자들은 그것을 보고 즐거워하며 죄 없는 자들은 그들을 비웃는도다. 우리의 재산은 끊어지지 아니하였으되 그들에게 남은 것은 불이 소멸시키는도다.”

이렇게 읊을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하나님의 주권과 전지하심을 입증하기 위해서 읊에게 하늘에 있는 별들이 얼마나 높은지 인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별들 하나하나를 만드신 분임을 깨달아야 한다며 읊에게 촉구했습니다. “그분께서 별들의 수효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그것들의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시 147:4) 우리는 아무리 이 우주공간을 멀리 꿰뚫어 본다고 해도 여전히 하나님의 손길이 닿아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별들이 얼마나 멀리 있고, 행성들이 얼마나 멀리 있는지를 알게 되면 마음이 혼돈스러울 정도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우주입니다. 우리는 별들이 있는 거리도 측정할 수 없고 우리에게 별빛이 도달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는지 측정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창조물보다 더 크신 분이시며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주의 크기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저 별 너머에 아주 맑고 유리 같은 얼음 바다가 있습니다. 그것의 크기는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는데 이것이 우주 공간을 통과하며 움직입니다. 살아 있는 창조물들에 의해 하늘을 관통하며 옮겨집니다. 이것을 에스겔서에서는 ‘그룹’ 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얼음 바다 밑 부분에 문이 있고 위로 올라가면 왕좌가 놓여있습니다. 그리고 무지개가 그 왕좌를 두르고 있고 천둥 번개와 구름들이 덮고 있습니다. 허블(Hubble) 망원경을 통해서 이 광경을 살펴보면 인간의 마음은 두려움에 떨게 될 것입니다.

홍수 이전에(창 1:2)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보지 못하시고

그들에 악행에 대해 관심도 없으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홍수로 인해 다 멸망당하여 그들이 틀렸음이 입증되었습니다. 그들은 부자였고, 큰 부로 집을 채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서 좀 떠나달라고 말했는데, 엘리바스는 오히려 그들이 그렇게 말했다고 주장합니다. “주께서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며 혹은 내가 침을 삼킬 때까지 나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욥 7:19) 결국 욥이 끊어진 것처럼 그들도 끊어졌습니다.

엘리바스는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운 사람에게 임하지 않고, 의로운 사람은 악한 자의 멸망을 기뻐한다고 지적합니다. 의인의 재산은 남아 있으나 사악한 자의 것은 불과 홍수로 다 소멸시킨다고 말합니다. 초점은 명백합니다. 욥이 끊어져버렸으므로 하나님의 진노의 홍수로 욥의 모든 재산이 다 씻겨 가 버렸습니다. 엘리바스의 논리는 결국 욥이 죄인이니 시간이 있을 때 회개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4. 예전처럼 다시 번영하고 싶지 않느냐?

욥 22:21-30 “이제 너는 스스로 그분을 제대로 알며 또 그분과 평화롭게 지내라. 그리하면 복이 네게 임하리라. 원하건대 그분의 입에서 법을 받고 그분의 말씀들을 네 마음속에 쌓아 두라. 네가 만일 전능자께로 돌아가면 세워지겠고 또 네가 네 장막에서 불법을 멀리 치우리라. 그때에 네가 금을 흠처럼, 오빌의 금을 시내의 돌처럼 쌓으며 참으로 전능자께서 네 방벽이 되시고 네가 많은 은을 소유하리니 그때에 네가 전능자를 기뻐하며 네 얼굴을 하나님을 향하여 들리라. 네가 그분께 네 기도를 드리리니 그분께서 네 말을 들을 것이요, 또 네가 네 서원을 갚으리라. 또한 네가 어떤 일을 정하면 그 일이 너를 위해 굳게 세워질 것이요, 빛이 네 길들에 비치리라. 사람들이 쓰러지거

든 그때에 너는 이르기를, 그분께서 높여 주시리라, 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그분께서 죄 없는 자들의 섬을 구출하시리니 네 손의 순결함으로 말미암아 그 섬이 구출되리라, 하니라.”

엘리바스의 충고에 의해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엘리바스는 그가 처음 시작했던 때와 같이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그는 욥에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은 욥입니다. 그런데 겉보기에는 반대로 보입니다. 엘리바스는 욥에게 만약 욥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기만 하면 화평한 일이 있게 되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하시는데 그 말씀에 관심을 좀 보이면, 그리고 집에서부터 악을 멀리하면 그는 다시 과거처럼 번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요.

이것은 죄인에게 적절한 충고입니다만, 전적으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온다고 해서 반드시 부와 번영을 약속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욥의 경우에는 이번 메시지가 잔인한 메시지가 되고 맙니다.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난 적이 없습니다. 물론 엘리바스가 아주 잔인한 의도를 가지고 욥을 괴롭히려는 것은 아닙니다. 전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형제들을 괴롭히는 자이며 욥은 끊임없이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야말로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참된 예언이란 사실을 분명히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욥은 미래 환란 때의 이스라엘을 예표합니다. 욥의 고향과 이스라엘이 머물게 될 셀라 페트라라 위치가 다 우스라고 하는 에돔 땅에 있습니다. 욥기 42장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당할 42개월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는 것 역시 우연이 아닙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증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유 없이 마귀에게 학대당하고 있는 것 역시 환란 때의 유대인들과 똑같

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할 때 하늘의 왕국이 그들에게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시대처럼 이방인들이 금과 은을 선물로 유대인들에게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사 60:1-5에 나와 있습니다.

엘리바스의 의도는 어떻게든 욥에게 호소를 해서 욥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엘리바스는 자신의 선언문을 접어서 외투복에 넣었습니다. 이제 자신의 할 말이 다 끝났다는 것이죠. 그는 밖으로 걸어 나가 두 친구를 쳐다보며 눈짓으로 ‘욥은 소망이 없다’고 말하고 퇴장해 버립니다. 이제 엘리바스는 저 뒤쪽에서 나머지 두 친구가 발언하기를 기다릴 뿐입니다.

욥기 25장

하나님께서서는 매우 강력하시고 거룩하십니다. 인간이 과연 그분께 받아들여질 만한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빌닷은 욥에 관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이미 다 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곧 보게 되겠지만 빌닷 역시 철저하게 잘못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으로 욥에게 책망하려고 합니다.

그의 마지막 주장은 매우 간단합니다. 그것은 더 이상의 설명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셀 수 없이 많은 군대를 가지고 계셔서 필요한 경우 평화를 위해 군대를 사용하십니다. 예를 들면 바람도 있고, 눈도 있고, 서리와 번개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무기들 중 하나입니다. 이 땅에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끔 이러한 무기들을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뿐만 아니라 그분의 권능 역시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계셨던 그것 즉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것을 우리가 들었고 우리 눈으로 보았으며 자세히 살펴보고 우리 손으로 만졌노라. (그 생명이 나타나시매 우리가 그것을 보았고 또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 영원한 생명을 증언하며 너희에게 보이노라.) 우리가 보고 들은 그것을 너희에게 밝히 드러냄은 너희 또한 우리와 교제하게 하려 함이니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며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씌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우리가 그분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밝히 드러내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요 그분 안에는 전혀 어둠이 없다는 것이라.”(요일 1:5), “오직 그분께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그분은 아무도 접근하지 못할 빛에 거하시며 아무도 그분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나니 그분께 존귀와 영존하는 권능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딤후 6:16)

그렇다면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 있을까요? “내가 말하거니와 이때에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사 자신이 의롭게 되며 또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게 만드는 이가 되려 하심이라.”(롬 3:26)

욥의 세 친구들은 이제 욥에게 자신들의 말을 받아들이라고 밀어붙이는 것을 중단합니다. 이제 더 할 이야기도 없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그들의 경험과 전통과 철학을 충동원하여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실패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더 이야기할 것이 없습니다. 그들이 이제 이야기해봐야 욥의 상황에 대해서 전적으로 무지하다는 것밖에는 더 보여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퇴장하며 결과를 지켜보기로 합니다.

제15장

욥기23, 24장

욥기 23장

욥 23:1-7 “그때에 욥이 응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가 원망하는 일이 고통스러우니 내가 매 맞는 것이 신음하는 것보다 힘겹도다. 오 어디에서 그분을 만날지 내가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그분의 자리에라도 간다면 좋으리라! 내가 그분 앞에서 내 사정을 정리하며 논증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그분께서 내게 대답해 주시고자 하는 말씀들을 내가 알며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바를 깨닫기 원하노라. 그분께서 자신의 큰 권능으로 나를 반박하시겠느냐? 아니라. 도리어 그분께서 내게 힘을 넣어 주시리라. 거기서는 의로운 자가 그분과 논쟁할 수 있은즉 내가 내 심판자로부터 영원토록 구

출되리로다.”

이 구절들에 뒤이어서 우리는 욥의 투명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의 고소자들은 욥이 위선자이며 아주 사악한 자라고 비난했습니다. 비록 지금은 보고 듣는 것을 거부하며 뒤로 물러나 있지만 욥은 자신의 온 혼을 다해 그의 불평을 쏟아냅니다. 자신이 비록 불평을 하기는 했지만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은 그보다 훨씬 큰 것이며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할 만큼의 잘못을 저지른 적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욥의 발언에는 절반의 진리만 담겨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감히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우리가 한 불평보다 더 크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음 구절들을 읽으면서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해 봅시다. “그분께서 우리의 죄들에 따라 우리를 다루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불법들에 따라 우리에게 갚지 아니하셨으니”(시 103:10)

욥은 어디에 가면 하나님의 자리를 발견할 수 있을지 갈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불평을 하고 싶어합니다. 이것은 올바른 길로 들어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서 따지라는 겁니다. 어린아이같은 기도만이 욥과 같은 투쟁 속에서 답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욥은 하나님 바로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그의 혼란스러움을 고백하고자 합니다. 그는 너무나 자신만만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자신의 입장을 다 밝히고 따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 말들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시간을 보낸 사람의 말입니다. 하나님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으니까 할 수 있는 말이죠. 그리고 이 시련이 끝나면 욥은 하나님을 훨씬 더 많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는 그가 하나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이 혼란스러움도 딜레마도 모두 끝날 것이라 믿고 그분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답해주시리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권능을 욥을 더 고통스럽게

하려고 사용하시겠는가? 그것은 욥의 친구들이 한 것이었지요. 그들은 욥을 더 괴롭게 하려고 자신들의 지식을 사용했습니다. 처음부터 그들은 입으로 욥을 비난하고 고소했으며 난도질을 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권능을 사용하여 그에게 확신을 주실 것이라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틀림없이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하나님의 의도를 분명히 깨닫게 될 것이라고, 그분 앞에만 나아가면 모든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욥 23:8-12 “보라, 내가 앞으로 나아가도 그분께서 거기에 계시지 아니하고 뒤로 나아가도 내가 그분을 감지하지 못하며 그분께서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그분을 바라볼 수 없고 그분께서 오른쪽에 숨으시므로 내가 그분을 볼 수 없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분께서 아시나니 그분께서 나를 단련하신 뒤에는 내가 금같이 나오리라. 내 발이 그분의 발걸음을 붙들고 내가 그분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그분의 입술의 명령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내게 필요한 음식보다 그분의 입의 말씀들을 더 귀히 여겼도다.”

욥은 자신이 어둠 가운데 있고, 그가 어느 방향으로 가든지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마치 숨바꼭질을 하고 있는 듯하다고 묘사합니다. 그분이 자신을 숨기시자 도저히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욥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인간을 다룬다고 이야기하는데 일말의 진리가 이 속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욥이 시험 당하는 동안에는 욥이 그분을 발견할 수 없었으니까요. 이것은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조건이었습니다. “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보라, 그가 네 손에 있으나 그의 생명은 살려 둘지니라, 하시니라.”(욥 2:6)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 때문에 개입하실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방식은 갈릴리 바다에서도 그리고 엠마오로 가늘 길에서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아마 성경을 슬슬 읽는 사람들은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일어났던 사건에서 이런 숨겨진 교훈을 간과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록하신 사실을 한 번 주의 깊게 살펴봅시다. “그들이 가고 있던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는데 그분께서 더 가려는 것 같이 하시거늘”(눅 24:28). 갈릴리 바다에서의 폭풍속에서도 우리는 같은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바람이 그들에게 반대로 불므로 그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그들을 지나쳐 가려고 하시거늘”(막 6:48).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숨기시는 모습을 여기서 다시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지금 갈릴리 바다 위에 있는 제자들의 절망을 보지 못하셨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왜 그냥 지나치셨을까요?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의 절망은 또 어떻습니까? 그들의 슬픔과 불신을 예수님께서 모르셨을까요? 아니요, 우리는 그분이 알고 계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왜 그들과 함께 가지 않으시고 더 가셔야 하는 것처럼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은 답을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서는 우리가 그분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필요함을 우리가 모르고 있으면 알게 될 때까지 숨으시며 그분을 찾으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욥은 사방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버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가 만약 내던져져 하나님을 찾을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알고 계시고 의롭다는 것 역시 알고 계심을 그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욥은 여전히 자기 의가 가득한 사람입니다. (역주: 욥의 문제는 의로움이 아니라 자신의 의로움을 의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지 못하고 자신의 의로만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욥기 42장에서 치유가 됩니다.) 우리가 반복해서 말해온 것처럼, 욥은 위선자가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8-12절에서는 그는 그가 얼마나 선한 사람인지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욥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 얘기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욥은 확실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공휼을 베푸셔야만 한다고 기대하며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오직 그분은 생각이 한결 같으시니 누가 그분을 돌이킬 수 있으리요? 그분께서는 자신의 혼이 원하는 것 바로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분께서는 나를 위하여 정하신 일을 이루시느니라. 그분께는 그러한 일이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분 앞에서 괴로워하며 깊이 생각할 때에 그분을 무서워하는도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께서 나를 괴롭게 하시나니 이는 내가 어둠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고 그분께서 어둠을 덮으사 내 얼굴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이로다.”(욥 23:13-17)

욥은 이제 완전히 운명론자가 되었습니다. 칼빈의 5대 강령을 신뢰하는 자처럼 행동합니다. 적어도 그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는 자신이 겪은 시련이 정해진 운명이었고, 그것은 절대로 바꿀 수 없는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이것들을 생각했을 때 그는 마음이 약해져 두려워졌습니다. 이것이 그에게 정해진 일이었다면, 그 다음은 도대체 어떤 일일까? 욥의 마음은 약해졌고 두려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지고 계실 계획이 두려워졌습니다. 이러한 시련이 그에게 오기 전에 욥이 끊어지지 않았었고, 시련을 겪는 동안에도 보호받지 못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자신 앞에 어떤 불행이 놓여있을까를 생각하니 두려움이 그를 사로잡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욥기 24장

“전능자께서는 때를 숨기지 못하겠거늘 어찌하여 그분을 아는 자들이 그분의 날들을 보지 못하는가? 어떤 자들은 지계표를 옮기고 난폭하게 양 떼를 빼앗아 그것을 먹으며 아버지 없는 자의 나귀를 몰아가고 과부의 소를 담보물로 취하며 궁핍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땅의 가난한 자들이 함께 숨는도다. 보라, 그들은 사막의 들나귀같이 자기들의 일로 나아가며 탈취물을 찾으려 제때에 일어나나니 광야가 그들과 그들의 자식들을 위해 먹을 것을 내는도다. 그들이 저마다 들에서 자기 곡식을 거두고 사악한 자의 포도를 주우며 혈벙은 자들로 하여금 웃도 없이 머물게 하므로 그들은 추위에도 덮을 것이 없으며 산들의 소나기에 젖고 피난처가 없어서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 그들이 아버지 없는 자를 젓가슴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로부터 담보물을 취하고 또 그로 하여금 웃도 없이 벌거벗은 채 가게 하며 주린 자들로부터 곡식 단을 빼앗으니 이들이 그들의 성벽 안에서 기름을 만들고 그들의 포도즙 틀을 밟으며 목말라 하는도다. 사람들이 그 도시에서 나와 신음하고 상처 입은 자들의 혼이 부르짖으나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음을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느니라.”(욥 24:1-12)

욥의 세 친구 논리는 한결같았습니다. 나중에 가서는 지루할 정도가 되었지요. 그들이 한 가지로 외친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사악한 자는 벌을 주시고, 의로운 자에게는 보상을 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욥은 사악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있는 중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만약 그가 돌이키고 자백한다면 하나님께서도 진노로부터 돌이키시고 욥을 다시 축복하시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신학의 문제점은 실제적 삶의 체험과 교리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에 있습니다.

웁은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위해 사는 이가 수고의 보상도 보지 못하고 또한 사악한 자에게 임하는 심판도 볼 수 없는지 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읽은 것처럼 사악한 자가 저지른 범죄 목록을 열거했습니다. 사악한 자들은 땅의 경계인 지계표를 옮겨버리고 그들보다 가난한 자들의 재산을 훔치며 양떼를 훔쳐가 먹어버립니다. 또한 이들은 너무나 사악하고 천하여 과부와 고아로부터 재산을 훔치고 그들을 집에서 쫓아내어 광야에서 살게 하며 땅의 굴속에서 짐승처럼 살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이들은 절망가운데 자신들을 쫓아낸 이들에게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저마다 들에서 자기 곡식을 거두고 사악한 자의 포도를 주우며” 이렇게 헐벗고 배고픈 혼들이 추위에 방황하고 억압을 당합니다. 그들은 악용당하고 무시당합니다.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께 이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 달라고 울부짖으며 기도하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 사악한 자들에게 보응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어리석음에 무관심한 것처럼 보입니다. 웁의 세 친구들도 이를 알았습니다만 그와 같은 분명한 사실 앞에서 귀를 막고 무관심했습니다. 그 친구들은 왜 그랬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들이 잘못된 신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의인이 보상받고 악인이 멸망당한다는 교리를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눈먼 자가 된 것입니다.

“그들은 빛을 거역하는 자들에게 속하고 빛의 길들도 알지 못하며 빛의 행로들에 머물지도 아니하는도다. 사람을 죽이는 자는 빛과 함께 일어나서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죽이며 밤에는 도둑같이 되고 간음하는 자의 눈도 저물기를 기다리며 이르기를, 어떤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자기 얼굴을 변장하느니라. 그들은 대낮에 자기를 위하여 집들을 표시해 두었다가 어두워지면 땅을 파서 집들을 뚫으며 빛을 알지 못하나니 아침이 그들에게는 마치

사망의 그늘과 같도다. 혹시 누가 그들을 알게 되면 그들은 사망의 그늘의 두려움 속에 있느니라.”(욥 24:13-17)

욥은 하나님께서 주목하지 않고 있는 사악한 자들의 성품이 어떠한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욥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피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에게 고통을 준 것은 하나님 앞에서 노골적으로 사악한 삶을 살았던 자들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고, 자기같이 의로운 삶을 산 사람은 심판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점점 더 변성하고 더 악한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들도 한때는 최소한의 양심을 가지고 행동을 조심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저항을 하고 있습니다. 빛을 거역하면서 반역된 행동을 계속합니다. 그들은 가나한 이의 처소를 빼앗아 들짐승처럼 지내게 합니다. 그들의 행동은 마치 들의 야생동물 같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사자가 먹잇감을 찾으러 다니듯이 무고한 피를 찾아다닙니다. 어둠 속에 숨어서 가난한 자들로부터 훔치고 낮에는 죽입니다.

이들은 도둑일 뿐만 아니라 살인자이며, 그들은 빼돌리고 약탈하며 강간도 합니다. 완전히 타락한 삶을 살고 있음에도 그들의 얼굴은 그렇지 않은 척 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악한 행위를 아무도 알지 못할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그들의 역겨운 행동들은 모두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일들입니다. 낮에는 눈과 마음으로 욕심을 따라가다가 밤이 되면 그들의 사악한 여러 계획들을 실행에 옮깁니다. 이들은 어둠에 가려져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삽니다. 그들은 집에 침입하여 간음을 저지릅니다. 욥은 사악한 자들이 그렇게 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들에 전혀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욥의 이해를 넘어서는 것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인생의 미스터리 중 하나입니다. 어째서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의인을 시험하시고, 악인에게는 심판을 하지 않으시는 걸까요? 왜 그들의 사악함이 계속되도록 내버려 두시는 걸까요? 이것에 대한 조명을 받으려면 이 책의 처음으로 돌아가 하나님과 사탄이 나눈 대화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왜 그런지 질문에 대한 답을 조금은 얻을 수 있습니다.

제16장

욥기26장

“인간이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겠느냐?” (빌닷)

욥 26:14 “보라, 이런 것들은 그분의 길들의 일부에 지나지 아니하거니와 그분에 관하여 들은 바가 얼마나 적으냐? 그러할진대 그분의 권능의 천둥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랴? 하니라.” 이 지구는 신비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움과 신비를 설명하기란 불가능합니다.

욥 26:1-4 “그러나 욥이 응답하여 이르되, 권세 없는 자를 네가 어떻게 도왔느냐? 기력 없는 팔을 네가 어떻게 구원하느냐? 지혜 없는 자에게 네가 어떻게 조언하였느냐? 또 어떻게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많이 전하였느냐? 네가 누구에게 말을 하였느냐? 누구의 영이 네게서 나왔느냐?”(역주: 렉크만 박사의 주석에 보면 이것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에게

게 던지실 질문들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의 세 친구들은 마땅히 욥을 도와주어야 했음에도 그러지 못했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길들을 이해하는 데에는 근처에도 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이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의 네 구절은 욥이 자신의 친구들을 꾸짖는 내용입니다. 욥은 그들이 정말 그들이 어떻게든 그를 도우려 했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나에게는 아무 힘도 없다, 너희가 나를 도와주었느냐? 나에게 답이 없을 때에 너희의 지혜는 어디 있었는가?” 그들은 욥을 돕기보다는 그를 비난하기에 바빴습니다.

욥은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분의 권능과 지혜는 하늘은 물론이고 땅과 그 밑에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분의 지혜는 이 땅의 모든 것을 뛰어넘습니다.

아래쪽을 바라보다

욥 26:5-6 “죽은 것들은 물들 밑에서부터 형성되었으며 거기에 거주하는 자들도 그러하다. 지옥이 그분 앞에서 벌거벗은 채 드러나고 멸망이 가려지지 못하느니라.” 욥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신 것뿐 아니라 땅 속에 있는 자들이 어떤 생각과 행동을 하는지도 다 알고 계신다고 지적합니다. 지옥에 있는 그들의 판단과 심판을 하나님께서 결코 간과하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 받아 지옥에 있는 자들에 대한 정보도 정확하게 가지고 계십니다.

욥 26:5에 “형성되었으며(formed)”라는 단어는 꼬이고, 돌리고, 찢치고, 비틀고, 두려워하고, 떨고, 수고하고, 고뇌하고, 고통당하고, 인내하고, 초

조하게 기다리고, 고문을 당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아주 우울해지는 모든 것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옥에 있는 자들이 겪는 모든 것입니다.

욥은 빌닷이 말한 것처럼 모든 것을 다 보실 수 있는 하나님의 눈으로부터 짙은 구름이 사악한 자들의 행위를 감춰줄 수 없음을 상기합니다. 욥은 지옥에 있는 자들의 고뇌 역시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지옥에서도 다스리십니다. 사탄이 거기서 다스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하에 있는 자들에 대한 언급이 다음 구절들에 나와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빌 2:10), “그분께서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사 선포하셨는데 이 영들은 노아의 날들에 방주를 예비하는 동안 곧 하나님께서 한 번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불순종 하던 자들이라. 방주 안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 받은 자가 몇 안 되니 곧 여덟 혼이라.”(벧전 3:19-20),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주께서 거기 계시오며 내가 지옥에 내 침상을 펼지라도, 보소서, 주께서 거기 계시나이다.”(시 139:8).

위를 올려보다

이 구절들은 우리를 눈에 보이는 하늘들에 떠 있는 구름들 너머 우주공간 밖으로 나가 하나님 왕좌 앞으로 데려갑니다. 욥기는 하나님께서 계신 그 왕좌의 방향을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욥 26:7-14 “그분께서는 북쪽을 빈 곳에 퍼시며 땅을 허공에 매다시고 물들을 자신의 뽁뽁한 구름 속에 싸매시나 구름이 물들 밑에서 찢어지지 아니

하느니라. 그분께서는 자신의 왕좌의 정면을 가리시고 자신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낮과 밤이 끝날 때까지 경계들을 두어 물들을 둘러싸시느니라. 그분께서 꾸짖으시매 하늘의 기둥들이 떨며 놀라느니라. 그분께서 자신의 권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자신의 명철로 교만한 자를 두루 치시느니라. 그분께서 자신의 영으로 하늘들을 단장하시고 자신의 손으로 그 구부러진 뱀을 지으셨나니 보라, 이런 것들은 그분의 길들의 일부에 지나지 아니하거니와 그분에 관하여 들은 바가 얼마나 적으냐? 그러할진대 그분의 권능의 천둥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랴? 하니라.”

하늘들은 텐트에 비유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하늘들은 물두명과 촛대, 성소를 갖춘 성막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땅은 그분의 발등상이고 하늘들은 그 위에 어떤 곳에도 기대고 있지 않고 공중에 떠 있습니다. 욥이 말한 몇 마디가 과거든 현재이든 이교도들의 설명과 비교해보면 얼마나 우주에 대한 지식에 있어 앞서 있는지요.

여기서 말하는 짙은 구름이란 소위 두터운 먼지 구름을 가리킵니다. 많은 구름들은 얼음유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9절은 이 문맥이 우주공간 밖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왕좌가 놓여있습니다. 하나님의 왕좌를 덮고 있는 이 짙은 구름은 성경에서 몇 번 언급된 적이 있습니다. “그분께서 어두운 물들과 창공의 짙은 구름들로 자신의 주변에 어둠의 천막을 삼으셨으니”(삼하 22:12), “그분께서 그룸을 타고 나셨으니 참으로 바람의 날개들을 타고 나셨도다. 그분께서 어둠을 자신의 은밀한 처소로 삼으셨으니 곧 어두운 물들과 창공의 짙은 구름들이 그분을 둘러싼 그분의 천막이 되었도다. 그분 앞에 있던 광채로 말미암아 그분의 짙은 구름들과 우박들과 불타는 솟들이 사라졌도다.”(시 18:10-12)

낮과 밤에 대한 언급은 의심의 여지없이 하나님께서 하늘들과 땅을 파

괴하시리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늘들과 땅이 불타버릴 그 때인 것 같습니다. 그때는 낮과 밤이 끝나게 될 것이니까요. 그리고 낮은 그 기름부음 받은 그룹이 타락하기 이전에 대한 언급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밤이 왔으니 타락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때부터 밤이 존재한 것 같습니다. 밤은 의의 태양이신 분이 나타나실 때까지 지속될 겁니다. 천년왕국의 시점은 결코 끝나지 아니할 여덟째 날, 즉 새로운 날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천년왕국이 끝나면 영원이 시작됩니다.

옛 뱀이야말로 욕이 경험하고 모든 창조물이 경험하는 그 어두움과 신비의 원인입니다. 그분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이 지구가 형체가 없이 공허하게 되어 버렸을 때 하나님의 진노 앞에 땅의 기둥들이 벌벌 떨었던 것처럼, 그 교만의 왕인 옛 뱀이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심판받을 때에도 온 우주가 떨게 됩니다.

하늘들은 그분의 손이 만든 작품이고 그분께서 아름답고 적절하게 단장을 하셨습니다. 하늘에 별과 달이 아름답게 구성되어있죠. 마귀 역시 그분의 창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도주케 하시려고 홍해를 가르시며 파라오의 멸망으로부터 구출해내신 것처럼 그분은 하늘들의 물들을 가르시고 자신의 구속받은 자들을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옛 뱀은 멸망당하게 될 것입니다.

욕은 자신이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합니다. 그의 몸은 비록 고통당하고 있지만 그의 생각과 영은 깨끗합니다. 그는 마지막 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길들의 일부분일 뿐이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들은 것이 얼마나 적은지! 그분의 천동의 권능을 이해할 자가 과연 있겠는가?”(역주: 지금도 천동이 칠 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인간은 알아듣지 못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서는 알아들으셨다고 합니다. 그리

고 사울도 그분의 음성을 알아들었습니다. 휴거될 사람들의 명단을 부르시는데 천둥소리로 하신다면 천둥이 얼마나 치겠습니까? 이것은 예를 들어 본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의 길들에 대해 인간은 겨우 언저리에 있다고, 인간이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은 엉성한 스케치를 하는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길들에 대해서 거울을 통해 희미하게 보는 것 같다고 묘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질문한 것은 간단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자연의 일부인 바람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이것조차 인간이 답변하지 못한다면 믿는 자 안에서 새로운 출생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어찌 이해할 수 있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제17장

욥기27장

“욥이 계속해서 비유를 들다”

(욥 27:1-10) 1절에서 우리는 욥기가 비유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즉 더 깊은 이야기가 이 지구 상에서 벌어지는 일들과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성경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삽의 마스길) 오 내 백성이여, 내 법에 귀를 기울이고 내 입의 말들에 너희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비유로 내 입을 열어 옛적부터 있던 은밀한 말들을 말하리니 그것들은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말해 준 바라. 우리가 그것들을 그들의 자손들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주를 찬양함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다가올 세대에게 보이리로다. 그분께서 한 증언을 야곱 안에 굳게 세우시며 한 법을 이스라엘 안에 지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이 그것들을 그들

의 자손들에게 알리게 하셨으니 이것은 다가올 세대 곧 태어날 자손들이 그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이 일어나서 자기 자손들에게 그것들을 밝히 알리리니”(시 78:1-6).

욥은 자신이 알고 있는 것에서 한 발도 물러서지 않겠다고 합니다. 욥은 자신이 위선자가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 악하게 말한 적이 없음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도 않을 겁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죽인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는 그의 친구들이 했던 것처럼 악하게 말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옹호하고자 어떤 교리도 사악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친구들을 의롭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내린 결정에 대해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사악한 자들의 운명에 대해서는 욥의 세 친구들이 앞의 장들에서 많이 묘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위선자에 대한 비슷한 내용의 묘사를 직접 할 겁니다. 욥은 친구들이 한 발언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많은 부분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즉 ‘욥, 너는 사악한 자이다’ 라는 것은 거부하지만, 사악한 자가 맞을 운명에 대해서는 동의를 한다는 뜻입니다. 욥은 누구든지 자신을 대적하여 일어선다면 저주를 하겠노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위선자의 운명에 대해 단호히 선포하며 그의 혼이 제거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 27:11-23은 욥의 친구들이 한 이야기와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러다보니 어떤 이들은 혹시 소발이 세 번째로 마지막 발언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기도 합니다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으로 너희를 가르치고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숨기지 아니하리라. 보라, 너희가 다 그것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이렇게 전적으로 무익한 자가 되었느냐? 이것이 사악한 자가 하나님께 받을 몫이요, 학대하는 자들이 전능자에게서 받을 유산이니라. 그의 자손은 번성할지라도 칼에 쓰러지나니 그의 후손은 빵으로 배부르지 못하며 그의 남은 자들은 죽음 속에 묻히고 그의 과부들은 울지 못하리라.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아 올리고 옷을 진흙같이 예비할지라도 그가 예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죄 없는 자가 그 은을 나누리라. 그는 좀처럼 자기 집을 짓나니 그것은 파수꾼이 만드는 초막 같으니라. 부자는 누울지라도 거두어지지 아니하리니 그가 눈을 뜨매 더 이상 있지 아니하도다. 두려움이 물같이 그를 엄습하고 폭풍이 밤에 그를 앗아가며 동풍이 그를 끌어가므로 그가 떠나가되 폭풍이 그를 내던져서 그의 처소를 떠나게 하는 것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리니 그가 그분의 손에서 빠져나와 도망하고자 하리라. 사람들이 그를 향하여 손뼉을 치고 그를 비웃으며 그의 처소에서 그를 쫓아내리라.”

성경에는 분명히 욥이 한 발언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욥은 성령님의 영감 아래 말하는 중인데, 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악한 자들이 일반적으로 이러한 일을 당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적그리스도 역시 이와 같이 될 것임을 욥을 통해 예언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18장

욥기28장

“어디에서 지혜를 찾을 것인가”

이번 장은 욥의 고난과 혼돈이라는 상황에 비추어 해석되어야만 합니다. 비록 욥이 하늘에서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나눈 대화에 대해 알지 못하지만, 자신의 비참함을 허락하신 데에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심을 이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욥 23:10을 염두에 두고 다음 구절들을 읽어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분께서 아시나니 그분께서 나를 단련하신 뒤에는 내가 금같이 나오리라.”

욥 28:1-3 “참으로 은이 나는 광맥이 있고 금이 나는 곳이 있어 그들이 거기서 금을 정제하며 쇠는 땅에서 취하고 놋은 돌에서 취해 녹이느니라. 그가 어둠에게 끝을 정해 주며 전적으로 완전한 것을 찾아내나니 곧 어둠의 돌들과 사망의 그늘이라.” 은과 금은 땅에 있습니다. 이 귀중한 금속들은 금(1

절), 은(1절), 놋(2절), 그리고 쇠(2절)입니다. 이들은 다 땅에서 취하여 제련 과정을 거쳐 쓸모 있게 되고, 가치있게 만들어집니다.

이 제련 과정은 아주 ‘큰 용광로’에 의해 험하게 다루어지게 됩니다. 어떤 한 인간이 하나님께 굴복하면 그분께서 어둠에게 끝을 정해주신다고 했습니다(3절). 그리고 드디어 보석이 만들어져 나타납니다(4절).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과정 속에서 모든 완전함을 찾아내시는 분이십니다.

욥 28:4 “큰물이 그 거주자로부터 터져 나오나니 곧 사람의 발이 잊어버린 물들이라. 그 물들이 말라서 사람들로부터 떠나갔느니라.” 두 번에 걸친 홍수가 있었습니다. 아담 이전의 것과 노아의 날에 있었던 것이죠. 두 홍수 모두 하나님께서 제련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인간은 발이 축축해짐을 잊어버리기 전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찾아보고 이해하려고 애쓰고 두려워합니다. 아마 노아의 가족도 그 엄청난 홍수로 인한 파괴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 광경이 이같이 무서웠으므로…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히 12:21).

욥 28:5-6 “땅으로 말하건대 거기서 빵이 나오며 그것은 밑에서 불같이 솟구치는도다. 땅의 돌들은 사파이어가 나는 곳이며 땅에는 사금도 있고”

홍수가 이 땅을 제련했기 때문에 땅은 사람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도록 곡식이 자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체험한 땅은 이제 먹는 이들을 위해 빵을 생산해 냅니다. 그리고 지구의 깊은 곳에서는 사파이어라는 보석과 사금도 나옵니다. 따라서 이 모든 과정들은 모든 사람이 창조주와 교제할 수 있도록 제련하시는 하나님에 의해 설계된 것입니다.

욥 28:7-11 “또 어떤 날짐승도 알지 못하는 길이 있으니 곧 대머리수리의 눈도 보지 못한 길이라. 사자 새끼들이 그 길을 밟은 적이 없고 사나운 사자도 그 곁으로 지나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가 바위 위에 자기 손을 대고 산들

을 그 뿌리들로 뒤엎으며 바위 가운데서 강들을 깎아 내고 자기 눈으로 각종 귀한 것을 보며 큰물을 싸매어 넘치지 못하게 하고 숨겨진 것을 빛으로 가져 오는도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끌어내리는 길이 있습니다. 천사들은 이를 보면 깜짝 놀랍니다. 비록 천사들이 인간보다는 더 나은 지혜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길은 그들에게도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새들의 본능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분해낼 수 없고, 짐승들의 왕도 그것을 찾아낼 수 없습니다. 이 교훈은 오로지 인간들을 위해서만 예비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려면 인간의 발이 그 길을 찾아내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장소로 그를 데려다 주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단계가 바로 파괴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파괴해야 할 것은 ‘교만’입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권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자신의 명철로 교만한 자를 두루 치시느니라.”(욥 26:12) 바위들과 산들은 인간의 힘과 교만의 상징입니다. “그분께서 이르시되, 앞으로 나아가 주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니라. 보라, 주께서 지나가시는데 주 앞에서 크고 강한 바람이 산들을 가르고 바위들을 산산조각으로 부수었으나 주께서 바람 가운데에 계시지 아니하였으며 바람이 지나간 뒤에 지진이 있었으나...”(왕상 19:11) “주가 말하노라. 오 온 땅을 멸하는 멸망의 산아,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내가 내 손을 네 위로 내밀어 너를 바위들로부터 굴러 내리게 하고 너를 불탄 산이 되게 하리니”(렘 51:25) 일단 바위들이 부서지니 놀랍게도 생명수의 강들이 흘러나오지 않았습니까(출 17:6)? 하나님께서는 많은 물들을 가져가버리시고 결국 알려지지 않은 것들을 계시해주시킵니다. 하나님의 파괴하심은 인간으로 하여금 두려워 벌벌 떨게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지혜의 시작입니다. 즉, 지혜를 발견하려면 두려움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욥 28:12-19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찾을 것인가?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가? 사람이 그것의 값을 알지 못하며 산 자들의 땅에서 그것을 찾을 수 없다. 깊음이 이르되, 그것이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도 이르되, 그것이 내게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그것은 금으로도 얻지 못하며 은을 달아서도 그것의 값을 치르지 못하리로다. 오빌의 금이나 귀한 줄마노나 사파이어로도 그것의 값을 매기지 못하겠고 황금과 수정이라도 그것과 견주지 못하며 정금 보물로도 그것을 바꾸지 못하고 산호나 진주는 말할 필요도 없나니 지혜는 루비보다 더 값지도다. 에티오피아의 황옥이라도 그것과 견주지 못하며 순금으로도 그것의 값을 매기지 못하리로다.”

그렇다면 인간이 어떻게 지혜와 명철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지혜는 가르칠 수 없습니다.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선반에 놓여 있는 것도 아니고 교실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욥이 질문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 바다 깊은 곳에 들어가서 물어봅니다. “지혜가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 아느냐?” 대답합니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장소를 찾기 위해 비싸고 큰 보석들과 귀한 금을 잔뜩 실은 수레를 끌고 간다 할지라도 그 보석들이 우습게 될 것입니다. 지혜의 가격은 모든 부를 합친 것보다도 더 가치가 크기 때문입니다(18절).

욥 28:20-23 인간은 어디에 가야 지혜를 찾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숲 속에나 하늘에 있는 창조물들 역시 모릅니다. 지하 세계는 말합니다. “우리가 그것에 대해 들은 적이 있으나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는 모릅니다.” 이는 하나님만이 지혜가 있는 장소를 아신다는 뜻입니다(23절). 왜냐하면 그분이 바로 지혜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처음과 끝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렇

기 때문에 모든 그분의 행동과 일하는 방식은 마지막에 대한 그분의 견해와 모두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욥 28:27 “그때에 그분께서 그것을 보시고 밝히 드러내시며 예비하시고 참으로 살살이 살피셨으며”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든 모든 것을 보시니, 보라, 매우 좋았더라…”(창 1:31).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분의 눈은 그것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것을 정해놓으셨으며 마지막을 다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다 찾아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다 완성될 때에도 역시 ‘ 좋았더라.’ 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어디서 지혜를 찾아야 합니까? 지혜로 인도하는 길은 어디에 있다는 말입니까? 그 답변은 주님을 두려워함에 있습니다. 우리를 악으로부터 이끌어내지 못하는 두려움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도 아닙니다. 인간은 지혜를 찾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의 시작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거늘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잠 1:7)

제19장

욥기29장

“오, 내가 지나간 날들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욥)

이번 장에서는 욥이 소유하고 있던 재산과 지위를 잃어버려 탄식하고 있습니다. 30장에서는 자신이 현재 받고 있는 형편없는 대접과 존경 받지 못하는 것에 불평을 하는 반면 31장에서는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합니다.

욥은 계속해서 비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일전에 좋았던 날들을 갈망합니다. 그때는 매순간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존해주셨고 그의 걸음을 그분께서 인도해주신 것 같았습니다. “그 옛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지요. 나의 자녀들은 열매가 풍성한 포도나무 같았습니다. 나의 가축들이 얼마나 번식을 잘하고 생산적인지 내가 버터와 기름으로 목욕을 할 지경이었습니다.”

욥 29:7-11 “그때에는 내가 도시를 가로질러 성문으로 나가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젊은이들은 나를 보고 숨었으며 나이든 사람들은 일어나 섰고 통치자들은 말을 삼가며 손으로 자기 입을 가렸고 고귀한 자들은 잠잠하였으며 그들의 혀는 입천장에 붙었느니라. 귀가 내 말을 들을 때에 나를 축복하였고 눈이 나를 볼 때에 나를 향해 증언하였나니”

판사들이 우두머리의 자리에 앉아 재판을 합니다. 도시에 있는 시민들이 나이든 이의 지혜로운 말들을 듣기 위해 나아옵니다. 욥은 그중에서도 최고의 유지로 앉아 있었습니다. 욥이 길거리를 지나가면 젊은이들이 그를 존경하여 자리에서 일어섰고, 욥이 나타나면 나이든 자들도 다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욥이 입을 열어 말을 할 때면 통치자들도 입을 다물었고, 욥의 발언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시길 바란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욥이 나타나면 모두가 욥을 주목했습니다.

욥 29:12-17 “이는 부르짖는 가난한 자와 아버지 없는 자와 도와줄 사람이 없는 자를 내가 건져 주었기 때문이라. 망하게 될 자가 비는 복도 내게 임하였고 내가 과부의 마음을 움직여 기뻐 노래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의를 입매 그 의가 나를 옷처럼 감쌌나니 나의 재판은 의복과도 같고 왕관과도 같았느니라. 내가 눈먼 자에게 눈이 되고 다리 저는 자에게 발이 되었으며 가난한 자에게 아버지가 되고 내가 알지 못한 사정을 찾아 들어 주었으며 사악한 자의 턱을 부수고 노략한 물건을 그의 이 사이에서 빼내었느니라.”

이러한 존경은 욥의 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가난한 자들을 잘 대접했기 때문이었죠. 그는 과부와 고아를 돌보았고 소경에게는 눈이 되어 주었으며 다리를 저는 자에게는 다리가 되어주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욥에게 자신의 사정을 털어놓았고 욥은 그들의 형편을 돌보았습니다. 그래서 욥은 14절에서 자신의 태도를 이렇게 요약합니다. 욥 29:14 “내가

의를 입으매 그 의가 나를 웃처럼 감쌌나니 나의 재판은 의복과도 같고 왕관과도 같았느니라.”

욥 29:18-20 “그때에 내가 이르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죽겠고 내 날수를 모래처럼 많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내 뿌리는 물가에서 뿔어 나갔고 이슬이 내 가지 위에 밤새도록 내렸으며 내 영광은 내 속에서 생생하였고 내 활은 내 손에서 새롭게 되었도다.” 욥은 자신의 상황이 계속해서 유지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준비한 편안한 보금자리에서 살다가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날들은 충만할 것입니다. 시편 1편에 나오는 사람처럼 그는 생명수 강가에 자신의 나무가 심겨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열매는 시들지 않을 것이고, 그의 뿌리는 강했으며 하나님의 이슬이 그의 머리 위에 있었습니다. 더 이상 무엇을 원하겠습니까?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없앨 수 있겠는가? 욥은 이 행복이 결코 사라지지 않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욥 29:21-25 “사람들이 내게 귀를 기울이고 나를 기다렸으며 내가 권고할 때에 잠잠하였노라. 내 말이 끝난 뒤에는 그들이 또 다시 말하지 아니하였으니 내 말이 그들 위에 떨어졌느니라. 그들이 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리고 늦은 비를 맞이하듯 입을 크게 벌렸으며 내가 그들을 향해 웃을지라도 그들이 그것을 믿지 아니하고 내 얼굴빛을 무시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우두머리로 앉아서 군대 안의 왕같이 또 애곡하는 자들을 위로하는 자같이 거하였느니라.”

사람들은 욥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가 결론을 내릴 때면 그들은 고요한 중에 그의 충고를 들었습니다. 욥의 말에 비판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여름의 비처럼 항상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욥의 신실함을 결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욥이 그들을 속일 것이라는 생각은 결코 하지 않았

습니다. 욥은 정직했고 그가 말한 것을 그대로 행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욥에 대하여 내린 평가입니다. 그래서 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우두머리처럼 군대 가운데 왕처럼 앉아있었고, 그들의 길을 인도했고, 슬퍼하는 자들을 위로하기 위해 있었노라.” 그는 참으로 최고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 장은 사탄이 욥에게 불화살을 쏘기 전의 그 시절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욥이 받은 축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물론 욥은 사도 바울이 주님으로부터 받았던 조명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명예와 지위를 다 잃은 후의 사도 바울의 태도를 다음의 구절에서 보십시오. “나 역시 육체를 신뢰할 수도 있지만 그리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어떤 다른 사람이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자기에게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나는 여드레째 되는 날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의 줄기에 속한 자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요,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이요, 율법에 관하여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에 관한 한 교회를 핍박하였고 율법에 있는 의에 대하여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이득이던 것들을 곧 그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손실로 여겼으며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뛰어나기 때문이라.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의 손실을 입고 그것들을 단지 배설물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빌 3:4-8)

제20장

욥기30장

“나는 용들의 형제요,
올빼미의 동료로구나”(욥)

욥의 처지는 그리스도의 처지와 평행을 이룹니다. 욥은 예수님처럼 만물의 찌꺼기처럼 간주되었습니다. “사람의 아들이 와서 먹고 마시매 그들이 말하기를, 보라, 음식을 탐하는 자요, 포도즙을 많이 마시는 자요, 세리들과 죄인들의 친구로다, 하는도다...”(마 11:19) 우리 주님께서는 두 강도 사이에서 범죄자로 돌아가셨습니다. 인간의 미덕은 예수 그리스도를 공경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사악한 자에게 내려진 심판이 곧바른 자에게도 내려지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이와 같은 사실을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욥 30:1-10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조롱하는데 그들의

아버지들은 내가 경멸하여 내 양 떼를 지키는 개들과 함께 지내게 하였을 자들이니라. 그들에게는 오랜 연륜이 사라졌거늘 참으로 그들의 손의 힘이 내게 무슨 유익을 끼치리요? 그들은 궁핍과 기근으로 처량하게 되어 예전에 황폐하고 피폐한 광야로 도피하였으며 수풀 곁에서 당아욱을 잘라 내고 로렘나무 뿌리를 먹을 것으로 삼았느니라. (그들이 도둑을 쫓듯이 그들을 쫓으며 소리를 지르므로) 그들이 사람들 가운데서 쫓겨나 골짜기의 벼랑과 땅굴과 바위 속에서 거하며 수풀 사이에서 나귀처럼 울고 췌기풀 밑에 함께 모였느니라. 그들은 어리석은 자들의 자식들이요, 참으로 비천한 자들의 자식들로서 흠보다도 천한 자들이었노라. 그런데 이제 내가 그들의 노래가 되고 참으로 그들의 웃음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몹시 싫어하여 나를 떠나 멀리 도망하고 내 얼굴에 침 뱉기를 마다하지 아니하는도다.”

지난 장에서는 욥이 자기가 한때는 원로들에게서도 존경을 받는 자였다고 했는데 이제는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욥의 비참함의 깊이를 보여주기 위해 사탄이 공격하기 이전과 지금의 상황을 대조한 것입니다.

이제는 젊은이들이 지나가며 욥을 보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머리를 흔들며 그에게 욕을 합니다. 이 젊은이들은 쓰레기장에 있는 개들보다도 천한 자이며 그의 아버지들은 얼마나 타락했는지 욥이 그의 개와도 함께 앉도록 허락하지 않았던 자들입니다. 이들은 젊은 자들이었지만 사악함으로 일찍 죽을 것입니다. 저 남미에 있는 대도시들의 지저분한 하수구에 살고 있는 두더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로렘나무 뿌리를 음식으로 먹고 동굴 속의 동물처럼 행동하는 아주 천한 자들인데 이러한 자들에게마저 욥이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욥 30:8-10 “그들은 어리석은 자들의 자식들이요, 참으로 비천한 자들의 자식들로서 흠보다도 천한 자들이었노라. 그런데 이제 내가 그들의 노래가 되고 참으로 그들의 웃음거리가 되었으며 그들

이 나를 몹시 싫어하여 나를 떠나 멀리 도망하고 내 얼굴에 침 뱉기를 마다하지 아니하는도다.”

욥 30:11 “그분께서 나를 매신 줄을 푸셔서 나를 괴롭게 하시므로 그들도 내 앞에서 굴레를 풀었도다.” 욥의 육체인 ‘장막집’은 다 해체되고 있는 중입니다. 줄들이 느슨해지며 욥의 걸사람이 멸망 중에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말이 공공연히 알려졌는데 그런 음행은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거론되지 않는 것으로 곧 어떤 사람이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는 것이라. 그런데도 너희가 우쭐대며 오히려 슬퍼하지도 아니하고 이런 일 행한 자를 너희 가운데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마치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그렇게 행한 자에 관하여 이미 판단하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가 같이 모일 때에 내 영도 함께 있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고전 5:1-4)

욥이 나약한 처지에 놓여 있기 때문에 욥을 조롱하는 자들은 이제 거리낌 없이 마음껏 조롱합니다. 욥을 향한 조롱에는 무모할 정도로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그들은 욥을 원수처럼 대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내 앞에서 굴레를 풀었도다. 내 오른쪽에서 젊은이들이 일어나서 내 발을 밀어 제치며 나를 치려고 자기들의 멸망의 길들을 쌓아 올리고 그들이 내 길을 망치며 내 재앙을 재촉하거니와 그들에게는 돕는 자가 없도다. 물들이 넓게 밀려드는 것 같이 그들이 내 위에 임하며 황폐함 속에서 내 위로 굴러 왔도다. 두려움이 내게 엄습하며 그들이 내 혼을 바람같이 뒤쫓으니 내 번영은 구름같이 사라지는도다.”(욥 30:11-15)

욥 30:16-24 “이제 내 혼이 내 위에 쏟아졌나니 고난의 날들이 나를 사로잡았도다. 밤이 되면 내 뼈들이 내 속에서 쑤시고 내 근육이 쉬지 못하는도다. 내 병세가 중하여 내 옷이 변하였으며 그것이 내 옷깃처럼 나를 동여매는

도다. 그분께서 나를 수렁에 던지셨으므로 내가 먼지와 재같이 되었고도다.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며 내가 일어서나 주께서 내게 관심을 두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나를 잔인하게 대하시며 주의 강한 손으로 친히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주께서 나를 들어 바람에 얹으시고 그 위에 타게 하사 내 실체를 해체하시나이다. 내가 알거니와 주께서 나를 죽음으로 데려가시며 모든 산 자를 위하여 정하신 집으로 데려가시리이다. 그러나 비록 그들이 그분의 멸망 속에서 부르짖을지라도 그분께서 자신의 손을 내미사 무덤에 이르게 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구절들은 욥이 겪은 고통과 어둠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교리적으로 보자면 그리스도께서 겪으신 고난과 유대인들이 환난 때 겪을 고난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욥의 옷은 질병과 부패로 인해 다 더럽혀졌습니다. 깨끗한 옷깃처럼 그를 쉬지도 못하게 하고 불편한 것을 잊지도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처럼 욥 역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대적하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뭇가지에 바람을 불게 하여 날려 버리셨다고 고소합니다. 그는 바람에 끌려가다가 바닥에 내동댕이쳐졌습니다. 결국 무덤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가 아무리 울부짖어도 무덤에서는 구출이 없습니다.

욥은 그가 선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선한 것으로 받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내가 고난 중에 있는 자를 위하여 울지 아니하였던가? 내 혼이 가난한 자를 위하여 근심하지 아니하였던가? 내가 복을 바랄 때에 화가 내게 이르렀고 내가 빛을 기다릴 때에 어둠이 이르렀도다.”(욥 30:25-26) 욥은 선을 기대했는데 악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빛을 기다렸으나 어둠을 발견했습니다. ‘the bowels’ 라는 단어는 우리의 몸 속 전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역주:

욥 30:27에서는 ‘창자’로, 빌 1:8, 2:1절에서는 ‘인정’으로, 골 3:12에서는 ‘심정’으로, 몬 7,12,20절에서는 ‘속 중심’으로, 요일 3:17에서는 ‘마음’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는 원래 그릇이라는 의미로 내장, 즉 장기들을 의미합니다. 즉 신체에 대한 언급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분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단어이죠. 이 ‘속’이라는 것은 우리의 내적인 감정과 부드러운, 긍휼한 마음을 말하고 있고 동시에 심장과 간, 폐도 포함합니다.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은 이 ‘속’이라는 것은 인간의 감정이 자리 잡고 있으며 친절함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선을 베푸는 마음이 모두 담겨 있다고 믿었습니다.

욥의 날들은 빛이 없었습니다. 회중으로부터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욥은 회중과 하나가 되어 빛과 명철을 찾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동료들은 정결치 못한 새들과 용들이었습니다. “나는 해도 없이 애곡하면서 갔으며 회중 가운데서 일어서서 부르짖었느니라. 나는 용들의 형제요, 올빼미들의 벗이로다.”(욥 30:28-29) 의미는 분명합니다. 욥은 철저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 마귀들에게 내던져졌다고 느꼈습니다. 욥의 의미하는 바를 다음 구절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씩는 것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아버지라, 하며 그 벌레에게, 너는 내 어머니요 내 누이라, 하였거늘”(욥 17:14), “나는 광야의 펠리컨 같고 사막의 올빼미 같아오며”(시 102:6) 성경에 따르면 더러운 새들과 용들은 다 마귀를 예표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주들도 많고 마귀들도 많고’라는 구절들이 쏙 있습니다(레 17:7, 신 32:17, 역하 11:15, 시 106:37, 마 4:24, 7:22, 8:16,28,31, 9:34, 19:8, 계 9:20, 16:14). 그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 마귀들과 한통속이 된 신세라고 한탄합니다.

욥의 피부는 검게 되었으며 뼈는 타올랐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애곡하

고 울먹이는 목소리입니다. “내 살갗이 내 위에서 검게 되었으며 내 뼈는 열기로 타버렸도다. 또 내 하프는 애곡으로 변하였으며 내 오르간은 우는 자들의 소리로 변하였도다.”(욥 30:30-31)

제21장

욥기31장

“내가 내 눈과 언약을 맺었거늘”

욥은 30:25-26에서 다른 사람을 도움으로써 자신의 삶을 온전히 헌신했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상응하는 좋은 것이 올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우실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악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장에서는 자신이 행한 선한 일을 열거합니다. 지금 욥은 매우 혼란스러운 상태입니다. 그는 자신의 순전함과 의를 끝까지 고수합니다. 욥은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를 진실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의롭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친구들의 주장이 자신의 체험과 반대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이가 얼굴을 꺾듯이 들고 욥과 같이 주장할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욥은 거듭남에 대해서 아는 바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빛을 1/10정도 밖에는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우리를 부끄럽게 만듭니다. 얼마나 의로운 삶을 살았는지요.

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경했기 때문에 이렇게 반응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삶은 ‘캐릭터 빌딩’에 근거하여 살았던 삶이 아닙니다. ‘캐릭터 빌딩’이란 심리학에서 훈련을 통해 인간의 인격을 고결하게 만든다는 개념인데 욥의 삶은 이 개념에 근거한 삶이 아니라 ‘관계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변화되어 가는 과정인 것이죠. 기독교의 원칙들을 실행에 옮기는 것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성품을 개발하는 것이 영성은 아닙니다. 또한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과도 이를 동일시 할 수 없습니다. (역주: 요즘 중세에 개발된 애니어그램이라는 것이 유행하고 있는데, 성격을 아홉 가지로 구분해서 그 성품에 맞추어 인격을 개발하면 점점 모나지 않은 성격으로 변하여 조직체가 사랑으로 화합하여 하나가 될 수 있다는 프로그램입니다. 기업체에서 많이 시행되고 있는데, 이는 대인관계가 힘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수를 하면 좋은 성품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르지 않은 일들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비록 자신의 체험과 친구들의 교리가 서로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품이나 거짓신학을 옹호하기 위해 거짓말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욥은 신학이란 하나님께 길을 내어 드려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신학은 인간의 발명품일 뿐이고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해석이며 인지 정도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신학은 무오하지 않습니다. 욥은 바리새인들처럼 겉만 깨끗이 씻은 잔과 같은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욥은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는 사람이며 가정을 신실하게 지키는 가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눈이 마음을 가리도록 허락치 않습

니다.

홍수로 말미암아 온 땅이 파괴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들을 쳐다봤기 때문입니다(창 6:26). 다윗의 왕국이 무너진 것 역시 그가 뭔가를 보고 욕심을 내어 갖고자 했기 때문입니다(삼하 11:2). 예수님께서서는 마음의 간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을 실제로 행하지 않아도 눈으로 이미 시작했다고 하셨습니다(마 5:28-29). 솔로몬은 욕심은 결국 큰 상처라는 결과를 얻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잠 6:25-30). 욕의 눈은 자신을 만드신 분, 하나님께 헌신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내 눈과 언약을 맺었거늘 어찌하여 처녀를 생각하라? 위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뭍이 무엇이겠느냐? 높은 곳에서 내려오는 전능자의 상속 재산이 무엇이겠느냐? 사악한 자들에게는 멸망이 아니겠느냐?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색다른 형벌이 아니겠느냐? 그분께서 내 길들을 보시며 내 모든 걸음을 세지 아니하시느냐? 만일 내가 헛된 것과 함께 걸었거나 내 발이 빨리 속임수로 치달았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 나의 순전함을 아시기를 원하노라.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벗어났고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라갔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내가 심되 다른 사람이 먹으며 참으로 내 후손이 뿌리째 뽑히기를 원하노라.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속았거나 혹은 내가 내 이웃의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내 아내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맺돌을 갈고 다른 사람들이 그녀 위에 엎드리길 원하노라. 이것은 가증한 범죄요, 참으로 재판관들에게 처벌을 받아야 할 불법이며 또 멸망에 이르도록 소멸시키는 불이니 그것이 내 모든 소출을 뿌리째 뽑으리라.”(욥 31:1-12) 미국은 지금 욕욕과 음행, 간음에 다 내던져진 상태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하나님께 자신의 눈을 복종시키지 않으면,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욥은 항상 자신의 의에 기준하여 자신의 종들을 대했습니다. 욥은 종들

도 자신과 동등한 인간이며 종들의 불평 또한 정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바르게 행동하지 않았다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을 어떻게 뵈 수 있겠습니까? 욥의 종들 역시 그분의 작품입니다.

욥 31:13-15 “만일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 나와 다룰 때에 내가 그들의 사정을 멸시하였다면 하나님께서 일어나실 때에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분께서 돌아보실 때에 내가 무어라 대답하겠느냐? 나를 태 속에 만드신 분이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한 분이 우리를 태 속에 짓지 아니하셨느냐?”

욥은 하나님 앞에 사실들을 나열합니다. 욥은 궁핍한 자를 구제하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자신의 팔이 어깨에서 빠져도 좋다고 했습니다. 욥 31:16-23 “만일 내가 가난한 자들의 소원을 막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다면 또는 내가 내 빵 조각을 나 혼자만 먹고 아버지 없는 자에게 그것을 먹이지 않았다면 (내가 젊었을 때부터 그가 아버지와 함께하며 자란 것처럼 나와 함께하며 자랐으며 내가 내 어머니 태에서부터 그녀를 인도하였노라.) 만일 내가 어떤 사람이 웃이 없이 죽거나 가난한 사람이 덮을 것이 없이 죽는 것을 보았다면 만일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해 복을 빌지 아니하였다면 또 내가 내 양털로 그를 따뜻하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만일 나를 돕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내 손을 들어 아버지 없는 자를 대적하였다면 내 팔이 어깻죽지에서 떨어지고 내 팔이 뼈에서 떨어져 부러지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멸망이 내게 두려움이 되었으며 그분의 높으심으로 인하여 내가 견딜 수 없었느니라.”

여기에 나와 있는 ‘만약’이라는 표현에 주목해주시요. 욥은 ‘만약에 이랬더라면’이라는 도전적인 발언을 쭉 열거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즉 자신의 마음에 기록된 율법에 따라 자신이 살지 않았다면 그의 땅이 자신을 대적하고 부인하기를 원한다고 말이죠. 욥 31:24-40 “만일 내가 금을 내 소

망으로 삼았거나 정금에게 이끄기를, 너는 내가 확실히 믿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내 재산이 많으므로 또 내 손이 많은 것을 얻었으므로 내가 기뻐하였다면 만일 해가 빛을 내는 것이나 달이 밝게 가는 것을 내가 보고 내 마음이 은밀히 유혹을 받았거나 내 입이 내 손에 입을 맞추었다면 이것 역시 재판관에게 처벌을 받아야 할 불법이었나니 이는 내가 위에 계신 하나님을 부인했어야 했기 때문이라. 혹시 나를 미워한 자가 멸망당하는 것을 보고 내가 기뻐하거나 그가 화를 당한 때에 내 자신을 높였던가. 나는 그의 혼이 저주받기를 원함으로 내 입이 죄를 짓게 하지 아니하였노라. 혹시 내 장막의 사람들이 이끄기를, 오 우리가 그의 살을 먹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만족할 수 없노라, 하지 아니하였던가. 낮선 자가 거리에 머물지 아니하였고 내가 나그네에게 내 문을 열어 주었노라. 혹시 내가 내 불법을 내 품에 숨김으로 아담같이 내 범법들을 덮었던가. 내가 큰 무리를 두려워하거나 가족들의 멸시를 두려워하였으므로 잠잠하고 문 밖에 나가지 못하였더나? 오 누가 내 말을 들어 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보라, 내 소원은 전능자께서 내게 응답하시는 것이요, 내 대적이 이미 책을 썼으면 하고 바라는 것이라. 그러할진대 내가 반드시 그것을 어깨에 메고 관(冠)처럼 내게 묶어 두리라. 내가 그에게 내 발걸음의 수효를 밝히 보여 주고 통치자처럼 그에게 가까이 다가가리라. 만일 내 땅이 나를 대적하여 부르짖거나 그것의 밭고랑들이 마찬가지로 불평한다면 만일 내가 돈을 내지 않고 그것의 열매들을 먹었거나 그것의 소유주들이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밀 대신 엉겅퀴가 나고 보리 대신 잡초가 나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욥의 말들이 끝나니라.”

욕의 말이 끝나자 욥의 세 친구들은 이제 고소하는 일에 지쳤습니다. 욥도 더 이상 답변할 말이 없습니다. 사실 욥도 답을 모르고 있습니다. 자신이 왜 고난을 당하는지 아직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그는 자신의 의

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욥은 자신이 과거에 얼마나 선한 사람이었는지 빼고는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의 성품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지는 않았습다. 욥은 말한 그대로 살았었습니다. 욥은 그 땅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었고 욥에게서 어떤 잘못을 찾는다면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 말씀하신 것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욥의 말들이 어떻게 끝나는지 잘 관찰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그것들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마지막을 장식하시는지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자신의 의를 바라보는 욥의 관점과 바울의 관점의 차이를 잘 봐야 합니다. “나 역시 육체를 신뢰할 수도 있지만 그리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어떤 다른 사람이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자기에게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나는 여드레째 되는 날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의 줄기에 속한 자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요,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이요, 율법에 관하여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에 관한 한 교회를 핍박하였고 율법에 있는 의에 대하여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이득이던 것들을 곧 그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손실로 여겼으며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뛰어나기 때문이라.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의 손실을 입고 그것들을 단지 배설물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율법에서 난 내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난 의를 소유한 채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이것은 내가 그분의 죽으심과 일치하게 되어 그분과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자 함이요, 어찌하든지 내가 죽은 자들의 부활에 도달하려 함이라. 나는 내가 이미 도달한 것처럼 말하지 아니하며 이미 완전한 것처럼 말하지도 아니하고 다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아 이루시고자 하신 그것을 붙잡으려고 뒤따라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내가 이미 붙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다만 이 한 가지 일을 행하나니 곧 뒤에 있는 그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그것들에 도달하려고 나아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꾀대를 향해 밀고 나아가노라.”(빌 3:4-14) 이것을 다시 한 번 잘 읽어보시고 욕과 바울을 비교해보십시오.

제22장

욥기32장

“위대한 자라고 해서 항상 지혜롭지는 않다”

32장은 욥기의 새로운 부분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욥기의 첫 부분인 1-2장은 하나님과 사탄이 등장했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욥을 보호해주시고 보상을 해줌으로써 욥의 헌신을 돈 주고 산 것이다’는 사탄의 비난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분명 일리가 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에서도 80~90%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부인하시고 욥의 의를 입증하시고자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사건이 벌어 집니다.

두 번째 욥 3:31에서는 네 명의 인물이 등장하는데 욥과 엘리바스, 빌닷과 소발입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둔다는 주장을 펼칩니다. 어떤 사람이 거둔 것을 보면 무엇을 심었는지 다 알 수 있는데, 욥은

지금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고 있으므로 그는 큰 죄인이고 위선자라는 것이 그들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욥에게 자신들이 주장하는 옹보 신학의 교리를 받아들이도록 설득하고 하나님의 호의와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를 회복시켜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세 번째 부분은 5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스 사람 엘리후, 즉 이 책의 저자의 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엘리후는 욥기의 저자인데, 이것은 욥 32:15-22에서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나를 태 속에 만드신 분이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한 분이 우리를 태 속에 짓지 아니하셨느냐? 만일 내가 가난한 자들의 소원을 막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다면 또는 내가 내 빵 조각을 나 혼자만 먹고 아버지 없는 자에게 그것을 먹이지 않았다면 (내가 젊었을 때부터 그가 아버지와 함께하며 자란 것처럼 나와 함께 하며 자랐으며 내가 내 어머니 태에서부터 그녀를 인도하였노라.) 만일 내가 어떤 사람이 웃이 없이 죽거나 가난한 사람이 덮을 것이 없이 죽는 것을 보았다면 만일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해 복을 빌지 아니하였다면 또 내가 내 양털로 그를 따뜻하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만일 나를 돕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내 손을 들어 아버지 없는 자를 대적하였다면 내 팔이 어깻죽지에서 떨어지고 내 팔이 뼈에서 떨어져 부러지기를 원하노라.”(욥 31:15-22)

엘리후는 1인칭 단수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욥의 세 친구들을 ‘그들’이라고 표현하며 그들에게 해야 할 말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할 때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으므로 엘리후는 명백히 욥기의 저자가 되는 것이죠.

욥 32:1 “욥이 자신의 눈에 의로웠으므로 이에 이 세 사람이 그에게 응답하기를 그치니라.” 엘리후는 욥의 세 친구가 욥에게 말하는 것을 포기했기 때문에 발언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친구 세 명은 욥이 스스로를 의롭다고

하니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욥은 그 자신의 눈에 의로워 보였으나 위선적인 의미에서의 의로움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의로운 사람이 맞습니다. 욥은 그가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자신에게 진노할 만한 일을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욥 32:2-3 “그때에 람의 친족 중에서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의 진노가 타올랐는데 욥을 향하여 그의 진노가 타오른 것은 그가 하나님보다 도리어 자기를 의롭다 하였기 때문이요, 또 그의 세 친구를 향하여 그의 진노가 타오른 것은 그들이 대답을 찾지도 못한 채 욥을 정죄하였기 때문이라.” 엘리후는 욥과 세 친구들이 욥의 문제를 두고 논쟁하는 것을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어쨌면 그는 세 친구들과 함께 왔을 수도 있고, 그들이 오기 전부터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으니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다른 이들이 욥의 불행을 봤다는 것입니다. 욥은 앞선 장에서 이들의 반응을 쫓 묘사했습니다. 우리는 엘리후라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형제인 나홀의 후손이라는 것을 창 22:20-21에서 보게 됩니다. “이 일들 뒤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보라, 밀가도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아이들을 낳았다, 하니라. 그의 말아들은 후스요, 그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엘리후의 아버지가 부스입니다.

엘리후는 세 명이 논쟁을 끝낼 때까지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나이든 자에 대한 존경심을 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엘리후는 그들이 자기보다 나이가 많으므로 욥이 말할 때까지 기다리다가 이 세 사람의 입에서 응답이 없음을 보고 그때에 그의 진노가 타오르니라.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응답하여 이르되, 나는 젊고 당신들은 매우 늙었으므로 내가 두려워서

내 의견을 감히 당신들에게 보이지 못하였노라. 내가 이르기를, 날수가 말할 것이요, 많은 연수가 지혜를 가르치리라, 하였노라.”(욥 32:4-7)

이제 32장의 나머지 부분은 엘리후가 왜 입을 열어 말해야 했는지 그 이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인간과 짐승 사이에 차이를 두셨음을 믿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명철의 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영감을 통해서 의사소통을 하십니다. 이것은 고전 2:7-16에서 바울도 이에 대해 논의한 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주셨기 때문에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 안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영감이 그들에게 명철을 주나니”(욥 32:8) 하나님께서 엘리후 자신에게도 영을 주셨으니 영감을 받아 말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엘리후가 입을 열게 된 또 다른 이유는 위대한 사람이라고 해도 항상 옳지는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욥 32:9 “위대한 자들이라고 늘 지혜롭지 아니며 나이 든 자들이라고 판단의 공의를 깨닫지 아니하느니라.” 아담 역시 위대한 자였지만 선악과를 훔쳤습니다. 노아도 위대한 사람이었는데 술에 취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다윗은 몰래 숨어서 밧세바를 훔쳐보았습니다. 룻도, 기드온도, 삼손도 모두 위대한 이들이었으나 다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냐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게 되면 다 지혜를 잃어버릴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욥 32:11-14 “보라, 나는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노니 당신들이 할 말을 찾았을 때에 내가 당신들의 변론에 귀를 기울였노라. 참으로 내가 당신들에게 주목하였으나, 보라, 당신들 중의 아무도 욥을 설득하거나 그의 말에 대답하지 못하였도다. 당신들은 삼가 이르기를, 우리가 우리의 지혜를 발견하였는데 그를 몰아내는 이는 하나님이지요,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라. 이제 그가

자기의 말을 내게로 향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당신들의 말로 그에게 응답하지 아니하리라.”

엘리후는 존경심을 가지고 그들의 말을 경청했지만 이제는 그들이 엘리후의 말을 들을 차례가 되었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그들의 말로 욥의 생각을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그들의 방식으로 말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조금씩은 그도 욥에게 책망하는 모습이 세 친구들과 비슷할 때가 있습니다.

욥 32:15-22 “그들이 놀라서 더 이상 응답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그만두었도다. (그들이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서서 더 이상 답변하지 아니하므로) 내가 기다리다가 이르되, 나도 내 몫의 말로 대답하고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하였나니 내게는 말할 내용이 가득하며 내 안에 있는 영이 나를 강권하는도다. 보라, 내 배는 구멍 없는 포도즙 통 같으며 새 부대 같이 터지려 하는도다.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터인즉 내 입술을 열어 응답하리라. 청하건대 내가 어떤 사람의 외모를 용납하지 말게 하며 사람에게 아첨하는 호칭을 붙이지 말게 할지니 나는 아첨하는 호칭 붙이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리하면 나를 만드신 분께서 나를 속히 데려가시리로다.”

그는 그가 할 수 있을 때까지 말을 하지 않고 붙들고 있었습니다. 이제 말을 해야만 합니다. 엘리후의 마음이 거의 폭발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는 욥이나 누구에게도 아첨할 생각이 없습니다. 오직 그는 진리만을 말하기를 원하며 자신의 답변으로 하나님을 공경하기를 원했습니다. 엘리후가 한 말이 전부 다 완전하지는 않더라도 엘리후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맞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자신이 와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에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내가 그대의 소원대로 하나님을 대신하노니 나 역시 진흙에서 빚어졌느니라.”(욥 33:6) 욥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중

재자가 있기를 원하므로 자신이 대신 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욥에게 엘리후의 발언은 욥기서의 제2부와 마지막 부를 연결하는 완벽한 다리 역할을 합니다. (역주: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갑자기 나타나서 답변을 하시면 욥이 기절하거나 즉사할까봐 우선 엘리후를 보내셔서 욥에게 준비를 시키신 겁니다. 엘리후의 이야기를 듣고 뭔가 마음에 찔림이 오면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일대일로 대면하려는 배려인 것 같습니다.)

제23장

욥기33장

“보라,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왔다”

욥 33:1-7 “그러므로 욥이여, 원하건대 내가 말하는 것을 듣고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라. 보라, 이제 내가 내 입을 열었고 내 혀가 내 입에서 말을 하였도다. 내 마음의 울바름 속에서 내 말들이 나오며 내 입술은 지식을 분명하게 말하리로다. 하나님의 영께서 나를 만드셨고 전능자의 숨이 내게 생명을 주었느니라. 만일 그대가 내게 대답할 수 있거든 내 앞에서 그대의 말을 질서 있게 제시하고 일어서라. 보라, 내가 그대의 소원대로 하나님을 대신하노니 나 역시 진흙에서 빚어졌느니라. 보라, 나의 두려움이 그대를 무섭게 하지 아니하겠고 나의 손도 그대를 무겁게 누르지 아니하리라.”

엘리후는 욥에게 자신의 말들을 들어 달라고 합니다. 그도 욥처럼 진흙으로 지어진 인간입니다. 그의 말을 두려워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

나 하나님의 말씀은 두려워해야 합니다. 둘 다 하나님으로부터 숨을 받았 습니다.

욥 33:8-13 “그대는 분명히 내가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그대의 말소리를 들었나니 이르기를, 나는 범법이 없이 깨끗하며 무죄하고 내 안에는 불법도 없거늘 보라, 그분께서 나를 대적할 기회들을 찾으시며 나를 자신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차꼬에 채우시고 내 모든 행로를 주목하신다, 하였느니라. 보라, 그대가 옳지 못한 점이 이것이니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시거늘 어찌하여 그대가 그분과 다투느냐? 그분께서는 자신의 일들 중의 어떤 것도 해명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욥은 하나님의 진노에 이유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분께서는 폭풍으로 나를 꺾으시고 까닭 없이 내 상처를 늘리시며”(욥 9:17), “주께서는 내가 사악하지 아니한 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건져 낼 자가 아무도 없나이다.”(욥 10:7) 욥의 답변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때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 하나님께서 이유도 없이 자신의 상처를 늘린다고 말합니다. 차라리 이유가 있을 텐데 잘 모르겠다고 답변했다라면 좋았을 텐데요. 하나님의 진노에는 이유가 있었지만 그것이 욥이 저지른 사악함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이유는 욥의 의로움이 자기 의였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걸레처럼 여기시는 자기 의를 제거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훌륭한 사람일수록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역설이 아닐 수 없죠. 바리새인보다는 세리나 창녀들이 먼저 하늘의 왕국에 들어간다는 역설이 바로 여기에서 나옵니다.

욥 33:14-17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참으로 두 번 말씀하시되 사람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사람들이 깊은 잠에 빠져 꿈을 꾸거나 밤의 환상 가운데 있거나 잠자리에서 선잠을 잘 때에 그분께서 사람들의 귀를 여시고

그들을 위한 교훈을 봉하시나니 이것은 그분께서 사람을 그의 계획에서 물려 나게 하려 하심이며 또 사람에게서 교만을 치워 숨기려 하심이라.” 엘리후는 하나님께서 왜 그리고 어떻게 인간에게 말씀하시는지 묘사합니다. 계시는 하늘로부터 인간에게 옵니다. 계시란 인간이 하나님을 꾸준히 추구한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시면 인간은 결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인간이 깊은 잠에 빠졌을 때 꿈에서나 환상에서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잠들면 무기력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노력이 제거되지요. 그래서 그 언약도 아브라함이 잠들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역주: 사실 이 내용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인데요. 여러모로 서양 철학하면 소크라테스를 최고로 쳐줍니다. 우리가 4대 성인이라고 하면 부처,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를 꼽습니다. 그런데 소크라테스와 임마누엘 칸트 등은 인간 안에 진리가 있고 선한 것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루소도 성선설을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있는 것을 바깥으로 꺼내려면 철학자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소크라테스 같은 철학자와 대화를 하다보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선과 진리가 바깥으로 나올 수 있다, 그것이 철학자가 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산파가 아이의 출산을 돕듯이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인간 안에는, 육체 안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려고 했던 것은 귀가 들은 적이 없고, 눈이 본 적이 없으며 사람의 마음속에 있던 적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밖에서 제공하지 않으면 진리도 선도 아무것도 없다는, 세상 논리와는 정반대되는 접근법입니다. 인간적 방법과 성경적 방법의 차이가 여기서 나타납니다. 이처럼 아예 상종을 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가톨릭 교회는 인간적인 아리스토텔레스의 방법론과 철학을 섞어서 신학을 완전히 엉망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창 15:12-15 “해가 질 때에 아브람에게 깊은 잠이 임하였고, 보라, 큰 어둠의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라. 그분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확실히 알라. 즉 네 씨가 자기들의 소유가 아닌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이 사백 년 동안 그들을 괴롭히리라. 또한 그들이 섬길 그 민족을 내가 심판하리니 그 뒤에 그들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리라. 너는 평안히 네 조상들에게로 가겠고 또 충분히 나이 들어 묻힐 터이니”

히브리서 1:1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다양한 시기에,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때로는 환상으로, 꿈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때로는 현현으로 나타나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이것은 신성이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난 경우입니다. 롯이나 아브라함의 경우 세 명의 천사가 왔는데 그 중의 한 명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홍수 이전에 황도십이궁도를 통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악장에게 준 다윗의 시)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고 궁창이 그분의 손으로 행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낮은 낮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보이니 그것들의 음성이 들리지 않은 말이나 언어가 없도다. 그것들의 줄이 온 땅에 두루 나갔고 그것들의 말들이 세상 끝까지 이르렀도다. 그분께서 해를 위하여 하늘들 안에 장막을 세우셨으므로 해는 자기 침소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경주하려는 힘센 자 같이 기뻐하는도다. 해가 하늘 끝에서부터 나아가며 그것의 순환 회로는 하늘 끝들에게까지 이르나니 해의 열기에서 숨을 것이 없도다.”(시 19:1-6).

비록 오늘날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말씀하실지라도, 최종권위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영들과 모든 결정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판단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어떤 행실이나, 기록된 성경의 올바른 구분에 반대되는 가르침은 거부해야만 합니

다.

엘리후는 세 명의 친구와 비슷하게 시작합니다. 그는 이 구절들에서 욥을 공격하지는 않습니다. 그는 인간이 칼에 상해당하지 않고 구덩이에 던져지지 않은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질병으로 징계하실 수도 있고 죽음의 문턱에까지 데리고 가실 수도 있습니다. 아픈 이에게 어떤 사자가 눈에 보이면, 하나님께서 왜 그와 같은 방식으로 일하시는지 그 사자가 그에게 이야기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당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그의 질병을 중단하시고 건강을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었으니까요.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나니”(욥 33:34) 그 대속물이 바로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엘리후는 하나님께서는 공홀이 많으시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신다고 합니다. 다음이 바로 그 위대한 예가 될 것입니다.

욥 33:18-33 “그분께서는 그의 혼이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게 하시며 그의 생명이 칼로 멸망되지 아니하게 하시느니라. 그는 또한 자기 침상에서 아픔으로 징계를 받으며 심한 아픔으로 그의 많은 뼈가 징계를 만나니 이로써 그의 생명은 빵을, 그의 혼은 맛있는 음식을 몹시 싫어하며 그의 살은 소멸되어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던 그의 뼈들이 드러나서 참으로 그의 혼은 무덤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들에게 가까이 이르느니라. 만일 천명 가운데 하나 곧 해석하는 자요 그와 함께하는 사자(使者)가 있어서 사람에게 그의 곧바른 길을 보일진대 그때에 그분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며 이르시되, 그를 건져 내어 구덩이로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나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보다 생기가 넘치며 그가 자기의 젊은 시절로 돌아가리라.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리니 그분께서 그에게 호의를 베푸실 것이요,

그가 기뻐하며 그분의 얼굴을 보리니 그분께서 사람에게 자신의 의를 베푸시리라. 그분께서 사람들을 살피시거늘 만일 누가 이르되, 내가 죄를 짓고 옳은 것을 굽게 하였는데 그것이 내게 유익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면 그분께서 그의 혼을 건져 내사 구덩이로 내려가지 않게 하시리니 그의 생명이 빛을 보리라. 보라, 하나님께서 때때로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것은 그의 혼을 구덩이에서 끌어내시고 살아 있는 자의 빛으로 빛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오 욕이여, 잘 주목하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만일 네가 할 말이 있거든 내게 응답하여 말하라. 나는 그대를 의롭게 하기를 원하느니라. 만일 없거든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잠잠하라. 내가 그대에게 지혜를 가르치리라, 하니라.”

나아만이라고 하는 나병환자의 이야기가 바로 위에 있는 구절들을 우리에게 조명해줍니다.

“이에 그가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르단 속에 일곱 번 몸을 담그니 그의 살이 다시 나와 어린아이의 살같이 되고 그가 정결하게 되었다.”(열하 5:14)

제24장

욥기34장

“욥이 자신이 의롭다 하다”

욥 34:1-4 “또 엘리후가 응답하여 이르되, 오 지혜로운 자들이여, 당신들은 내 말들을 들으라. 지식 있는 자들이여, 당신들은 내게 귀를 기울이라. 입이 음식을 맛보는 것 같이 귀가 말들을 시험하나니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판단의 공의를 택하고 무엇이 선한지 우리끼리 알아보자.”

엘리후는 지혜 자들에게 자신의 말을 들어보라고 요청합니다. 틀림없이 세 친구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겠지요. 어떤 것이 옳바르며 선한 것인지 알아보라고 요청합니다.

욥 34:5-9 “욥이 이르기를, 내가 의롭거늘 하나님께서 나의 공정함을 빼앗아 가셨도다. 내가 나의 바른 행위를 거슬러 거짓말을 하랴? 범법하지 아니 하였어도 내 상처가 못 고칠 상처가 되었노라, 하였나니 어떤 사람이 욥과 같

으리요? 그가 물 마시듯 비웃는 것을 마시며 가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과 한 패가 되어 사악한 자들과 함께 다니나니 그가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것이 그에게 아무 유익을 주지 아니한다, 하였도다.”

엘리후는 자신이 보기에 욥이 말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인용하는데 욥 10:7에 보니 “주여 내가 사악하지 않음을 당신은 아시나이다.”라고 욥이 고백을 했습니다. 욥은 자신이 의롭다고 선언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 의가 아무런 쓸모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일이 한 가지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분께서 완전한 자와 사악한 자를 멸하신다, 하였도다. 채찍이 갑자기 사람을 죽인다 해도 그분께서는 죄 없는 자의 시련을 비웃으시리라. 그분께서 땅을 사악한 자들의 손에 넘겨주셨으며 땅의 재판관들의 얼굴을 가리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그분이 어디에 있으며 또 누구이겠느냐?”(욥 9:22-24) 욥은 자신의 고통으로 인해 아주 냉소적으로 변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이것이야말로 결정적으로 욥의 잘못이라고 간주합니다.

엘리후는 욥이 사악한 자들과 함께 동행 하면서 견고 있다고 비난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특권층이 아닌 사람들을 욥이 옹호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욥이 사악한 자와 함께 죄악에 동참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욥 34:10-12 “그러므로 명철한 자들이여, 당신들은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은 결코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법을 행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분께서는 사람의 행위대로 그에게 갚으시고 각 사람이 자기의 길들에 따라 얻게 하시느니라. 또한 참으로 하나님은 악하게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심판을 굽게 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엘리후는 욥이 하나님을 사악하다고 비난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욥이 겪었던 딜레마는 왜 자신이 그토록 심하게 심

판을 받아야 하는지 이유를 모르고 있다는 것뿐이었습니다. 욥은 자신이 의롭고 친구들의 주장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욥은 자신의 의로운 삶과 세 친구들이 주장하는 그것과 비교해 볼 때 정말 갈등을 느끼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한 하나님이 되시려면 지위에 걸맞게 행동하셔야 합니다. 물론 인간의 신념으로 하나님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사악한 분이라 고소한 적이 없습니다. 욥은 그저 낙담하고 혼란스러울 뿐입니다. 욥은 자신의 믿음과 체험을 조화 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욥의 문제입니다.

욥 34:13-28 “누가 그분께 땅을 맡겼느냐? 또는 누가 온 세상을 배분하였느냐? 그분께서 만일 자신의 마음을 사람 위에 두시고 그의 영과 그의 숨을 자신에게로 거두신다면 모든 육체가 함께 멸망하며 사람은 다시 흙으로 돌아가리라. 그대가 만일 지금 명철이 있거든 이것을 듣고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의를 미워하시는 분이 다스리시겠느냐? 지극히 의로우신 분을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왕에게, 당신은 사악하다, 하는 것이 합당하냐? 또 통치자들에게, 당신들은 경건치 아니하다, 하는 것이 합당하냐? 하물며 통치자들의 외모를 용납하지 아니하시며 부자를 가난한 자보다 더 중히 여기지 아니하시는 그분께 그리 말할 수 있겠느냐? 그들은 다 그분의 손에 의해 지어진 자들이니라. 그들은 순식간에 죽으리니 백성은 한밤중에 괴로워하다가 사라지며 강력한 자들도 손을 대지 않고 제거되리로다. 그분께서 자신의 눈을 사람의 길들 위에 두시고 그가 가는 모든 길을 보시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숨을 만한 어둠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그분께서는 정당한 것 이상의 어떤 것도 사람에게 두지 아니하사 그가 하나님과 함께 심판 자리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며 용사들을 수도 없이 산산조각 내시고 그들 대신 다른 자들을 세우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그들의 행위들을 아시고 그들을 밤사이에 뒤

집어엿으사 멸망하게 하시는도다. 그분께서 그들을 사악한 자들로 여기서 다른 사람들이 환히 보는 데서 치시나니 이는 그들이 그분에게서 돌이켜 물러가고 그분의 길들을 하나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이처럼 그들이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분께 이르게 하므로 그분께서 고난 받는 자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느니라.”

이 구절들에서는 엘리후가 하나님의 주권을 다루고 있습니다. 엘리후가 묻습니다. ‘누가 땅을 하나님께 맡겼는가?’ 아무도 맡긴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고 땅 위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인간에게 숨을 주셨는데, 여러분이나 민족의 숨을 끊겠다 결심하신다 해도 그 누가 그분을 멈추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의를 미워하는 자가 빠르게 통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의롭지 아니하시다면 어떻게 자신의 우주를 다스리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지상에 있는 왕도 불의하다 비난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은데 온 우주의 왕을 비난하는 것은 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엘리후는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어느 한쪽의 편을 들지 않으심을 지적함으로써 하나님의 성품을 옹호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욥 34:19-30은 우리가 본 것처럼 적그리스도와 환난에 대한 강력한 예언적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욥 34:31-32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뢰이 참으로 합당한 일이니 곧, 내가 징계를 받았사온즉 다시는 죄를 짓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주께서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불법을 행하였을지라도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는 것이라.”

엘리후는 욥에게 죄를 지었으니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고백하라고 경고합니다. 모든 이 세상의 사물들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대로 진행이

됩니다. 인간이 어찌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일지도 모르지만 그것이 진실이라 해도, 욥은 알고자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고 비난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욥 34:34-37 “명철한 자들은 내게 말하고 지혜로운 자는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니라. 욥이 지식 없이 말하였으니 그의 말들은 지혜가 없도다.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대답들이 사악한 자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라. 그가 자기 죄에 반역을 더하며 우리 가운데서 손뼉을 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많이 하는도다, 하니라.”

욥은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있었던 대화에 대한 지식이 없는 상태로 말을 했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고통에 관해서는 지혜 없이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36-37절 말씀은 얼핏 보는 것보다 상당한 의미가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날 현대의 믿는 자들은 욥의 세 친구들과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이미 타오르는 불에 기름을 끼얹는 사람들이지요. 또 다른 극단적인 경우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 채찍을 들고 계시는 것에 간섭하는 자들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어리석은 감상주의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매를 때리시니 불쌍하다고 위로합니다. 잘못된 아이를 옹호하는 맹목적인 사랑을 가진 어머니처럼, 성령께서 그들의 삶에 역사하고 있는데 또는 우리가 달려가서 그들을 구해버립니다.

엘리후는 하나님께서 지금 욥의 삶에 역사하고 계시며 욥의 자기 의를 고쳐주려 하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욥이 지금은 그 하나님의 뜻에 항복하면 그분의 뜻하심을 이룰 수 있는데, 욥이 올바르게 반응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곧 그리할 것입니다.

제25장

욥기35장

“밤에 노래를 주시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 (엘리후)

욥 35:1-3 “엘리후가 말을 더 하며 이르되, 그대가 말하기를, 내 의가 하나님의 의보다 더 많다, 하였으니 그대는 이것을 옳은 것으로 생각하느냐? 그대가 말하기를, 내가 내 죄로부터 깨끗하게 씻긴들 그것이 네게 무슨 이득이 되겠느냐? 또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하였도다.”

엘리후는 욥의 오류를 지적합니다. 이 오류는 앞선 장에서 계속 언급되어 왔던 것입니다(욥9:17, 10:7, 16:17, 19:6-7, 27:2).

욥 35:4-8 “내가 그대와 및 그대와 함께 있는 그대의 동료들에게 대답하리라. 하늘들을 바라보고 살펴보라. 그대보다 더 높은 구름들을 바라보라. 그대가 죄를 지은들 그분을 대적하여 무슨 일을 하겠느냐? 혹은 그대의 범법이

많다 한들 그대가 그분께 무슨 일을 하겠느냐? 그대가 의로운들 그분께 무엇을 드리겠느냐? 혹은 그분께서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사악함은 그대 같은 사람이나 해칠 것이요, 그대의 의는 사람의 아들이나 유익하게 하리라.”

엘리후가 내린 해결책은 이것입니다. “하늘들이 얼마나 높은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지 곰곰이 생각해보고 나서 당신이 죄인이든지 의로운 것이 그분께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즉, 욥이 악을 행한다 해도 사람에게나 해를 끼치고 선을 행해도 사람에게나 유익을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의 선이나 악에 영향을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주권적 권능만을 이슈로 삼는다면 그 답은 더욱더 명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예와 이름은 사람들의 행동에 따라 손상될 수 있습니다. 롬 2:24을 보면 유대인들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 앞에서 모독을 받는다 했고, 창 6:6에서는 인간의 행동 때문에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고 했습니다. 삼상 15:35에서는 사울이 왕이 되게 하신 것을 후회하셨다고 했습니다. 인간의 행동으로 하나님께서 영향을 받는 일이 드물지만 있다는 것이죠. 주권자로서의 하나님은 영향을 받지 않으시지만 인간과 관계를 맺는 하나님께서는 영향을 받습니다. 위의 구절들은 인간의 행동으로 하나님께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여주는 몇 안 되는 구절입니다. 엘리후는 하나님께서 크고 전능하신 분이기에 때문에 인간의 사소한 일에는 간섭하지 않으시며 영향을 전혀 받지 않으신다고 생각했지만 그 말이 맞는 부분도 있고 맞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는 여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영향을 받는 것도 있으니까요. (역주: 고린도후서에 보면 우리가 사는 삶이 우리 자신에게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향해서 살기 때문에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슬

퍼하시기도 하고 기뻐하시기도 합니다.)

욥 35:9 “그들이 많은 학대로 인해 학대받는 자들을 부르짖게 만드나니 그들이 강력한 자의 팔로 인해 울부짖느니라.” 엘리후는 지금 일반적인 사람들이 저지르는 오류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어려움에 빠지면 구해달라고 외치거나 자신을 억압하는 자를 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욥의 불평처럼 표적을 제대로 맞춘 게 아닙니다.

해답은 욥 35:10-13에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나를 만드신 분 하나님 곧 밤에 노래들을 주시고 땅의 짐승들보다 우리를 더 많이 가르치시며 하늘의 날짐승들보다 우리를 더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악한 자들의 교만으로 인하여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아무도 응답하지 아니하나니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그것을 중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로다.”

엘리후는 겸손함 가운데 진정으로 회개하고, 교만과 허황된 마음을 버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억압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사람들의 울부짖음 점점 더 심각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이 없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교만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의 기도생활을 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 그것이 때로는 교만함의 근원이 되고 또 그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올무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얼마나 가증스러울까요. 두렵건대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가 그렇지 않을까요?

욥 35:14 “비록 그대가 그분을 뵈지 아니하리라고 말할지라도 심판이 그분 앞에 있나니 그런즉 그대는 그분을 신뢰할지니라.” 엘리후가 다시 한 번 욥의 오류를 지적합니다. 욥이 ‘이 지상에도, 하늘에도 자신의 말을 들어주는 이가 없다, 자신에게 올바른 심판을 해 주는 이가 없다.’ 고 불평한 것에 대해 엘리후가 답변합니다. 욥 35:15-16 “그러나 이제 그렇지 못하므로 그분께

서 친히 분노하사 벌을 주셨느니라. 그럼에도 그는 극심한 곤경 속에서도 그것을 알지 못하니 그러므로 욕이 헛되이 자기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도다, 하니라.”

의로운 심판이 당장 집행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심판이 오지 않을 것임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긍휼을, 때로는 심판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욕은 잘못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26장

욥기36장

“밤을 열망하지 말라”(엘리후)

욥 36:1-4 “엘리후가 또 계속해서 말하되, 조금만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을 그대에게 보이겠노라. 내가 먼 데서 내 지식을 가져오고 나를 만드신 분에게 의를 돌리리라. 진실로 내 말들은 거짓되지 아니하리니 지식이 완전하신 이가 그대와 함께 계시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실질적인 모습으로 다가오시기 전에는 그저 머릿속에서 추상적인 모습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실체화되지 않으면 그저 무기력한 생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계신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람이셨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그분이야말로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분을 계시하지 않는다면 우리

는 하나님에 대해 결코 알 수 없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넘겨주셨사오니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아들을 알지 못하고 아들과 또 아들이 아버지를 드러낼 자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를 알지 못하나이다.”(마 11:27)

이 장의 나머지 내용들은 얼핏 보면 욥의 세 친구들의 논리와 비슷해 보입니다. 예를 들면 욥은 사악한 자들과 한 통속이 되었다고 비난을 받고 있으며, 그가 회개하지 않으면 곧 따를 진노를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를 당합니다(욥 36:17-18). “그러나 그대가 사악한 자가 받을 심판을 이루었으니 판단의 공의와 정의가 그대를 붙잡는도다. 진노가 임하였으니 그대는 주의하여 그분께서 그대를 쳐서 제거하지 아니하시도록 하라. 그때에는 큰 대속물도 그대를 건지지 못하리라.”(욥 36:17-18)

욥 36:5-33 “보라, 하나님은 강력하시고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권능과 지혜가 강력하사 사악한 자들의 생명을 보존하지 아니하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정당한 것을 주시며 자신의 눈을 의로운 자들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왕들과 함께 왕좌에 있게 하시는데도다. 참으로 그분께서 그들을 영원토록 굳게 세우시니 그들이 높여졌도다. 혹시라도 그들이 족쇄에 매이고 고난의 줄에 얹혔으면 그때에 그분께서 그들의 행위와 그들이 지나쳐서 범한 범법들을 그들에게 보여 주시고 또 그들의 귀를 열어 훈계하시며 명령하사 그들이 불법에서 돌아오게 하시나니 만일 그들이 순종하고 그분을 섬기면 형통한 가운데 자기의 날들을 보내며 즐거운 가운데 자기의 해들을 보낼 것이로되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고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오직 마음에서 위선을 행하는 자들은 진노를 무더기같이 쌓아 올리며 그분께서 자기들을 결박하실지라도 부르짖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젊어서 죽으며 그들의 생명은 부정한 자들 가운데 있도다. 그분께서는 가난한 자를 그의 고난 중에서 건지시며 또 학대당할 때에 그들의 귀를 여시나니 바로 그와 같

이 그분께서 그대를 곤경 속에서 이끌어 내사 곤경이 없는 넓은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그대의 상에 차려질 것이 기름진 것으로 가득하리라. 그러나 그대가 사악한 자가 받을 심판을 이루었으니 판단의 공의와 정의가 그대를 붙잡는도다. 진노가 임하였으니 그대는 주의하여 그분께서 그대를 쳐서 제거하지 아니하시도록 하라. 그때에는 큰 대속물도 그대를 건지지 못하리라. 그분께서 그대의 재물을 귀히 여기시겠느냐? 아니라. 금도 아니요, 기력의 모든 힘도 아니라. 그대는 밤 곧 백성들이 자기 처소에서 끊어지는 때를 사모하지 말라. 그대는 조심하여 불법에 관심을 두지 말라. 그대가 고난보다도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보라, 하나님은 자신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높이 계시나니 누가 그분같이 가르치겠느냐? 누가 그분을 위하여 그분의 길을 명하였느냐? 또는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법을 행하셨나이다, 할 수 있으랴? 그대는 기억하여 그분께서 하신 일 곧 사람들이 주목하는 일을 높일지어다. 사람마다 그것을 보며 사람이 먼 곳에서도 그것을 보리로다. 보라, 하나님은 위대하시므로 우리가 그분을 알지 못하며 그분의 햇수를 헤아릴 수도 없느니라. 그분께서 물방울들을 작게 만드시매 그것들이 그것들의 수증기대로 비를 쏟아니 구름들이 그것들을 떨어뜨리고 사람 위에 풍성히 내려 주느니라. 또한 그분께서 구름을 펴신 것이나 자신의 성막에서 요란한 소리를 내시는 것을 누가 능히 깨달을 수 있으랴? 보라, 그분께서 그것 위에 자신의 빛을 펼치시고 바다의 밑바닥을 덮으시나니 그것들로 그분께서 백성들을 심판하시며 먹을 것을 풍성히 주시느니라. 그분께서 구름들로 빛을 가리시며 중간에 있는 구름으로 그것이 빛을 내지 못하게 명령하시나니 그것의 요란한 소리가 그것에 관하여 보여 주며 가축들도 수증기에 관하여 알려 주느니라.”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의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직접 말씀하실 때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요약하는 것이 욥 37:23-24입니다. “누가 그분을 위하여

그분의 길을 명하였느냐? 또는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법을 행하셨나이다, 할 수 있으랴? 그대는 기억하여 그분께서 하신 일 곧 사람들이 주목하는 일을 높일지이다.”

엘리후가 욥의 세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욥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엘리후는 욥이 믿음에 있어서 파선했으며 친구들의 입을 막음으로써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욥은 그 어떤 것도 맹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욥은 자신이 알고 있는 것과 실제로 목격하고 있는 것이 모순되지 않는 것만 받아들이겠다고 주장합니다. 문제는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와 인간의 지혜를 비교할 때 하나님의 어리석음도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는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지혜로 예수님을 바라보면 ‘어떻게 저런 분이 하나님일 수 있는가?’ 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너는 신성모독자일 뿐, 전혀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지 않다.’ 고 평가한 것입니다. 아기 예수가 누구이신지 제대로 알아본 사람은 아브라함의 후손들 중 안나와 시므온 단 두 명뿐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며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아이가 여호와라는 사실을 눈치 챌 유일한 사람들이 바로 이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들이 붙들고 있었던 권위, 상징, 신념 등으로 인해 눈이 멀어있었기 때문에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그분이 나타났을 때,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교파 사람들을 보면 이와 똑같습니다. 침례교 사람들은 침례라는 상징 때문에 진리에 눈이 멀었습니다. 침례가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침례에 관한 진리는 그저 침례를 주는 방법, 침례를 집행하는 자의 조건이 아니라 침례를 받는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실제로 드러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래의 침례의 의미입니다.

주의 만찬 또한 만찬을 시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만찬의 의미를 희석시키는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상징하는 실재를 상징으로 대체한다 한들 예수 그리스도 몸 안에는 분열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욥기라는 책 전체는 욥이 발언한 것을 제외하면 모두 사탄의 도전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당신께 이렇게 도전을 하고 싶습니다. 어떤 인간이든 당신이 단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단지 그 이유만으로 당신을 사랑하는 인간은 없습니다. 뭔가 이득이 되고, 이유가 있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당신께서는 욥이 완전하다고 평가하셨지만, 그에게 주신 복들을 다 거두어 보십시오. 축복들을 모두 파괴시켜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을 면전에서 저주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주장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나타나셔도 안되고 욥을 도와주셔도 안됩니다. 그것이 내기의 조건의 일부입니다. 욥은 이와 같이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자신의 혼을 두고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알지 못했습니다.

이 욥기서에 들어있는 문제는 이 세상 전체의 문제를 대표하여 보여줍니다. 욥기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문제는 인간에게는 반드시 구속이 필요하며, 인간의 경험 속에서 도저히 설명이 되지 않는 것들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제27장

욥기37장

“토네이도 한가운데의 인간”

엘리후의 마지막 발언입니다. 엘리후는 이장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요약하며 그분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연에서 어떤 방식으로 일하시는지 알고 있는 것들을 욥에게 말하며 그분을 옹호하려고 합니다.

욥 37:1-5 “이 일로 인하여 내 심장도 떨리고 제 자리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분의 요란한 음성 곧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주의 깊게 들으라. 그분께서 그 소리를 온 하늘 아래에 이르게 하시며 자신의 번개를 땅 끝까지 이르게 하시느니라. 번개가 있는 뒤에 한 음성이 우렁차게 울리나니 곧 그분께서 자신의 뛰어난 음성으로 천둥소리를 내시는 것이라. 그분의 음성이 들릴 때에 그분께서 그것들을 멈추게 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음성으로 놀랍게 천둥소리를 내시며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큰일들을 행하시

나니”

천둥소리에 놀라 침상에서 떨어져 보지 않고서는 두려움을 경험했다고 말하기 힘들 겁니다. 백만 볼트가 넘는 번개가 집 근처에 내리쳐서 심장이 터져 나올 것 같은 두려움이 무엇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번개와 천둥은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권능을 나타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존중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파멸을 맞게 되기 때문이죠. 그것이 두려워 숨어버립니다. 함부로 도전했다가는 죽습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알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인간을 괴롭히는 겨울의 손

욥 37:6-10 “그분께서 눈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땅 위에 있으라, 하시며 자신의 힘에서 나오는 적은 비와 큰 비에게도 그와 같이 하시느니라. 그분께서는 모든 사람의 손을 봉하사 모든 사람이 자신의 일을 알게 하시느니라. 그 때에 짐승들은 굴에 들어가 자기 처소에 머물며 남쪽에서는 회오리바람이 오고 북쪽에서는 추위가 오며 하나님의 숨에 의해 서리가 내리고 물들의 너비가 줄어드느니라.”

인간은 계획을 세우지만 하나님께서는 목적을 세우십니다. “제비는 겹친 옷자락 속에서 사람이 뱉으나 그것의 모든 배분은 주께서 하시느니라.”(잠 16:33) 시애틀 지역은 어느 지점에서 보아도 눈 덮인 산들이 보입니다. 서쪽으로는 아주 장엄한 Olympic Mt(올림픽 산)이 보이고 동쪽으로는 아름다운 Cascade(폭포)가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악지대에 내리는 눈은 지대가 낮은 지역에 굉장히 위협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눈에게 말씀하셔서 겨울에는 땅을 담요로 덮듯이 눈으로 덮이게 하십니다. 봄이 되어 가벼운 비가 내리면 그로 인해 땅에 빗물이 졸졸 흘러내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눈을 전부 다 멈추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엄청난 비를 보내 홍수를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겨울에 눈이 오고 큰 비가 내리면 인간과 짐승들의 행동이 제한됩니다. 사람의 손을 멈추시는 것이죠. 즉 그의 노동이 중단됩니다. 동물들은 겨울동안 동굴로 들어갑니다. 이처럼 인간을 축복하던 것들이 인간의 행동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폭풍우와 그 효과

욥 37:11-16 “또한 그분께서 물을 뿌리심으로 뽕뽕한 구름을 지치게 하시고 자신의 밝은 구름을 흠으시는도다. 구름이 그분의 계획대로 두루 돌아다니니 이것은 그분께서 땅에서 세상의 표면 위에 떠 있는 구름들에게 명령하시는 것을 그것들이 다 행하게 하려 함이라. 혹은 바로잡는 일을 위하여 혹은 자신의 땅을 위하여 혹은 공흠을 베풀기 위하여 그분께서 그것을 오게 하시느니라. 오 욥이여, 이것에 귀를 기울이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깊이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언제 그것들을 배치하시고 자신의 구름의 빛이 빛을 발하게 하셨는지 그대가 아느냐? 구름이 균형을 잡는 것과 지식에서 완전하신 그분의 놀라운 일들을 그대가 아느냐?”

하나님의 신성한 능력이 엘리후에 의해 높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부르시면 눈이 땅에 내립니다. 그리고 각 눈송이마다 서로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모습이 다 다른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께서 구름에게 명령을 내리시면 비가 내립니다. 때로는 인간을 바로잡기 위해 비를 내리게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공흠을 보여주시기 위해 눈이 내리기도 합니다. 이것은 노아의 홍수 때 타락했던 많은 사람들을 바로잡는 것으로 보여주셨습니다(열왕 18:44).

욥은 조용히 서서 하나님의 길들을 숙고하라는 충고를 듣습니다. 욥은 이 모든 것들 뒤에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신지 도저히 알 수 없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구름 뒤에 숨어있는 빛에 대해서 욥이 알고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자연에는 완전한 균형이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환경문제가 발생하는 이유가 인간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오묘한 균형을 깨뜨렸기 때문이라고 하는 주장이 있는데,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의 초점은 그것이 아닙니다. 욥에게 주어진 질문은 ‘이와 같은 완벽한 균형이 존재하는 이유와 방법에 대해 네가 알고 있느냐?’, 바로 이것입니다. 욥은 결코 알 수 없습니다. 또한 믿지 않는 환경론자들 역시 모릅니다. 여기에대한 유일한 답은 그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역주: 요즘에 와서야 밝혀진 것이지만, 태풍이 발생하지 않으면 바닷속의 더러운 오물들이 청소 되지 않습니다. 태풍으로 인해 정체된 바다 속에 산소가 공급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태풍이 재앙인 줄 알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수단 중 하나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번개가 치는 것도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과거 무지했던 때에는 아기가 태어나면 바로 맹장과 포경수술을 했는데 이제는 그것들이 몸에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지금은 하지 않습니다. 즉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욥에게도 마찬가지로 네가 뭔데 다 안다고 생각하느냐, 네가 이렇게 이유 없이 고난을 받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말씀이었습니다.)

결론

욥 37:17-24 “그분께서 남풍으로 땅을 고요하게 하실 때에 그대의 웃이 어

떨게 따뜻하게 되느냐? 그대가 그분과 더불어 단단하고 부어 만든 거울과 같은 하늘을 펼쳤느냐? 우리가 그분께 말씀드릴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이치가 어두워서 우리가 우리 말을 질서 있게 할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그분께 고할 수 있겠느냐? 만일 사람이 말을 할진대 반드시 삼켜지리라. 이제 사람들은 구름들 속에 있는 밝은 빛을 보지 못할지라도 바람이 지나가면서 그것들을 깨끗하게 씻느니라. 좋은 날씨가 북쪽에서 나오나니 하나님께서는 두려운 위엄이 있느니라. 전능자로 말하건대 우리가 그분을 찾아낼 수 없나니 그분께서는 권능과 판단의 공의와 풍성한 정의에서 뛰어나시므로 사람을 괴롭게 하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그분을 두려워하나니 그분께서는 마음이 지혜로운 어떤 자도 중히 여기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니라.”

엘리후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사람들에게 말하러 왔다고 합니다. 이것이 그의 의도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욥에게 욥이 답변할 수 없는 세 가지 질문을 추가로 묻습니다. 그 질문들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풍을 보내서 자신의 옷을 따뜻하게 하셨는데 어떻게 하셨는지 아는가?’, ‘하나님께서 하늘을 펼치실 때 당신은 어디에 있었는가?’, ‘당신은 지금 하나님을 가르치고자 하는가?’

물론 욥은 이와 같은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모두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습니다. 때로는 많은 구름으로 인해 하늘의 빛이 잠시 가려진 것 같지만, 바람이 불어 구름을 걷어내면 태양은 있던 자리에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따뜻함을 느끼고 밝은 빛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을 얻고 다시 소생합니다.

이는 인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무지는 그분의 역사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분의 길들이 숨겨져 있는데 인간이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분의 때에 구름이 걷힐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조금이

나마 볼 수 있게 되고 거기에서 소망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두려워하고 신뢰하도록 하여 자신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욥에게 주어진 충고는 그분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분을 볼 수 없고 만날 수 없을지라도 그분이 항상 거기에 계시니 신뢰하라는 겁니다.

제28장

욥기38장

“그때에 주께서 회오리바람 속에서 욥에게 응답하시더라”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자신을 계시하는 내용을 담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왜 침묵을 지키고 계셨는지 비로소 그 의미가 드러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기 전에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길을 알 수 없음을 지난 장을 통해 보았습니다.

이번 장과 다음 몇 장에서 우리는 속삭이심과 천둥의 차이를 대조해서 보게 됩니다. 욥은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했습니다. 만일 욥에게 겸손함이 부족했다는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시면 29장을 읽어보십시오. ‘나’라는 표현을 무려 50번 이상 사용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역주: 이 이야기는 로마서 7장에서도 나옵니다.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이 한 이야기에는 ‘나’ 라는 단어가 계속 등장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에 가면 주어가 ‘성령님’ 으로 바뀝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당하게 대우하시며 이유 없이 벌주고 계신다고 불평을 했었습니다. “그분께서는 폭풍으로 나를 꺾으시고 까닭 없이 내 상처를 늘리시며”(욥 9:17) 욥은 항의도 했고 불평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뵈게 된다면 자신의 주장을 펼치겠다고 했습니다. “오 어디에서 그분을 만날지 내가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그분의 자리이라도 간다면 좋으리라! 내가 그분 앞에서 내 사정을 정리하며 논증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욥 23:3-4)

드디어 하나님께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도덕적 통치에 있어 왜 지혜를 바르게 펼치시지 않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 때문에 욥은 호된 꾸지람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길들에 대해서 아는 것이 있으면 설명해 보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망치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했느냐, ~할 수 있겠느냐’ 라고 하시며 욥의 교만을 망치로 내리치고 계십니다. 다음 두 장에서 57개의 질문이 기관총 쏘듯이 연속적으로 쏟아집니다. 그래서 욥은 오리가 물속으로 처박듯이 숨으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내답게 허리를 동이고 당당히 나서라고 하십니다. 도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장들에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인간의 지혜보다 낫다는 의미를 제대로 알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는 그 어떤 인간도 답변할 수 없는 질문들만 있습니다. 이 질문들은 과학의 모든 분야를 다룹니다. 그래서 인간의 지혜는 완전히 바닥을 드러내어 죽음까지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과학은 더 나아가지 못하고 거기에서 멈춥니다.

전문적으로 얘기하자면, 과학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진리가 모두 연결

되어 있는 체계입니다. 따라서 기원에 대한 질문에는 답변을 할 수 없습니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현상만 설명할 뿐, 처음에 어떠했는지는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 누구도 나는 어떤 사실들 때문에 진화론을 믿는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우주상에는 진화의 사실이 단 한 가지도 없기 때문입니다. 진화가 사실로 입증된 적이 없습니다. 진화론에서 주장하는 것은 형질전환이라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에서 ‘각기 종류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의 종류가 다른 종류로 바뀔 수 없습니다. 즉 형질전환이 된 적이 없다는 뜻입니다. 과학이 진화라고 부르는 것은 단순히 전개, 혹은 발전에 불과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정신을 차리고 도전하라고 촉구하고 계십니다. “그때에 주께서 회오리바람 속에서 욥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지식이 없는 말들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이자는 누구냐?”(욥 38:1-2)

회오리바람은 하나님의 권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심판과 주권을 말합니다. 회오리바람은 미국에서 불고 있는 일종의 토네이도입니다. 이 바람은 성경에서 25번이나 언급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냅니다.

여기서 욥은 지혜의 지식 없이 말함으로써 하나님의 계획을 어둡게 만드는 자로 언급됩니다. 사실입니다. 욥은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대화에 대해 아는 바가 없었습니다. 비록 욥이 진실된 많은 것들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는 무지 가운데 말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욥은 자신이 한 불평이 정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자답게 허리를 동이고 이제 나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고 있었고 자연 만물에 대해서도 무지몽매했습니다. 꽃 한 송이가 왜 피는지도 모르는데

욥의 인생에서 하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어찌 알겠습니까?

1. 그는 지구의 기초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었습니다. “내가 땅의 기초들을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게 명철이 있거든 밝히 고하라. 누가 그것의 치수들을 정하였는지 네가 아느냐? 누가 그것 위에 줄을 팽팽히 쳤느냐? 그것의 기초들을 어디에 고정하였느냐? 혹은 그것의 모퉁잇돌을 누가 놓았느냐? 어느 때에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고 하나님의 모든 아들이 기뻐 소리를 질렀느냐?”(욥 38:4-7)

욥이 어떻게 이 질문들에 답을 하겠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땅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는 욥이 존재하지 않았죠. 처음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 시작에 대한 정보는 하나님께서 계시해주셔야만 알 수 있습니다.

땅은 정말 완벽하게 설계하신 분이 있음을 입증해줍니다. “(악장에게 준 다윗의 시)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고 궁창이 그분의 손으로 행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낮은 낮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보이니 그것들의 음성이 들리지 않은 말이나 언어가 없도다. 그것들의 줄이 온 땅에 두루 나갔고 그것들의 말들이 세상 끝까지 이르렀도다. 그분께서 해를 위하여 하늘들 안에 장막을 세우셨으므로 해는 자기 침소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경주하려는 힘센 자 같이 기뻐하는도다. 해가 하늘 끝에서부터 나아가며 그것의 순환 회로는 하늘 끝들에까지 이르나니 해의 열기에서 숨을 것이 없도다.”(시 19:1-6).

2. 욥은 바다의 경계에 대해 아는 것이 없습니다. “혹은 바다가 태에서 나오는 것 같이 터져 나왔을 때에 누가 문들로 그것을 막았느냐? 어느 때에 내가 구름으로 그것의 옷을 만들고 짙은 어둠으로 그것을 위해 포대기를 만들며 그것을 위해 내가 지정한 곳을 터지게 하고 빗장들과 문들을 세우며 이르

기를, 네가 여기까지만 오고 더 멀리는 가지 못하리니 너의 교만한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느냐?”(욥 38:8-11)

원창조된 창조물은 깊음 속에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아주 폭 잠겨버렸습니다(창1:2). 하나님께서 그 바다들을 가르시고 땅이 나타나게 하시기 전까지는 그것이 사망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탄생은 하나님의 창조의 태로부터 터져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창조물을 구름과 어둠이라는 포대기로 감쌌습니다. 그리고 쉼 곳을 지명하셨습니다. 창조물은 이제 거기에 머물러서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린아이 같은 이 우주에서 반역이 발견되었습니다. 교만해진 그 창조물은 자신의 파도들을 드높여 하나님께 도전하듯이 하늘까지 치솟아 올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빛장들과 문들을 세우며” 물들을 막아 “여기까지만 오고 더 멀리는 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일들을 욥이 알고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욥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3. 욥은 아침햇살에 대해서도 아는 것이 없습니다. “네 날이 시작된 이래로 네가 아침에게 명령한 적이 있으며 동트는 때로 하여금 제 처소를 알게 하여 땅의 끝들을 굳게 붙들게 하고 그곳에서 사악한 자를 흔들어 떠나게 한 적이 있느냐? 그것이 변하여 봉인하는 데 쓰는 진흙이 되었으며 그것들이 옷같이 서 있느니라. 사악한 자들에게는 그들을 비추던 빛이 차단되고 높이 든 팔이 꺾이리로다.”(욥 38:12-15)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네가 태양을 떠오르게 하였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욥이 명령하여 태양이 떠올랐습니까? 빛이 동쪽 하늘을 비추며 떠올라 인간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마치 진흙 위에 봉인처럼 땅 끝까지 그 흔적을 남기도록 한 자가 욥이었던 말입니까? 이 빛은 인간을 위해 길을 비춰줄

뿐만 아니라 악한 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목표를 이루지 못하고 흩어지도록 합니다. 나쁜 일은 주로 어두울 때 많이 저질러집니다. 따라서 빛은 그에게 떠오르라 명령하신 하나님이 인류에게 보내시는 공휼입니다.

4. 욥은 바다와 땅의 저 깊숙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네가 바다의 샘들 속으로 들어간 적이 있느냐? 혹은 네가 깊은 곳을 찾아 다니며 거닌 적이 있느냐? 사망의 문들이 네게 열린 적이 있느냐? 혹은 네가 사망의 그늘의 문들을 본 적이 있느냐? 네가 땅의 너비를 깨달아 안 적이 있느냐? 네가 그것을 모두 알거든 밝히 고할지니라. 빛이 거하는 길이 어디에 있느냐? 또 어둠으로 말하자면 그것의 거처가 어디기에 네가 그것을 데려다가 그것의 경계에 이르게 하며 또 그것의 집으로 가는 행로들을 알겠느냐? 네가 그때에 태어났기에 그것을 아느냐? 혹은 네 날수가 많기에 그것을 아느냐?” (욥 38:16-21)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욥은 평생에 어린이이 풀장 정도밖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만약 그가 바다 한 복판에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신 질문에는 한 마디도 답변할 수 없습니다. 21절을 보면 ‘네가 언제 태어나 그것을 알겠으며, 네가 나이가 몇 살이기에 그것을 알겠느냐’ 하시며 욥의 교만을 망치로 조금 세계 내려치는 모습이 나옵니다.

5. 욥은 구름들 속에 있는 샘들을 알지 못합니다. 욥 38:22-27 욥은 이제 점점 고개를 숙이기 시작합니다. 입은 완전히 다물어졌습니다. 욥은 지금까지 들은 질문에 하나도 답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무지함에 완전히 압도당했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들을 들으면서 점점 어둠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친구들과 논쟁할 때는 다 안다고 생각했었고, 아주 확신에 차있었습니다. 한 가지만큼은 자신이 있었습니다. ‘나는 의롭다, 그리고 하나님

의 심판은 불의하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내쳐치시는 말씀의 망치에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가 눈과 우박 속에 보물이 들어 있었는지 알고 있었겠습니까? (역주: 눈 1입방미터 속에 어떤 금속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과학자들이 밝혀낸 것을 보면 엄청납니다. 그것을 어떻게 추출해내느냐가 관건이겠지만요.) 다가오는 마지막 전쟁에서 이것들이 어떻게 사용될지 알고 있습니까? 빛이 어떻게 나누어지며 어떻게 뚫고 지나가는지 알고 있습니까? 비는 도대체 누가 내리는지, 이 소중한 보물이 하늘에서 떨어지도록 도대체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선택한 것이겠습니까? 만일 하나님이 인간이 없는, 짐승만 있는 들판에 비를 보내신다면, 인간이 그에 대해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 읊은 알 수 있다는 희망조차 가질 수 없을 것입니다.

6. 읊은 비와 서리, 번개의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 알지 못합니다. “비에게 아버지가 있느냐? 혹은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나왔느냐? 하늘의 흰 서리는 누가 생기게 하였느냐?”(욥 38:28-30)

하나님은 비를 만들고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저 들리는 대로 ‘어머니지구 사상’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존재는 없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물들의 신비에 대해 생각해보셨나요? 누가 만들었을까요? 도대체 어째서 지구의 2/3가 물로 덮여 있는 것입니까? 이 물들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네가 네 목소리를 높여서 구름들에게까지 이르게 하여 많은 물들이 너를 덮게 할 수 있느냐? 네가 번개들을 보내매 그들이 가서 네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할 수 있느냐? 누가 속 중심부에 지혜를 넣어 주었느냐? 혹은 누가 마음에게 명철을 주었느냐? 누가 지혜로 구름을 셀 수 있겠느냐? 혹은 누가 하늘의 부대들을 붙들어서 흙이 굳어지고 흙덩이들이 서로 단

단히 영길 때에 가만히 있게 할 수 있겠느냐? 네가 사자를 위해 먹이를 사냥 하겠느냐? 혹은 젊은 사자들의 식욕을 채워 주겠느냐? 그것들이 굴에서 웅크리고 숨는 곳에서 숨어 기다릴 때에 그리하겠느냐? 까마귀 새끼들이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 헤맬 때에 누가 까마귀를 위해 그것의 먹을 것을 마련해 주느냐?”(욥 38:34-41)

그리고 욥은 구름에게 자신의 목소리를 높여보라는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구름에게 명령하면 네게 응답하겠느냐? 할 수만 있다면 번개에게 명령을 내려 보거라.’ 오늘날도 이 순간에도 우리는 번개를 이해 못 합니다.

인간과 짐승을 누가 다르게 만들었을까요? 왜 인간에게는 지혜가 있을까요? 인간의 속중심에 지혜를 넣으신 분은 누구이실까요? 인간은 처음에 말을 타고 다니다가 사륜마차를 타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우주선까지 만들어 타고 다닙니다. 처음에는 동굴에 살았지만 이제는 마천루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신 비버라는 짐승은 여전히 자기가 살 댐을 만들고 참새는 여전히 자신의 둥지를 튼다. 짐승은 몇 천 년 동안 그대로인데, 인간은 지혜로 엄청난 발전을 하고 있으니 왜 그럴까요?

“누가 지혜로 구름을 셀 수 있겠느냐? 혹은 누가 하늘의 부대들을 붙들어서 흙이 굳어지고 흙덩이들이 서로 단단히 영길 때에 가만히 있게 할 수 있겠느냐?”(욥 38:37-38) 욥은 주어진 시간 내에 하늘에 있는 구름을 세어 비를 멈추게 하라는 요구를 받습니다. 욥이 얼마나 입을 다물고 조용히 있는지 시계 똑딱이는 소리가 저 화성에까지 들릴 정도입니다.

7. 욥은 사자와 까마귀에게 먹이를 줄 수 없습니다(욥 38:39-41). “네가 사자를 위해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혹은 젊은 사자들의 식욕을 채워 주겠느냐? 그것들이 굴에서 웅크리고 숨는 곳에서 숨어 기다릴 때에 그리하겠느냐?

까마귀 새끼들이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 헤맬 때에 누가 까마귀를 위해 그것의 먹을 것을 마련해 주느냐?”(욥 38:39-41) 욥은 사자 사냥을 나가서 사자에게 잡아먹힐지 사자를 잡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정도의 질문 앞에서 인간이 뭔가 자랑할 것이 있다며 입을 벌리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도전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이 질문하십니다. “누가 까마귀를 위해 그것의 먹을 것을 마련해 주느냐?” 이 질문들에 대해서 욥은 하나도 답변을 하지 못합니다.

즉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 욥이 전혀 아는 것이 없다는 것이 입증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신이 살고 있는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도 전혀 답변을 할 수 없는 정도의 수준이라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지에 대해 자신이 안다고 말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그럼에도 욥은 ‘하나님, 부당합니다. 왜 이렇게 나를 괴롭게 하십니까?’ 라는 말들을 지식 없이, 이치에 닿지 않는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일도 모르는 상황인데 보이지 않는 일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29장

욥기39장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제거하셨다”

하나님의 질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야수들에 대해서 질문하시는데 이는 욥이 얼마나 무지하고, 약하고, 실패했으며, 얼마나 의지를 해야 하는지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창조물들은 길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말도 안 돼, 우리 집 말, 개, 고양이, 찻소도 다 길들여서 가축으로 만들었는데!” 라고 하실 겁니다. 만약 당신이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10년 정도 그들을 야생에 풀어놔 보십시오. 그러면 그것들이 얼마나 잘 길들여지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은 야생이며, 길들여질 수 없습니다.

아담이 창조되었을 때, 땅을 다스리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만약 그가 창조주께 순종했다라면, 그는 그렇게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아담의 표상인

예수님께서 그분의 삶으로 보여주셨듯이 말입니다. 주님은 하나님께 순종한 죄 없는 남녀가 이를 왕국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셨던 목적을 분명히 보이셨습니다.

지금 현재의 상태로는 인간이 주변 환경과 자신의 운명을 다스릴 수 있다고 믿는 것은 그저 환상에 불과합니다. 별의별 기계를 만들고 관측을 해도 통제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서는 말씀으로 사나운 파도로 잠재우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죄가 들어오지 않았다면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시편 8편에도 나옵니다. 예수님은 질병과 사망, 무덤까지 꾸짖을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물위를 걸으셨고 바람에게 말씀으로 조용해질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아담이 박탈당한 권리를 주님을 실제로 행사하셨습니다.

욥은 자신도 반역을 했던 창조세계의 일부라는 사실을 깨달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욥의 본성마저도 길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역시도 야생적이고 하나님에게 적대적이며 타락한 창조물이라는 그 진리로부터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자신이 무지했음을 인정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욥 말고도 많은 창조물들이 있었습니다. 다음 구절들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만드신 창조물에게 어떻게 임재하시고 돌보고 계시는지에 대해 욥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음을 그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련의 질문들을 던져 무지몽매했던 욥의 자아가 드러나게 만듭니다.

야생염소에 대해 네가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이나?

욥 39:1-4 “바위의 들염소가 새끼 낳는 때를 네가 아느냐? 혹은 암사슴이

새끼 낳는 때를 네가 정할 수 있느냐? 그것들이 몇 달을 채워야 하는지 네가 셀 수 있느냐? 혹은 그것들이 새끼 낳는 때를 네가 아느냐? 그것들이 몸을 구부려 자기들의 새끼들을 낳고 자기들의 고생을 내던져 버리느니라. 그것들의 새끼들은 튼튼하여 곡식을 먹고 자라다가 나아가서는 그것들에게 되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욥은 역시나 이 질문들에 대해서도 아는 바가 없습니다. 욥은 그것들이 몇 달을 채워야 새끼를 낳는지 그의 달력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에 대해 다 알고 계십니다. 덧붙여서 야생염소는 인간의 지식이나 돌봄이 없어도 다 잘 자랍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창조물을 돌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가장 최상의 것인지도 아십니다. 욥은 이 진리에 눈이 감겨 있습니다. 알았던 적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전혀 알지 못합니다.

누가 야생말의 집을 들판에 정해주었는가?

이들 질문들은 앞선 질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가 인간들보다 훨씬 뛰어남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누가 야생 들나귀를 광야에 살게 했느냐고 질문하십니다. 그 질문의 핵심은 욥에게 그 장소를 알고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그 야생 들나귀는 먹이는 이도 돌보는 이도 없지만 잘 살아갑니다. 왜 들나귀의 집은 광야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런 환경에 두셨을까요? 들나귀는 사람을 향해 울부짖고 등에 탄자의 소리를 무시합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그를 길들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보아도 이 들나귀는 어리석은 짐승인데 죽지 않고 생존합니다. 심지어 그들은 사람보다 더 오래 전부터 있었습니다. 아무도 돌보는 자가 없는데 어

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숨은 뜻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돌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욥 39:5-8 “누가 들나귀를 내보내어 자유롭게 하였느냐? 혹은 누가 들나귀의 묶는 띠들을 풀어 주었느냐? 내가 광야를 그것의 집으로, 불모지를 그것의 거처로 삼았느니라. 들나귀는 도시의 군중들을 비웃으며 물이꾼의 외치는 소리도 무시하고 산등성이를 자기의 초장으로 삼아 모든 푸른 것을 찾느니라.”

네가 유니콘에게 안장을 엮을 수 있겠느냐?

유니콘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한 논쟁은 끝이 없습니다. 확실한 한 가지는 뿔이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뿔이 하나만 달린 창조물들은 드물고 그래서 강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티벳 지역에 뿔이 하나 달린 타킨(TAKIN)이라는 영양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뿔이 하나 달린 고래가 있는데 그것을 일각고래라 합니다. 뿔이 하나 달린 딱정벌레도 있고 새도 있고 식물들도 있고 나방들도 있습니다.

이 여섯 가지 질문들이 욥에게 주어진 이유는 욥에게는 한 동물조차도 길들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는 그 동물들에게 재갈을 물릴 수도 없고 그것으로부터 달아날 수도 없습니다. 왜 이런 짐승들이 왜 존재하며 무슨 쓸모가 있습니까? 도대체 왜 창조된 것일까요? 하나님은 질문만 하시고 답변은 해주시지 않습니다. 욥에게 말기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만드신 것은 분명한데 왜 만드셨을까요? (역주: 징그러운 쥐는 왜 만드신 걸까요? 우리가 볼 때에는 징그러운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왜 만드셨을까요? 모릅니다. 하지만 이유가 있습니다. 완전히 쓸모가 없는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담배를 보죠. 담배는 우

리가 보기에 유익한 것이 없어 보입니다. 이것은 들판의 들쥐의 개체 수를 조절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들쥐들이 담배를 먹고 그 독성으로 죽어 개체 수가 적절하게 조절되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발견하면 할수록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모든 것에 목적이 있으십니다.)

욥이 이와 같은 짐승도 다스릴 수 없다는 무능력은 그의 나약함을 보여줍니다. 왜 존재하는지 이유조차도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 완전히 무지함을 입증했습니다. 욥이 한 가지 의지할 것은 하나님은 자신의 창조물을 철저하게 완전하게 통제하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믿음입니다.

욥 39:9-12 “유니콘이 기꺼이 너를 섬기겠으며 혹은 네 여물통 곁에 머물겠느냐? 네가 능히 유니콘을 줄로 묶어 고랑을 갈게 하겠느냐? 혹은 그것이 너를 따라 골짜기에서 썰레를 끌겠느냐? 그것의 힘이 세다고 네가 그것을 신뢰하겠느냐? 혹은 네가 수고할 일을 그것에게 맡기겠느냐? 그것이 네 씨앗을 집으로 가져오며 네 곳간에 그것을 모아들이리라고 네가 믿겠느냐?”

타조는 왜 있을까?

다음 질문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작새의 아름다운 날개를 만드실 때, 그 못생긴 타조를 만드실 때 도대체 욥이 기여한 것이 무엇이라는 것입니다. 두 새들은 실제로는 땅에 거하고 있습니다. 새지만 공중을 날지 않죠. 물론 공작은 때로 나무 위에 올라가서 앉아있기도 하지만 이동하지 않고 떼를 지어 날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공작도 타조도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만드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타조는 새지만 날 수 없습니다. 자신의 동지를 숨길 수도 없습니다. 너무나 멍청해서 자기 발밑에 자기

가 낳은 알도 잊어버리고 다 짓밟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수고해봐야 헛수고만 하는 것이죠. 알을 낳느라고 수고는 했지만 소용이 없게 되어 버렸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타조에게서 지혜를 박탈시켰을까요? 그런데도 어떻게 생존할 수 있었을까요. 타조를 누가 돌볼까요? 타조에게는 그의 빠른 스피드가 교만입니다. 타조는 거의 시속 100km/h로 달립니다. 그래서 말과 말탄자를 휩 앞질러 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상식이 부족합니다.

욥을 시험하는 질문은 이렇습니다. “왜 이런 짐승들을 만들었는지 아는가? 도대체 이 타조라는 존재가 하나님이 온 우주를 다스리는 계획 속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지 아는가? 어떤 목적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타조에게서 지혜는 왜 뺏으셔서 멍청하게 하셨는지 아는가? 그 후손들은 짓밟혀서 파괴되는데 어떻게 많은 개체를 유지하며 생존할 수 있는 것인가? 누가 그들을 보호하고 먹이시는가?” 욥은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욥 39:13-18 “네가 공작에게 멋진 날개를 주었느냐? 혹은 타조에게 날개와 깃을 주었느냐? 타조는 자기 알들을 땅 속에 버려두어 흙 속에서 따뜻하게 하고 발이 그것들을 으깨거나 들짐승이 깨뜨릴 것도 잊어버리고 자기 새끼들을 무정하게 대하되 마치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자기 수고가 헛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그것에게서 지혜를 빼앗고 그것에게 명철을 나누어 주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타조가 몸을 높이 들 때에는 말과 그 위에 탄 자를 비웃느니라.”

왜 말들은 두려움이 없을까?

욥 39:19-25 “네가 말에게 힘을 주었느냐? 네가 그것의 목을 천둥으로 입혔느냐? 네가 그것으로 하여금 메뚜기처럼 무서워하게 할 수 있느냐? 그것의

콧구멍의 영광은 두려우니라. 그것이 골짜기에서 땅을 박차고 자기 힘을 기
 뻘하며 나아가서 군사들을 맞되 두려움을 조롱하고 놀라지 아니하며 칼 앞
 서도 돌아서지 아니하고 화살 통과 번쩍이는 창과 방패가 자기를 향하여 우
 르르 소리를 낼지라도 맹렬히 성을 내며 땅을 삼키고 그것이 나팔 소리인 줄
 을 믿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들 속에서도, 하하, 하고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
 으며 대장들의 호령 소리와 외치는 소리를 듣느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말의 특징을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셨네요. 사극을
 보면 화살이 빗발치듯 쏟아지는 전쟁터 속에서도 말은 이에 전혀 개의치
 않고 달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대해 말이 그대로 묘사되어 있
 습니다. 말은 참 이상하고도 아름다운 창조물입니다. 말은 메뚜기나 뱀을
 보면 깜짝 놀라 소리를 지르며 쫓아냅니다. 그런데 거친 전투장에서는 최
 대의 속도로 용맹하게 달려드니 참 희한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누가 이 동물을 만들었는지 묻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복잡하
 고 복잡한 동물을 만드셨는데 욥처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창
 조되었습니다. (역주: 성경에 보면 이렇게 엄청난 힘을 가진 말인데도 하나
 님께서는 말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영으로 된 말도 있습니다.
 엘리사가 눈이 열려 본 말이 바로 그것인데요. 이 말은 앞으로 우리가 타게
 될 말로, 예수님과 함께 타고 이 지상으로 내려오게 될 것입니다.) 이 말처
 럼 짐승에 불과한 존재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없는데도 전투에 용감하게
 달려든다면 욥은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목적을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전투를 직면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 수 있을 것입니
 다. 하나님에 대한 지혜를 모르는 말이 맹렬하게 전투에 임한다면, 욥은 그
 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하심을 알고 역시 전투에 용맹하게 임해야 할 것입
 니다.

매와 독수리에게 네가 날도록 가르쳤느냐

욥 39:26-30 “네 지혜로 말미암아 매가 날며 남쪽을 향하여 날개를 펴느냐? 네 명령에 따라 독수리가 날아오르고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느냐? 그것이 바위 곧 험준한 바위와 견고한 곳에 거하며 또 머물고 거기서 먹이를 찾으며 그것의 눈이 멀리 바라보고 그것의 새끼들도 피를 빠나니 죽임 당한 것들이 있는 곳에는 그것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역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인용하셨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지구를 대청소하는 요원으로 매와 독수리들이 동원될 것입니다. 온 땅에 있는 시체들을 말끔히 청소하는 도구로 독수리를 사용하실 겁니다. 동물의 왕국을 보면 썩은 시체들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도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매와 독수리에게 날 수 있는 능력을 준 이가 누구냐고 질문하십니다. 그들은 어떻게 욥과 달리 날 수 있는 것일까요? 그들은 날아야 하고 욥은 걸어야 합니다. 그들의 요새는 바위 위에 있고 눈은 날카롭습니다. 멀리서 먹이를 봅니다. 그리고 그 새끼들도 살해된 시체들의 피를 빨니다. 바로 이 구절과 아까 말들이 달려가는 그 내용들은 아마겟돈 전쟁과 무언가 연관되어 있습니다.

욥은 질문한 것들에 대해 아무것도 답변하지 못합니다. 이 야생동물들이 왜 만들어졌는지 모릅니다. 도대체 그들은 왜 그렇게 야만적이고 서로 협력을 하지 않고 사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들 모두를 어떻게 먹이고 돌보시는지 모릅니다. 이 창조세계는 욥에게 무언가를 가르쳐주어야만 합니다. 이 자연세계가 인간의 통제에서 벗어나 있고 길들일 수 없는 이유는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년왕국에서 다스릴 때까지는 이 창조세계는 결코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때 가서야 비로소 주님의 발 밑에 있게 될 것입니다. “이새의 즐기에서 한 막대기가 나며 그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자랄 것이요, 주의 영 곧 지혜와 명철의 영이요, 계략과 능력의 영이요, 지식과 주의 두려움의 영께서 그 위에 머무시며 그로 하여금 주를 두려워하는 가운데 속히 깨닫게 하시리니 그는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자기 귀에 들리는 대로 책망하지 아니하며 오직 가난한 자들을 위해 의로 재판하고 땅의 온유한 자를 위해 공평으로 꾸짖으며 자기 입의 막대기로 땅을 치고 자기 입술의 숨으로 사악한 자를 죽이며 의로 자기 허리의 띠를 삼고 신실함으로 자기 콩팔 주위의 띠를 삼으리라. 이리도 어린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염소 새끼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젊은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인도하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들이 함께 누우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으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놀며 젖 떼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로되 그것들이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상하게 하거나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물들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주를 아는 지식이 땅에 충만할 것이기 때문이니라. 그 날에 이새의 뿌리가 있어서 그것이 백성들의 기로 설 것이요, 이방인들이 그것을 찾으리니 그가 베푸는 안식이 영화로우리라. 그 날에 주께서 다시 자신의 손을 두 번째 세우사 자신의 백성 중의 남은 자들 곧 남게 될 자들을 되찾되 아시리아와 이집트와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의 섬들로부터 되찾으실 것이요, 또 그분께서 민족들을 위하여 기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의 사방에서부터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함께 모으시리라.”(사 11:1-12)

욥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는 아담이라는 종족에 속했습니다. 욥의 죄는 자기 의와 교만입니다.

욥은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의 제1순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자녀도 잃었고 건강도 잃었습니다. 친구들은 그를 버렸을 뿐 아니라 그를 잘못 대

변하고 오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여전히 의로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품에 기대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그로부터 다 제거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욥의 자존감을 다 벗겨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와 행사 및 목적에 대해서 욥은 전혀 아는 바가 없음을 다 드러내 보이고 계십니다. 이 모두가 그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속해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일련의 질문들을 던짐으로써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질문을 던지면서 욥의 무지와 나약함과 무능과 자기 교만과 자기 의를 다 드러내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욥에게는 계시되지 않았던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아들이신 그분이 자신을 드러내신 이후에, 즉 십자가 사건 이후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완전한 성경을 알고 있고 내주하시는 성령님도 계십니다. 욥은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대화는 아담과 그의 후손들에게 그대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대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전혀 깨닫지 못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과 사건의 원인은 성경이라는 완전한 계시의 조명하에 해석해야 합니다. (역주: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해석하려면, 모든 것을 제대로 판단하려면 고린도전서 3장에서 말씀하신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하고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드시고 만드신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왜 무의미한 것이 있는 것처럼 보이나요? 도대체 타조를 왜 만드셨을까요?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나귀는 왜 들판에 두셨던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산에 사는 새끼 염소들을 왜 다 돌보고 계시는 것일까요? 말과 독수리를 어떻게 완벽하게 설계하셨을까요?

여러분은 모르기 때문에 입에 손을 얹고 그것을 만드신 분의 답변을 기다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제30장

욥기40장

“남자처럼 네 허리를 동이라”

지난 장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나님의 섭리적인 통치에 관해서 알고 있는 바를 이야기해보라고 요구하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산에 있는 야생염소들이 언제 새끼를 낳는지 얘기해보라고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누가 야생 들나귀를 풀어놓았는지, 동물들을 누가 돌보고 있는지도 이야기해보라고 하셨습니다. 지혜가 없는 타조가 어떻게 생존하며 그런 타조를 왜 만드셨는지 아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또한 맹금류를 누가 만들었는지, 그들이 날도록 가르친 것이 누구인지 질문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욥이 대답하기를 꺼리는 질문들을 갑자기 던지셨는데 그 질문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번 장의 제1절에 나와 있습니다.

1. 하나님께서는 욥이 하나님과 다투려 하고 책망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 고소하십니다.

욥 40:1-2 “또 주께서 욥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전능자와 다투는 자가 그분을 가르치겠느냐? 하나님을 책망하는 자는 그것에 대답할지니라, 하시니라.”

욥은 지금 하나님과 다투는 자라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다투다는 뜻은 하나님과 신체적으로 싸운다는 뜻과 혹은 말싸움을 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욥은 다투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 법적인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불평들을 쏟아 놓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욥을 다루시는 그 문제에 대해 하나님과 다투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창조의 하나님 이시며, 모든 생명의 창조자요, 만물을 유지하시는 분을 감히 문제 삼을 수 있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벼룩보다도 더 무기력한 인간이라는 존재가 감히 하나님을 가르치려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롭게 모든 우주를 운영하고 계신 것에 가장 먼저 의문을 제기하며 하나님을 고소한 자가 있었는데 바로 이 자가 기름부음 받은 그룹이었던 자입니다. 그러니 이 질문은 사실 아침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그 자의 마음속에 싹 터 있었습니다. 이 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눈여겨 보다가 자신의 아름다움과 지위, 그리고 지혜를 하나님의 것들과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비교하는 행위야말로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비교하는 순간 하나님의 것이 탐이 났고, 이렇게 잉태된 탐심으로 결국은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창조물들의 1/3을 설득하여 반역에 가담토록 했습니다. 이들 천상에 있는 창조물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지혜와 의로우심에 의문을 제기했던 것입니다.

이 의문은 이브에게도 에덴 동산에서 반복되었고, 광야에서의 예수님께 반복되었으며 하늘에서 욥이 왜 하나님 앞에 신실한지 그 내적동기를 묻는 과정에서 반복된 적이 있습니다. 사탄이 의도했던 것은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입니다. 욥의 내적동기가 옳지 못하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순종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욥에게는 하나님은 우주를 운행하시는 그 일에 있어서 옳지 않으시다, 그러니 너같이 의로운 자에게 고통을 주시는 것이라며 하나님과 욥을 모두 속이는 것이 그의 의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와 선하심을 의심하는 자에게 다음과 같은 답변을 줍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결코 있을 수 없느니라. 그분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공흠을 베풀 자에게 공흠을 베풀고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시나니 그런즉 이와 같이 그것은 원하는 자에게서 나지도 아니하고 달리는 자에게서 나지도 아니하며 오직 공흠을 베푸시는 하나님에게서 나느니라. 성경 기록이 파라오에게 이르기를, 내가 바로 이 목적을 위해 너를 일으켰나니 이것은 내가 네 안에서 내 권능을 보이고 내 이름을 온 땅에 두루 밝히 알리려 함이니라, 하시나니 그런즉 그분께서 공흠을 베풀 자에게 공흠을 베풀시고 또 강박하게 할 자를 친히 강박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면 네가 내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그분께서 여전히 허물을 찾으시느냐? 누가 그분의 뜻을 거역하였느냐? 하리니 아니라, 오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하나님께 대꾸하느냐? 지어진 것이 자기를 지은 이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만들었소, 하겠느냐? 토기장이와 같은 덩어리의 진흙으로 한 그릇을 만들어 존귀에 이르게 하고 다른 하나를 만들어 수치에 이르게 할 권한이 없겠느냐? 만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진노를 보이고 자신의 권능을 알리기 위해 파멸시키기에 합당한 진노

의 그릇들에게 심히 오래 참으심으로 인내하시고 이로써 영광에 이르도록 자신이 미리 예비한 긍휼의 그릇들에게 자신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리려 하셨을 진대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들은 곧 우리니 즉 그분께서 유대인들 중에서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중에서도 부르신 자들이니라.”(롬 9:14-24)

2. 욥은 자신은 욥신에 불과할 뿐이요, 무지 가운데 말했음을 인정했습니다.

욥 40:3-5 “그때에 욥이 주께 응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한 자이오니 내가 주께 무엇을 대답하리이까? 내가 내 손으로 입을 막으리이다. 내가 한 번 말하였사오나 응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참으로 두 번 말하였사오나 더 계속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더라.”

욥은 하나님의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답변을 요구하십니다. 이미 욥에게 약 40여 개의 질문이 던져졌습니다. 그 중 단 한 가지도 답변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답변할 수 있거든 답을 해 보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욥은 자신이 성급하게 너무 무지한 가운데 말을 했다고 답하며 더 이상 입을 열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멈추실 생각이 없으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백만 하면 하나님께서 딱 움켜쥐고 계시다가 풀어줄 것처럼 생각합니다. “나는 다 고백했습니다. 뭘 더 원하시나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알겠다하시며 놓아주시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고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놓으신 교훈을 배웠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고백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이 다 끝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물론 고백이 출발점으로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나 그 고백은 진정으로 자신이 더럽고 가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진정한 고백이

나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욥은 지금 올바른 길로 들어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점에까지 다다르려면 아직도 한참 더 가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백만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로 교훈을 얻으려면 훈련이 더 필요합니다.

3. 하나님께서는 욥의 변명을 거부하시며 욥에게 지혜가 있거나 권능이 있다면 행사해보라고 하십니다.

욥 40:6-14 “그때에 주께서 회오리바람 속에서 욥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너는 남자답게 허리를 동이고 내가 네게 물을 터이니 내게 밝히고 할지니라. 네가 또한 내 판단의 공의를 무효로 만들려 하느냐? 네가 너를 의롭게 하려고 나를 정죄하려 하느냐? 네가 하나님같이 팔을 가지고 있느냐? 혹은 네가 그와 같이 음성으로 천둥소리를 낼 수 있느냐? 이제 네 자신을 위엄과 뛰어남으로 꾸미고 영광과 아름다움으로 단장할지니라. 너의 격한 분노를 내버리고 교만한 모든 자를 눈여겨보며 그를 낮추되 교만한 모든 자를 살피보고 그를 낮게 만들며 사악한 자들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그들을 다 같이 흙 속에 감추고 은밀한 가운데 그들의 얼굴을 싸맬지니라. 그리하면 나도 네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네게 시인하리라.”

(역주: 이 구절이 소위 말해 인간이 하나님께서 요구한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권능이 있다면 자신의 힘으로 구원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인정하겠다는 구절입니다. 이론적으로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의 뉘우침과 겸손함에 설득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겸손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 겸손함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게 됩니다. ‘나는 겸손한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생각할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서 자세나 표현, 심지어는 목소리조차 입으로는 잘못했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 듯한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

이 자만할 수 있다면 그가 바로 욥입니다. 그는 너무나 완벽한 삶을 살아서 사탄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그래서 욥기의 첫 문장은 ‘이런 자가 하나 살았더라.’고 시작합니다. 참으로 엄청난 존재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도 욥에게 너무도 깊게 감명을 받아서 욥의 그 성품에 대해 자신의 성품을 곁고 내기를 하실 정도였습니다. 욥에 대해 발언하시면서 만약 잘못되면 하나님의 성품에까지 해가 미칠 텐데 이를 감수하시면서까지 평가하신 것입니다. 욥은 이 땅에서 가장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과 비교하면 당연히 더럽고 부패했으며, 완성되지 못했고, 더러운 누더기를 입은 가증스러운 존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욥은 정죄 받지 않았으니까요. 잠시 동안 이 사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서는 회오리바람으로부터 욥에게 요구하십니다. 남자답게 서서 네가 하고자 하는 주장을 펴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이 하나님의 주장을 뒤로 하고 자신이 결론을 내리고 나서 자신의 의로움에 대해 주장하고자 하는지 묻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할 수만 있다면 손을 뻗어 천둥을 일으켜 보라. 네가 만약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무슨 메시지를 보낼 것이냐? 네가 원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그 천둥소리를 어떻게 알아듣도록 할 것이냐?”고 묻고 계십니다. (역주: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은 하늘에서 천둥소리를 듣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는 음성으로 알아들었습니다. 다른 이들은 모두 천둥소리로 들었는데 말이죠. 이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해석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욥에게 네가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고 묻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어떤 이에게 천둥소리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었을 수도 있는데 우리는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하

하나님께서 손을 펴서 세상들을 지으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펼치시니 이스라엘이 이집트로부터 구출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펼치시니 이집트가 멸망했습니다. “옴, 할 수만 있다면, 해 보거라.”

하나님께서 손을 펼치시면 이스라엘이 한 곳으로 모이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분께서 손을 펼치시면 아마겟돈 전쟁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내릴 것입니다. “옴, 이번엔 너의 차례구나. 너도 해 봐!”

“네가 주권을 가지고 있고, 내 왕국의 최상의 것이 무엇인지 안다면 왕복을 입고 교만한 자들에게 가서 너의 진노를 발산시켜보라.”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요구는 매우 아이러니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옴은 현재 별거벗은 채 도자기 조각 하나로 가려운 몸을 긁는 비참한 모습으로 쪼그려 앉아 있습니다. 이런 옴에게 왕복을 입고 교만한 자들에게 나아가 그의 진노를 일으키라니요. 옴의 몸은 40kg도 채 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온몸이 종기로 뒤덮여 있고 파리와 벌레들이 붙어 있으며 햇빛에 뼈쩍 말라버린, 마치 해골에 살가죽만 입혀놓은 듯한 앙상한 모습입니다.

그 외모가 어찌나 괴상망측한지 친구들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 숨결에서 얼마나 악취가 났는지 그의 부인은 곁에 있지 않고 떠났습니다. 옴의 머리는 뻑뻑 밀었고 몸은 온통 먼지와 재, 종기, 벌레들과 썩는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이 먼지만도 못한 존재에게 일어나서 왕복을 입고 온 우주 만물에게 명령을 내려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할 수 있다면 왕관을 찾아 머리에 쓰고 명령을 내려 보라고 하시지만 지금 옴의 상태로는 어렵도 없습니다. 왕관을 쓴다 한들 머리에 왕관이 올려져 있지도 못할 것이이니, 이는 옴의 머리도 종기로 살갓이 썩고 있어서 왕관이 땅에 떨어져 구를 것입

니다. 이러한 광경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하겠습니까. 앙상하게 뼈만 남은 몸에 왕복을 걸치고 있는 욕의 모습을 본다면 얼마나 비웃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그의 모습을 보고 그 권능 앞에 벌벌 떠는 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독자로서 이 책에서 교만이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합니다. ‘교만(pride)’이라는 명사는 욕기서에서 네 번 나오고 교만한 자들, 또는 ‘교만한’이라는 형용사로 다섯 번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특히 교만과 교만한 자들에 대한 언급이 매우 자주 나옵니다. 욕에게 그 교만한 자들을 굴복시킬 수 있다면 한 번 해보라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언급하셨던 동물들을 자세히 공부해보면 이들은 모두 교만과 연관이 깊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에 사는 야생 염소는 뿔을 쳐들고 자신이 최고인 양 돌아다닙니다. 광야에 있는 들나귀는 도시의 군중들을 비웃으며 물이꾼의 외치는 소리도 무시한다고 했죠. 그리고 타조는 자신의 빠른 속도를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전쟁에 나간 말들은 골짜기에서 앞발을 높이 쳐들고 달립니다. 그리고 독수리의 눈은 멀리에서도 먹이를 보고 번개같이 낚아채잡니다. 교만한 짐승들입니다. 이와 같이 무지몽매한 창조물이 교만하다면, 인간은 어떻게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이러한 교만을 꺾지 않고서는 그와 대화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욕이 짐승들의 교만과 다른 교만한 자의 그 교만을 정복하지 못한다면, 그리고 통제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교만을 다룰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교훈입니다. 인간의 마음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을 정복하시면 됩니다. 인간의 마음에 있는 교만을 하나님께서 낮추고 꺾어버리셔야 합니다.

일단 욥이 자신의 팔을 펼쳐서 교만한 자를 먼지 속에 내려놓아 그를 정복하게 되면 (그 먼지는 현재 우리가 욥을 발견하고 있는 그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고백하시게 됩니다. 욥이 그 정도의 권능이 있는 존재라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때까지는 하나님의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훈을 지속적으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뉘앙스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욥이 하나님만큼 권능이 있는 존재여서 교만한 자, 마귀를 굴복시킨다면 하나님과 같은 수준으로 인정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그 교만한 자가 바로 욥으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재속에서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욥의 교만을 다루실 수밖에 없습니다.

4. 이 땅에 있는 모든 교만은 교만한 짐승에게서 최고조에 이르고 하나님에 의해 발견되고 파괴당할 것입니다.

욥 40:15-24 “이제 내가 너를 만들 때에 함께 만든 베혜못을 보라. 그가 소처럼 풀을 먹느니라. 이제 보라, 그의 기력은 그의 허리에 있고 그의 힘은 그의 배의 배꼽에 있느니라. 그가 자기 꼬리를 백향목같이 움직이며 그의 고한의 힘줄은 서로 얹혀 있고 그의 뼈들은 강한 놋 덩이 같으며 그의 뼈들은 쇠막대기 같으니라. 그는 하나님의 길들 중에서 으뜸이거니와 그를 만든 이가 자신의 칼을 그에게 가까이 댈 수 있느니라. 들의 모든 짐승이 노는 산들은 확실히 그를 위하여 먹이를 내느니라. 그가 그늘진 나무 아래와 갈대밭의 숨는 곳과 늪 속에 누워 있나니 그늘진 나무들은 자기들의 그늘로 그를 덮고 시내의 버드나무들도 그를 감싸는도다. 보라, 그가 강을 마시되 서두르지 아니하니 그는 자기가 요르단을 자기 입으로 빨아들일 수 있다고 믿느니라. 그가 자기 눈으로 그것을 취하며 그의 코는 올라가미들을 꿰뚫는도다.”

(역주: 이 땅에서 가장 교만한 짐승이 바로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그 짐승, 적그리스도입니다. 그 짐승은 베헤못이라는 짐승으로 예표되고 있는데 그 자를 하나님께서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짐승은 하나님의 칼인 말씀으로 다가가기 전에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짐승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짐승들에 대해 언급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 짐승들은 하늘에도, 땅에도, 바다들에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짐승들은 사악한 자로 비유되거나 사악한 자가 짐승들로 비유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정체불명의 짐승은 ‘베헤못’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많은 짐승들의 합산입니다. (역주: 베헤못이라는 이름은 히브리말로 짐승들이라는 복수 명사입니다. 그래서 한 예가 베헤못이 다니엘서와 계시록에서 몸은 표범인데 배는 곰이고 입은 사자인 짐승이 적그리스도로 묘사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서로 다른 큰 짐승 넷이 그 바다에서 올라왔더라. 첫째 짐승은 사자와 같으며 독수리의 날개들을 가졌는데 내가 그것의 날개들이 뽑힐 때까지 바라 보니라. 또 그 짐승이 땅에서 들려 사람과 같이 두 발로 서게 되었으며 또 사람의 마음이 그 짐승에게 주어졌더라. 또, 보라, 다른 짐승 곧 둘째 짐승은 곰과 같은데 그 짐승이 한 쪽에서 몸을 일으켜 세웠으며 자기의 입에, 자기의 이빨 사이에 갈빗대 셋을 물었더라. 그들이 그 짐승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어 치우라, 하더라. 이 일 뒤에 내가 보니, 보라,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의 등에는 날짐승의 날개 넷이 있었고 또 그 짐승에게 머리 넷이 있었으며 통치 권세가 그 짐승에게 주어졌더라. 이 일 뒤에 내가 밤의 환상들 속에서 보는데, 보라, 넷째 짐승은 두렵고 무서우며 심히 강하고 또 큰 쇠 이빨을 가지고 있어서 삼키며 산산조각 내고 그 나머지를 자기 발로 짓밟았더라. 그 짐승은 그것 전에 있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열 뿔을 가졌더라. 내가 그 뿔들을 깊이 살펴보는데, 보라, 다른 작은 뿔이 그것들 가운데서 나오더니 처음의 뿔들 중의 셋이 그것 앞에서 뿌리째 뽑히더라. 또, 보라, 이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큰일들을 말하는 한 입이 있더라.”(단 7:3-8)

베헤못이란 복수단어는 짐승들과 가축, 모든 짐승들과 동물들의 집합입니다. 여러 짐승들을 합쳐서 하나로 묶은 것입니다.

이 짐승이 바로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그 짐승입니다. 그는 적그리스도요, 교만의 체현(體現)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짐승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그를 파멸시키실 겁니다(요 40:18).

하나님께서서는 욕을 훈련시키는 것이 아직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욕이 배워야 하는 교훈은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일은 그 어떤 일도 그에게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욕이 해야 할 책임이 무엇인가 하면, 자신을 낮추고 인내로 하여금 인내가 스스로 욕 안에서 완전히 성취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욕은 자신의 영을 부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려면 영이 부서져야 하는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셔야 합니다. “주께서는 상한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가까이 계시며 통회하는 영을 가진 자들을 구원하시는도다.”(시 34:18),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희생물은 상한 영이라. 오 하나님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시 51:17)

제31장

욥기41장

“그 큰 용 즉 저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세상을 속이는 자가
내쫓기더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계 12:9)

우리는 욥기 39장과 40장에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길들여지지 않은 자연을 나열하시면서 깊이 생각해보라고 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겔 28:17을 통해 교만한 마음이 사탄으로 하여금 처음 반역을 시도하도록 했음을 배웠습니다. “네 아름다움으로 인하여 네 마음이 높아졌으며 네 광채로 인하여 네가 네 지혜를 부패시켰은즉 내가 너를 땅에 던지고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이 너를 바라보게 하리라.”

그런데 이 교만이야말로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 깊게 뿌리박혀 있는, 치료할 수 없는 질병입니다. 모든 죄는 다 교만에 그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지르는 모든 죄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바로 내가 나를 통제하고자 할 때 일어납니다.

우리는 베헤못이라는 존재 안에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짐승들을 봅니다. 그는 교만이 육화된 자입니다. 교만이 육신의 몸을 입고 나타난 자입니다. 이 자의 이름들 중에 몇 개를 보면, 죄의 사람, 멸망의 사람, 그 사악한 자, 그 짐승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 짐승은 인간이면서 자신이 다스리는 정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아버지의 성육신이시며 육신을 입고 오신 존재이듯이 짐승도 사탄이 육신이 된 모습인 것입니다. 그는 사탄의 뜻을 이 땅에 성취하는 데에 온전히 자신을 헌신할 것입니다. 이것이 40장에 등장하는 베헤못의 모습입니다.

“내가 본 그 짐승은 … 용이 자기의 권능과 자기의 자리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계 13:2), “그들이 그 짐승에게 권능을 준 용에게 경배하고…”(계 13:4) 여기 두 구절은 베헤못의 힘의 원천과 리워야단이 누구인지를 설명해줍니다.

우리는 리워야단이 뱀이며 용이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 날에 주께서 자신의 매섭고 크고 강한 칼로 꿰뚫는 뱀 리워야단 곧 저 구부러진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사 27:1) 그는 용이며 뱀일 뿐만 아니라 머리를 여러 개 가지고 있습니다. “리워야단의 머리들을 산산조각 내시고 그를 광야에 거주하는 백성에게 먹을 것으로 주시며”(시 74:14)

계시록을 보면 이 용에 대해 12번이 언급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 우리는 그가 뱀이며 용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큰 용 즉 저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계 12:9) 또한 우리는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존재가 뱀, 용, 즉 마귀임을 발견합니다! 시74:14에서 주께서 리워야단의 머리들을 부수십니다. 계 12,13,17장에는 이 머리들이 7개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나타나니라. 보라, 일곱 머리와.. 큰 붉은 용이 있는데…”(계12:3), “내가 … 보니… 일곱 머리와… 한 짐승이…”(계 13:1)

즉 리워야단은 머리가 7개에 뿔이 10개인 존재입니다. “이 일 뒤에 내가… 보는데, … 넷째 짐승은 … 열 뿔을 가졌더라.”(단 7:7) 이 10개의 뿔은 10명의 왕을 상징합니다. “… 열 뿔은 열 왕인데…”(계 17:12) 이 10명의 왕들은 연합체를 이루고 있는 왕국의 왕들입니다. 그들의 왕국은 옛 로마제국이 점령하고 있던 지역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왕이 이 연합체에 나타나 10명의 왕 중에 3명의 왕을 정복하게 될 것입니다. “또 이 왕국에서 나온 열 뿔은 앞으로 일어날 열 왕이요, 그들 뒤에 다른 왕이 일어날 터인데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세 왕을 정복하리라.”(단 7:24) 이 “왕”은 “작은 뿔”이라고 불리며 적그리스도입니다. 베헤못인 그 적그리스도는 열 개의 왕국으로 연합되어 있는 그 연합체로부터 등장합니다.

리워야단은 다름아닌 마귀 그 자체로서 욥 41:1-11에서 이 자는 결코 길들일 수 없다는 사실을 보게됩니다. 욥은 허락만 된다면 한 순간에 자신을 파멸시킬 수도 있는 그러한 인물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선 장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길이 아니라면 마귀가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을 파괴시키고자 했음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을 죽이지는 말고 하나님이 허락하는 데까지만 손을 대라고 하셨습니다.

이 리워야단의 활동들을 전혀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드디어 욥이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리워야단에 대해 질문 하십니다. “네가 낚시바늘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혹은 네가 늘어뜨리는 줄로 그의 혀를 끌어낼 수 있겠느냐?”(욥 41:1) 하지만 그럴 수가 없지요. “네가 그의 코에 낚시 바늘을 걸 수 있겠느냐? 혹은 가시로 그의 턱을 켤 수 있겠느냐?”(욥

41:2) 여전히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가 네게 많은 간구를 하겠느냐? 그가 네게 부드러운 말들을 하겠느냐?”(욥 41:3)

마귀가 그럴 리가 없지요. 마귀는 한 번도 겸손한 모습을 보인 적이 없습니다. 그는 동산에서 이브에게 다가올 때에도 아주 거만했고,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도, 그분과 대화할 때에도, 욥에 대해 하나님과 논쟁할 때도 거만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욥에게 간청을 하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마귀는 겸손이 무엇인지 모르는 존재입니다.

“그가 너와 언약을 맺겠느냐? 네가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욥 41:4) 그렇습니다. 그 언약을 통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으면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과 언약을 체결하죠. 그것이 미래에 이스라엘과 그가 할 일입니다. “그가 많은 사람과 한 이레 동안 언약을 확정하리니…”(단 9:27) 그러나 마귀와 한 편이 되었을 때 겪을 결과는 항상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언약을 체결하고 이것을 평화조약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사망과 언약을 맺었고 지옥과 합의를 맺었은즉 넘치는 채찍이 지나갈지라도 우리에게 이르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으로 우리의 피난처를 삼았고 거짓된 것 밑에 우리를 숨겼노라, 하였도다.”(사 28:15) 그 언약은 무효가 될 것입니다(사 28:18).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를 전혀 다른 방식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사망과 맺은 너희의 언약이 무효가 되며 지옥과 맺은 너희의 합의가 서지 못하여 넘치는 채찍이 지나갈 때에 너희가 그것에 의해 짓밟히리라.”(사 28:18)

하나님께서 욥에게 네 집안에서 일하는 소녀들을 위해 마귀를 묶을 수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그리고 새처럼 가지고 놀 수 있느냐고 하십니다. 사탄을 묶는다는 얘기는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일부 은사주의자들이

“사탄아, 예수의 이름으로 너를 묶노라”고 외치는데 그것은 코미디에 불과합니다. 그런 자들은 멍청할 뿐 아니라 꿈을 꾸고 있는 자들입니다. 욥과 같은 인물도 마귀를 묶을 수 없었는데, 당신 같은 사람이 마귀를 묶는다니! 백만 년이 걸린다 해도 묶지 못합니다. 물론 나중에는 주님에 의해 그가 묶일 것입니다. 그 묶임은 1000년간 지속될 것입니다. **“마귀요 사탄인 그 용 곧 저 옛 뱀을 붙잡으니라. 그가 그를 붙잡아 천 년 동안 결박하여”**(계20:2)

하나님께서서는 욥에게 창이나 낚싯줄로 마귀를 붙잡거나 상해를 입힐 수 있는지 물어보십니다. **“네가 그의 가족을 쇠꼬챙이로 채울 수 있겠느냐? 혹은 그의 머리를 물고기 작살로 채울 수 있겠느냐?”**(욥 41:7) 그러나 마귀를 패배시키고자 하는 소망은 헛됩니다. 여러분은 이 장에 나와 있는 마귀에 대한 묘사를 잘 공부하고 나면 진짜 마귀를 만나는 순간 두려워서 죽게 됩니다. 그 누구도 사나운 마귀를 건드릴 만큼 사납지 못합니다. **“아무도 감히 그를 흥분시킬 만큼 사납지 아니하거든…”**(욥 41:10)

아담은 마귀 앞에 서 있을 수가 없어 넘어졌습니다. 노아도 마귀의 꼬임에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거짓말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윗 역시 마귀의 공격에 부서졌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사탄이 베드로를 밀을 체에 치듯 하지 않도록 기도하셔야만 했습니다. 오직 마귀 앞에서 당당히 서 있을 수 있던 분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창조물임에도 누구도 마귀 앞에 아무도 설 수 없다면, 도대체 누가 창조주 앞에 감히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감히 그를 흥분시킬 만큼 사납지 아니하거든 누가 능히 내 앞에 설 수 있겠느냐? 누가 나보다 앞섰기에 내가 그에게 갚아야 하느냐? 무엇이든지 온 하늘 아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니라.”**(욥 41:10-11)

하나님께서서는 욥에게 사탄의 갑옷의 다양한 부분들을 생각해보라고 하십니다. 욥 41:12-24 “내가 그의 지체들과 그의 능력과 그가 알맞게 균형 잡힌 것에 대하여 숨기지 아니하리라. 누가 그의 옷 겹질을 드러내겠느냐? 혹은 누가 자기의 두 겹 굴레를 가지고 그에게 갈 수 있겠느냐? 누가 그의 얼굴의 문들을 열 수 있겠느냐? 그의 이빨은 무섭게 빙 둘러 돌아 있다. 촘촘한 봉인처럼 서로 닫혀 있는 그의 비늘은 그의 자랑이로다. 비늘과 비늘이 너무 가까이 있어 그 사이에 공기도 들어갈 수 없으며 그것들이 서로 연결되어 붙어 있으니 나눌 수도 없다. 그가 재채기를 한즉 빛이 빛나고 그의 눈은 아침의 눈꺼풀 같으며 그의 입에서는 타는 등불들이 나오고 불꽃들이 튀어나오며 그의 콧구멍에서는 끓는 솔이나 가마솥에서 나오는 것 같이 연기가 나오는데도다. 그의 숨은 솟을 피우고 그의 입에서는 불꽃이 나오며 그의 목에는 힘이 머물러 있고 그 앞에서는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며 그의 살 조각들은 서로 연결되고 자기를 속에서 단단하여 움직이지 아니하며 그의 심장은 돌처럼 단단하고 참으로 맷돌의 아래 판같이 단단하다.” 묘사된 내용을 읽어보면 사탄은 파멸될 수 없는 엄청난 존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구절들에는 사탄의 엄청난 힘에 대해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욥 41:25-34 “그가 스스로 일어설 때에는 강력한 자들이 무서워하며 처부숨으로 인하여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도다. 그에게 달려드는 자의 칼도 건디지 못하며 창이나 작은 창이나 사슬갑옷도 건디지 못하는도다. 그는 쇠를 지푸라기같이, 낫을 썩은 나무같이 여기나니 화살이라도 그를 도망하게 할 수 없고 무릿매의 돌도 그에게는 지푸라기가 되는도다. 그가 작은 창도 지푸라기같이 여기나니 그가 창을 흔드는 것도 비웃는도다. 그의 아래쪽에는 날카로운 돌들이 있나니 그가 진흙 위에 뽀족한 것들을 퍼뜨리고 깊음을 솔이 끓는 것 같이 끓게 하며 바다를 향유 단지같이 만드는데도다. 그가 자기 뒤에 길을 만들어

빛나게 하므로 사람이 깊음을 백발 같다고 생각하리라. 땅 위에는 것처럼 생긴 것이 없으니 그는 두려움 없는 존재로 만들어졌느니라. 그는 모든 높은 것을 바라보는 자요, 모든 교만한 자녀들을 다스리는 왕이니라, 하시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리위야단이 과연 사탄인지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34절을 보면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모든 교만한 자들의 왕입니다. “말하여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이집트 왕 파라오야,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네 강들 한가운데 누워 있는 큰 용이라. 네가 말하기를, 내 강은 내 것이요, 내가 나를 위하여 그것을 만들었노라, 하였도다.”(겔 29:3)

짐승을 따르는 자들은 다 그의 자녀들입니다. 그들의 울부짖음에 귀를 기울여보시고 짐승을 찬양하는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그들이 그 짐승에게 권능을 준 용에게 경배하고 또 그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그와 전쟁을 하겠느냐? 하더라.”(계 13:4). 이들을 성경에 서는 교만의 자녀들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구원자인 마귀를 믿습니다. 이들은 그 ‘세계지도자’가 결국은 이 땅에 아주 의로운 정부를 수립하여 평강과 번영이 지배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는 말도 안 되는 환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욥의 교만은 욥에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욥은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욥에 대해 언급된 내용은 과장된 것이 전혀 없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지요. 그러나 욥은 더 개선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욥을 향해 이와 같은 뜻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그를 더 개선시키는 것인데 그것은 여러분과 저처럼 욥도 겸손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욥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보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제대로 평가할 수 없었습니다.

다. 그는 하나님과 자기 자신을 비교해서 보아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친구들이나 이웃들과 비교하면 욥은 엄청난 사람이지만, 하나님과 비교하면 정말 낮은 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제32장

욥기42장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약 5:11)**

욥과 하나님의 마지막 대화는 단 여섯 구절에 불과합니다. 욥기 전체에 걸쳐서 욥은 대변인 역할을 했습니다. 밴드에서 보컬이 주 역할을 하듯 말이죠. 그러다가 마지막에 오니 입을 다물어 버렸습니다. 심지어는 그의 비판자들인 친구들도 욥에게 너무 허풍이 많다고 지적까지 했는데, 욥은 자기 자신에 대해 깨닫고 난 뒤에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욥과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베헤못과 리워야단같은 창조물을 만드셨다는 것과 그것 역시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데 쓰이도록 사용하셨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주께서는 자신을 위하여 모든 것을 만드셨나니 참으로 사악한 자도 악

한 날을 위하여 만드셨느니라.”(잠 16:4)

(역주: 사무엘 김이라는 분은 욥기에 관해 30페이지 정도 분량의 설교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만 사탄을 새처럼 가지고 놀 수 있다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이 세상의 모든 영역을 다 통제하십니다. 모든 것에는 다 목적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자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 지음 받았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다 그분이 하시는 일임을 보았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결코 있을 수 없느니라. 그분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고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시나니 그런즉 이와 같이 그것은 원하는 자에게서 나지도 아니하고 달리는 자에게서 나지도 아니하며 오직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에게서 나느니라. 성경 기록이 파라오에게 이르기를, 내가 바로 이 목적을 위해 너를 일으켰나니 이것은 내가 네 안에서 내 권능을 보이고 내 이름을 온 땅에 두루 밝히 알리려 함이니라, 하시나니 그런즉 그분께서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또 강박하게 할 자를 친히 강박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면 네가 내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그분께서 여전히 허물을 찾으시느냐? 누가 그분의 뜻을 거역하였느냐? 하리니 아니라, 오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하나님께 대꾸하느냐? 지어진 것이 자기를 지은 이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만들었소, 하겠느냐? 토기장이와 같은 덩어리의 진흙으로 한 그릇을 만들어 존귀에 이르게 하고 다른 하나를 만들어 수치에 이르게 할 권한이 없겠느냐?”(롬 9:14-21)

욥이 하나님의 지식과 권능에 제한이 없음을 고백하다

욥 42:1-4 “그때에 욥이 주께 응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사오며 어떤 생각도 주께 숨길 수 없음을 내가 아오니 지식도 없이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그런즉 내가 깨닫지 못한 것을 말하였으며 내게는 너무 놀라운 일들 곧 내가 알지 못한 일들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주께 간청하오니 들으소서. 내가 말하겠나이다.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내게 밝히 알려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심을 인정하는 믿는 자는 책임감을 갖게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회계보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 들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고 고백한다면, 그것은 그분의 눈앞에서 아무것도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우리의 영을 그분께 복종시켜야 함은 분명해집니다.

욥은 죄를 짓지 않았고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에서 가장 그를 괴롭히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욥의 세 친구가 주장한 그 교리도 욥에게는 결코 갈등을 일으킬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답변은 간단했습니다. 그들은 욥이 죄를 지었고, 위선자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문제는 욥은 의로운데 하나님이 더 의로우시니 그 차이가 있었던 것이겠죠. 그런데 욥에게 있어서는 자기가 죄인이며 위선자라는 답변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사실상 욥에게는 답이 없었습니다. 모르고 있었죠. 결국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내가 죄인이 아니라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만약 욥이 이와 같은 생각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면 아마도 마귀는 그런 생각을 하나님을 논리적으로 비난하는 데 요긴하게 썼을 것입니다.

“주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사오며 어떤 생각도 주께 숨길 수 없음을 내가 아오니”(욥 42:2) 이런 깨달음은 우리를 회개와 겸손으로 인도해줍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했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무슨 일이든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따라서 그분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전쟁을 멈추게도 하실 수 있고, 모든 폭풍과 지진도 다 막으실 수 있습니다. 모든 치명적인 질병도 고치실 수 있기 때문에 누구도 병에 걸리거나 죽을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다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신학적으로 아주 신비스러운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를 믿었지만 적용하는 것에 실패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생각과 모든 사건들을 다 알고 계신다고 믿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전쟁과 질병들과 범 죄에 대해서도 무지하지 않으시며 알고 계심을 의미합니다. 전쟁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속이는 자들에 대해서 모두 다 알고 계시며 가해자들과 희생자들의 생각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를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답변할 겁니다. “나는 모든 전쟁을 다 멈추게 하여 세계를 평화롭게 만들고 모든 사망과 질병을 다 제거할 것”이라고 말할 겁니다. 이것이 바로 나중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질문합니다. “왜 지금이 아닙니까? 왜 지금 바로 하시면 안 되는 겁니까?” 이것은 결국 하나님께서는 선하지 않다(무신론자) 혹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떨어진 자들은 모두 사악하다(욥의 친구들)는 생각으로 이어집니다. (역주: 하나님이 계시다면 세상을 이대로 내버려 둘 리 없다고 믿는 자들을 무신론자라고 하고, 하나님은 선하시며 벌을 받는 자들은 악한 자들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바로 욥의 세 친구들입니다. 성경을 통

해서 성령님의 조명을 받지 못하면 신학적인 신비를 알 수 없습니다. 프랑스에 보들레르라는 유명한 시인이 있습니다. 그가 쓴 시집의 이름이 ‘악의 꽃’입니다. 그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면 이 세상의 모든 악과 비참함을 내버려두신다.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선하신 분인가? 결국 하나님은 마귀, 곧 사악한 자다!” 지성인들의 마지막 결론은 대부분 이렇습니다. 인간의 의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해가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신비 속에는 다른 답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모든 생각을 다 알고 계시며 선한 분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권능을 신뢰합니다. 심지어는 마귀마저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에 순종합니다. 욥을 치되 죽이지는 말라하시면 죽이지 못합니다. 이는 욥기 첫 부분에 분명하게 나타나있고 계 20:2,10에서 완전히 시행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실 뿐 아니라 모든 사람의 생각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염두에 두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각 속에 모든 것이 들어있었습니다. “참새 두 마리가 일 앓사리온에 팔리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그것들 중의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마 10:29)

하나님께서서는 여러분이 처한 처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것을 알고 계시면서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택시기 때문에 유일한 결론은 그분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일은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며 그분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롬 8:18-39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이 현 시대의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족히 비교될 수 없도다. 창조물이 간절히 기대하며 기다리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

들이 나타나는 것이니라. 창조물이 헛된 것에 복종하게 된 것은 자진해서 된 것이 아니요, 소망 중에 바로 그것을 복종하게 하신 분으로 인한 것이니 이는 창조물 자신도 썩음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또 온 창조 세계가 지금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 중에 산고를 치르는 줄을 우리가 아나니 그들뿐 아니라 우리 자신 곧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한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 삼으심 즉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림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어찌하여 사람이 보는 것을 여전히 바라리요? 그러나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면 인내로 그것을 기다리느니라.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시기 때문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분께서는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는 자신이 예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자신이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자신이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무슨 일로 고소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시요, 참으로 다시 일어나신 분도 그리스도시니 그분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또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 놓으리요? 환난이나 곤경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별거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이것은 기록된바, 우리가 종일토록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겨졌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니라.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통해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이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 있을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 놓지 못하리라.”

욥의 완전한 회개!

욥 42:5-6 “내가 귀로 듣는 것을 통해 주께 대하여 들었사오나 이제는 내 눈으로 주를 뵈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내 자신을 몹시 싫어하고 티끌과 재 속에서 회개하나이다, 하니라.”

드디어 욥이 놀라우신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변화를 받아 완전한 회개에 이릅니다. 이것이 주의 결말입니다. 그분의 목적은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몹시 싫어하게 되는 그 지점으로 데려가는 것이었습니다. 욥은 지금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무지하고 어리석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고백이 아닙니다. 바로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한 목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매일 자기 죄를 자백할 수는 있습니다. 심지어는 매시간도 가능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는 모를 수 있습니다. 깨닫

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죄를 짓고 자백하고 용서받는 일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여러분이 이 지점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증거는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몹시 싫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역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기 자신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바로 그것입니다. 이 훈련을 시키기 위함입니다.)

옴은 고백해야 할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옴이 완전하고 곧바른 자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바 그 모습이 되기 위해서는 옴은 자기 자신에 대한 태도를, 견해를,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식을, 자기 자신이 의롭다는 느낌을, 자신이 옳바르다는 그 생각을 제거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드디어 여기에서 완성되고 있습니다. 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옴은 자신의 선함에 대한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자신의 권리, 선한 행동, 자신이 스스로 가치 있는 자라고 여겼던 모든 생각을 전부 바꾸었습니다. 그는 생각을 돌이켰습니다.

옴의 세 친구가 옴의 기도와 희생 제사를 통해서 책망을 받고 받아들여짐

옴의 세 친구는 옴을 평가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많이 다루면 다루실수록 그는 친구나 가족에 의해서는 별로 이해받지 못합니다. (역주: 우리 주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당신들이 킹 제임스 성경이 옳바른 성경이라고 믿는다면 옳바른 성경을 믿고 옳바른 진리를 알진대 왜 이렇게 적게 모이는가? 논리적으로 이렇게밖에 생각하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은 친구들로부터 점차 고립됩니다. 하나님께서 다루면 다루실수록 옴처럼 사람들로 부터 외면당합니다. 그는 옴처럼 왜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다루고 계신지 정말 알 수가 없었고, 항상

혼돈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욥의 경우에는 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동안 그가 정당하다는 것이 다행히 입증되었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회복이 되지 못하고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서야 보상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역주: 순교자 같은 경우가 그렇겠죠.) 욥의 세 친구는 헌물을 가져다 욥 앞에서 그것을 드리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들을 위해 욥이 기도해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욥이 제사장의 위치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죄를 지은 자들과 경배해야 하는 자들은 다 제사장에게 가고 제사장은 그들을 위해 대신 기도를 해줍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욥이 환난 기간의 유대민족을 예표하는 자라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이 환난이 끝날 때쯤이면 이스라엘은 민족들의 우두머리로 높여질 것이고 남아 있는 모든 민족들이 매년 이스라엘에 모여 희생물과 헌물을 바치고 율법을 받으러 오게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온 모든 민족들 중에서 남은 모든 자가 심지어 해마다 올라와 그 왕 곧 만군의 주께 경배하며 장막절을 지키리라. 땅의 모든 가족들 중에서 누구든지 그 왕 곧 만군의 주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려 하지 아니하면 바로 그들에게 그분께서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터인즉”(슥 14:16-17)

욥 42:7-9 “주께서 욥에게 이런 말씀들을 하신 뒤에 주께서 데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 진노가 너와 네 두 친구를 향해 타오르나니 너희가 내 종 욥과 같이 나에 대하여 옳은 것을 말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런즉 이제 수소 일곱 마리와 숫양 일곱 마리를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 헌물을 드리라. 그리하면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터인즉 내가 그로 인하여 받으리니 이것은 너희가 내 종 욥과 같이 나에 대하여 옳은 것을

말하지 아니한 대로 즉 너희의 어리석은 행위대로 내가 너희를 대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이에 데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주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니 주께서도 용을 받으셨으며”

용의 회복과 축복

주님은 용의 포로됨을 돌이키셨습니다. 그때에 용이 친구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의 친구들을 위해 기도했다는 기록을 성경에서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방민족을 조롱하고 미워했지,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준적이 없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큰 실수는 그들이 스스로 의롭다는 태도를 유지하였기에 다른 민족들의 원한을 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원래 이스라엘로 하여금 다른 민족들에게 빛과 증인의 역할을 담당하라고 세우신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세상의 빛의 역할에 실패한 것은 요나서에 이스라엘의 불순종의 모습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잘못된 모습은 주님의 제자들에게서도 분명히 나타납니다. 이들이 사복음서나 사도행전에서 주님의 요구와 정반대로 행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이야말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질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따르는 자들이 되었나니 그들이 유대인들로부터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지방 사람들로부터 비슷한 것들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들은 주 예수님과 자기들의 대언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핍박하였으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반대하는 자들이

되어 이방인들이 구원받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금하고 항상 자기 죄들을 가득 채웠나니 이로써 진노가 극도로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살전 2:14-16).

욥이 친구들을 위해 기도했을 때 비로소 욥의 포로됨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욥을 마귀가 더 이상 붙들어 둘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나중에 이와 같이 겸손해져서 왕국복음을 들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줄 때가 올 것입니다.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에서 그들이 받은 명령에 순종하여 그들의 포로됨이 돌이켜지고 놀라운 축복이 따를 것입니다.

욥 42:10-17 “욥이 자기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주께서 그의 포로 된 것을 돌이키시고 또 주께서 욥에게 그가 전에 소유했던 것의 두 배를 주시므로 그때에 그의 모든 형제와 그의 모든 자매와 전에 그를 알던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빵을 먹고 주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대하여 그를 위해 슬퍼하며 그를 위로하고 또 각 사람이 돈 한 개와 각 사람이 금귀고리 한 개를 그에게 주었더라. 이와 같이 주께서 욥의 마지막 끝을 그의 처음보다 더 복되게 하셨으니 그는 양 만 사천 마리와 낙타 육천 마리와 소 천 겨리와 암나귀 천 마리를 소유하였더라. 또 그가 아들 일곱과 딸 셋을 두었더라. 그가 첫째 딸의 이름은 여미마라 하였고 둘째 딸의 이름은 겿시라 하였으며 셋째 딸의 이름은 게렌합복이라 하였더라. 온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들을 찾을 수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서 상속 재산을 주었더라. 이 일 뒤에 욥이 백사십 년을 살며 자기 아들들과 손자들을 사 대까지 보았고 이렇게 욥이 늙고 날들이 차서 죽었더라.”

욥에게는 새로운 자녀들이 주어졌는데 아마 죽은 자녀들이 부활했을지

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딸들에게는 새로운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이 딸들은 그 땅에서 정말 아름다운 여인들이었습니다. 첫째 딸은 여미마였는데요. 그녀의 이름은 아름다움, 혹은 비둘기를 뜻합니다. 이것이야말로 회복된 민족 위에 성령님이 부어졌을 때를 언급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요엘의 예언이 성취되는 때이겠지요. 첫 번째 성령이 부어진 때는 다름 아닌 오순절이었습니다.

둘째 딸의 이름은 계피와 같은 일종의 향료의 이름인 굿시아이며 셋째는 게렌합북이라 불렸는데 뿔이라는 의미입니다. 정혼한 신부가 갖추고 있어야 할 성품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녀는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더럽혀지지 않았습니니다. 그녀의 사랑은 그녀의 정혼자를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방을 그 굿시아라고 하는 향료의 그윽한 향으로 장식했습니다. 그녀가 마시는 뿔은 그녀의 사랑하는 분께서 가득 채우실 포도즙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욥의 지상 생애 또한 완전을 보여줍니다. 70년의 두 배로 140년을 살았습니다. 이와 같이 “**욥이 늙고 나이 들어 날이 차서 죽었더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는 무엇을 배웠습니까? 가장 최고의 교훈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왕국에서 주권자이신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일들을 다 통치하시고 심지어는 마귀도 그분의 명령에 순종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계시하지 않으면 우리는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세계가 존재합니다.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엄청나게 중요한 드라마가 펼쳐졌습니다. 이 드라마에서 인간은 자신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창조되어 무대로 올려진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탄과 인간의 목적에 대해 무지하면 정말 엉터리 가정과 추측이 난무하게 됩니다. 이 온 우주에는 세 인격인 하나님과 마귀와 인간의

관계에서 모든 것이 좌지우지됩니다. 우리는 인간이 왜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아무런 쓸모가 없는 질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대로 믿는 자들은 사탄의 표적이 되며 주님을 위해 고난을 받도록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들의 고통은 개인적으로 죄를 지은 것과는 아무런 상관 없습니다. 죄로 인해 벌 받는 것이 아니며 고통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금을 제련하여 정금을 얻어내듯 제련의 고통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정화시키는 것입니다. 정화가 다 끝나면 그분의 자녀는 정금처럼 나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분께서 아시나니 그분께서 나를 단련하신 뒤에는 내가 금같이 나오리라.”(욥 23:10).

나의 동료, 믿는 친구들이여! 어쩌면 여러분도 여러분이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늘의 아버지께 선택받았는지 모릅니다. 당신의 그분을 향한 섬김을 사탄과 그의 천사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요. 마치 욥에 대한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오고 간 대화가 여러분에 대해서도 있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외롭게 지냈던 밤들, 고통 속에서 지냈던 날들, 때로는 혼란스러웠던 모든 것들이 여러분이 욥과 우리 주님과 하나 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욥의 인내를 보았습니다. 우리는 주의 결말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충만하십니다.

외로우십니까?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친구들과 가족이 여러분을 버렸습니까?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건강을 잃고 직장에서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셨습니까?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이 왜 그런 처지에 놓였는지도 무지 이해가 되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사랑하는 분을 잃거나 그분과 이혼하셨습니까?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동료와 믿는 자들에게 고소당하고 있습니까?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다른 이들이 당신의

모습과 처지를 조롱하고 있습니까?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이 그분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계십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사랑을 입증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단지 그것을 입증하는 것 이상의 것을 곧 보이실 것입니다. 그러니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도서출판 킹제임스

도서 목록

도서출판 킹제임스 도서 목록

	제 목	저 자	면 수	가 격
1	고통과 함께 하는 삶	Samuel C. Gipp	104	3500
2	성령의 열매	James W. Knox	368	12000
3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채 태어났다	L.E. 맥스웰	240	8000
4	성장을 위한 첫 걸음	Linton M. Smith	480	15000
5	일곱 교회	James W. Knox	44	1000
6	확실한 기초	James W. Knox	280	8000
7	성령 침례	James W. Knox	28	1000
8	성경적 종말론(별책부록 124면)	James W. Knox	220	8000
9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방언	James W. Knox	40	1000
10	신유와 적그리스도	James W. Knox	40	1000
11	성경 연구 방법	James W. Knox	224	8000
12	교회의 휴거	Linton M. Smith	48	1000
13	창세기 3장 성경 공부 개요	James W. Knox	64	1000
14	히브리서 11장 성경 공부 개요	James W. Knox	64	1000
15	우리는 왜 킹제임스성경을 믿는가	James W. Knox	28	1000
16	큰 흰 왕좌 심판	James W. Knox	28	1000
17	기독교의 본질	James W. Knox	96	1000
18	설교의 준비와 전달	James W. Knox	88	4000
19	청지기	James W. Knox	40	1000
20	하늘나라와 지옥	James W. Knox	224	8000
21	하나님의 뜻	James W. Knox	40	1000
22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James W. Knox	28	1000
23	킹제임스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어떻게 아는가	James L. Melton	28	1000
24	성경과 술	James W. Knox	28	1000
25	쉬운 복음 쉬운 전도	James W. Knox	144	5000
26	그리스도인의 옷차림	James W. Knox	64	1000

	제 목	저 자	면 수	가 격
27	거룩한 여인	James W. Knox	60	1000
28	다시 태어났습니까?	H.E.M.	32	1000
29	교회에 관한 교리	James W. Knox	448	15000
30	창세기 1:1-3강해(간극이론)	Jeffery Tibbetts	96	4000
31	하나님께서서는 무엇을 받기 원하시는가	이우진	40	1000
32	교회와 대환난	James W. Knox	108	4000
33	그리스도의 몸과 지역교회	James W. Knox	36	1000
34	세대주의 재고찰	James W. Knox	324	12000
35	구원의 영원한 보장	James W. Knox	128	5000
36	이교도들은 어떻게 되는가?	James W. Knox	56	1000
37	하나님의 말씀	James W. Knox	50	1000
38	가장 큰 명령	James W. Knox	42	1000
39	올라가는 기도 내려오는 응답	James W. Knox	180	7000
40	예수님의 죽음부터 부활까지의 활동들	James W. Knox	40	1000
41	성경이 말씀하시는 교회	Keith Piper	32	1000
42	신약 생활 원리	Norman Harrison	96	4000
43	합당한 헌신	James W. Knox	32	1000
44	The Essence of Christianity	James W. Knox	28	1000
45	예수님 나의 예수님	이우진	48	1000
46	영원을 준비하는 삶	이우진	28	1000
47	성경의 기초들	Brent Logan	100	4000
48	하나님인가 맘몬인가?	James W. Knox	28	1000
49	성경이 말씀하시는 보상	Keith Piper	28	1000
50	셋째 출생	James W. Knox	32	1000
51	성경에 기록된 과학적 사실들	Keith Piper	32	1000
52	결혼과 가정	James W. Knox	288	10000
53	구원의 조건	George Parson	110	4000

	제 목	저 자	면 수	가 격
54	예수님과 성경	James W. Knox	140	5000
55	두 본성	George Zeller	60	1000
56	짐승의 표는 무엇인가	Terry Watkins	60	1000
57	거리 설교의 유익	James W. Knox	52	1000
58	레위기 개요	James W. Knox	48	1000
59	히브리서 연구	M. R. De Haan	336	12000
60	천년왕국	Keith Piper	36	1000
61	창세기 주석	James W. Knox	536	18000
62	그분의 기쁨을 위하여	Samuel C. Gipp	168	6000
63	두 홍수(간극이론)	James W. Knox	32	1000
64	예수 및 여호와인가 아니면 '야훼'와 '야호' 커넥션인가?	Gail A. Riplinger	48	1000
65	하나님의 모든계획	김 영 균	272	8000
66	Dino 박사의 창세기 간극이론의 비판에 대한 전면 반박	Gaines Johnson	56	1000
67	간극이나 아니냐에 대한 창세기 1:1~2의 연구	David F. Reagan	48	1000
68	영원히 살려면	John Phillips	112	4000
69	그리스도인이여,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Timothy P. Rose	208	8000
70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김 영 균	64	-
71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James W. Knox	256	8000
72	간극은 있다.	Perry Demopoulos	416	15000

도서출판 킹제임스 문서사역 후원회 안내

진리침례교회는 구원의 복음과 진리의 지식을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 1999년에 부설출판사로 도서출판 킹제임스를 세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단행본 22종과 소책자 40종 등 62종의 도서를 총 13만 3천부 이상 제작하여 보급했습니다. 이미 기독교 서점에 많은 책들이 있는데도 우리가 문서사역을 하는 이유는 크게 보면 다음의 두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첫째, 킹제임스성경에 기반하고 킹제임스성경을 비평하지 않는 건전한 책을 보급하기 위해서입니다. 좋은 내용의 책들이 이미 많이 나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대부분의 경우 성경을 비판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이 지은 책들이 많이 있지만 성경에 전혀 오류가 없다는 사실을 전제로 해서 출간된 책들은 많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도서출판 킹제임스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전혀 오류가 없다는 전제 아래 지은 책들을 보급하려고 합니다.

둘째, 건전한 책을 저렴한 가격에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하기 위해서입니다. 전도용 소책자의 경우 시중에서 구매하려면 평균적으로 2000원~5000원 가량합니다. 우리가 제작하는 소책자의 평균 단가는 200원(소책자)~2000원(단행본) 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소책자의 경우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상으로 보급했으며 앞으로도 계속 무상으로 보급할 것입니다. 단행본의 경우도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작은 교회들에는 필요한 만큼 무료로 지원했으며, 성경 공부를 원하지만 도서 구매에 부담을 느끼는 개인들에게도 무료로 보급했습니다. 한 달에 만원을 후원하시면 50명에게 무료로 소책자를 나눠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출간한 도서의 절반 이상을 무료로 보급했습니다. 우리는 사업(business)이 아닌 사역(ministry)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익을 내는 것이 아니라 혼들이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까지 성장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는 아무런 수확을 보지 못할지라도 하늘에 올라가면 주님께 드릴 풍성한 수확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일에 동의하시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문서사역 후원회 회원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느니라.”(롬 10:17)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느니라.”(딤후 2:9)

2015년 12월
진리침례교회 담임목사
도서출판 킹제임스 대표
김 영 균 목사

문서사역 후원 방법

- ① 국민은행 812-21-0796-159 김영균(도서출판 킹제임스)
- ① 위 계좌로 매월 25일 자동이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은 거래하시는 은행의 인터넷 뱅킹이나 영업점에 방문하여 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회 홈페이지(www.ilovekjb.com)를 참고하시고 홈페이지에 있는 후원신청서를 작성하셔서 담당자에게 보내주시면 발행하는 신간 도서를 한 권씩 신청서에 있는 주소로 보내드립니다.

지은이 Dr. Ken Blue

(Mid-Western)침례 신학교 졸업

알칸사주에서 초기사역후 1969년부터

워싱턴주 린우드(Lynn wood)에서

Open Door Baptist Church 39년담임

<http://www.opendoorbaptist.com/>

저 서

- * The Book of Hebrews(주석서)
- * Revelation(주석서)
- * Galatians(주석서)
- * Standards and The Standard
- * Why Bible Believers Don't Speak in Tongues

- * 前 전 한국외국어대학교 통역대학원 강사
- * 前 단국대학교 서어서문학과 교수
- * 現 진리침례교회 담임 목사
- * 現 킹제임스성경신학원 원장
- * 現 도서출판 킹제임스 대표

역 서

- * 척 스미스 〈창세기〉, 〈출애굽기〉 / 도서출판 포도원
- * L. E. 맥스웰 〈우리는 십자가에 못박힌 채 태어났다〉 / 도서출판 킹제임스
- * 제임스 W. 닉스 〈성령의 열매〉, 〈성경적 종말론〉, 〈창세기 주석〉
/ 도서출판 킹제임스
- * 엘. 알 디한 “히브리서 연구” / 도서출판 킹제임스
- * 사무엘. 킵 “그분의 기쁨을 위하여” / 도서출판 킹제임스
- * 키스 파이퍼 〈천년왕국〉, 〈성경이 말씀하시는 교회〉,
〈성경이 말씀하시는 보상〉 / 도서출판 킹제임스
- * D. L. 무디 〈심음과 거둠의 법칙〉 / 라온누리

